

동반자

물론부에나벤투라와나는정식결혼을올리지않았다. 여러분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 동사무소에가서호적을바꾸는것, 그것은아나키스트들에게아무런의미가없다. 우리는파리에서만났다. 그때가아마 1927 년이었을것이다. 그는막 감옥에서풀려나왔다. 프랑스전국에서대대적인정치시위운동이있었다. 정부가 굴복했다. 소총병삼총사는 — 이별명은여론이지어준것이다 — 석방되었다. 두루티가출감한그날저녁에그는몇명의친구들을방문했다. 내가거기에있었다. 우리는서로를쳐다보았다. 우리는갑자기사랑하기시작했고, 그때부터우리의사랑은지속되었다.

에밀리엔느모린 (Emilienne Morin)

벨기에와룩셈부르크정부가그들의입국을거부했기때문에그들의동지들은 소련에다피난처를마련하려고했다. 그러나러시아정부가그들에게요구한조건 때문에그노력을좌절되고말았다. 그들에게이제남은방법이라고는변장을하고 파리로되돌아가는일밖에없었다. 몇명의동지들이그들을한달동안숨겨주었다. 그들은리옹에서겨우일자리를구했다. 반년이 지난후경찰이그들의신분을알게 되었다. 그들은재판을받았고추방명령을어긴죄로 6 개월의징역을선고받았다.

호세페이라츠 (José Peirats)

우리는리옹에서다시만나게되었다. 그재판으로이제두번째소송이시작된것이다. 경찰은부에나벤투라가여권없이리옹에서살고있다는사실을알게되었다. 나는아스카소의여자친구와함께형무소를찾아갔던걸로기억하고있다. 내가마음속으로만짐작하고있던형무소생활을직접눈으로확인할수있었다. 그후우리는다시헤어졌다. 왜냐하면그들이석방된후급행열차편으로벨기에로추방되었기때문이다. 물론그곳에서도경찰이끈질기게따라붙었고, 체류허가도나오지않았다. 그래서그들은잠시그곳에머물다가독일로갔다. 그때가언제였는지정확하게기억하지는못한다.

에밀리엔느모린

어느아나키스트의죽음

한스마그누스엔첸스베르거

1999 년

차례

프롤로그	
장례식	7
짧은해설 1	
집단적허구로서의이야기	13
빈나간아이들	
두가지모습을지닌도시	17
여동생에게서얻은정보	18
동창생	19
총파업	20
노동조합들	21
1 차망명	22
하얀카네이션을단데이비스	23
다이너마이트	24
짧은해설 2	
스페인아나키즘의뿌리	26
연대의식	
권총암살단의테러	34
연대의식의조직원 (1923~1926)	35
아스카소	36
호베르	37
학교설립자금	39
3 회검거작전	40
무기	41
어머니	43
짧은해설 3	
스페인의난국상황 (1917~1931)	46

정부의위기를구할수있는길은오로지이번결정을번복하는일이며, 오직의회만이정부의위기를해결할수있었다. 우리는긴급동의안을국민입법회의에상정할영향력있는의회를소집하려고했다. 나는국민입법회의에무기한출입권을발급받아거기에있는나의회의집무실을정돈하였다. 다섯명의의원들이이미긴급동의안을지지하고있었다. 그들로부터얻을수있는지지표는 2 백표였다. 그러나아직 50 표가부족했다. 나는나머지표를여당으로부터끌어내야했다. 세심한준비가필요했던것이다. 더욱이이런일에적합한사람은본래부터의회주의를반대한자들외에더기대할사람이없지않았던가!

그사이에프랑스전국은여전히아스카소, 두루티그리고호베르에관해서이야기하고있었다. 아르헨티나는이미피수감자들을인도하기위해전함을출항시켜대기하고있었다. 무장한순양함이대서양한가운데떠있었다. 그러나인도기한이만료되도록‘소총병삼총사’는여전히콩시에르제리형무소에수감되어있었다. 우리는법규를들이대면서당장그들을석방하라고요구했다. 물론우리는비웃음만샀다.

마침내의회청문회날이다가왔다. 실제로중요한것은정의였지만어떤의원들은포엥카레정권을실각시킬기회로삼으려고했다. 의회는루머와공론으로시끄러웠다. 그러나청문회가얼마나번거로운결과를가져올지잘알고있는포엥카레는정오후정직전에총복말뷔 (Malvy) 재무위원장을내게보냈다. 그가내게물었다.

“저, 레코인의원님께서는도대체무얼원하십니까? 의원님께서는이정부의실각을정말그렇게도원하십니까?”

“나는다른것에는아무관심도없소. 우리는다만한가지만을요구하고있소. 아스카소와두루티그리고호베르를석방하라는것뿐이오.”

“제가당장수상께다녀오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두시에다시이리로좀와주십시오. 제가그때의원님께수상의결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더이상표결에들어가지는않았다. 바르투와포엥카레가항복하겠다고전해왔다. 이날은 1927년7월로기록되어있다.

다음날우리는오르페브르 Orfèvre 선창가끼이있는콩시에르제리형무소정문에도착했다. 우리는기자들과사진사들에게둘러싸였다. 문이열렸다. 아스카소와두루티그리고호베르가거기에서있었다.

루이레코인 (Luis Lecoin)

반쯤마술사이고반쯤카푸친의수사修士와같이집요한레코인은그의기묘한전술로모든장애물을극복하였다. 1927년7월, 콩시에르제리의문이열렸던것이다. 나의협력자는피수감자들에게기쁜소식을가져다준최초의인물이었다.“한시간도채못되어당신은석방될것입니다. 앞으로무엇을할작정입니까?”두루티는잠시침묵을지킨뒤생각에잠긴채이렇게대답했다. “우리는계속운동을전개할것입니다…… 스페인에서.”

내무장관은 바쉬회장과 게르누 사무총장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을 직접 방문하려고 했다. 그는 세명의 스페인 사람들 중 유죄라는 사실은 추후도 의심 할 바가 못되며, 협회는 잘못된 정보에 귀 기울이지 말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나는 바쉬와 게르누의 연락을 받고 그들에게 갔다. 아직도 그들의 목소리가 귀에 쟁쟁하다. “레코인 의원님, 사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의 친구분들이 무죄가 아니라고 솔직히 시인하시지요! 만일 의원님께서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데가 있다면 생각이 드시면 인권협회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대여섯 개의 일간지 신문사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였다. 다른 잡지들도 우리 활동을 기사로 실었다. 망명자 보호 법변호위원회는 아스카소, 두루티, 호베르의 신병인도 문제를 정부가 연루되어 있는 정치적 사안으로 부각시켰다. 이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 그 세명의 아나키스트들은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그들은 프레스네스 Fresnes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들은 완전히 탈진한 상태였다. 바르투는 심문을 포기하고 법적 진단을 보장할 수밖에 없었다. 이 소식을 듣고 나는 프레스네스 병원으로 달려갔다. 형무소 소장과 그의 부하 직원들이 이 열로서 서나에게 인사했다. 내가 이런 도열을 받으며 형무소를 방문하게 된 것은 내일 생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나는 각자의 독방 침상 위에 누워 있던 그 세프로테스탄트들을 만났다. 그들은 나를 보고 매우 반가워했다.

그 후 그들은 정해진 재판관 앞에 섰다. 그러나 재판관은 법조문을 핑계로 신병요청이 받아들여질 것인지 여부에 관한 공식적인 질문만을 하도록 했다. 그는 네 명의 유능한 변호사들 (코르코, 게르누, 베르통, 토레스)의 변론을 무시한 채 공식적 질문만을 인정했다. 그것으로 내무장관은 승리한 기분이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경찰국장 대리가 피수 감자들의 신병을 인도 받기 위하여 이미 파리에 들어와 있었다. 그는 기분이 좋아 약손을 비비고 있었다.

소송에서 패한 듯했다. 그러나 나는 예전의 두 배로 뛰었다. 6 천명의 군중들이 시위를 벌이기 위해 불리에르 Bullier 체육관에 운집하였다. 팽르베와 에리오트 장관에게 협상 대표자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팽르베 장관이 허둥지둥 모습을 나타냈다. 그는 더듬거렸다. “물론 그렇지만…… 물론……” 사람들은 다른 부패한 각료들과 마찬 가지로그래도 그에게 기대를 걸었던 것이다. 차라리에리오트가 그 종종 나은 태도를 보였다. 그는 48 시간 안으로 이번 사건에 관한 가능한 모든 자료들을 가져오게하겠다고 했으며, 이 문제를 내각에서 거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다음에 심 때까지 범인의 신병인도 문제의 결정을 연기하겠다고 말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경찰국장 대리는 분통을 터뜨리면서 아르헨티나로 돌아갔다. 아르헨티나 신문은 일면기사로 이렇게 표제를 달았다. ‘프랑스 정부, 한강 단때문에 곤욕을 치른다!’

이 사건이 일찍이 여론화되었다면 아스카소와 두루티는 이미 오래 전에 석방되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정부는 스페인 왕실의 압력을 받고 있었다. 정부는 다시 한 번 타협하려 했고 결국 신병인도를 결정하였다.

망명	50
도피	50
순진한 시도	51
라틴아메리카의 모험	54
이상 理想의 도서관	56
국왕 암살 계획	56
재판	58
정치 투쟁	59
동반자	64
뜻밖의 외국 손님들	65
브뤼셀에서의 나날들	66
짧은 해설 4	68
스페인의 난국 상황 (1931~1936)	68
공화국	71
귀국	71
5 월 1 일	73
암울한 공화국	74
추방	76
소요	77
공장 활동	80
일상 생활	81
선거 보이콧	83
사라고사 봉기	84
새형 무소	86
인민 전선	87
선전 포고	89
승리	91
서곡	91
방어 위원회	93
사이렌	98
가두 투쟁	99
아스카소의 죽음	102
아나키	104

복수지배체제	110
권력의문제	110
대통령과의담판	111
협상	114
트로츠키파의판단	117
가만히앉아있지못하는사람	118
출정	121
선봉대	121
사라고사진군	122
한지방목사의일기	124
야전사령관없는전투	125
복수의천사	127
세명의기자	129
한전투지원병의일기	133
여러가지잡일	136
또다른면	137
기관총	140
원칙의문제	144
후방지역	148
새롭게변모한도시	148
탈취	151
모순	153
걷잡을수없는상황	155
FAI, 걷잡을수없는상황에개입하다	156
물자부족	159
권유	161
농민들	165
해방	165
집단화	167
마을이야기	171
마지막시도	174
아라곤지역방위고문단의선언	175
짧은해설 5	177
적에대하여	177

운명마저결정할수있는막강한권한을가지고있었다. 그들에대한항소의 가능성은희박했다. 오직프랑스정부만이경찰전권에대한이의를제기할수있었다. 그런데당시정권책임자는포엥카레 (Poincaré) 수상과바르투 (Barthou) 내무장관이었다. 그들은비굴한사람들이었다. 그래서그들은자극을받으면쉽게동요했다. 따라서우리는사회운동을벌여그들을불안하게만들작정이었다. 처음부터나는영향력있는인권협회가우리를지원하게할생각이었다. 조심스럽게활동하는그조직이하는일이란대개제 1 차세계대전희생자들의권익을보호하고, 좀지나치게행동한소수자유주의자들을옹호하는것이었지만, 그렇다고해서그들이위기에처한그아나키스트들을그냥못본체할수는없지않았겠는가? 그저무서운소문만떠돌았던, 소외받고있는그사람들을어떻게할것인가?

나는우선내가알고있던한고관부인을찾아갔다. 부인의이름은마담세베린느 (Séverine) 였다. 그녀는친절하게나를맞아주었다. “제가도울수있는일이무엇이지요, 레코인의원님?”문제가무엇인지나는몇마디로간략하게설명했다. 그녀는내가구명운동을펼치고있는동료들의무죄를증명할아무런증거도요구하지않았다.

“좋아요, 레코인의원님. 제가메나르도리앙 (Mesnard-Dorian) 부인에게보낼서찰을의원님께써드리지요. 부인은협회에영향력이있는분이랍니다. 또아주친절하시구요. 아마의원님도곧아시게될겁니다.”

메나르부인은레장드르거리에있는도시궁정에살고있었다. 그녀의응접실에는공화국의높은양반들이드나들었다. 그녀는당장빅토르바쉬 (Victor Basch) 협회회장에게전화를걸었다. 그래서다시나는그사람을찾아갔다. 그는나를특별히환영해주었다. 하지만그는“의원님의친구분들은죄가있습니다. 저는그사실을잘알고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있는우리협회대표자들이제게그렇게보고해왔습니다.”라고말했다.

나는그가내용이빈약하기그지없는서류뭉치에근거하여재판하는아주그릇된판사들보다더간단하게일을판단하는것같다고항변했다. 그때그는말꼬리를잡고이렇게말했다. “그아나키스트들이정부의최고법정에다시서게된다면그들을한번만나보고싶습니다그려!”

“아나키스트들의생각은회장님의기대와는전혀다를것입니다!”라고내가대꾸했다. 그는벌컥화를냈다. 나는그가소르본대학의교수였고, 몇해전에아나키즘에관한책을펴낸사실을잊고있었다.

나는그의화를누그러뜨릴말한마디하지않고그냥나와버렸다. 우리의계획이좌절되었음을확인했다. 우리는기만을당했던것이다. 그날저녁에서야비로소게르누 (Guernut) 라는인권협회사무총장이전화를걸어‘아스카소및공동피고인’사건에관한우리들의자료를보내달라고했다. 그‘공동피고인’은내가보기에그다지희망적이지못했지만협회는우리가긴박하게필요한수단이었다. 우리가열문은인권협회의지원에따라변화의속도가달라질수가있었다.

쟁을 계속 벌이고 있던 어느 날, 나의 동료들이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아스 카소와 두루티, 그리고 호베르는 어떻게 되었는가? 자네가 그들을 변호해야만 하네.”

그 세명의 스페인 아나키스트들은 그들의 정치투쟁을 CNT 의노선에서 전개하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티네스 아니도가 그 조직을 불법단체로 규정하여 금지 명령을 내리고 프리모데리베라 의지시를 받고 있던 형리들과 알폰소 13 세의 충복들이 끈질기게 그들을 추적하자 그들은 아르헨티나로 도피했다. 그 후 그들은 프랑스를 공식 방문하려했던이른바 ‘그들의 국왕’을 만나기 위해 파리로 돌아왔던 것이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범죄 사건이 발생했다. 은행 출납 계직원이 살해당한 사건이었다. 경찰의 끄나풀인 한 택시 운전사의 증언으로 아스 카소, 두루티, 호베르가 그 사건의 혐의자로 지목되었다. 스페인 사람들이 부르던 대로 ‘소총 병삼 총사’는 스페인 정부의 탄압을 피해서 둘러떠났던 여행이 — 비록 그들이 그 사건과 무관하더라도 — 의혹을 불러일으킨 화근이 되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프랑스 당국에 그들의 신병인도를 정식으로 요청했고, 그 요청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그에 앞서 아스 카소, 두루티, 호베르는 파리 법원이 불법 무기 소지 죄로 그들에게 선고한 6 개월 징역형을 받고 있었다고 한다. 그들은 장전된 총을 소지하고 스페인 국왕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다가 승용차 안에서 체포되었던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서로 성격이다른 두 사건을 동시에 다루면서 한꺼번에 다섯 명의 투쟁가들을 변호해야만 했다. 이런 나의 상황은 마치 내가 스페인 망명자들을 위해 활동했던 정치적 망명자 보호 법 위원회의 일을 소홀히 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그래서 나는 스페인 망명자 측으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사코·방제티 위원회의 일을 소홀히 했더라면 이탈리아 사람들이 또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 당시 나는 여전히 ‘순수 노선파’ 와 관계를 맺고 있었다. 나는 협박을 받고 있는 다섯 명을 구하기 위한 한의교섭 활동을 양해해 달라고 그들에게 요구할 수가 없었다. ‘순수 노선파’ 의 한 사람이나의 행동을 두고 반쯤 비정대고 반쯤 거슬리는 시를 쓰기 조차하였다. 그 시는 이렇게 끝맺었다. “죽음이 두려우랴! 죽음이 여어서 오라!” 물론 여기서의 죽음은 ‘시인’ 자신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나에게 빈정거린 사람이 그가 처음도 아니었고 마지막도 아니었다.

스페인의 독재자도 아스 카소와 두루티, 그리고 호베르의 신병인도를 요청했다. — 스페인 정부는 그들의 수많은 정치적 암살음모를 맹렬히 비난하였다 — 그러나 쓸데 없는 일이었다. 프랑스는 자유주의를 표방하려 했다. 결국 모든 것이 스페인과 아르헨티나 정부가 조작한 허위 연극이었다. 만일 세 사람 이스페인 당국에 인도된다면 그들은 잘하면 스페인 단두대의 사형은 모면 할 수 있겠지만, 그 대신 끔찍한 푸에고섬에서의 종신 유배를 언도 받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물론 우리가 그 ‘소총 병삼 총사’를 변호했던 상황이 완전히 유리한 상태만은 아니었다. 당시 그 곳 경찰은 ‘혐의가 있는’ 세 외국인의 국외 추방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의

민병대	181
환상적인 그림책	181
군기	183
소비에트적 선례: 두 개의 양식으로 된 한 통의 편지	184
러시아 노동자들에게 고함	185
군사 조직화	188
종말의 시작	191
짧은 해설 6	194
아나키스트들의 패배에 관하여	194
마드리드 방어전선	198
수도 방문	198
파병	202
위험	205
회의	207
악랄한 야만인들	210
전투	212
짧은 해설 7	214
영웅에 관하여	214
죽음	218
슬픈 소식	218
의구심	220
두루티의 의문의 죽음	222
목격자들	229
두루티의 유물	231
짧은 해설 8	234
혁명의 노병들에 관하여	234
에필로그	237
후세대	237

그들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헌법재판부로 이첩되었다. 헌법재판부의 판결은 그들에게 매우 중요했다. 왜냐하면 다른 두 나라의 정부로부터 이미 범인인 도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하나는 아르헨티나 정부로부터 온 것인데, 요청동기는 “그 범인들이 산마르틴은행 무장 강도 습격 사건의 혐의자들”이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스페인 정부로부터 발송된 것이었다. 마드리드 정부는 두루티가 하흔은 행습격에 가담했으며, 아스카소는 1923년 사라고사의 초기 경암 살음모의 공모자였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정부는 스페인의 협조 요청서를 기각하였으나 아르헨티나의 청원서를 헌법재판부에 양도했다. 베르통 (Berthon), 게르누 (Guernut), 코르코 (Corcos) 와 함께 내가 변호를 맡았다. 법정 앞에는 평상시와는 달리 경찰들이 총동원되어 무장 경계를 하고 있었다. 온 법정이 마치 출정지처럼 보였다. 아스카소와 두루티, 호베르는 동원 경찰을 개의치 않았다. 검고술이 많은 머리카락, 햇빛에 그을린 얼굴, 짙은 눈썹, 굳게 입을 다물고 있는 그 모습은 마치 고야 앞에 모델로서 있는 것 같았다. 베르통 변호사가 이거친 ‘암살범’을 위해서 알랑거리는 말과 사근한 제스처를 취하면서 다시 한번 인사 치례의 말투로 변호를 시작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제가 스페인의 극단적 자유 노선을 걷고 있는 이 세 사람을 재판관님 앞에서 변호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 재판에서는 범죄자의 신병인도가 선고 되었다. 그러나 선고 결과가 전적으로 정부에 만족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법에 의하면 내각이 이 판결을 속결 징지를 수도 있었다. 우리는 승복할 수가 없어서 즉시 정치적인 장외 투쟁을 시작하였다. 동시에 우리는 법정 투쟁을 병행하기 위하여 에리오토 (Herriot), 팽르베 (Painlevé), 레이게스 (Leygues) 와 같은 사람들에게 의뢰했다.

앙리 토레스 (Henri Torres)

두루티는 1년이 넘게 콩시에르제리 Conciergerie 형무소에 수감되었다. 그는 마리 앙투아네트 (Marie Antoinette) 가 참수형을 당할 때까지 수감되어 있던 그 감방에 수감된 것이다. 그가 석방된 후 경찰은 그를 벨기에 국경 근처로 데려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경을 넘어가라고 명령했다. 이런 방법을 써서 프랑스 정부는 그들에게 골칫거리였던 프리모데리베라 정권의 신병인도 요청을 회피하려 했다.

카노바스 세르반테스

정치 투쟁

내가 전기의 자 앞에서 있는 두 명의 미국 아나키스트들을 구하기 위해 사코 (Sarco) 와 방제티 (Vanzetti) 위원의 이름을 걸고 지루하게 끌어온 긴장된 정치 투

두루티는 몸집이 상당히 큰 편이었다. 아주 겸손했으며 말이 거의 없었다. 그의 외모에서 풍기는 인상은 강인했다. 그는 당시 커다란 경계를 끼고 다녔던 걸로 기억된다. 약간 근시안이었다. 그 두 친구는 떠려야뗄 수 없는 사이였다. 한쪽이 없어서는 서로가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사색하는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과 떨어질 수 없는 법이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이념적으로 볼 때 그들은 결코 개인주의자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조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개인을, 대중 운동을 전개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하나의 원동력으로 보았다. 그들은 대중이 그들에게다가 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으며, 대중에게 아무 것도 요구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반대로그들은 대중에게 무엇인가를 나누어 주었다.

니노나폴리타노 (Nino Napolitano)

아스카소도 그들이 알폰소 13 세의 암살 계획을 어떻게 준비하였는지 나에게 설명해주었다. 그들은 스페인 국왕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들은 의장 행렬이 어디를 지나갈 것이며, 어디서 쏘아야 할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고용한 운전사가 그들을 경찰에 밀고 했다. 당시 경찰은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신문을 사려고 하는 순간에 체포되었다. 그 후 두루티와 아스카소 그리고 호베르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고 세 사람은 모두 피고인석에 앉게 되었다.

유게니오 발데네브로

재판

나는 많은 스페인 아나키스트들을 법정에서 변호하였는데, 가끔은 결과가 좋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좋은 결과를 얻었다. 그들 중에 가장 완강하고 용기 있었던 사람들은 아스카소, 두루티, 호베르였다.

1926년 7월 2일, 프랑스 당국은 경찰이 스페인 국왕을 암살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단서를 잡고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국왕에 대한 성대한 환영 행사가 7월 14일에 열릴 예정이었다. 세 사람은 레 장드르 거리에 있는 가구가 딸린 방에서 체포되었다. 이미 스페인에서도 그들을 수배 중이었다. 10월에 그들은 형사 재판을 받았다. 검찰 당국은 반 국가적 행위, 여권 위반, 외국 치안 법령 위반 등과 같은 온갖 죄목을 다 붙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오히려 더 투쟁적이었다. 그들은 지긋지긋한 통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스페인에 혁명의 물결을 일으키기 위하여 국왕을 제거하려 했다고 대담하게 증언했다.

프롤로그

장례식

밤늦게 시체 한 구가 바르셀로나에도착했다. 하루 종일 비가 내렸기 때문에 관을 수행해온 자동차들은 진흙 투성이였다. 영구 차를 덮고 있는 흑·적색 기도 흙탕물로 더럽혀져 있었다.

혁명 전 까지 바르셀로나 상공회의소 본부로 사용되었던 이곳 아나키스트의 저택에는 이미 전날부터 장례식을 치를 준비가 한창이었다. 현관 입구는 관대를 들여놓을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었다. 모든 일이 기적 같아서 시간에 이루어졌다. 내부의 장식은 단순했으며 화려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벽에는 흑·적색 천이 드리워져 있었고 같은 색으로 된 천개 天蓋, 몇 개의 촛대, 꽃과 화환, 이것이 전부였다. 많은 조문객이 드나들 양측 면에는 스페인의 풍습에 따라 커다란 판지가 붙어 있었고 그 위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두루티가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두루티가 안녕히 가라고 하십니다.’

민병대가 세워 총자세를 한 채 관대를 지켰다. 마드리드에서 부터 관을 수행해온 사람들이 집안으로 관을 들여놓을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그들은 정문 앞에 운집해 있는 군중들 사이로 길을 내보려고 애썼지만 어느 누구도 높다란 정문을 열 엄두를 내지 못했다. 결국 관을 옮기는 사람들은 작은 옆문으로 몸을 밀치며 들어가야만 했다. 장식물이 걸려 있지 않은 실내 발코니에서는 호기심에 가득 찬 구경꾼들이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광경은 마치 기대에 찬 극장 안의 분위기였다. 향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모자를 벗었지만 어떤 이들은 아예 벗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시끄러웠다. 전선에서 온 민병대원들은 그들의 동지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보초 병들은 참석자들을 진정시키려고 애썼다. 그러나 시끄럽기는 마찬가지였다. 장례식을 책임진 사람이 무엇인가를 지시했다. 지시를 받은 사람이 군중들 틈에 걸려 비틀거리다가 화환 위로 넘어졌다. 관 뚜껑을 들어 올리는 사이에 관을 옮겼던 사람 중 한 사람이 조용히 담배에 불을 붙였다. 두루티의 얼굴이 하얀 솔을 가득 채워 넣은, 유리 밑 하얀 명주 위에 드러났다. 그 모습은 아랍인 처럼 보였다.

장례식 장면은 슬프기도 하고 그로 테스크하기도 했다. 그것은 마치 고야의 부식 동판화와도 같았다. 나는 지금 그때의 장면을 본 그대로 서술하고 있다. 그것은 스페

인민중에게 깊은 감명을 준 장면이었다. 스페인에서 죽음이란 친구를 만나는 것만 큼이나 익숙한 일이다. 그래서 죽음은 법석을 떨일 이 못된다. 스페인 사람들은 친구를 특별하게 사랑하지만 그들이 죽음을 당했을 때에도 하기 위해 달려가지는 않는다. 그들은 죽음이 그저 정해진 대로 왔다가 같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이 곳에서, 성당의 예배의식에 밀려 수백년 동안 사라졌던 무어인들의 옛 전통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두루티에게는 많은 친구들이 있었다. 그는 전민족의 우상이었다. 그는 정말로 대단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곳에 온 모든 사람들은 그를 잃은 것을 슬퍼했고, 그의 죽음 앞에 조의를 표했다. 그 당시 나는 프랑스 여인인 두루티의 부인 외에도 목 놓아 울고 있는 한 여인을 보았다. 그녀는 늙은 청소부 아줌마였다. 그녀는 사업가들이 드나들었던 집에서 그때까지도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지만 아마도 생존 시에 두루티를 만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밤이 깊어가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두루티의 관 앞을 지나갔다. 그들은 비를 맞으며 줄을 서서 기다렸다. 그들의 친구였던지도 자가 죽은 것이다. 나는 그들의 심중에 고통의 감정과 호기심이 얼마나 엉갈려 있는지 감히 헤아리고 싶지 않다. 그러나 장담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은 둘 뿐 감정이 아니라고 인에 대한 경외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사실이다.

장례식은 다음 날 오전에 거행되었다. 두루티에게 죽음을 가져온 그 탄알이 바르셀로나의 심장부를 건드렸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 도시 4 번 가의 주민들 모두가 그의 관을 뒤따랐다고 생각된다. 거리를 서성거리거나 발코니나 창문에서 내다보고 있는 사람들, 산책로를 메우고 있는 사람들, 모든 당파와 노동조합들이 노선을 떠나서 그 거리로 모여들었다. 군중들의 머리 위에는 아나키스트의 깃발 뿐만 아니라 스페인의 모든 반파쇼 조직의 깃발들이 형형색색 휘날렸다. 그 광경은 대단히 위대하고 숭고하게 보이기도 했지만 기가 막히기도 했다. 왜냐하면 아무도 이 군중들을 조직적으로 인도하거나 질서를 잡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혼란스러웠다. 그야말로 듣지도 보지도 못한 혼란이었다.

장례식은 열시에 거행하기로 짜여 있었다. 발인식이 거행될 아나키즘 지역 위원회의 집에 제 시간에도착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이미 한 시간 전에 확실해졌다.

장례 행렬이 지나가야 할 도로가 인파로 인해 막힐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바르셀로나에 있는 모든 공장의 노동자들이 거리로 쏟아져나왔기 때문에 사방의 도로가 막혀버렸다. 행렬을 호위하기로 된 기마 기병대와 오토바이들은 운집한 노동자들이 길을 막고 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화환으로 덮인 자동차가 멈추어 선채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가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다. 장관들만이 간신히 길을 터관에 접근할 수 있었다.

열시반에 야종대로 줄지은 민병대원들이 흑·적색기를 덮은 두루티의 관을 어깨에 메고 아나키스트들의 집을 나섰다. 군중들은 마지막 작별인사를 하늘을 향해 주먹을 뻗어 올렸다. 그들은 ‘인민의 아들 Hijos del pueblo’이라는 아나키즘 노래

들에게 가방을 보여주었다. 아스카소가 가방을 손에 들고 웃으면서 말했다. “가방이 참 부드럽군요.” 나는 대답을하면서 그 가방은 최고급 강화 섬유로 만들어진 최고 품이라고 자랑했다. 아마 사람들은 내가 물건을 팔러 다니는 세일즈맨으로 착각할 정도였다. 그러나 만사가 헛수고였다. 아스카소는 그 가방을 가지고 싶어하지 않았다. 나는 그가 왜 그랬는지 나중에 가서야 깨달았다. 그의 가방은 몇 개로 분해된 총과 다른 무기들을 읊기는데 사용되었다.

1926년 약정된 그 날, 파리에서는 스페인 국왕 알폰소 13세의 국빈 방문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그의 선조 가문, 즉 보르본 가가 저질렀던 그 모든 것보다 더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 두루티와 아스카소는 프랑스 제3공화국이 프란시스코 폐레르의 살인자를 환영하기 위해 마르세유에서 축포를 울리는 바로그 순간에 그를 암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들은 아주 차분하게 준비했다.

스페인 남자들은 부르주아지아든 프롤레타리아트이든 간에 고관대작이 방문할 때는 침묵을 지키는 것이 관습이었다. 이런 관습은 우리 두 동지도 갖고 있었다. 그들은 국왕의 공식 방문이 있기 바로 전날까지도 철저히 준비했다. 삼엄한 경찰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그들은 프랑스 수도의 저명인사들이 드나들던 그 장소를 찾았다. 그들은 클럽에서 테니스를 쳤다. 그리고 환영식 때 정치인들이 타는 의장승용 차 옆을 지날 때에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고급 승용차를 구입하였다. 모든 계획이 주도면밀하게 진행되었다.

공식 방문 전날 우리는 베르테의 집에서 저녁을 먹었다. 그녀는 나뿐만 아니라 아스카소도 맛보려하지 않았던 사고 수프 Sago suppe를 우리에게 대접한 걸로 기억한다. 우리는 그녀의 요리 솜씨를 놀려댔다. 그녀는 두루티와 아스카소가 그 집을 나갔을 때를 유키었다.

“둘이서 공모를 꾸미는 그 현장에 아무 관계도 없는 제 남편이 있을 것”이라고 보르본 가의 악명 높은 스파이 마니스칼코 (Maniscalco) 가언젠가 그녀에게 말했다는 것이다. 그런데이번의 경우 바로 그 삼자 가 아스카소와 두루티가 타고 갈 그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것이다. 그는 프랑스 경찰에 매수되어 있었다. 두 암살자는 체포되었고, 파리 시민들은 마르세유의 축포가 울렸을 때 아무 탈 없이 알폰소 13세를 환영할 수 있었다.

프랑스 민주당이 체포된 자들을 보르본 가 하이에나의 목구멍에 넘기지 않은 것은 파리 동지들의 거센 저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두루티와 아스카소가 석방되어 벨기에 국경선을 넘을 때까지 기만하지 않았던 것이다.

벨기에의 한 기계 제조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프란시스코 아스카소가 나에게 마지막 작별의 편지를 보내왔다.

그에게 비록 많은 걱정거리가 있었다 하더라도 나는 청년 아스카소가 고민에 빠진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내가 보기에도 그는 언제나 농담을 즐기는 것 같았다. 키는 작았지만 몸이 가볍고 민첩했다. 그의 얼굴을 보면 그에게 아랍인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역력히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얼굴 빛은 검은 색을 띠었다. 그는 콧수염을 기르지 않았다. 그의 까만 머리카락은 언제나 가자런 히빗 겨저 있었다.

이상理想의도서관

두루티와아스카소의원대한꿈은세계의모든대도시에다가아나키즘출판사를설립하는일이었다. 그일중에가장큰계획은지식세계의중심지인파리에그본부를두는것이었다. 그본부옆에오페라나콩코르광장이생긴다면더할나위없이좋다고생각했다. 그곳에서근대사상에큰영향을미친중요한작품들을각국어로번역출판한다는것이었다. 그런목적에서, ‘국제아나키즘출판사’가파리에설립되었다. 이출판사로부터많은서적과팸플릿, 잡지가다양한언어로출간되었다. 프랑스정부도세계의다른모든반동정부와마찬가지로경찰력을총동원하여그일을방해하였다. 두루티 — 아스카소조직이이제문화영역에서까지사람들의관심을끄는것이정부의비위에거슬렸던것이다. 돈키호테의그두후예들을추종하던자들이일시적으로매장될지경이었다. 그우울한기사돈키호테가‘부당한행위를근절하고, 고통을당하는사람들을구원하여지상에다정의의왕국을건설하기위해’창을들었듯이, 그들은다시권총을들었다.

카노바스세르반테스

두루티는원조비로자유국제노동자동맹에총 50 만프랑을기부했다.

스페인공화국이선포된후에아나키스트들은출판사를바르셀로나로이전하려고계획했다. 이게획에는수천페세타가필요했다. 그러나프랑스현병들이포르트부역세관검역소에서모든자료들을불질렀다. 그리하여그토록많은자금과희생을바쳐쟁취했던성과물들이수포로돌아가고말았다.

알레한드로힐라베르트

유명한러시아아나키스트이며유격대원이었던네스토르마흐노 (Nestor Machno)는당시파리에있던한작은가구공장에서일했다. 두루티처럼그도행동파였다. 우크라이나농민들은그를신처럼떠받들었다. 농민군과함께그는반혁명적인백색근위대를격퇴하였다. 적색군의병참장교였던트로츠키는마흐노가러시아혁명에자유노선을도입하려한다는사실을알고서그를축출하려고했다.

두루티는그를매우존경했고그와친한사이가되었다. 성격면에서두사람은서로닮았다. 둘은혁명의목적을두고같은생각을했다.

알레한드로힐라베르트

국왕암살계획

나는아스카소와두루티를베르테 (Berthe)라는이름을가진파리의한여성동지의집에서알게되었다. 어느날두사람은나의가방에대해서물었다. 물론나는그

를불렀다. 엄청난감동이밀려오는순간이었다. 그런데어떤이유가있어서인지, 아니면착오로그랬는지는몰라도, 두개의오케스트라가초청되어있었다. 한오케스트라는작게, 다른오케스트라는크게연주하였다. 그러나서로박자를맞출수가없었다. 오토바이가부르릉거렸고자동차는경음기를울리기시작했다. 민병대간부들이호루라기를불어댔지만관을옮기는사람들은한발짝도움직일수가없었다. 이런혼잡한상황에서장례식행렬이나아가기는불가능했다. 두오케스트라는똑같은곡을여러번연주하였다. 서로화음을맞추려고애를쓰다가야예포기해버렸다. 소리는들렸지만도대체무슨곡을연주하는지알아들을수가없었다. 사방에는아직도뻗어올린주먹들이보였다. 마침내음악이그쳤고주먹들도내려쳤지만군중들의시끄러운소리는여전했다. 동지들의어깨에메인두루티의관은군중한가운데있었다.

행렬이움직일수있을만큼넓은도로에이르기까지삼십분이넘게걸렸다. 불과2 백미터정도떨어진카탈루냐 Cataluña 광장에도착하는데에는더많은시간이걸렸다. 기마병들은제각기앞길을터가기에도바빴다. 군중들속에서흩어진악사들이다시모이려고애를썼다. 길을잃어버린자동차들은길을찾으려고후진했다. 화환으로덮인자동차들은장례행렬을피해우회도로를이용했다. 모두가목청껏소리를질러야겨우서로알아들을수있었다.

그런데이것은왕의장례식이아니라민중이떠맡은장례식이었다. 모든일이명령없이자연발생적으로일어난것이었다. 예상치못한하루였다. 단순히한아나키스트의장례식이었지만거기에는그에대한특별한숭배가있었다. 혼란스러운측면이없지는않았지만, 그렇다고해서그에대한독특하고도엄숙한숭배마저잃어버린것은아니었다.

한때두루티와가장가까웠던동지중하나가쓰러졌던바로그투쟁의현장에서그리멀지않은콜럼버스공동묘지의입구에서조사가시작되었다. 세동지중유일한생존자인가르시아올리베르 (Juan García Oliver) 가동지로서, 아나키스트로서그리고스페인공화국의법무장관으로서말문을열었다. 그다음에러시아영사관이말을이었다. 그는카탈로니아방언으로다음과같이외치며자신의조사를마쳤다. “파쇼에게종말을!”조합총연맹의의장을맡고있던콤파니스가마지막으로조사를하였다. 그는“동지여!”로시작하여경건한기도문구인“먼저가소서!”로끝마쳤다.

조사가끝나면장례행렬이흩어져돌아가리라고예상했다. 그저두루티의친구들몇명만이공동묘지까지영구차를따르겠거니라고. 그러나이런예상은빗나갔다. 군중들은자리를뜨지않았다. 그들은공동묘지를가득메우고무덤으로가는길을막고있었다. 간신히길을낼수가있었다. 공동묘지의산책길은수천의화환으로넘쳐흘러지나갈자리가없을정도였다.

갑자기날이어두워졌다. 다시비가내리기시작했다. 비가억수같이쏟아져묘지가금세수렁으로변해버렸다. 이수렁속에화환들이잠겼다. 결국장례식의마지

막행사를연기하기로결정했다. 관을옮기던사람들이무덤앞에서돌아서서관을
시체안치소로옮겨놓았다.

두루티는그다음날에야비로소무덤에묻혔다.

카민스키 (H. E. Kaminski)

라틴아메리카의모든경찰당국은두루티의수배령을내렸다. 그들은두루티를
스페인아나키스트연합의대표자로간주하였다. 그의사진이역마다혹은기차와
전차곳곳에붙어있었다. 그런상황에서도두루티는동지들과함께경찰에게체포
되지않고온대륙을횡단하였다.

카노바스세르반테스 (Cánovas Cervantes)

나는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가끔두루티를보았다고장담할수있다. 그는당시
라틴아메리카일주여행중이었다. 그는그의동지들과함께혁명자금을마련하기
위해그곳에서많은은행을털었다.

가스톤레발

한번은아스카소와두루티가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전차를탔는데자신들의
수배전단이붙어있는바로아랫자리에자신들이앉아있다는사실을언뜻깨닫게되
었다. 당국에서현상금을내걸었던것이다. 그들은가능한한그나라를빨리떠나야
만했다.

그들은일등석배표를샀는데그것은매우빈틈없는계획이었다. 그들은곧갑판
위로올라갔다. 그런데노동자로서일등석이라니! 물론두루티는누구보다용감하고
선량한친구였고빈틈없는사람이었지만그의이상한거동은일등석에타고있는
사람들의주목을끌기에충분했다. 예를들면큰식당입구에는사화이서서손님들
의모자를받아들었다. 그런데두루티는모자를쓴채사환옆을그냥지나갔다. “손
님, 모자를, 모자를주시지요!”두루티는그를그대로세워두고서모자를자기바지
주머니에구겨넣었다. 식사후에디저트가나오면, 칼로사과의껍질을벗기고오렌
지를포크로집는행동은그의성미에맞지않았다. 그래서그는그런도구들을그냥
내팽개쳤다.

그때그의친구는그에게이렇게말했다. “조심하게, 사람들이벌써자네를쳐다
보고있다네. 무슨일인가일어날것같아. 일을꾸며야겠네. 그냥쉽게이렇게말하
자구, 우리는곡예사들입니다!”“뭐? 곡예사들이라고? 그럼내가무희처럼돌아
다닐까, 아니면어떻게한단말인가?”“아니, 그게아니고, 그럼그냥이렇게할까?
알았어! 자네는바로운동선수인거야. 핸드볼선수, 어때!”배위에서그들은계속
그런식으로행동했다. 핸드볼선수로서말이다. 기막힌생각이었다. 승객들은완
전히속아넘어갔다. 배에서내릴때삼등석의승객들은일일이엄격한검사를받았
지만일등석을타고온그들은여권만보여주고쉽게검사를마칠수있었다.

유게니오발데네브로 (Eugenio Valdenebro)

국은그것으로도충분치않아‘범인’의사진과인상착의전단을각국에발송하였으며,특히스페인어권라틴아메리카공화국들에게강력하게도움을요청하였다.그때부터칠레나아르헨티나등어느곳에서나대형강도사건이터지기만하면스페인경찰은아스카소와두루티에게혐의를씌울의도로서류를해당국가에발송했다.라틴아메리카의경찰당국들은그들의혐의사실에대한어떤증거도확보하지못했으면서도그들두사람을범인으로몰아세우는데앞장섰다.그런식으로스페인경찰은여러나라와연계하여두루티와아스카소,호베르가결국신변인도가절박한,용서받지못할악인으로세상에알려질때까지온갖조잡한수단을다부렸다.

데를

라틴아메리카의모험

두루티,아스카소그리고호베르는파리에서할수있는일을다했다.그러나그들은프랑스에서더이상활동할수없음을깨닫고는라틴아메리카로갔다.

그들은새로운나라를찾아아르헨티나,쿠바,칠레등을여행했다.그러나그들은그곳에서도적절한환경을찾지못했다.노동계급은나약했고,조직조차갖추지못하고있었다.그들은마치물을떠난물고기꼴이되었다.지루한방랑끝에그들은그런곳에서는더이상아무일도할수없다는결론에도달했다.그들은돈키호테처럼여행하고서프랑스로돌아왔다.

리카르도산스 1

1942년말,두루티와아스카소는그들이스페인혁명을위해공식적인정치캠페인을시작한적이있었던쿠바로출발하였다.거기서그들은대중연설가로서의첫발을내딛었다.두루티는민중의지도자처럼활동했다.경찰이그들을위험한선동가로지목하기시작했을때,그들은쿠바를떠나야만했다.그때부터그들은정말순탄치않은삶을끌어나갔다.언제나떠돌이생활을할수밖에없었다.멕시코에서며칠,때로는페루에서며칠체류하였다.부에노스아이レス로떠날때까지머물렀던칠레의산티아고체류는그런대로좀길었다.그러나산티아고도그들에게는안전한곳이아니었다.그들은몬테비데오로갔다.그리고그곳에서그들을세르부르크Cherbourg행배를탔다.그러나그배는대양으로나가지못한채기계고장때문에항로를바꿀수밖에없었다.나중에사람들은그기선을‘유령선’이라고불렀다.결국그선박은카나리아군도에정박했다.

아벨파스 2

행군에서 두동지가 넘어졌는데, 그 중 한명은 심한 부상을 입었다. 낙오한 많은 대원들이 이틀 뒤에 체포당했다. 그들 중 네 명은 팜플로나 Pamplona에서 사형되었고, 나머지는 재판에 회부되었다.

피게라스와 헤로나 공격을 담당한 단원들이 페르피안에도착했을 때, 그들은 베라사태를 이미 신문을 통해 알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 늦게 도착했던 것이다. 경찰은 오래전부터 비상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1천 명쯤 되는 남자들이 페르피안으로 갔을 때 그들은 감시자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훌어져야만 했다. 그러나 많은 동지들이 체포되었다. 단 50 명으로 조직된 그룹만 몰래 빠져나와 무기와 탄약이 들어 있던 가방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을 수 있었다. 그들은 속보 행군을 하여 피레네 산맥 중턱에 다다랐다. 사전의 약속에 따라 그곳에서 그들은 스페인 마을에서 밀파한 한동지를 만났다. 그는 험한 산악을 통해 피게라스로 가는 루트를 안내할 길잡이였다. 그들은 계획된 대로 형무소를 공격하여 그곳에 감금되어 있던 동지들을 탈출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산악 안내자는 나쁜 소식을 전했다. 국경선에는 포와 전차를 배치한 여러 연대들이 진을 치고 있다는 전갈이 있었다. 기습도 한 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우리의 습격 작전은 좌절되고 말았다. 단 한번의 투쟁도 치러보지 못하고 패배자가 되어 돌아가야만 하는 치욕과 분노, 울분이 치밀어 우리는 소리 없이 울었다. 아스카소가 우리와 행동을 같이 했다. 두루티는 베라국 경선을 넘은 대원들과 함께 행군하였다. 호베르는 바르셀로나 공격 군에 가담해 있었다.

모든 작전은 무모하고 순진한 시도였다. 그러나 어쨌든 그 시도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고는 말 할 수 있겠다. 물론 우리를 비웃으며 우리를 정치적 패배자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다. 자칭 아나키스트라고 했던 많은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말했다. 사실 우리의 시도는 단순한 패배였을 뿐 그 이상 아무 것도 아니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수없이 많은 패배를 경험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의 실패가 구속된 동지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다거나, 팜플로나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던 동지들의 의지를 약화시켰던 것은 아니다. 나머지 동지들, 가령 아스카소와 두루티 그리고 호베르 등지는 계속 투쟁할 것이다.

데를

경찰은 아나키스트 조직인 **연대의식**의 혁명 투쟁을 뿌리뽑기 위하여 여러 조직을 취하였다. 이런 목적에서 경찰은 **연대의식**의 조직원들에게 스페인 히혼은 행무장 습격이라는 죄목을 씌웠다. 그러나 경찰의 주장이 터무니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란 간단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습격 당일 두루티는 프랑스에 있었고 아스카소 형제는 수감 중이었기 때문이다. 아스카소 형제 중 한명은 솔데빌라 추기경의 암살 혐의로 사라고사에서 심문을 받고 있었으며, 다른 한명은 경찰이 목재 노동자 노동 조합원의 가택을 덮쳤던 바르셀로나에 있었던 것이다. 경찰의 그 습격은 동지들에 의해 격퇴당했다. 그때 동지들은 경찰 한명에게 부상을 입혔고 두 명은 사살했다.

경찰은 두루티와 프란시스코 아스카소가 은행을 습격하고 프랑스로 안전하게 도주했다고 추측하고, 프랑스 정부에게 그들을 인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스페인 당

참석자중한명이파리로돌아갔다. 회의에서파리밀사로호베르를추천했지만이번의경우그는파리밀파를거절했다. 그가비록바르셀로나에서생명의위협을받고있는것은사실이지만이번의거사참여는국경선에서보다는오히려고향땅에서행하고싶다는것이거절이유였다. 그래서다른동지가파리로특파되었다.

그는바르셀로나에서는이미봉기의준비가모두갖추어졌으니거사일을프랑스동지들에게전보로알리자고제의했다. 암호는‘모친병증’이었다. 파리, 리옹, 마르세유그리고아나키스트단체가있었던다른모든지역에서는그전보를초조하게기다리고있었다.

그런열기를경험한사람은그때일을결코잊어버리지않을것이다. 우리는전보를접수하면즉시국경선으로달려가국경수비대와격렬한투쟁을각오해야한다는사실도잘알고있었다. 국경수비대는우리보다수적으로우세했고조직도더잘갖추어져있었을뿐만아니라무장력에서도우세했다.

마침내전보가도착했다. 십여명내외의작은조직인우리는권총만으로무장하고곧출발했다. 우리는돈을긁어모았다. 파리에있던동지들은오르세이에서서로접선하였다. 형아스카소가차표를나눠주고는묵직한가방을들고맨마지막으로기차에올랐다. 그는우리가사용할무기중에가장무거운원체스터소총 25 정을운반했다.

같은시간에바르셀로나동지들은아타라사나스 Atarazanas 에있는포병부대를습격할준비를갖추었다. 그들은감시의눈을피하기위해소분대단위로인원을편성했다. 그들은사전에물색한장소를야간에점거했다. 공격개시는정각여섯시에수류탄을던지며시작하기로하였다.

아타라사나스는바르셀로나제 5 구에위치하며, 그곳은특히감시가심한지역이었다. 왜냐하면그곳은예전에맨먼저가두투쟁이발생했던곳이기도하고, 「노동자연대 Solidaridad Obrera」라는아나키스트인쇄소가있었을뿐만아니라「땅과해방 Tierra y Libertad」, 「용광로 Crisol」와같은노동자잡지편집부, 목재노동자노조와건축노동자노조본부도있었기때문이다. 그리고그곳에는시내에서일하던상당수의노동자가살고있었다.

철저한보안조치에도불구하고경찰룬데 (Lunte) 가사전에냄새를맡았던것같다. 왜냐하면한투쟁부대가군막사를향해진군하던중순찰대에의해저지당했기때문이다. 심한총격전이벌어졌다. 경찰경계병한명이사망했고다른경계병은부상을입었다. 증원군이출동했고비상경보기가울렸다. 경찰은기관총으로무장하여막사를에워쌌다. 이렇게하여그들은우리의공격을미리차단했다. 두명의동지가그부근에서붙들려현장에서총살되었다.

바르셀로나에서의작전이실패로돌아갔기때문에국경감시초소를공격할기회는아예가질수없었다. 베라와엔다야를치기로한노동자전투단은출정노선을제대로이해하지못하여다른곳의동지들보다열여덟시간이나앞서불행한일을당했다. 그들은첫전투에서승리를거두었지만지친몸으로다음투쟁에돌입했다. 그들은전투를벌이면서높은산을넘어야만하는길고지루한퇴각을해야만했다. 이

짧은해설 1

집단적허구로서의이야기

“그의생애는흡사모험소설에서나있을법한것이기때문에감히어느작가도그의이야기를기록해야겠다고마음먹지못했던것같다.”이것은일나예렌부르크 (Il'ja Grigor'evic Erenburg) 가부에나벤투라두루티를알게된 1931년에내린결론이었다. 그러면서그는즉시집필을시작했다. 자신이두루티에대해알고있다고생각했던바를다음과같이몇문장으로기록했다. “그금속노동자는이미소년시절부터혁명을위해투쟁하였다. 그는바리케이드위에올라서기도했고, 은행을습격하기도했다. 폭탄을던지기도했고판사를유괴하기도했다. 그는세번씩이나사형언도를받았다. 한번은스페인에서, 한번은칠레, 또한번은아르헨티나에서. 그는수없이투옥되었고 8개국으로부터추방당했다.”그는이런식으로계속써나갔다. 이이야기의서술자가‘모험소설’을기피하는것은그가뭔가꾸며내는것을중단하고정말‘진실’을말할때조차도사람들이자신에대해이야기를지어내는거짓말쟁이로만여길것이라는해묵은불안감에기인한다. 적어도이번만은사람들이그가진실을말하는것으로믿어주기를원하지만, 이때도예전의그의작품이일반독자에게느끼게했던그의구심이재발할것같은불안을떨쳐버리지못한다. “한번거짓말을한사람은진실을말할때도사람들이믿지않는다.”따라서그가두루티의이야기를서사화할수있으려면이야기꾼으로서의자신을부정할수밖에없다. 결국허구를거부하는태도에는두루티에대해서더이상설명할수없다는점과, 모험소설을기피하고나면남는것은스페인의어느카페에서나들을수있는모호한대화정도에그칠뿐이라는점에대한아쉬운감정도배여있다.

그러나그럼에도그는자신이들어알고있는것을침묵으로완전히덮어놓으려고는하지않는다. 들은이야기들에매혹되어그는이야기의전달자가될수밖에없다.

그러나누가이이야기를그에게들려주었던가? 예렌부르크는이와관련된어떤자료도제시하지않는다. 그가쓴몇줄의글은떠도는소문을근거로한것이지만하나의사회적산물이다. 그것은얼굴도이름도없는사람들의입에서나온이야기,

즉집단의소리인셈이다. 그러나이익명의모순투성이이야기들이조화롭게구성되면새로운양태를획득한다. 즉이야기들로구성된역사가만들어지는것이다. 태고적부터역사란이런식으로전해져내려오고있다. 말하자면전설로, 서사로, 집단의소설로전해져오고있는것이다.

역사가과학으로존재하게된것은우리가구전의전통에더이상의존하지않게된이후부터, 즉통첩의교환, 계약문서, 증빙서류등과같은‘실증자료’가있게된이후부터였다. 그러나역사가들이쓴역사를머릿속에담아두고있는사람은아무도없다. 역사교과서에대한불만은원초적인것이며극복될수없는것처럼보인다. 이것은학교수업을받은사람이면누구나인정하는사실이다. 일반대중들에게역사란이야기들의묶음에불과하다. 이들에게역사는사람들이기억속에담아두고있는것, 즉읽고들은이야기의재현일뿐이다. 이야기를전하는데에는어떤신화도, 사소한일상도, 착각도문제가되지않는다. 거기에는과거의싸움들에대한상상이덧붙여지기십상이다. 이점에서과학은그림책이나질낮은잡지책앞에서무색해지고만다. “나는여기어쩔수없이서있다.”“그래도돌고있다.”이러한문장들의의미는어떤연구로도해독할수없을것이다. 그들이결코쓰러지지않았다는논거를제시하는것으로이문장이충분히해명되는것은아니다. 파리코뮌과철옹성의진입, 기요틴의당통, 멕시코에서의트로츠키이야기가역사에있다. 이들인물에대한이미지에는과학보다집단적상상력이더많이작용한다. 우리에게길고긴역사의행진은궁극적으로이긴행진이들려주는이야기일뿐이다. 역사는현실로부터그자료들을제공받는창작물 Erfindung 이다. 그러나그것은임의적인창작물이아니다. 이창작열을고무하는것은역사를이야기로서술하려는사람들의욕구다. 그리고이창작들은이야기에귀를기울이는사람들에게자신들의관심사뿐만아니라적들의관심사를재인식시키고, 그성격을좀더정확히규정하도록만든다. 그러나역사이야기의주인공은자신의그림자를파는쉴레밀, 즉창작의인물이다. 우선역사의진정한주체가하나의그림자를드리운다. 그리고이주체는그그림자를집단적허구로서역사앞에드리우는것이다.

두루티의소설이바로그런것이다. 그것은사실의자료들을모아놓은전기傳記가아니며, 과학적담론은더더욱아니다. 그의서사범위는한개인의관점을넘어선다. 물론그범위는구체적상황과관계되지만두루티라는인물없이는상상할수없다. 그의투쟁이그의삶을규정한다. 즉그것은두루티의사회적분위기를보여준다. 또한역으로사회적분위기가그의모든행동과연술들, 투쟁의개입에서맺어진관계를전달해준다. 두루티에관하여전해지는모든이야기는그의독특한삶을더욱빛나게한다. 그러나그가살았던사회적분위기, 그리고그를이야기하는사람들의(적을포함하여)기억과그와의관계를더이상사실로서확인할수는없다. 반면에들은이야기를어떤방식을빌려재현하는것은가능하다. 그것은개인에게서출발한다. 그러나이방법은다음과같은어려움이있다. 즉그것은한남자의실존을재구성하는일이다. 그는서른다섯나이에사망했고, 그가남긴유품은극히한정되어있다. “속옷몇가지, 권총두정, 망원경, 선글라스, 이것이유품으로등록된전부

1923년, 아니면 1924년, 독재통치가자행되던첫해, 나는우리가빌바오에서계획한작전을위한접선에서그를알게되었다. 두루티는파리망명중에불법적으로빌바오에왔던것이다. 그는그의절친한친구중에한사람인호베르와함께빌바오의번화가를태연하게거닐었다. 그만남은중요한모임을위한것이었다. 그모임은다른조직에서온많은동지들과함께하는회합이었다. 물론거기에는사회주의자들도참석했다. 나는그회합에서두루티가사회민주당의지도자이며, 나중에공화국의총리가된라르고카바예로와토론을벌이던모습을기억하고있다.

후안페레르 (Juan Ferrer)

순진한시도

파리망명중에도고향의동지들과연락을주고받던스페인아나키스트들은폭군독재자를무력으로뒤엎을계획을세우고있었다. 바르셀로나의행동대원들이군막사를점령하고바리케이드를치는사이에파리망명자들은스페인국경감시소를무장기습한다는계획을세웠다.

이소문이스페인의여러도시에나돌자군대가점차동요하였다. 스페인군대는아프리카를탄압하기위한모로코출정을연기할수밖에없었다. 파리로넘어가는탈영병의수가늘어났다. 상황은혁명군에게유리해보였다. 파리아나키스트들은바르셀로나에대표자를파견하기로결정했다. 호베르가대표자로임명되었다. 그가도착한지방에서회의가소집되었다. 무장봉기를계획하고준비하기위한그회합에는CNT 의대표자들과몇몇의행동책들이참석했다. 바르셀로나동지들은군막사를점령하고포진지를장악한다는작전을세웠다. 행동책으로참석한몇명의병사와하급장교들은위병소를열어주고그들을지원하겠다고약속했다. 그들은많은병사들이봉기에참여할것이라고장담했다.

호베르는파리로돌아와동지들에게작전상황을보고했다. 또다른파견자가바르셀로나로갔다. 바르셀로나의동지들이거사일을정했음을확인하였다. 파리조직책은그날엔다야 Hendaya, 이룬 Irún, 베라데비다도사 Vera de Bidasoa, 페르피그난 Perpignan 과피게라스 Figueras 국경감시소를습격할계획이었다.

거사일주일전에바르셀로나에서마지막회의가열렸다. 지난번회의에서내려진결정에동의했던 CNT 의두대표자가이제와서겁을먹고갑자기결정을재고해야겠다고말했다. 그들은개인으로서야봉기에가담하여가능한모든도움을주고싶지만조직의이름을걸고서는이번행동에참석하고싶지않다는것이었다. 그들은최고위원회에서영향력을발휘하는몇명의사람들이벽에쓴‘책임’이라는허깨비를두려워했던것이다. 그러나회의참석자들은이번거사의기본방침을모든‘거물급들’을제거한다는데에의견을모았다. 그들은계획을추진하기로결정했다.

망명

도피

1923년, 독재자 프리모데리베라가 정권을 장악했을 때, 아스카소와 두루티는 망명 길에 올라야 했다. 왜냐하면 스페인의 반동 세력들이 그들을 제거하려 했기 때문이다. 당시 아스카소는 사라고사의 대주교술데빌라 추기경을 암살한 혐의로 수감 중이었다. 동지들이 탈옥을 계획하여 실행하였는데, 탈옥 수중에는 아스카소도 끼어 있었다. 아스카소는 다른 탈옥 수들처럼 거리를 배회하거나 카페에 앉아 있다가 곧 다시 잡혀 들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는 매일 밤 북부에서 바르셀로나로 가축을 수송하던 화물 열차에 올라탔다. 수송 도중에 일어날 수 있는 탈취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 열차에는 항상 가축 감시원들이 동승하고 있었다. 그래서 아스카소는 까만 감시원 복장을 하고 서한 밤 중에 사라고사에서 이기 차에 기어올랐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에 그는 바르셀로나에 있던 나의 집 문 앞에서 있었다.

그후 아스카소는 바르셀로나에서 프랑스로 갔다. 파리에서 그는 두루티와 가르시아 올리베르, 호베르를 만났다. 우리는 그들에게 수중에 남아 있던 동을 몽땅 나눠 주었다. **연대의식**은 프랑스에서도 계속 활동했다. **연대의식**이 파리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은 푸티 Petit 14 번가에 국제 아나키스트 서점을 세운 것이다. 조직은 그 서점에 30만 페세타를 기부하였다. 동시에, 아직도 완결되지 않은 아나키즘 백과사전의 기초를 그때다져 놓았다. 그 사전은 지금도 시리즈 물로 계속 출간되고 있다.

리카르도 산스 1

살아남은 네 명의 **연대의식** 조직원이 파리에서 다시 만났다, 그들은 호베르와 두루티, 그리고 아스카소 형제였다. 두루티는 레놀 Renault 자동차 공장에서 금속 공으로 일자리를 얻었다. 형 아스카소는 석조 공장과 모자이크 공장에서 일을 했고 동생 아스카소는 철판 공장과 배관 공장에서 보조 공으로 일했다. 호베르는 매트리스 공장에서 일했는데, 능력을 인정받고 공장장이 되어 다른 노동자들을 감독하였다. 그러나 그런 감독 일은 그의 성미에 맞지 않아 곧 그만두었다.

데를

였다.” 그밖의 물품들은 남아 있지 않다. 고인이 글로 남긴 진술이라고는 거의 없다. 그의 삶은 행동, 바로그 그것이었다. 그의 행동은 정치적인 것이어서 대부분이 불법적이었다. 따라서 문제는 한 세대가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명확하지 않은 그의 실천의 자취들을 찾아내는 일이다. 이 자취는 퇴색되어 거의 잊혀가고 있다. 그러나 비록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그의 자취는 수 없이 많이 남아 있다. 구전되던 그에 관한 이야기를 모아둔 글들이 분량은 얼마 되지 않지만 문서 실과 도서관에 묻혀 있다. 물론 여전히 입으로 전해지고 있는 이야기들도 있다. 고인을 알았던 많은 사람들이 아직 생존하고 있다. 이들을 찾아내서 이들에게 물어보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이런 방식으로 모을 수 있는 자료는 무척 다양하다. 형식, 억양, 제스처, 관록 등이 단편 단편으로 교차될 수 있다. 콜라주 소설은 르포, 연설, 인터뷰, 선언문 등을 수용한다. 이런 소설은 편지, 여행 일기, 일화, 선전 빠라, 반박문, 신문 기사, 자서전, 플래카드, 선동 팸플릿 등으로 구성된다. 그런데이런 형식에서 서로 아귀가 맞지 않는 모순은 그 자료들 사이에 틈새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재구성이란 퍼즐 놀이와 같다. 퍼즐의 각 부분은 이음쇠 없이 연결될 수 없다. 바로 이런 까닭에 각 영상들의 연결을 고집하는 것이다. 아마 그 집합 점들 안에 진실이 있는지도 모른다. 이때문에 화자가 사실을 모를 경우 이야기는 이와 같은 형식으로 진행되거나 마련이다.

가장 순수운 일이라면, 바보처럼 이 책의 모든 내용은 다큐멘터리라고 주장해버리면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곧 빙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우리가 좀 더 꼼꼼히 관찰한다면, ‘다큐멘터리’에서 확보할 수 있는 신뢰성은 이내 사라지고 만다. 누가 무슨 목적으로, 누구의 이익을 위하여 말하고 있는가? 그는 무엇을 숨기려고 하는가? 그는 우리에게 무엇을 확신시키려고 하는가? 그리고 그는 대체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서술된 순간과 서사의 순간 사이에 몇 년이 흘렀는가? 화자는 무엇을 망각하였는가? 그가 말하고 있는 내용은 어디에서 알게 된 것인가? 그는 그가 본 것, 혹은 그가 보았다고 믿고 있는 것을 서술하는가? 그는 또 다른 화자가 그에게 이야기해주었던 것을 서술하는가? 이런 식으로 물을 수 있는 질문은 얼마든지 더 있다. 그런데이 물음에 답을 얻으려면, 우리는 각종 인들에게 수백 가지를 더 물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끝도 없이 검증하려다 보면 이야기의 재구성은 고사하고 해체쪽으로 더 가까이다가서 고말 것이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애써 찾아내려 했던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가. 아니다. 자료의 진실성에 대한 물음은 원칙적인 것으로 가치가 있다. 그리고 자료의 비판을 통해 자료가 진실과 차이가 난다고 해서 그것을 무효화 할 수는 없다. ‘거짓’에도 진실의 계기가 들어 있으며, 의심할 바 없는 사실의 진실성은 드러나기 마련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진실성도 그 이상의 것을 증언해 주지는 않는다. 전해지는 이야기를 투명하게 하는 것, 즉 집단의 이야기를 선명하게 빛내는 것은 역사 자체의 변증법적 운동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것은 역사 대항력의 미적 표현이다.

이 사실을 인지하는 사람은 재구성자로서 많은 것들이 소멸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이런 저런 식으로 일어난 사건과 서사의 과정에서 이미 역사가 되어버린 사건을 재구성하는 긴 행렬의 서술자 가운데 최후의 (아니 오히려 마지막

에서두번째의) 사람이다. 그는자신보다앞섰던모든사람들처럼어떤관심을나타내어그것이설득력을발휘하도록하려할것이다. 그는비당파적일수가없기때문에서사에개입하기마련이다. 그가다른역사가아니라지금여기의역사를선택한다는점에서이미그의최초의개입이드러난다. 자신이추구하는일에서드러나는그의관심은완벽성을목표로하지않는다.

이야기의재구성자는자신의의도에따라, 혹은자신의의향과는반대로자료를생략·해석·분해·조립하여, 발견한허구들의집합속에자신의허구를삽입하였다. 다만그의허구는다른허구에자신의것을덧붙인다는점에서만타당성을지닐뿐이다. 재구성자가신뢰성을얻는것은그가이작품의주인공을모른다는점에있다. 그는두루티를몰랐고두루티의역사적상황속에있지도않았다. 따라서그는상황을더잘알고있는것도아니다.

그는이마지막말을비밀로하지도않는다. 왜냐하면이이야기를수정할사람은바로독자이기때문이다. 따라서독자는이이야기에동의하든부정하든, 그내막을잊고있든기억하고있든, 소홀히하고있든계속이야기하려고하든, 이이야기에가장가까이서있는사람이며, 비록잠시라할지라도최종적인결론자인셈이다. 재구성자의자유도역시제한되어있다. 왜냐하면그가앞서발견한것은아무런의미도없이그저그의앞에서천칭운동만하면서, 인간의손이닿지않은순수객체로서만존재하는그런단순한‘자료’가아니기때문이다. 오히려반대로여기에있는모든것은수많은손을거친것이며, 이용된흔적이역력하다. 이소설은이책의끝에명기한사람들을포함하여수많은사람들에의하여한번이아니라여러번쓰인것이다. 독자는이들가운데이이야기를서술하는최후의한사람이다. 그래서“감히어느작가도이이야기를기록해야겠다고마음먹지못했던것같다.”

세력대결은피할수없었다. 정권이혁명을피하기위해택한길은군사독재였다. 스페인의혁명은이미 1917년에무르익어있었다. 그러나국왕은개혁을주저했다. 그는공화국을두려워했고, 그와함께농경·과두정체는전통적인통치형태를악착같이고수했다. 사회민주당은모호한약속과최소의특혜로속여넘길수있었지만 CNT 와의타협은생각할수가없었다. 그리하여세력대결은아나키스트들의활동무대인바르셀로나로옮겨졌다. 서로한치의양보도없이완강하게대치했다. 1917년에서 1923년까지의피비린내나는휴전의 5년은바르셀로나에서벌어진도시게릴라전의시대였다. 그투쟁은곧닥칠시민전쟁을대비한총연습과도같았다. 군대와경찰의지원을받았던기업가들이CNT 를공격하기시작했다. 범죄와국가폭력사이의경계선이지워져버렸다. 카탈로니아군사령관마르티네스아니도 (Severiano Martínez Anido) 와그의부하인경찰총장아르레기 (Miguel Arlegui y Bayonés) 장군은국가폭력의대표자들과흡사한지옥의사자들처럼보였다. ‘도망치는’포로들을마치일상의평범한업무를수행하듯이아무거리낌없이사살한사람은게슈타포가아니라스페인관청의기관원이었다. 그리고정부는탈영법 Ley de fugas 을통하여사살을법적으로인준하였다. 카탈로니아자본가는군대의특수요원에버금가는돌격대를조직했다. 바르셀로나의끝없는근접전투는총살, 사보타주, 선동, 비방문의발표, 집단체포, 프락치들의활동, 살인, 고문, 탄압으로도시를혼란의도가니로몰아갔다.

스페인군대를치명적인패배로몰고간모로코식민지전쟁을 1923년에낡은정권에게사형언도를내렸다. 정권의마지막탈출구는독재였다. 프리모데리베라는무엇보다도기업부르주아지출신의후보였다. 그는케말아타튀르크 (Mustafa Kemal Atatürk) 와무솔리니가내걸었던구호를본떠서‘근대화’라는강령을들고나왔다. 그도물론군부의지지에의존했다. 따라서그는군부에온갖특혜를베풀수밖에없었다. CNT 는금지조치를당했다. 사회민주당은정권에협력하기로결정했고, 그리하여사회민주당의총수였던라르고카바예로 (Largo Caballero) 는독재자의내각에들어갔다. 그에의하면타협과임금협상을통해‘사회적문제’를해결할수있다는것이었다. 그것은곧노조조직의국유화를의미했기때문에오히려‘노동전선’의형성을초래하였다. 재야지식인들이탄압을받았다. 프리모는카탈로니아의문제를무시하였다. 개혁은서류상의개혁일뿐이었다. 스페인사회의모순은독재자의책상위에서‘해결될’사안이아니었다. 1929년의경제공황은프리모데리베라정권의실험주의를패배시켰다. 군부가동요했다. 그리고군주정은끝이났다. 스페인기업자본가들의이해관계는새로운정부형태를관철시켰다. 1931년 3월에알폰소 13세는권좌에서물러났다.

비로소 대중적 운동으로 확산되었던 것이다. 이 운동은 사회민주당의 경제주의적·의회주의적 환상을 축발시켰다. UGT 와 CNT 사이에 감정 대립의 골이 너무 깊어 서행동의 통일을 보인 경우는 극히 순간적인, 이를테면 1917년과 1934년, 그리고 내전의 상황에서 일뿐이었다. 조직간에 행동의 통일을 강요하는 상황은 언제나 있었다. 그러나 상호 불신과 악화된 감정 때문에 행동의 통일은 언제나 깨어지기 마련이었다. 두 파벌 간에 지속적인 연대는 있을 수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사회민주당은 노동자들을 기존의 사회 질서 속에 통합해 넣으려 한 반면에 CNT는 사회를 근본적으로 전복시키려 했기 때문이다.

1917년의 혁명은 필연적인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불가능한 것이기도 했다. 구정권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 정권을 지원했던 군부와 경제 세력들은 여전히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다. 현실적으로 유일하게 연합을 이루고 있었던 수구 정당들, 즉 '보수당'과 '자유당'은 전과 다름없이 정부 내에서 조정자의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이들은 조정 능력만 있었을 뿐 자신들의 노선을 전술적 상황에 적용하지는 못했다. 마드리드 행정부가 앞장 서서 제시한 유일한 개혁안은 카탈로니아 부르주아지와의 협상이었다. 이 협상에서 부르주아지는 상당한 조세 면제의 혜택을 누렸다. 그러나 그것은 카탈로니아 민족주의자들을 좌파로 기울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카탈로니아 민족주의가 요구한 자율성의 문제는 미결로 남았다. 민족주의의 자율성 요구는 소부르주아지스페인 민족당 Esquerrapartei 이라는 새로운 세력으로 규합되었다. 스페인 민족당은 노동자 운동의 잠재적인 — 비록 불확실하기는 하지만 — 동맹 파트너가 되었다. 한편 의회주의라는 간판 뒤에는 사회적 우파 세력들이 보이지 않는 동맹 관계를 맺으며 모여들었다. 간판 전면에는 상상 할 수 없을 만큼 우둔하고 무능한 지주 계급이 전과 다름없이 서 있었다. 이게 급은 거만한 기생적 관료들로부터 측면 지원을 받았다. 배후에는 그들과 점차 한 덩어리가 되어 성장하고 있는 기업 부르주아지와 신분이 높은 성직자들, 특히 1912년에 이미 스페인 산업과 금융 자본의 1/3을 통제 관리했던 예수회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전쟁 이후에 스페인으로 흘러든 외국 자본이 있었다. 외국 자본은 1936년에 엄청난 역할을 했다 (프랑스 자본이 30억, 영국 자본이 50억, 미국 자본이 30억 마르크가 들어와 있었다). 이러한 세력들의 연합은 그내적 모순과 완강한 상호 견제에도 불구하고 1936년까지는 별탈 없이 지탱되었다. 혁명적 노동자 운동은 이러한 세력들을 정치적 수단을 통해서 가 아니라 전투적 방법을 통하여 궁지로 몰았다.

스페인 군부는 이미 19세기에 세습 귀족처럼 사회와 등을 돌리고 국가 내에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장교들은 엄청나게 거만했다. 장교 한 명에 사병 여섯 명이 따라다녔다. 군대는 잘못 관리되어 기술적으로 도 낙후한 상태였고, 제대로 된 훈련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년대 초에 국가 예산의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군대의 존재 이유는 자신의 땅에서 점령군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에 있었다. 내전이 있기까지 지배 계급은 군부와, 이들에 가까이 서 있던 탄압을 위한 기구들 (치안 경비대, 비상 경비대, 비밀 추적단, 기병대)에 전적으로 의존했다. 지금까지도 이 점에서는 달라진 것이 아무 것도 없다.

빗나간 아이들

두 가지 모습을 지닌 도시

로마가톨릭의 주교 본부가 있으며, 스페인의 지방 이름과 동일한 주의 수도인 레온 León 시는 레온 강을 형성하고 있는 토리오 Torio 강과 베르네스가 Bernesga 강의 합류지인 해발 8백 51미터의 언덕에 위치하고 있다. 1900년 당시의 인구는 1만 5천 5백 80명이었다. 이 도시는 마드리드와 오비에도 Oviedo 시를 연결하는 급행 열차를 운행한다.

성당과 종세의 여러 건축물들이 잘 보존되어 있는 이 지역은 장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19세기 중엽에 혁명이 발생한 적도 있었지만 소실된 건축물은 하나도 없다. 당시 성벽 바깥에서는 공업에 종사한 사람들이 모여 도시 외곽을 형성하였다. 그곳의 주민들은 철물, 철도 건설, 화학과 가죽 제품 등의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외지로부터 이주해온 사람들이다. 이처럼 레온 시는 오랜 전통의 로마가톨릭적 성격과 동시에 신흥 공업 도시라는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두루티가 출생한 산타아나 Santa Ana 구역에는 낡고 작은 집들이 모여 있다. 이곳은 프롤레타리아트 구역이다. 그의 아버지는 철도 청직원이었고, 그의 형제들도 거의가 철로 작업을 하였다. 두루티도 마찬가지였다.

이 도시의 사회적 분위기는 주교 본부가 장악하고 있었다. 신부들의 뜻에 반하는 모든 이념과 행동은 억압받았다. 레온 시는 한마디로 말해서 오랫동안 교회가 지배해온 스페인 군주정의 작은 성이었다. 산업은 거의 빈사 상태였다고 말할 수 있다. 모든 주민들은 서로를 잘 알고 있었다. 막강한 수비대, 치안 경비대의 여러 분소들, 수 많은 수도승들, 로마가톨릭 대성당, 주교의 호화 저택, 도제 수업원, 수의 사학교, 안정과 질서를 바라는 소부르주아지 계층, 이것이 전부였다. 이곳의 환경은 어떤 이 탈된 사상이나 저항적인 기질도 허용하지 않았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이주뿐이었다. 두루티라는 소년은 레온 시에서는 결코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었다. 당시에는 아주 미온적이어서 별로 해가 되지 않는 공화주의자들을 벌써 잠재적인 극단주의자들 내지는 풍파를 일으킬 인물들로 간주했던 곳이 바로 우리의 소년이 살았던 레온이다.

디에고 아바드 데 산ти안 (Diego Abad de Santillán)

여동생에게서 얻은 정보

1. 부에나벤투라두루티, 1896년 7월 14일 레온시에서 태어남.
2. 형제, 7남 1녀. 1969년 현재 두 남동생과 여동생이 생존하고 있음.
3. 직업: 기술공
4. 이력서: 다섯 살에 레온시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 언제나 착한 학생이었음. 똑똑하고 의협심도 강했다. 레온시의 카푸친대부의 일요학교에도 다녔다. 여기서 여려 과목을 수강하였고 수료증을 받았다. 그것을 어머니가 애지중지 보관해 왔다. 1910~1911년 멜초르마르티네스 (Melchor Martínez) 씨의 공장에서 일당 25 센티모 Centimo 를 받고 일했다. 내가 기억하기에 그는 25 센티모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그 보수가 노동에 비해 턱없이 적은 액수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생각은 달랐다. 어머니는 그 돈이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그곳에서 그가 독립할 수 있는 유용한 기술을 배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 당시 그는 야간 학교에다녔고 여가 시간은 대부분 독서와 공부로 보냈다. 그 후 안토니오 미아하 (Antonio Miaja) 씨가 운영하는 주물 공장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1916년까지 일했다. 그리고 나서 북스페인의 철도 회사에서 견습 공생활을 마치고 1916년에 기술공으로 정식 취직을 했다. 1917년 파업 후에 그는 해고되었다. 스페인을 떠나 파리로 가서 1920년까지 그곳에 머물렀다. 그 후 다시 돌아와 레온의 한 지방인 마탈랴나데토리오 Matallana de Torio 에 있는 한 탄광 회사에 정화 시설 설비 기술자로 취직했다. 그는 병역의무를 치러야 할 나이에 파리에 가 있었다. 그래서 그는 병역 기피자 명단에 올라가 있었고, 스페인에 귀국 했다가 산세바스ティ안 San Sebastián 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키가 커고 건장했으므로 요새 포병으로 차출되었으나 탈장증 脱腸症이 있어 제대를하게 되었다.

5. 소견: 이후의 생활도 마찬 가지였지만, 청년 시절 그의 삶은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다. 그는 가족에게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는 동생들에게 어머니가 안심하고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훌륭한 직장을 구하고 파업에는 가담하지 말라고 조용히 타이르기도 했다. 어머니에게 아주 공손했고 깊은 존경심을 갖고 있었다. 어머니를 매우 사랑했다. 집에서는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입밖에 낸 적이 없었다. 어머니와 나는 언제나 레온의 시민들로부터 존경과 동정심을 받았다. 우리는 내란 이후 모든 신분제도를 경멸하게 되었다. 내란 전에 아버지는 철도 청에서 일했다. 아버지는 레온시의 개발 사업 때 철도 청에 자리를 얻었던 것이다. 아버지는 1931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1968년 아흔한 살의 나이로 눈을 감았다. 물론 아버지는 그 도시에서 명망 있는 사람 중의 하나였다. 프리모데리베라 (Primo de Rivera) 독재 치하에서 아버지는 라이문도델리오 (Raimundo del Rio) 시장이 이끈 시의회의 부시장이 되기도 했다.

유한 세습 귀족과 완전히 노쇠한 궁정 귀족에 대하여 적대적 입장에서 있었다. 또한 산업의 호황은 아직 노동자 귀족, 즉 스스로 시민 계급으로 부상할 시간적 여유를 가지지 못했던 신생 프롤레타리아트의 힘과 요구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전쟁은 폭력의 정신을 일깨웠다. 턱없이 낮은 임금은 — 나는 하루 일한 대가로 4 페세타를 받았는데, 그것은 미국 화폐로 80 센트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 당장 해방투쟁으로 뛰어들 각오가 서게 만들었다.

전망의 지평은 한 주가 다르게 좋아졌다. 석달 만에 바르셀로나 노동자들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CNT에 새로운 세력이 동조했다. 나는 작은 인쇄 노조에 소속되어 있었다. 비록 우리 노조는 수가 늘지 않았지만 — 회원 수는 대략 서른 명 정도였다 — 영향력은 커져 있었다. 마치 우리 모두는 사명으로 각성되어 있는 듯 했다. 러시아 혁명이 발발한 지 삼 개월 뒤에 노동자 위원회는 봉기를 위한 총파업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나는 밤에는 불빛으로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번화가인 파랄레오에 있는 에스파뇰 카페에서 — 이 카페에 인접한 뒷골목은 창녀들이 우글거리고 퀴퀴한 곰팡내가 나는 음침한 사창가였고, 창녀들은 문을 열어놓고 그 안에 응크리고 앉아 있었다 — 다음에 있을 투쟁을 위하여 무장한 행동 대원들을 만났다. 그들은 흥분된 목소리로 싸움에서 쓰러진 사람들을 대해서 말했다. 그들은 브라우닝 권총을 꺼내놓고는, 옆 테이블에 걸에 질린 얼굴을 하고 앉아 있는 경찰의 끄나풀을 비웃었다. 그들은 바르셀로나를 장악할 계획을 품고 있었다. 세부지침까지 마련한 상태였다. 그러나 마드리드는?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은 어쩔 것인가? 바르셀로나를 점령함으로써 군주정이 종식될 것인가?

1917년의 총파업은 유혈 진압되었다. 70명의 노동자가 무장 군의 총에 죽었다. 이 총파업의 실패에는 두 가지가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하나는 스페인 사회에서 군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스페인 노동자 운동의 분열이다.

1880년대와 1890년대 이후부터 스페인 아나키즘을 견제하기 위해 사회 민주주의의 형태를 띤 대항 세력이 성장하였다. 1879년에 창립된 이당은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의회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이당은 선거제도의 공공연한 기만에 속아 수십 년 사이에 그 세력이 위축된 상태였다. 노조 조직으로 이당에 수족역 할을 했던 노동자 총연맹 (UGT, Unión General de Trabajadores) 도 세계 대전 까지는 세력을 확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많은 회비를 모금한 형태, 보수를 받고 일을 하는 소부르주아지 출신의 전문 참모진을 둔 형태, 겁먹은 태도와 거의 다를 것이 없는 정치적 우유부단성을 고려할 때, 사회 민주당은 서유럽의 모델을 충실히 모방한 셈이었다. 이 모든 관점에서 사회 민주당은 CNT와 정반대의 위치에서 있었다. 두 라이벌의 대립은 지역적 분할을 낳았다. 이 대립은 내전이터지기까지 스페인 노동자 운동을 분열시켜 놓았다. 아나키스트들은 카탈로니아와 안달루시아에 활동 기반을 둔 반면에 사회 민주당은 주로 아스투리아 (Asturia), 빌바오, 마드리드에서 영향력을 다져 놓았다. 개량주의는 제 1차 세계 대전이 막 바지에 이른 시기에야

짧은해설 3

스페인의난국상황 (1917~1931)

제 1 차세계대전중스페인은중립국이었다. 대부분이외국자본가들의수중에들어간북부의낡은광산지역은항상바쁘게작업이이루어졌다. 카탈로니아산업에야간작업조가투입되었다. 이지방의경기는최고의상태였다. 스페인의후진적경제구조가바뀌지않았는데도불구하고전쟁은스페인경제에갑작스러운호황을가져왔다. 그러나임금은여전히낮았다. 정전이선언되던날, 스페인의금보유은행은 9 천만파운드의금을비축하고있었다.

“바르셀로나는가장번화한도시였다. 밤이면해안가는빛의물결이었다. 낮에는화사한햇살이비쳤고, 새떼가날고여자들로붐볐다. 여기서도전쟁이가져다준황금물결이넘쳐흘렀다. 동맹국뿐만아니라적국을위해서도공장들은완전가동되었다. 회사는돈을긁어모았다. 사람들의얼굴은삶의기쁨으로가득했다. 쇼윈도우, 은행, 창녀촌에도! 그것은쾌락적광기로변하고있었다.”이것은직업혁명가빅토르세르헤 (Victor Serge) 가 1916~1917 년의겨울에스페인에서경험한것들이다.

“더이상혁명을기대하지않으려던순간에결국혁명이터졌다. 설마했던것이현실로나타났다. 우리는러시아발긴급전보를읽었다. 우리는상황이변했다고느꼈다. 우리에게전해진전보의내용은단순하고구체적이었다. 이제정의의빛이비춰진것이다. 세계는치유불가능한광기의상태는아니었다. 스페인사람들은, 심지어행동가와는거리가멀었던우리공장의노동자들조차도본능적으로페트로광장에서벌어진사건의의미를이해하였다. 혁명의체험은곧바르셀로나와마드리드에전해졌다. 당시스페인의군주알폰소 13 세 (Alfons \x87]\x87V) 는국민의인기나신용도면에서니콜라우스 2 세 (Nikolaus \x87U) 보다도나쁜평가를받고있었다. 러시아에서혁명이일어나게된사회적요건즉, 농업문제, 뒤처진산업화, 유럽에비해거의반세기나낙후한통치형태등이스페인에서도여전히힘을발휘하고있었다. 전쟁기간동안에일어난상공업의부흥은부르주아지, 특히카탈로니아부르주아지의세력을강화시켰다. 카탈로니아부르주아지는대토지를소

동창생

두루티와나는어렸을때부터친구였다. 우리는동지가되었고형제가되었다. 두루티와나의관계는초등학교에입학하기훨씬전, 그러니까첫니가났을때부터였다. 우리는같은동네에사는꼬마들이었다. 나의어머니는아주일찍돌아가셨다. 그때내나이가일곱살아니면여덟살쯤되었을것이다. 어머니가죽자두루티의어머니가나를보살펴주었다. 나는그들의집에서함께지냈다.

그당시우리는그녀를빼빼아줌마라고불렀다. 왜냐하면우리는언제나두루티를빼빼, 혹은빼빼두루티라고불렀기때문에그랬던것이다. 플로렌티노 (Florentino) 라는소년에게는이제친어머니가없었다. 두루티가나를단순한소꿉친구나형제이상으로좋아했기때문에그에게나는친형제나다를바가없었다.

당시두루티의학교성적은매우좋았다. 그는아주열심히공부했다. 우리는그당시별써보통학생의수준을능가했다. 하루는선생님이두루티의어머니를불러이렇게말했다.

“아드님은더이상여기서배울것이없습니다. 여기서공부하는것은그저시간낭비일뿐입니다. 제가생각하기에어머님께서원하시기만하신다면그애는큰인물이될것같습니다. 그아이는아주똑똑합니다.”

그러나그는공부를계속하지않았다. 오히려일을하고싶어했다. 그외에도우리가어렸을때어땠는지알는지? 당시우리는사람들이말하는식으로한다면빗나간아이들이었다. 이웃사람들은우리들을두고기대할것도없는싹수가노란녀석들이라고말하곤했다. 그것은약과였다. 심지어도둑놈들이라고까지하였다.

그들이왜그렇게말했을까? 그연유는이러했다. 우리는언제나과수원에몰래침입했다. 특히두루티는과수원의과일을따와언제나아이들에게나누어주려고했다. 당시우리마을에는레온시에큰과수원을가진한부자가살았는데, 그는우리를붙잡으려고고래고래소리를질러댔다. “야, 나무위에있는놈들!”— 그는우리들을그렇게불렀다 —“네이놈들, 썩꺼지지못해!”그러면두루티는나에게“저늙은영감탱이, 망잘봐라.”라고말했다. 그리고과수원주인이“야, 이놈들아내말이들리지않는겨?”하고소리지르면, 두루티는“잘들리는구먼요!”라고대꾸했다. 주인이“어서썩꺼지지못해!”하면두루티는“잡을테면잡아보시지요.”라고대꾸했다. 주인이“야, 이놈들아, 이건내농장이야!”라고말하면, 두루티는“안다, 그러면내농장은어디있는감유? 어째나는농장이없소이?”라며입씨름을했다. “네놈들몽둥이맛을좀봐야겠구나.”“그래보시지, 그러면무슨일이일어날지볼만할거요.”이런식으로우리몇몇은과일을따갔다. 대개우리는그과일들을선물로나

눠주었고, 그일이 재미있었다. 특히 두루티는 그 일을 그만둘 수가 없었다. 그는 언제나 모든 것을 나누어 주었다.

그는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았다. 그는 무엇을 원했던가? 당시 열네 살 나이에 이미 그는 일하러 나가야 했으며, 쥐꼬리 같은 월급으로 나마 가족을 도와야만 했다. 그의 아버지는 북철도 청에 취직해 있었다. 그래서 두루티는 열여섯 살인가 열일곱 살 때 이미 그의 청춘을 철로 작업에 바쳤던 것이다. 물론 당시 그 일은 재미 있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당일로 지불되었기 때문에 철로 작업은 안정된 일자리처럼 보였다. 기술 공이라면 그것은 특히 안정된 직업이었다.

두루티는 철도 청에서 일하기 전에 이미 열네 살 때 레온 시에 있는 몇몇 공장과 미아하씨의 공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다. 그곳에서 벌써 그는 아스투리아 출신의 노동자들을 사귀어 알고 지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정을 두루티에게 하소연하기도 했다. 두루티는 그 이야기들을 자세히 듣고 나서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멀리 떨어진 아스투리아에서 왔기 때문에 부인이나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한번 하려면 주말에 집까지 걸어야만 했다.

플로렌티노 몬로이 (Florentino Monroy)

총파업

1917년 총파업이터졌다. 당시 스페인 전역에서 총파업이 일어났는데, 이미 우리는 그 낌새를 대강 짐작하고 있었다. 우리는 레온 시의 사회주의 노동조합에가입해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다른 조합이라고는 없었다.

우리는 조합이 침체의 늪에서 빠져 나오게 하기 위해 그 사건에 미약하나 마바람을 불어 넣은 최초의 선동자였다. 사람들은 한결같이 투표 용지에 만의 존하는 선거에 의해 사회가 개선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더 이상 아무 것도 나아지지 않을 때, 바로그 때는 여러분이 완전히다른 일을 도모해야 할 때라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1917년 파업이터졌을 때, 우리 의나이는 기껏 열 아홉이었다. 폭력적이었을까? 그 파업이 폭력적인 파업이었을까? 우리는 폭력을 선동했다. 정부는 우리를 군대에 징집하였다. 파업은 밤사이에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한밤중에 시작되었다. 노동자들이 공장을 벗어나 거리로 나왔다. 전국에서 치안 경비대가 노동자들을 진압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우리는 파업이 아무 성과 없이 실패로 끝나는 것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우리에게 특별한 무기는 없었지만 그래도 무장을 하였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군인들에게 겁을 주기에는 충분했다. 군인들이 이미 역을 점거하고 있었다. 역은 도시 쪽 강 건너편에 있었다. 벌써 날은 저물었다. 우리는 무장한 군인들

의무기가 차갑게 번쩍이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얼마나 지나지 않아 저녁 하늘에 총성이 울려 퍼졌다. 빵! 핑 — 빵, 핑 — 빵. 그것은 전쟁과도 같았다. 우리에겐 그것이 재미 있었다.

금방 우리는 치안 경비대에게 밀리기 시작했다. 작은 연발 권총으로는 버틸 수가 없었다. 우리는 레온 시 중심에 있는 쌍고 압전 선주를 찾았다. 그것은 매우 높았으며 전망이 좋았다. 고압전 선주 바로 앞에는 키가 큰 나무들이 서 있었다. 우리는 각자 모자와 호주머니에 돌멩이를 가득 집어 넣고 서 높이 기어 올라가 감쪽같이 숨어서 기다렸다. 우리는 돌멩이를 경찰에게 던졌다.

경찰은 돌이 어디에서 날아오는지를 랐기 때문에 미친 듯이 날뛰었다. 돌이 아스팔트에 부딪히자 어둠 속에서 불꽃이 튀었다. 사방에서 돌이 날아들었으니! 경찰들은 말을 타고 사람들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붙잡지 못했다.

수직으로 많지는 않았지만 효과는 좋았다. 피동적인 투쟁으로는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다. 혁명의 분위기가 점차 고조되었고, 이후 그 분위기는 노동자 국민연합 (CNT, Confederación Nacional del Trabajo)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물론 두루티는 당시에 이미 이 투쟁의 선동자가 되어 있었다.

플로렌티노 몬로이

노동조합들

사회민주당이 배후 조종했던 관제 노조인 철도 노동조합은 1917년 총파업의 책임을 물어 두루티와 그의 몇몇 동지들을 해고하였다. 그들은 짧은 혈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총파업이 정치권력자들의 계략에 넘어갔다고 파업의 결과를 냉정하게 평가했다. 라르고 카바예로 (Largo Caballero), 베스테이로 (Besteiro), 앙히아노 (Angiano), 사보리트 (Saborit)와 같은 사회민주당의 지도자들이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잠정적인 과격 노동자들의 손과 발을 끓어그들을 쉽게 철도 회사측에 넘겨주기 위해 위장파업을 사주했던 것이다.

이런 비열한 기만적 연극을 통해 파업 문제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결의하기 위해 여정 친권력자들은 의회를 소집 할 명분을 찾았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아나키스트 노조원들을 철도 노조에서 탈퇴시키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아나키스트들은 이런 개량주의적인 계략에 의해 소집된 의회와, 이 의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회민주당을 거부하고 노조의 혁명 노선을 위한 명확한 투쟁을 선언하였다.

두루티는 그들 가운데 가장 혁명적이고 투쟁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동지들과 함께 기업가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기를 거부했다. 오히려 반대로그들은 전면적인 사보타주를 전개했다. 자동차가 불탔고 문서들은 찢겨져나갔으며, 격납고와 창고가 불길에 휩싸였다. 그밖의 것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전술은 중대한 결과를

낳았다. 많은 노동자들이 부르주아지의 물건들을 차지하였다. 그런데이 사보타주 가 확산되고 있는 동안 사회주의자들은 파업의 종결을 선언했다.

두루티를 포함하여 파업을 주동했던 조직원들은 직장을 잃었다. 그러나 아나키스트 노조가 창립한 노동자 국민연합 (CNT)이 이미 성장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스페인 프롤레타리아트는 이 조직에 동조하여 연대투쟁을 벌여나갔다. 두루티는 사회 민주당의 아성인 아스투리아 탄광촌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그는 CNT 아나키즘 노선을 위해 종립적이고 개량주의적인 노조 위원들과 투쟁했다. 그는 블랙리스트에 올랐고, 다시 직장을 잃고 프랑스로 망명해야만 했다.

데롤 (V, de Rol)

나는 아나키즘의 발족을 아스카소 (Ascaso) 와 두루티의 공적으로 돌렸다. 내 처음 두루티를 만났을 때, 그는 수줍음이 많은 청년처럼 보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자신의 이념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그는 레온 시에서 산세바스티안으로 옮겨와서 우리 지역 노조연합에 가입을 신청했다. 그는 기술공으로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 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한 공장을 소개해주었다. 며칠 후 그는 다시 와서 그곳 노조는 기업주에게 노조의 의지를 관철할 용기가 없다고 불평했다. 만일 노조연합이 허락한다면 그는 자신의 힘으로 그곳 노조를 재건하고 싶다고 말했다. 노조연합은 동의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노조연합은 자체의 허약성 때문에 아직 아무 것도 계획할 수 없었고, 계획할 의지도 없었기 때문이다. 노조연합은 만일 두루티가 그렇게 할 경우 희생당 할 수 있다고 경고까지 했다. 그래서 두루티는 그곳 노동 현장을 떠났다. 그는 산세바스티안에서 비록 감정적이기는 했지만 우리의 이념을 처음으로 드러내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이 두루티 투쟁의 시작이었다…….

마누엘 부에나카사 (Manuel Buenacasa)

1 차망명

그 후 그는 파리로 가서 기계 조립 공으로 일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곳 공장 의사람들은 그를 베르리트 (Berliet), 혹은 브레게 (Breguet)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레온 출신의 동지들이 그와 동행하였다. 특히 우리가 재담꾼이라고 불렸던 동지는 늘 두루티와 붙어다녔다. 그는 나중에 파시스트에게 암살당했다. 그들이다시 스페인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스페인 안팎에서 계급 투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하였다. 두루티는 이 계급 투쟁에 마음이 끌렸다. 그런 점에서 미래를 어느 정도 내다 볼 줄 아는 그의 안목을 읽을 수 있었다. 이를테면 두루티는 이미 파리의 아나키스트 노조가 설립한 문제의 학교에 입학했던 것이다.

플로렌티노 몬로이

어머니

두루티가 레온 시에 살고 있는 식구들을 방문하려 간 뒤로 우리는 예전처럼 자주 만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바르셀로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었으며, 그곳 투쟁의 정황에 대해서도 듣고 있었다. 그가 어머니에게 갔을 때, — 여러분이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 어머니는 그의 옷을 기워야 했고 구두를 수선해야 했다.

그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정말 그래,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세상을 이해할 수가 없어. 신문은 언제나 두루티가 여기저기 서이런 짓, 저런 짓을 했다고 떠들고 있지만, 두루티가 몰래 집에 올 때는 언제나 그저 너덜 너덜 한 옷만 몸뚱이에 걸치고 왔지. 그애 꼴을 좀 보라지! 기자나 부랭이들이 어떻게 썼지? 오직 두루티를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새빨간 거짓말뿐이야. 그것이 지금의 그애를 만들어놓은 거야.” 어머니의 말은 사실이었다. 지난 몇 년 동안 스페인 사람들은 두루티를 담벼락의 낙서감으로 삼았다. 그림은은 행을 터는 장면이나 폭탄을 몸에 주렁주렁 단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이렇게 항변했다. “절대 그럴리가 없어. 그애가 집에 돌아왔을 때마다 내가 떨어진 옷을 기웠는데, 신문의 기자들은 우리애 가습격 한은 행에서 돈을 삼으로 퍼갔다고 써놓나니.”

물론 실제로 습격이 여러 번 있었지만 두루티는 그 돈을 이쪽 손으로 가져가서는 저쪽 손으로 수감된 동지들의 가족과 투쟁을 위해 사용하였다. 여러분도 이해하겠지만 감춘 돈은 한 푼도 없었다. 우리가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플로렌티노 몬로이

우리 모두가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한번이냐고? 하도 어이가 없어 웃음도 나오지 않는다. 열서너 번은 된다. 독재자 프리모 데 리베라가 권력을 장악했던 1923년, 그의 하수인들은 우리 모두를 가둬버렸다. 그들은 아무 것도 아닌 일로도 우리를 감금했던 것이다. 그런 감금은 독재 정치 아래서 만이 뿐이었다. 나는 바르셀로나, 사라고사, 산세바스티안, 레리다 등의 감옥에서 오년이라는 세월을 보냈다. 그런데 우리가 수감되었을 때마다, 간수들은 우리 편이었다. 그들은 우리에게 정보를 갖다주었고, 우리의 비밀문서를 바깥으로 몰래 반출 시켜주기도 했다. 간수를 우리 편으로 만들기는 쉬웠다. 많은 간수들은 우리의 이야기에 설득당해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고집이 센 간수들은 돈으로 매수하였다. 우리는 동지들이 가족을 잘 돌봐주었기 때문에 마음 편히 잠잘 수가 있었다. 우리는 감방에서도 자주 정 치토론을 벌였다.

나는 가르시아 올리베르와는 여러 번 같은 방에 수감되었지만 두루티와는 딱 한 번 같이 지낸 적이 있다. 당시의 형무소 동기들 가운데 여러 명이 훗날 장관이 되었다.

리카르도 산스

프리모데리베라의 쿠데타가 발생한지 한 달 뒤인 1923년 10월, **연대의식**은 중개인을 통해 아이바르 Eibar에 있던 가라테 - 아니투아무기 합작 회사로부터 열 두 발들이 연발총 1 천정과 탄약 2 십만 포를 구입하는데 성공했다. 이것을 구입하는데 25 만페세타를 지불했다.

이보다 몇 시간 전에 **연대의식**은 바르셀로나의 신인민촌구역에서 30 만페세타로 주철 공장을 매입했다. 이 공장에서 수류탄 캡슐과 포탄 껌데기를 주물했다. 주 물공유 세비오브라우가 그 일의 책임을 맡았다. 또한 **연대의식**은 바르셀로나에 있는 빈민촌구역에 무기고를 두고 관리하였다. 밀고자 의제보를 받고 경찰이 무기고를 수색했을 때, 6 천발이 넘는 수류탄이 보관되어 있었다.

그 외에도 프랑스와 벨기에로부터 구입한 휴대용 화기와 총기들을 보관한 무기고가 도시 곳곳에 분산되어 있었다. 이 무기들은 대개 무기 중개 상들이 풍트로 위와 피게르다를 가르는 프랑스 국경을 넘어 스페인으로 밀반입한 것들이었다. 또 다른 수송편으로는 해로가 있었다.

연대의식의 규율은 엄격했다. 작전에 직접 관련이 있는 책임자 몇 명에게만 행동 지침이 내려졌다. 각자에게 필요한 것만 알렸을 뿐 나머지는 비밀이었다. 대원들 사이에는 대장이니 주동자니 하는 간부 형태가 없었다. 모든 결정은 임무를 수행하는 동지들에 의해 공동으로 이루어졌다.

리카르도 산스 2

혁명 민족 위원회가 브뤼셀에서 무기를 구입하여 마르세유를 거쳐 국내로 잠입하였다. 그러나 무기를 손에 넣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래서 두루티와 아스카소가 1923년 6월에 비축 무기를 구입하기 위해 빌바오로 갔다. 무기 제작 회사는 아이바르에 있었다. 그곳에서 일하던 기술병이 중개인 역할을 맡았다. 무기 수송의 공식 루트는 일단 배편을 이용하여 멕시코로 향한다는 것이었다. 그 다음 선장은 바다에 나가서 새로운 지시를 기다렸다가 명령을 받으면 뱃머리를 돌려 지브롤터 해협을 통과하여 바르셀로나로 입항한다는 것이었다. 입항 할 때 도 정박소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를 택하여 밤에 물건을 하역할 계획이었다. 시간이 절박했다. 그러나 회사는 인도 기일을 지킬 수가 없었다. 무기를 실은 배가 9월이 되어서야 바르셀로나에도착했다. 너무 늦은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프리모데리베라가 쿠데타를 성공적으로 끝마쳤기 때문이다. 배를 빌바오로 돌려 보내 무기를 회사에 반환할 수밖에 없었다.

아벨파스 (Abel Paz) 2

파리에서 그는 삼년 동안 기술 공으로 일했다. 스페인의 동지들은 그에게 조국의 상황에 대해 하여 이렇게 알려왔다. 아나키즘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CNT 의회원은 이미 백만을 넘어섰다. 공화국의 출범이 준비되고 있으며, 왕정의 몰락이 가까워 오고 있다. 정권과 부르주아지는 아나키스트들과 CNT, 그리고 좌익 공화파들의 선동자들을 제거하기 위해 권총 암살단을 만들었다…….

이 소식을 들은 혁명가 두루티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그는 몰래 프랑스 국경을 넘어 스페인으로 돌아갔다. 그는 산세바스티안에서 왕정 반대 운동을 준비하고 있던 아나키즘 투쟁단에 가입했다. 거기서 그는 프란시스코 아스카소와 그레고리오 호베르 (Gregorio Jover), 가르시아 올리베르도 만났다.

알레한드로 힐라베르트 (Alejandro Gilabert)

하얀 카네이션을 단 데이비스

나는 1920년에 마틸라나 델 토리오로 간 두루티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했다. 마틸라나는 렌온시의 북쪽에 있다. 그곳에서 그는 기술 공으로 서영국-스페인 합작 탄광 회사에서 일했다. 산 속에 위치한 그 탄광촌에서는 벌써 사회주의자들이 배후를 조종하는 노동 운동 조직이 활동하고 있었다. 그가 도착했던 당시는 노동자와 자본가의 갈등이 발생하던 때였고 그는 파업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그 마을에 갔었다. 아버지는 아나키스트였고, 자신의 의지대로 노동자들을 선동하였다. 그는 담배에 올라서 서대중들을 설득했다. 노동자들은 공장 주에게 항의하기 위해 몰려갔다. 행렬이 광업 회사 사무실 앞에도착했을 때, 내가 짐작하기로는 회사 감독은 파업 대표자들과 만나기를 거부했던 것 같다. 그는 영국 출신의 엔지니어였고, 이름은 데이비스 (Davis)였다.

데이비스는 멋부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언제나 근사한 옷을 입고 다녔고 윗단추 구멍에는 흰 카네이션을 꽂고 다녔다. 그는 결핵을 앓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두루티에 대해서는 소문을 통해 벌써 알고 있었다. 아마도 그는 고민을 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는 문을 지키는 수위에게 두루티가 들어오지 못하게 지시해놓았다.

두루티는 무장한 수위에게다가 가이렇게 말했다. “데이비스씨께 정중한 인사를 전하시오. 그래도 문 밖으로 나오지 않겠다면 내가 직접데리고 나오겠소. 그렇게 되면 그는 창문을 뚫고 거리에 나가떨어질 것이오.”

몇 분 뒤에 데이비스가 현관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는 파업지도자들을 매우 정중히 사무실 안으로 불러들였다. 오랜 협상이 진행되었다. 노동자들이 요구한 것이 받아들여졌고, 파업은 승리로 끝났다. 며칠 뒤, 경찰이 두루티의 구속 영장을 가지고 왔다. 그러나 그 때는 이미 두루티의 이름이 온 탄광촌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

훌리오파탄 (Julio Patán)

다이너마이트

가만히있지못하는그의기질, 즉호기심과부대낌에서오는즐거움이그를라코루냐 La Coruña, 빌바오 Bilbao, 산탄데르 Santander 와그리고북쪽의여러도시들을돌아다니게만들었다. 여행을마치고돌아오는길에두루티는자신이묵었던허름한여관앞에서이상한일이벌어지고있음을목격했다. 경찰이여관을포위하고있었다. 그러나두루티는이미멀리가고없었다. 벌서부터그는상황을예감하고있었던것이다. 왜냐하면그당시에이미악명높은‘도망자신고법’이기능을발휘하고있었기때문이다. 이법은많은노동자들의생명을위협하고있었다.

당시산세바스티안에건립된화려한 **그랜드온천장**이개막식을앞두고있었다. 그건물은카바레와카지노로사용될것이라고들했다. 여름에휴양지로산세바스티안을방문하고는하는국왕부처와스페인최고귀족층이이개막식에참석하기로되어있었다. 그런데경찰이이건물지하실에구멍이나있는것을발견했다. 경찰은이사건을또다시아나키스트들의소행으로몰아붙였다. 경찰에의하면, 아나키스트들이개막식을기회로왕과각료들, 그리고다른지체높은사람들을온천장과함께공중폭발시키려는음모를꾸몄다는것이다.

당시에는경찰이이러한범죄음모를꾸며내아나키스트들에게뒤집어씌우는일이아주흔했다. 경찰은두루티와, 카지노를건축할때목공으로일한그의두동지들을이음모의주동자로지목했다. 경찰은야간에은밀하게작업하여구멍을뚫었다고주장하면서그세사람을용의자명단에올려놓았던것이다. 경찰은두루티가기술공으로서시한폭탄을제조할수있을뿐만아니라그의동료들이많이있는아스투리아의빌바오탄광촌에서다량의다이너마이트를입수했다고주장하였다.

목공그레고리오수베르비엘라 (Gregorio Suberviela) 와테오도로아라르테 (Teodoro Arrarte), 두동지는바르셀로나경찰에게살해당했다. 두루티는프랑스로도피할수있었다. 스페인당국은프랑스정부에두루티를붙잡게되면추방할것을요청했다. 이때부터그에대한흑색선전이난무하기시작했다. 흑색선전을일삼는자들은그를극악무도한범인으로낙인찍으려했다. 그러한흑색선전은두루티가온갖탄압에도굴복하지않고자신의혁명과업을계속수행해나갈수록더심해졌다.

두루티는아나키스트가되기훨씬전에이미선동가로변모해있었다. 당시카탈로니아노동운동을이끌고있던부에나카사는“오직바르셀로나에만프롤레타리아트의식이살아움직이기”때문에바르셀로나는두루티가활동할수있는유일한지역이라고그에게말해주었다. 그런데그는이미히혼 Gijón 과렌테리아 Rentería 에서혼자힘으로어려운노동쟁의를해결한경험이있었지만, 그의동료들이열악한노동조건을그저참고만있을뿐이었기때문에그는그들을바라보고비꼬았다. 이대담한레온시의청년은부에나카사의충고에따라바르셀로나로갔다.

페데리카몬트세니 (Federica Montseny)

1932년 8월말, **연대의식**의조직원대부분이아스투리아에모였다. 9월 1일, 스페인은행히혼지점이습격당했다. 이습격에서희생자는없었다. 며칠후, 치안경비대가오비에도에서습격에가담했던몇명의동지들을체포하려고했다. 경찰은사정없이사격을가했다. 그때유세비오브라우동지가총에맞아죽었다. 그는조직원가운데서경찰이쏜총에맞아사망한최초의동지였다. 경찰은솔데빌라추기경암살사건의용의자로토レス에스카르틴을체포했다. 경찰은에스카르틴을고문하여정보를캐내려하였다. 그는오비에도형무소를탈출하려했지만치안경비대의감시가철통같아서탈옥에실패하였다.

경찰은유세비오브라우의시신을확인시켜주지않았다. 그는이미신살이넘었고, 미망인이된그의어머니가바르셀로나에살고있었다. 그녀의생계를위하여 **연대의식**은그녀가살고있던 **신인민촌구역**의시장에가게를하나마련해주었다.

리카르도산스 2

무기

우리가가진무기라고는휴대용화기와소형권총뿐이었다. 스페인에서무기를밀수입한다는것은그리쉬운일이아니었다.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바르셀로나의동지들은그들이근무하고있던주물공장을생각해냈다. 동지들은공장을인수하면수류탄을생산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 그것은혁명에꼭필요한것이었다. 수류탄을만들려면폭약이필요했다. 그러나그것은걱정할필요가없었다. 채석장에서일하던동지들이우리에게다이너마이트를제공해주었다.

이모든일을위해서는돈이필요했다. 돈없이는아무것도할수가없었다. 돈은은행에산더미처럼쌓여있었다. 당시많은사람들은자본주의와돈을반대했던우리가은행에서돈을가지고나오는것은변절행위라고생각했지만우리는우리자신을살찌우기위해서돈이필요했던것이아니다. 혁명을위해서는자금이필요했기때문에우리는자금을확보하려했던것이다. 사람들은그런우리의행위를비도덕적인것이라고비난했다. 그러나오늘날은그것이어쩔수없는행동이었다는사실을누구나인정하고있다.

한번은내가스페인무기밀수업자와동행하여프랑스에간적이있었다. 우리는마르세유에서무기를조달받았다. 그밀수업자는그런일의전문가였다. 나는마르세유에서독일제기관총을처음으로만져보았다. 그것을스페인으로 가져왔다. 장군들이군사쿠데타를일으켰던 1936년에나는그기관총을잡고거리로진출하였다.

리카르도산스 1

3 회검거작전

마누엘부에나카사, 「크로니카 Crónica」¹

호르마세 Hormaeche 건설회사를 상대로 한 바르셀로나 지하철 건설 노동자들의 파업은 새로운 파장을 일으켰다. 회사는 오래전부터 CNT 의적이었다. 회사는 파업 선동자들을 제거할 목적으로 사복 형사대를 고용했다. 아나키스트들은 자기 방어를 할 수밖에 없었다.

빌바오의 전임지사였던 곤잘레스 레게랄 (Gonzalez Regueral) 이레온시에 서 피살되었다. 으레 그럴듯이 경찰은 **연대의식** 조직에서 범인을 색출하려고 했다. 경찰은 우선 두루티를 혐의자로 지목했다. 그러나 두루티는 문제 가터진 바로그 날, 여권을 발급 받기 위해 해브리셀에 가 있었다. 그러자 경찰은 아스카소를 범인으로 몰았다. 그러나 그도 그 사건과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사건 당일에 라코루냐에 구금되어 있었던 것이다. 결국 경찰은 아라르테 와 수베르비올라를 수배했다. 두 사람은 바르셀로나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경찰 당국은 수베르비올라, 아라르테, 프란시스코 아스카소, 호베르 가접선 하기로 한 날짜와 장소에 관한 정보를 입수했다. 수베르비올라가 묵고 있던 여관이 경찰에 의해 포위되었다. 그는 탈출을 시도했다. 양손에 권총을 들고 경찰을 향해 정면으로 돌진했다. 그의 체포를 위해 여관에 진입해 있던 경찰은 당황하여 몸을 뒤로 피했다. 그러나 여관문을 나서자 마자 여관 입구와 모퉁이에 잠복하고 있던 경찰들이 난사한 총에 맞아 수베르비올라는 죽임을 당했다. 서너 명의 사복 경찰들이 아라르테의 집을 찾아왔다. 그들은 수배 받고 있는 동지라며 그에게 접근했다. 그러나 아라르테는 그들이 경찰임을 눈치채고, 안전한 동지의 집으로 데려다주겠다고 거짓 말을 했다. 그는 그들을 시외곽으로 유인하여 거기서 기회를 잡아도 망칠 생각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그에게 그런 시간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들은 거리에서 그를 바로 사살했다. 여관 5층에서 급습을 당한 아스카소는 창문 밖으로 몸을 날렸다. 추적자들이 그의 등 뒤에서 맹렬히 사격을 했지만 그는 생명을 건졌다. 호베르는 자기 집에서 검거되어 시경으로 끌려갔다. 경찰 국장이 그를 불렀다. 그는 감방에서 나와 도로 통하는 문 옆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두 감시 병의 가슴을 힘껏 내리쳤다. 그리고는 퍼붓는 총알 세례를 피하면서 쓴살 같아도 망쳤다.

데를

두루티와 아스카소, 호베르가 르시아 올리베르는 에두아르도 다타 총리를 암살할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두루티는 이 암살 계획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한다. 암살 계획을 실제로 준비한 사람은 라몬 아르크스 (Ramón Archs)였다. 그는 나중에 고문 살해되었다. 이 계획의 가담자들 중 한 사람�이 아직 생존하고 있다. 또한 사람의 가담자인 라몬 카사네야스 (Ramón Casanellas)는 소련으로 망명하여 공산주의자로 전향하였다. 그 후 그는 오토 바이사고로 사망했다.

¹ 편집자주 - 「크로니카」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발행된 신문이다. 1963년 7월 29일 발행인 엑토리카르도 가르시아 Héctor Ricardo García에 의해 설립된 이 신문은 커다란 헤드라인과 황색 저널스러운 접근으로 유명해졌다. 가르시아는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 신문이 너무 평온했기 때문에, 우리는 중앙아메리카에서 보는 것과 같은 크고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필요했습니다.”

짧은해설 2

스페인아나키즘의뿌리

1868년 10월의 어느날, 주세페파넬리 (Giuseppe Fanelli)라는 이탈리아 사람이다리드에도착했다. 그는 대략 마흔 살쯤되어보였다. 그의 직업은 기술자였다. 그는 술이 많고 짙은 까만 콧수염과 정열적인 눈을 가진 거구의 사나이였다. 그는 단숨에 그날의 일을 결정했다.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수첩에 명기된 주소를 찾아나섰다. 그곳은 카페였다. 그 카페에서 그는 작은 모임에 참석하는 노동자들을 만났다. 그들 대부분은 스페인의 주요 도시에서 불법인 쇄물을 찍어내는 인쇄업자들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금속이 부딪치듯 카랑카랑했다. 그는 목소리의 톤을 자유자재로 바꾸었다. 독재자와 착취자들에 대해서 말할 때는 분노와 위협적인 억양을 뒤섞었고, 피억압자들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에는 비애와 고통의 음색 그리고 용기를 북돋는 음색을 띠었다. 그런데 주의 할 만한 사실은 그가 스페인어를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그는 우리들 중 몇몇이 겨우 부분 부분 이해 할 수 있는 불어로 말하거나, 우리 말과 많은 유사성을 띠고 있는 이탈리아어로 말했다. 이 경우 서로 섹 잘 통했다. 그러나 어쨌든 그가 연설을 마쳤을 때, 그 의사상은 우리를 깊이 감동시키기 위해 충분했다.” 이 이탈리아인의 방문이 있은지 32년이 지난 지금도 스페인 최초의 아나키스트들 가운데 한 사람인 안셀모 로렌소 (Anselmo Lorenzo)는 파넬리를 ‘사도’로 기억하면서, 당시 그의 말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는 등골을 오싹하게 했던, 파넬리의 구호를 기억하고 있다.

“심장이 섬뜩할 일을 벌이시오! 공포를!”

“나흘 동안 저녁마다 파넬리는 우리 앞에서 선동적인 연설을 했다. 산책을 할 때도, 카페에 앉아 있을 때도 그는 우리와 이야기 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인터내셔널의 규약문과 민주 사회주의자들의 동맹 프로그램, 그리고 바쿠닌 (Bakunin)의 논설과 연설이 실린 몇 장의 신문을 넘겨주었다. 우리가 헤어지기 전에 그는 단체 사진을 찍자고 제의 했다. 그가 우리한 가운데에 섰다.”

3년의 유혈 진압 끝에, 바르셀로나에서 최초로 공식적인 노동자 시위가 벌어졌다. 이 시위는 대단한 전시적 효과를 거두었다. 목재 노동자 노조가 외치는 분노의 소리는 스페인에서 가장 넓은 강당 중 하나인 빅토리아 극장 주변을 메우고 도남았다. 행사는 전사한 1백 7명의 CNT 전위대들의 긴명단을 읽어내려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바르셀로나의 아나키스트 단체들은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그들은 노동자 문화원과 학교를 설립하였다. 그들이 발간하는 연합 신문은 그 발행 부수 가 오만부에 달했다. 이수치는 부르주아지가 발행하는 바르셀로나의 일간지를 능가했다.

데를

학교 설립 자금

일찍이나는 제 1 차 세계 대전이 진행되던 중이었던 1915년에 아나키즘 운동에 가담하였다. 그것은 아버지의 영향이 커다. 나의 아버지는 공산당원이었으며, 1871년 파리 코뮌의 바리케이드 투쟁에 참가한 적도 있었다.

당시 내나이는 열아홉 살도 채 되지 않았다. 전쟁이터 졸을 때 나는 처음으로 신문에 글을 기고 했다. 나는 국제 공산당원이었기에 전쟁에 가담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스페인으로 갔다. 왜냐하면 스페인은 당시 중립국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곳에서 나는 즉시 시위 운동에 가담하여 실천적인 아나키스트가 되었다.

나는 철공소와 제련소에서 보조 공으로 일하면서 십년 동안 일당제로 연명하였다. 스물여덟 살이 될 때까지 열 두 번이나 직업을 바꾸었다. 예기치 않게 나는 스페인 북서쪽의 외딴 지방인 갈리시아에 있는 라코루냐의 무료 학교 선생이 되었다.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한 단체는 선원과 항만 부두 노동자들을 주축으로 한 CNT 의지부였다. 개교에 필요한 자금은 두루티가 조달했다.

그가 조달한 자금은 물론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마련된 것이었다. 그 사실을 지금은 그저 차분히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다. 습격을 했던 것이다. 이번에 습격한 곳은은 행이 아니라 어음 거래소였다. 두루티가 권총을 들고 안으로 들어가 돈을 요구했다. 실탄 한발이 발사되었다. 노조는 자금을 마련해야 학교를 열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런 행위는 부르주아지의 법전을 들고서는 판단할 일이 아니다. 나는 당시 민중들의 상황 자체를 생생하게 경험하였다. 그 때의 상황은 내게도 용기가 있었더라면 죽음을 각오하고 서라도 그렇게 했을 분위기였다. 당시 스페인에 만연해 있던 참혹하고 꼼찍했던 현실을 목격했더라면, 그 사람들의 목숨을 진행동에 수긍했을 것이다.

가스톤 레발 (Gaston Leval)

을 체험하게 되었다. 이 파업에 폭력 진압이 자행되었다. 파업에 가담한 노동자들이 폭행을 당했고 공장이 포위되었다. 결국 기업주들의 폭력적 보복에 대한 정당방위로 공장 주가 살해되었다. 파업 위원 전원이 구속되었다. 호베르에게는 폭력 선동과 신체 상해 등등의 죄목으로 징역 2년이 구형되었다. 곧 석방되었으나 이번에는 군 막사 내에 군사 해체 전단을 유포 하였다는 혐의로 다시 감금되었다.

마침내 호베르는 바르셀로나로 가서 금지 조치된 CNT 의회원이 되어 가장 투쟁적인 동지 중 한 사람으로 변신하였다.

당시부르주아지는 노동자들에게 강력한 적군으로 비쳤다. 백색 테러가 점점 더 잔인해졌다. 테러 단의 하루 일정은 체포, 고문, '도망자' 저격으로 짜여 있었다. 아나키스트 노동자들에게 마지막 남은 선택은 프롤레타리아트 폭력에 의지하는 것뿐이었다. 선량한 동지들과 마찬 가지로 마침내 호베르도 손에 무기를 들고 자본가들의 권총 총살단에 대적하였다. 당시에는 어떤 투쟁적인 노동자도 완전무장을 하지 않고 서는 집 밖을 나설 수가 없었다. 노동 현장에서도 권총을 장전하여 작업대 옆에 놓고 서 일을 해야 할 지경이었다.

기업연합의 회장이며, 수억의 재산을 가졌던 사업가 그라우페라 (Graupera) 가 무장 대원들의 탄알에 쓰러졌다. 이어서 바렛 (Barret), 브라보 포르티요 (Bravo Portillo), 에스페호 (Espejo) 와 같은 살인 전문 경찰 단원이 살해되었다. 바르셀로나의 부지사였던 마에스트레 라보르데 (Maestre Lborde) 가 발렌시아에서 죽었다. 사라고사에서는 빌바오의 제철소 회장, 자동차 회사의 사장, 시청 토목과장, 밀고자 요동자 착취자로 알려져 있던 전기 회사 공장 감독관 등이 혁명 가의 총탄에 쓰러졌다. 바르셀로나에서도 CNT 는 필사적인 자기 방어를 했다. 매일 노동자가 살해되었고, 부르주아지나 경찰도 대낮에 살해되었다. 이 전쟁은 3년 동안 거리에서 끊임없이 진행되었다. 사무실에 앉아 탄압을 주도해 왔던 마르티네스 아니도와 아르레기는 자유로운 하늘 아래 감히 얼굴을 내놓고 다닐 수가 없었다.

경찰은 아나키스트들이 마르티네스 아니도를 암살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발표했다. 정보에 의하면, 음모의 주동자들이 우선 바르셀로나 시장을 저격한다음 그의 장례식에 참석할 아니도와 아르레기와 같은 저명인사들을 수류탄으로 암살한다는 것이었다. 탄압은 더욱 심해졌다. 그래서 프롤레타리아트는 방어적인 저항을 적극적인 공격으로 전환하였다. 산업계의 거물들을 호위하는 바르셀로나의 추적단이 철통 같이 감시를 했지만 수류탄 기습을 막을 수는 없었다. 많은 기업가들이 중상을 입었다. 기습 공격을 받고로 마가 틀릭 주 교회의에서 파견한 시의회 고문이었던 앤글라다 (Anglada) 와 시장이 부상을 당했다. 호베르는 계속되는 이런 투쟁의 분위기에서 언제나 뒤따르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서도 냉정한 침착성을 잃지 않고 용감하고 정열적인 투쟁가로서의 면모를 유감 없이 발휘하였다.

다토 수상이 노동자들에 의해 살해되자 아니도와 아르레기는 직위에 제로되었다. 노조가 합법화되었다. 그래서 노조는 조직을 재정비할 수 있었다. 당시에 호베르는 두루티와 아스카소 형제를 알고 있었다.

우리는 파넬리가 조직의 밀사로 스페인에 오기 전까지는 국제 노동자 연합이라는 조직에 대하여 들어 본 적이 없었다. 파넬리는 바쿠닌의 추종자였고, 제 1 인터내셔널 '반정부'파에 속했다. 그가 스페인에 전달한 바 밀명령은 아나키즘이었다.

이 혁명론은 순식간에 스페인 노동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그것은 스페인 서남부 지역의 농업 노동자들과 산업 노동자들 사이에 초원의 불길처럼 확산되었다. 스페인 노동자 운동은 1870년에 열린 제 1 차 회의에서 이미 바쿠닌을 지지하고 마르크스를 반대했다. 2년 뒤, 코르도바 Córdoba 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석한 아나키스트 연합 회원의 수는 4만 5천 명에 달했다. 안달루시아 Andalusia 전 지역으로 확산된 1873년의 농민 봉기는 이미 무정부주의의지도를 확실하게 받고 있었다. 스페인은 세계에서 바쿠닌의 혁명이론이 현실적 세력을 획득한 유일한 나라였다. 아나키스트들은 1936년까지 스페인 노동자 운동 내에서지도적 역할을 확보하였다. 그들은 숫자면에서 만다수를 확보한 것이 아니라 전투력도 가장 막강했다.

역사상 초유의 이러한 상황은 여러 가지 해석을 낳게 만들었다. 그러나 스스로 믿고 확언했던 해석 조차도 설득력을 얻지는 못했다. 그리고 지금 까지 정치 경제학의 법칙에 의존한 응집력 있는 추론도 그러한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스페인 아나키즘이 확산될 수 있었던 조건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야기 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즉 그것은 순수 경제적 해석을 지금 까지 비웃었던 스페인의 역사적 발전을 이해하게 해준다.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나면, 스페인은 제 1 차 세계 대전 전 까지 순수 농업 국가였다. 이 사회의 계급 대립이 너무나 극단적이고 확연하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통일이 불가능한 두 개의 민족으로 나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다. 국가 기구를 지배하고 군대나 교회와 긴밀한 유대 관계를 맺었던 정치 계급은 대부분 대지주들이었다. 이 계급은 그야말로 비생산적이고 부패하여, 다른 유럽에서는 부르주아지의 수중에 들어가 있던 참정적인 진보적 역할을 떠맡을 능력도 없었다. 이 기생적 존재는 연금을 소비하면서 그 기력을 상실하고 있었다. 이들은 자본주의의 팽창에 의한 생산력의 발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이에 상응하여 소부르주아지의 발전도 미진했다. 소부르주아지는 가난한 수공업자들과 소상인들을 제외하고나면 마르크스가 명명한 '기관원 Staatsscheißkerl' 과적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살이 찐 관료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관료는 그 기능적 역할을 스스로 잊어버리지 않는 한, 행정적 목적에 이바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억압적 목적에 봉사하는 집단이었다.

노동민중의 대다수 가농촌에서 살았는데, 그것이 스페인의 현실이었다. 계급 투쟁의 진행은 농업 구조와 긴밀한 관계가 있었다. 북쪽 지방에서는 중세적 소유·생산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고, 소농과 중농으로 이루어진 마을 전체가 숲과 초원을 공동의 재산으로 사용했다. 농토는 기름졌고, 관개 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었다. 이처럼 그곳은 자족의 고립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중세적 사회 형태가 그대로 보존되어 화폐 경제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다른 지방들, 특히 균동해 안지역과 안달루시아에서는 1836년 이후부터 신흥 대지주 부르주아지들이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하였다. 스페인에서 자유주

의라는 말은 바로 전통적 공동체의 해체, 즉 공동 소유지를 ‘자유롭게’ 매매하여 대농지에 합병하고, 대농지의 경영을 합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1843년에도 입된 회정치는 신흥 지주 계급이 정치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게 급은 도시에 살면서 자신들의 대사유지를 멀리 떨어진 식민지의 땅처럼 여기고, 집사나 소작농을 통하여 농지를 관리했다.

이런식으로 하여 거대한 농업 프롤레타리아트가 발생했다. 안달루시아지방 주민의 3/4은 내전이 발생하기까지 하루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 매일 그들의 노동력을 팔아야 하는 날 품팔이꾼으로 남아 있었다. 추수 기에는 하루에 열두 시간의 노동을 하는 것이 상례였다. 한 해의 절반은 거의 실직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 결과 토착화된 가난과 영양실조, 이농 현상이 초래되었다.

국가 권력은 마을 주민에게 점령 군처럼 굴었다. 대지주라는 신흥 정치 계급이 정부의 사업을 수중에 장악한지 1년 만에 이들은 영지 내의 가장 원시적인 금사태, 즉 노상 강도를 일소한다는 명목 하에 자체의 주둔군, 즉 영내에 거주하는 치안 유지 병인 치안 경비대를 창설하였다. 그러나 그 실제의 목적은 새로운 투쟁 형식을 지향하는 농업 프롤레타리아트를 궁지에 몰아 넣기 위한 것이었다. 치안 경비대는 주도 면밀하게 선발된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언제나 이들은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장정들로 모집되었다. 이 군대는 토착 민과 결혼을 하거나 친하게 지내는 것이 금지되었다. 치안 유지 병은 그들의 막사를 항상 무장 경계했고, 혼자서 순찰을 나서는 법이 없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지역의 사람들은 이들을 복수 순찰대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이들은 언제나 2인 1조로 순찰을 돌았기 때문이다. 안달루시아지방에서 노골화된 계급 증오가 1930년대까지는 유격전으로 향상 표출되었다. 이원 시적인 농촌 게릴라 전이 끝없이 반복되면서 마침내 그것은 돌발 적이고 자생적인 농민 봉기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봉기를 통하여 사회의 기초 세력인 대중의 힘이 폭발했고, 대중에게는 전례 없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마저도 사라졌다. 봉기는 언제나 일정한 형태로만 진행되었다. 농업 노동자들은 치안 경비대를 굴복시켰고, 신부들과 공무원들을 포로로 붙잡았다. 교회에 불을 질렀고, 토지 등 기부와 소작 계약서를 불태웠다. 화폐를 폐기처분하고, 정부를 철폐시키며 독립적인 코뮌을 발족한다고 선언했다. 토지를 공동 관리한다고 결의하였다. 이들은 대부분이 문맹자들이었기에 바쿠닌의 교의를 알았을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의 교의를 정확히 따르게 되었는지의 아스럽다. 이들의 봉기는 순전히 자체적인 것으로 연합 운동의 도움 없이 이끌어졌기 때문에 정부의 군대가 유혈 진압을 하면 대개며 칠안에 끝나고 말았다.

스페인 아나키즘의 두 개의 큰 뿌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기 안달루시아지방에서 자라났다. 스페인 아나키즘은 일거에 농업 프롤레타리아트의 자생적 운동에 이데올로기적 토대와 단단한 조직적 구조를 제공하여 마을 주민들의 순진무구하지만 흔들림 없는 기대, 즉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혁명에 대한 기대를 고양시켰다.

세기가 전환되는 이즈음 남부 스페인의 어느 지역에서든 ‘이념 의사도들’을 만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들은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이 걸어서, 혹은 나귀를 타고, 혹은 포장 마차를 타고 농촌을 배회하고 다녔다. 노동자들은 그들을 영접하여 그들에게 먹

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만일 그의 재판 선고일에 사라고 사의 주민들이 총파업으로 항거하지 않았더라면 검사가 청구한 내용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그는 분명 사형을 언도 받았을 것이다. 상황에 밀려 배심원들은 아스카소에게 무죄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열여덟 살 소년 아스카소가 미소를 지으면서 형무소 정문을 나섰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군중들은 구호를 외쳤다. “아나키즘 만세!” 당시 형무소에 갇혀 있던 우리도 그 구호에 동조했다.

항상 경찰이 아스카소의 주위를 감시했기 때문에 그는 사라고사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없게 되어 바르셀로나로 갔다. 그때가 1922년이었다. 바르셀로나에서 그는 식료품 노조의 조직원이 되었다. 그리고 아나키스트 연합 위원회에서도 활동했다.

하루는 그가 내게 라코루냐에 가서 급사로 일하고 싶다고 알려왔다.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상선 대원(商船隊員)을 알선하는 직업 소개소를 아나키스트 노조원들이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그 도시에 갈 수가 없었다. 우연찮게도 그가 라코루냐에 가기로 된 바로 그 날, 마르티네스 아니도가 그곳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경찰은 아스카소가 그를 암살할 계획을 품고 있다는 혐의를 씌워 그를 체포했던 것이다. 그러나 혐의에 대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그를 다시 석방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가족이 살고 있던 사라고사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 곳에서도 경찰은 또 다른 함정을 파놓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노동자와 ‘혁명가들’에 대해서 온갖 혐의를 씌웠던 솔데빌라 추기경이 수녀원을 방문하고 돌아가는 길에 이를 모를 손길에 의해 암살되었다. 그 사건으로 수많은 노동자들과 아나키스트들이 체포되었다. 이 검거 열풍 때 아스카소도 체포되었으나 추기경이 암살당한 시간에 아스카소는 형무소 면회 중이었음이 형무소 간수와 수감된 자들이 증언함으로써 그에 대한 알리바이가 성립되었고 경찰은 또 다시 그를 석방해야만 했다. 8일 후, 아스카소는 다시 체포되었다. 당국은 혐의자들에 대한 심문을 더 이상 계속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이다. 검찰은 사형선고를 요구했다. 그 사이에 독재자 프리모 데리베라는 권력을 동원하여 두 명의 아나키스트들에게 교수형을 지시한 바가 있었다. 그래서 아나키스트들은 아스카소의 생명이 걱정되었다. 그러나 그는 재판이 열리기 직전에 다른 여섯 명의 정치범과 함께 형무소를 탈출했다.

데를

호베르

호베르는 연대의식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다. 그는 이 조직에서 ‘분석파’로 통했다. 그는 테루엘 Teruel 지방의 가난한 농민 출신이었다. 그의 부모들은 날 품팔이 생활을 청산하라고 그를 발렌시아로 보냈다. 그는 피혁공이 되어 이불덮개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했다. 그가 일하는 부서에서 파업이 발생해 그는 처음으로 구금 생활

안토니오 오르티스 (Antonio Ortiz) : 가구공.

리카르도 산스: 발렌시아 출신. 염색공. 1898년 출생.

그레고리오 소베르비엘라, 또는 수베르비엘라: 나바라 출신. 기술공.

마리아 루이사 테헤도르 (María Luisa Tejedor) : 여자 집화상인.

마누엘 토レス 에스카르틴 (Manuel Torres Escartín) : 아라곤 출신. 빵제조업자. 1901년 출생.

안토니오 '엘토토' (Antonio 'El Toto') : 날품 팔이꾼.

리카르도 산스 2 / 세자르로렌소 (Cesar Lorenzo)

아스카소

나는 아스카소 형제를 사라고사에서 처음 만났다. 1919년은 러시아 혁명이 아직 확고한 자리를 굳히지는 못하였지만 전세계의, 특히 스페인의 노동자 대중들에 계혁명의 예감을 환하게 밝혀 준 해였다.

아스카소 형제는 의용단 Voluntad의 조직원이었다. 의용단 조직은 당시에 조직의 이름을 본떠서 「의용단」이라는 자체 신문을 발행하였다.

사라고사의 카르멘 군막사에서 몇 명의 사병들이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 벌어졌다. 어느 날밤, 그들은 아나키스트들에게 사전 통보도 하지 않고 보초들을 밀어내고 장교 한 명과 상사를 살해하였다. 그들은 막사를 완전히 장악하고 이렇게 외쳤다. “소비에트 만세! 사회 혁명 만세!” 그러고나서 그들은 시내로 달려가 전신 전화국과 신문사 편집국을 점령했다. 그러나 열정은 대단했지만 전혀 계획을 세우지 못한 탓에 새벽 4시가 되었을 때 그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다. 결국 그들은 막사로 되돌아가 다시 보초를 섰다. 치안 경비대가 출동했을 때, 그들은 잠시 항거하다가 곧 굴복했다.

경찰은 반란을 일으킨 병사들로부터 선동의 주동자가 누구인지를 자백 받아 선동자를 색출하려고 했지만 아무런 결과도 얻어내지 못했다. 군사 재판은 병사들 모두에게 사형선고를 내려야 할지, 아니면 아무에게도 사형선고를 내리지 말아야 할지 증거가 없어 딜레마에 빠졌다. 그러나 어디든 비겁자가 있기 마련이고, 신문사를 점거한 일곱 명의 병사를 치안 경비대에 고발한 자는 「헤랄도 드 아라곤 Geraldo de Aragon」이라는 지방지의 편집국장이었다. 사병들은 이내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당했다. 우리 조직원들 사이에서 아나키스트들과 노조원들을 항상 추적하는 그런 모리배에 대한 분통이터져나왔다. 우리 동지 가운데 한 사람이 권총으로 편집국장의 몸뚱이를 벌집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 사건으로 아스카소 형제가 고발되었다. 형호 아킨은 도망갈 시간이 있었지만 급사였던 동생 프란시스코는 체포되었다. 그가 종업원으로 일했던 호텔의 지배인과 동료들, 그리고 그의 고객들은 그가 어려운 시절에 사회에 봉사한 선량한 사람인

을 것을 주었다. (스페인 아나키즘 운동은 처음부터 외부로부터 어떤 경제적 지원도 받지 않았으며, 이는 오늘날까지도 마찬가지다.) 대중의 학습과정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다. 그 후 어디에서든 독서하는 농업 노동자와 농민들을 만날 수 있었다. 문맹자들 가운데는 신문이나 노동 운동 팸플릿에 나오는 기사들을 몽땅 외우는 사람들도 많았다. 마을마다 적어도 ‘깨우친 사람’, ‘의식화된 노동자’가 한 명쯤은 있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인정을 받았다. 즉 담배도 피우지 않고 놀지도 않았으며, 술도 마시지 않았다. 무신론자임을 고백했고, 신의를 바쳤던 아내와 동거하지 않았으며, 아이들에게 영세식을 허용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많이 읽었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널리 알리려고 했다.

카탈로니아는 지난에 찌든 스페인의 서남부 지역과는 경제적으로 극히 대조를 이루었다. 카탈로니아는 예로부터 스페인에서 산업이 가장 발달한 부유한 지방이었다. 항구와 수출, 은행, 섬유 산업의 중심 도시인 바르셀로나는 세기 전환기에 이미 이베리아 Iberia 반도에서 자본주의의 교두보가 되어 있었다. 카탈로니아의 1인당 세수 입은 스페인 전체 평균의 두 배를 넘었다. 바스크 지방을 제외하고 이곳은 유능한 기업 부르주아지를 배출한 유일한 지역이다. 카탈로니아의 기업가들과은 행가들은 오로지 낭비에만 몰두했던 대지주들과는 달리 재산 축적에만 몰두했다. 이로써 1870년과 1930년 사이에 바르셀로나와 그 주변에는 산업 프롤레타리아트가 집중 형성되었다.

그러나 비슷한 여건을 가진 유럽의 지역들과는 다르게 카탈로니아 노동자들은 사회 민주주의와 개혁적 노조 조직이 아닌 아나키즘을 지향했다. 이 무정부주의는 도시에 기반을 둔 스페인의 두 번째 아나키즘의 뿌리에 해당한다. 1918년에 이미 카탈로니아의 전체 노동자가 운데 80% 가 아나키스트들로 조직화되어 있었다. 이 상황은 스페인에서 바쿠닌 세력들이 거둔 성공의 비결보다 더 설명하기가 힘든 부분이다.

우선 사회학적으로 설명하면 바르셀로나 공업 지역의 노동자는 극히 일부만이 그 지역 출신이다. 그나마 지는 가난한 남부 지방의 무르시아 Murcia와 알메리아 Almeria에서 모집되었다. 이러한 내부 이동은 그나마의 구조적인 실직 상황에 의해 지금까지도 계속되어 왔다.

두 번째 계기는 스페인 역사에서 크나큰 역할을 하고 있는 원심력을 들 수 있다. 강한 지방 주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대한 충동, 즉 마드리드 Madrid 중앙 정부의 지배에 대한 완강한 저항 정신과 같은 것은 스페인의 여러 지방에서 흔히 느낄 수 있는 특색이다. 그런데 이러한 저항 정신이 카탈로니아에서 만큼 강하게 작용한 곳은 없다. 카탈로니아는 여러 가지 점에서 스스로를 자치 민족으로 간주하였고, 이미 17세기에 스페인 군주정에 대항하여 독립 전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러한 경향이 강화된 것은 카탈로니아 경제의 특수한 발전 때문이었다. 카탈로니아의 민족 주의는 두 개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우파는 토착 부르주아지의 이해를 대변했고, 계급 투쟁을 신비화하기 위해 자율성의 문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대중의 측면에서 카탈로니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혁명의 계기로 작용했다. 자치 행정을 요구하고, 중앙 국가권

력을증오하는것, 권력의철저한분산화를주장하는것, 이모든것은아나키즘에서 발견할수있는계기들이다.

아나키스트들은스스로를정치적당파로이해한적이없었다. 의회선거에불참하고관직을맡지않는것이그들의원칙이다. 그들은국가를장악하려는것이아니라국가자체를제거하려고한다. 아나키즘자체의연합에서도그들은조직을선두지휘하는권력의집중화에반대한다. 아나키즘연합은바로이러한원칙을토대로삼고있다. 지방마다광범위한자율성을누린다. 그러나이원칙이모든경우에 다적용되는것은아니다. 요컨대지도부의결의에따라야할경우도있었다. 아나키즘의원칙들이실천속에서어떻게실현되어야하는가의문제는물론구체적조건들에달려있다. 스페인의아나키즘은 1910년에이르러서야비로소그최종적조직형태를갖추었다. 그것은아나키스트노동조합연맹인노동자국민연합(CNT, Confederación Nacional del Trabajo)의발족과함께시작되었다.

CNT는세계에서유일한혁명적조합이었다. 이조합은조직을노동계급의물질적환경을개선하기위해기업가와협상을벌이는‘사회적파트너’로생각하지않았다. 그강령과실천의목표는임금노동자가최종적승리를획득할때까지자본에맞서공개적이고항구적인투쟁을벌여나간다는것에있었다. 이러한전략에맞춰 조합의구성과전술적태도가결정되었다.

CNT는결코기금투자가들의결속단체가아니었기에재정을비축하지않았다. 도시에서의회원가입금은극히적은액수였고농촌에서는거의무료였다. 조직원의수가백만이넘었던 1936년까지도 CNT는소수의전문가들에게만보수를지급할정도였다. 관료적기구는존재하지않았다. 지도부는그들자신의노동을통해, 혹은그들이활동했던지부로부터의직접적지원에의해살아갔다. 이것은사사로운이야깃거리가결코아니다. 왜냐하면이사실은 CNT가관습적으로행해져온 정치권력의형태와같이대중들로부터고립된‘노동자간부’가결코아니었다는점을결정적으로입증해주는것이기때문이다. 항시아래로부터의종제, 이것은형식적인것이아니라규정에의해보장되어있었다. 이것은그들의기본규칙을간접적으로신뢰했던전투원들의삶의조건에서생겨났던것이다.

농촌에서든도시에서든 CNT의주무기는파업과게릴라전이었다. 아나키스트들에게는파업에서봉기로의전환이언제나그저한걸음에불과했다. 그들의투쟁은언제나극단으로이어졌다. 이노동조합운동은‘사회적유산자신분’으로의상승뿐만아니라생활인정도보장할수있는순수임금투쟁을거부하였다. 그리고이운동은사회보장비나보험료를받으려고하지도않았고근본적으로어떤임금협상을원하지않았다. 그러나조합이노동자들을위해투쟁하여개선한수많은사항들은사실상인정받았다. CNT는조정협상이나평화이행의의무와같은것에는관여하지않았다. CNT는파업기금을마음껏사용한적이없었다. 그때문에파업은오래지속되지못했다. 파업이좀더격렬하면할수록그수단은혁명적이었다. 파업투쟁은자기방어에서사보타주로, 공용징수에서무장봉기로전개되었다.

나는 1922년에바르셀로나에서두루티를알게되었다. 당시 CNT는이미거대한노조조직체가되어있었다. 이노조조직은많은노동자들로구성되었을뿐만 아니라모든기업에실제로영향력을행사하였다.

우리는당시 **연대의식**이라는조직을구성하였다. 이조직은이후에유명해지기도했지만잘못알려지기도했다. 조직원은두루티, 가르시아올리베르, 프란시스코아스카소, 그레고리오호베르, 가르시아비반코스, 안토니오오르티스를포함하여대략열두명쯤되었다. 처음에는모두합쳐서열두명뿐이었다.

우리는백색테러로부터우리자신을보호하기위한자구책으로이런조직이필요했던것이다. 당시기업가들은당국의승인하에용병대를두고있었다. 용병대는완전무장을하고있었고, 상당한보수를지급받는무도유단자들로구성되어있었다. 우리는우리자신을스스로보호해야만했다. 우리가이조직을구성할당시바르셀로나에서만벌써 3백명이넘는아나키스트노조원이백색테러단에게희생을당했다. 분명 3백명이넘었다!

우리는그당시공격적인혁명활동이라고는꿈도꾸지못했다. 그때는자기방어의시대였다. 이베리아아나키스트연맹(FAI)은당시에조직되어있지않았다. 그것은나중에야조직되었다. 따라서주거지역이나공장에서서로알게된우리들은지역별로조직되었다. 우리는스스로를방어해야만했고, 살아남기위해서는돈이필요했다.

리카르도산스 (Ricardo Sanz)

연대의식의조직원 (1923~1926)

프란시스코아스카소: 아라곤출신. 급사, 1901년출생.

라모나베르니 (Ramona Berni) : 여자직조공.

유세비오브라우 (Eusebio Brau) : 주물공. 1923년경찰에살해당함.

마누엘캄포스 (Manuel Campos) : 카스티야출신. 목수.

부에나벤투라두루티: 레온출신. 철물공이며기계조립공. 1896년출생.

아우렐리오페르난데스 (Aurelio Fernández) : 아스투리아출신. 기술공. 1897년출생.

후안가르시아올리베르: 카탈로니아출신. 1901년출생.

미겔가르시아비반코스: 무르시아출신. 부두노동자. 도장공塗裝工, 운전수. 1895년출생.

그레고리오호베르: 가구공.

훌리아로페스마이나르 (Júlia López Mainar) : 여자요리사.

알폰소미구엘 (Alfonso Miguel) : 장식가구공.

페피타노트 (Pepita Not) : 여자요리사.

연대의식

권총암살단의테러

두루티에게바르셀로나로가라고권유한사람은당시산세바스티안의 CNT 민족위원회의의장이었던부에나카사동지였다. 1920년대는가장암울했던탄압의 시대였다. 지사마르티네스아니도 (Severiano Martínez Anido) 와경찰국장 아르레기 (Miguel Arlegui y Bayonés) 는카탈로니아아나키스트들을발본색 원하기위해테러 — 정치운동단을조직했다. 어떤수단도그들에게는합법적으로 통용되었다. 그들은그지역기업가들과손잡고관제강제노조, 이른바자유신디케이트를조직하려했던것이다. 물론어떤노동자도자발적으로이노조에가입하려고는하지않았다. 따라서기업가들은당국의지원하에개인무장단, 즉권총암살단을조직했다. 이살인고문단이바르셀로나에서정치활동을하고있는노동자들을 제거했다고한다.

당시두루티는프란시스코아스카소, 그레고리오호베르, 가르시아올리베르와함께죽음이갈라놓을때까지서로동지애를지키자고맹세했다. 그들은전투사수대를조직하여노동자살인집단에대항해무장투쟁을전개했다. 스페인노동계급은그들을가장훌륭한보호자로생각했다. 그들은행동으로선동하였고, 그때마다항상생명의위협을느꼈다. 민중은그들을사랑했다. 그들의목표가정치적기만이아니라고확신했기때문이다.

당시총리는다토 (Eduardo Dato) 라는인물이었다. 그는바르셀로나탄압정책의장본인이었다. 아나키스트들은그를제거하기로결정했고그것은곧실행으로옮겨졌다.

그후그들로은사라고사 Zaragoza 에거주하고있던솔데빌라 (Juan Soldevilla y Romero) 추기경을지목했다. 그는아스카소나두루티의총에맞아죽을것같은느낌을이미받고있었다. 그지위높은추기경은많은호텔과카지노를경영하여, 그수익금으로바르셀로나의관제자유신디케이트와살인중앙기구에자금을지원했던것이다.

하인츠뤼디거 (Heinz Rüdiger) / 알레한드로힐라베르트

이로써아나키즘운동에서합법적활동과비합법적활동의상황에대한문제가 제기되었다. 도덕적문제는스페인에나타난여러조건들하에서전혀문제가되지 않았다. 왜냐하면이베리아반도의지배계급은민주적법치국가의시민적권리조차도보장해주려는노력을보이지않았기때문이다. 의회선거는수십년간의광대극에불과했다. 즉의회선거는타락그자체였다. 표를매수하고농촌의촌장체계를 통하여주민을사주하기도했다. 뻔뻔스러운왜곡비방이난무했던것이다. 자유주의국가론에입각한권력분립의형태라고는스페인에존재하지않았다. 제1차세계대전이종결되기까지는사회보장법도없었다. 의회를통해공포된법안도아무 연구실을하지못했다. 노동계급은기업가측으로부터, 그리고국가로부터매일공공연한부당함과폭력을당했다. 그리하여노동계급의경우폭력의문제는그것이 문제로제기될수있기전에우선폭력에폭력으로맞설수밖에없었다.

어쨌든 CNT 는모든금지조치에도불구하고비밀리에활약할수없을만큼거대한대중조직체였다. 위험하고불법적인활동은훨씬이전에조직된연대조직과같은비밀간부집단이떠맡았다. 불법적활동은자기방어, 무기공급, 자금조달, 구금자석방, 테러, 스파이활동등이었다. 1927년이베리아아나키스트연맹 (FAI, Federación Anarquista Ibérica) 의발족과더불어공식적으로역할분담이이루어졌다. 이조직은철저히비밀리에활동하였다. 회원의수와내부의조직관계도 정확히알려지지않았다. 그러나노동자들사이에는그명성이대단했다. 소속회원은누구나 CNT 에동시가입·조직화되었다. FAI 는아나키스트조합에속한청년들로구성되었다. 동시에연맹은기회주의적변절과개량주의로빠져들위험에대한안전장치를마련했다. 이러한조직은또다시자생적인대규모의민중운동이라는바쿠닌의조직형태의모습을띠었다. 즉확고한신념을지닌직업혁명군들이이운동의간부로서활동했던것이다.

FAI 에관한소문이점점더많이떠돌기시작했다. 비밀조직에는언제나온갖기이한소문이따라붙기마련이다. 시민들사이에오르내리는끔찍한소문은무지에서기인한터무니없는것이었기때문에무시할수있다. (1936년까지도대지주의대변인들은 FAI 가‘모스크바로부터사주’를받고있다고주장했다.) 반면에비밀연맹이출범·구성되었을때, 그것의위법성여부에대한정치적평가가모호하였기때문에주목을끌었다. 아나키스트들의적대자들은언제나 FAI 내부에, 특히바르셀로나에‘범죄적분자들’이활개치고있다는흑색선전을하였다. 그러나범죄요건의성립여부에대한평가를위해서는형법전서를펼치는것으로충분하지않았다. 스페인노동계급의특성은독일이나영국의노동계급과는달리사유재산을잔대로하여평가할수는없었다. 예부터스페인노동계급은무력에의해억압을받았을때, 무장저항을자기방어의정상적수단으로간주해왔다. 비합법적조직에대한이러한정치적판단의모호함에는유럽의여타지역과는다른원인들이있었던셈이다. 그한편의원인으로바르셀로나에서큰역할을해온사회적요소, 즉하층프롤레타리아트와관계가있다. 이농과실직상황, 그리고항구도시가갖는국제적하위문화가하층프롤레타리아트의형성에기여하였다. 카탈로니아산업노동자들은이게

층과동떨어져있지않았다. 그들은여러가지조건에서이들과유대관계가있다고 생각했다. 이점에서도그들은위를향한의식에서뿐만아니라아래를향한의식에 서도스스로를명확히구분하는유럽의전문노동자들과는달랐다.

자연히경찰은산업노동자들과하층프롤레타리아트사이에잠재된계급모순을정치적으로이용하기위하여온갖음모를다꾸몄다. 특히 20 세기초에경찰은스파이와선동자를동시에이용해아나키즘운동을관철토록하는데성공했다. 이런각본은사회혁명과러시아불세비키의역사에서널리알려진사실이다. 정치모리배들처럼스페인의경찰도혁명집단을효과적으로방조·지지하였다. 1908~1909년, 공장정문과카탈로니아기업가의빌라앞에서폭발한 2 천개의 폭탄매입을위한자금가운데가장큰몫의자금이경찰의계좌로부터입금되었다. 이로써경찰은마드리드중앙정부의지시를어기고카탈로니아의자치운동에동조한셈이었다. 러시아에서와마찬가지로스페인에서도비밀경찰은아나키즘의학산에지대한역할을했던셈이다. 즉아나키스트들을정치적으로무장해제시키지 않음으로써그들의선동이 CNT 와 FAI 의성장에기여하도록했던것이다.

아나키즘의조직형태가갖는장점과단점을적절히보완하는것은간단한일이 아니다. 이조직형태가갖는장점의기초는비교할수없을정도의혁명적열정과전투적연대감에있다. 그러나이장점도구심력있는중앙조직이없어, 확고한계획과조직간의협력이부족했기때문에그효력이확연하게약해졌다. 따라서시민전쟁이발생하기직전까지는자생적인봉기와폭동이여러번일어났지만고립적인것이어서매번실패로끝나고말았던것이다. 엥겔스는 1873년에이미이렇게말했다. “그런조직형태로는혁명을쟁취할수없다는예의표본이다.”

억압을‘지금, 여기서’끝내려는근본적이고강력한시도들이한세기를넘는동안불굴의의지로여전히계속반복되어왔다는주장은부르주아및마르크스주의사가들에의해계속제기되고있다. 이주장에의하면스페인아나키즘은근본적으로 하나의종교적현상처럼보인다. 아나키즘의추종자들은혁명의날을신의정의가 세워지는천년왕국이이어질최후심판의날로생각한다. 이가설에의하면, 메시아의재림행렬을스페인아나키스트들은열광적으로환영할것이고, 이행렬을준비하기위한희생을기꺼이각오한다는것이다. 특히농촌에서는이운동이거의종교적상상과기대에의해개진되었다는점을논박할근거라고는사실아무것도없다. 그러나그러한운동을종교적형식으로만환원시키는태도는모든것을세속화하는 테제못지않게설득력이빈약하다. ‘정신사’의방식에의존하는그런태도는투쟁의 정치적내용을도외시하는것이다. 스페인노동자들은종교적약속을의식적으로 확고하게믿었다. 적어도유물론적역사가들은이점을인정해야한다.

본질적으로더많은흥미를유발하는것은무엇보다도게랄트브레난 (Gerald Brenan) 과프란츠보르케나우 (Franz Borkenau) 가주장하는또다른테제이다. 이들의테제에의하면, 스페인아나키즘은자본주의의발전에대한깊은저항의 표현이다. 이저항은주로유럽의산업국가에서이해했던물질적진보에대한것이다. 그것은또한역사발전의마르크스주의적도식에대한저항이기도하다. 이도식

에의하면부르주아지가일시적혁명세력으로, 생산력의자본주의적발전은산업화의불가피한현상인규격화와축적의필연적단계로나타난다. 따라서스페인의 아나키즘적노동자들과농민들은이러한‘진보’를폭력의요소를지닌진보로이해하고거부한다. 그들은영국과독일, 프랑스프롤레타리아트의업적과성과에대해 감탄하지않는다. 그리하여그들은이들의노선을따르는것을거절한다. 그들은이들의상품물신주의뿐만아니라자본주의발전의합목적성도내면화시키지않았다. 그들은자신들에게비인간적으로보이는하나의체제에대하여, 그리고이체제가 낳는소외에대하여필사적으로저항한다. 그들은동시대서유럽동지들이가질수 없었던그런증오심을갖고자본주의를증오한다.

내가생각하기에이러한해석에는상당한타당성이있는것같다. 이해석은다음과같은점에의존한다. 즉마르크스와엥겔스의기대와는반대로, ‘가장진보적인’ 국가는사회혁명이승리로귀결되었던영국도독일도미국도아니며, 오히려자본주의가낯설고이질적인것으로보였던사회였다는사실이다. 따라서스페인에관한한, 아나키스트들을단순한‘과거의유물’일뿐이라고말할수없다. 아나키즘운동을옛유물이라고부르는사람은위에서지적했던그런역사도식주의에붙들려있는것이다. 스페인혁명가들은결코기계와같은돌격대는아니었다. 그들의소망은 과거에있는것이아니라미래에있었다. 이미래는자본주의가준비한미래와는전혀다른것이었다. 그들은짧은승리의기간동안수중에넣은공장을폐쇄하지않고 자신들에게필요한물건들을만들어내게하였다.

사라고사전선의남부지역의중요한도로들은모두레리다로통하기때문에그곳은교통이분주할것이라고생각했다. 그러나그곳도역시활기라고는거의없었다. 서른에서마흔대정도의트럭과자동차가광장에주차해있었고, 거리에는서너명의민병대원이걷고있었다. 민병대는고작해야 2~3 백명정도에불과했다. 지방지사의사무실에는군중들이법석댔다. 그곳민병대원들은아나키스트들의지도자인두루티와그의원정대에대하여열광적으로떠들어댔다. 그와그의대원들은카탈루냐전투의민족적영웅이된반면에다른카탈루냐원정대에게는성가신존재라는이야기가떠돌았다. 그의원정대는여러마을에서파시스트들과목사, 그리고부자들을사살할때다른어떤원정대보다더냉정하게행동한사람들로알려졌다. 카탈루냐의모든민병대가자신의희생이나부상도아랑곳하지않고사라고사로용감하게출정했다고들했다. 지사의관청을지켰던보초병들가운데벌써몇명은두루티의지휘아래서투쟁하였다. 신참들은소박한웃음을띠었다. 그것은결코새디즘적이지않았다. 그들은전투에서이겼던투쟁담을늘어놓으면서흐뭇한표정을지었다. 그러면서그들은규격실탄형으로만들어진덤덤탄을내게보여주었다. 그들중에한명이내게이렇게설명했다. “포로들을위한것입니다!”그리고그는이실탄들은포로들을기다리고있다고덧붙였다. 이것이스페인내전의한양상이었다. 중립적인외국특파원들이심각한위험에빠지지않으려면양쪽에대하여알고있는많은문제들에대해서는침묵을지켜야했다.

프란츠보르케나우

“러시아에있는여러분은올바른국가를가지고있습니다. 그러나우리는자유의편입니다.”흑·적색셔츠를입은한보초병이신분증을검사하면서나에게말했다. “우리는자유공산주의를도입할것입니다.”

“자유공산주의!”이말은지금도내귀에쟁쟁하다. 나는이말을매우자주들었다. 그것은그들의요구였고맹세였던것이다.

가끔발생하는, 이해할수없는아나키스트들의행동을설명할때는그들가운데노상강도들도득실거린다고궁색한변명을하기도했다. 사실아나키스트들속에상습적인강도와도둑들이침투해있었던것은의심의여지가없다. 권력에관계하는당파는언제나믿을만한사람들뿐만아니라폭도들도끌어들이기마련이다. 당시에는아무나아나키스트라고사칭했다. 1936년 9월, 내가발렌시아에있었을때, 1 백명으로구성된‘철갑원정대’가테루엘전선에서왔다. 그들아나키스트들은자신들의사령관이전투에서전사했으며, 이제무엇을해야할지모르겠다고말했다. 그들은발렌시아에서해야할일을찾고있었다. 그들은법원문서실을방화하고형무소에진입하여수감중인형사범들을석방시키려고했다. 아마거기에는그들의동료들도수감되어있었던모양이다.

그런데형사범들의문제는부차적인것이었다. CNT 는 1936년가을에카탈루냐의세개의노동자구역을자신들의계열에통합하였다. CNT 와 FAI 의조직원

뜻밖의외국손님들

그후 1928년, 두루티는그의친구아스카소와함께베를린에도착하였다. 물론불법입국이었다. 이제중요한일은그들에게피난처를마련해주는것이었다. 두루티는약 2 주간베를린의빌메르마을, 아우구스타 62 번가 5 층에있는나의집에기거했다.

그러나그가직업을갖고자할때에는경찰에보고를해야만했다. 그래서나는그를위해체류허가증을발급받으려고애썼다. 당시프로이센정부는사민당과중앙당이제휴한연립정부였다. 때마침나는쿠르트로젠펠트 (Kurt Rosenfeld) 법무장관을알고있었다. 그를찾아가두루티의체류를법적으로허용해달라고부탁했다. 그는그렇게할수없다고말했다. 왜냐하면만일두루티의이야기가나오면중앙당은분명암살기도사건을다시끄집어낼것이뻔하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 그들은소위말하는사라고사추기경암살음모를알고있다는것이었다.

두루티가머물렀던몇주동안나는그와많은토론을했다. 그는루돌프로커 (Rudolf Rocker), 프리츠카터 (Fritz Kater), 에리히뮈하 (Erich Mühsam) 도알고있었다. 쉽게이해되지않을때가여러번있었다. 왜냐하면두루티가독일말을자연스럽게할수없었기때문이었다. 대화는늘혁명이야기에서맴돌았다. 언제나두루티는혁명의결과가한당의독재정치로이어져서는안되며, 새로운사회는아래로부터위로이루어져야만한고위에서아래로내려오는명령하달식으로이루어져서는안된다고주장했다. 당연한이야기였다. 왜냐하면아나키스트들은러시아식혁명의결과로는만족할수없었기때문이었다.

아우구스틴조우취 (Augustin Souchy)

두루티는나에게깊은인상을남겼다. 그는키가컸고건장하였으며머리도비상했다. 마치당통 (Danton) 과같았다. 그의목소리는위엄이있었다. 물론그가분위기에따라목소리를바꿀때는친근하기도했고, 거의부드럽기조차하였다.

나는물론그와그의동지들에대해서 — 라틴아메리카의여러나라에서의떠돌이생활, 그리고그들의습격사건에대해서도 — 많이알고있었다. 그러나이것만은인정해야할것같다. 물론이렇게부르기를원한다면아스카소와두루티는정치쟁단이기도했고, 경우에따라서는혼란한시기의테러리스트들이기도했다.— 지금도신문은그렇게떠들고있다 — 그러나그들은단한푼도사취하지않았다.

페데리카몬트세니

브뤼셀에서의나날들

1930년, 마침내 그들은 브뤼셀에서 벨기에의 체류 허가증을 받았다. 그들은 2년 동안 브뤼셀에서 살았다. 거기서 아스카소와 두루티는 나의 친구가 되었다.

아스카소는 매우 친절한 동지였다. 그는 아이러니하면서도 분별력이 있었고, 부드러우면서도 강했다. 내가 보기기에 그는 항상 가벼운 병을 앓고 있는 듯 했다. 반대로 두루티는 육상 선수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활동했다. 그는 머리숱이 많았고, 웃을 때 맹수처럼 이를 드러내고 웃었다. 그의 시선은 선하면서도 빛이 났다. 나는 아스카소를 먼저 알게 되었따. 우리는 같은 공장에서 일하였다.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이었다. 이미 우리 대학의 대부분은 사회 문제였다. “어떤 인간도 인간을 지배 할 권리 있는 없다”는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아련히 들려오는 것 같다. 나는 금세 그에게 매료되었다.

1930년에서 1931년까지 브뤼셀에서 지낸 사람은 당시 얼마나 많은 국외 동지들, 특히 스페인과 이탈리아 동지들이 그곳에 기거하였던지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찾아다녔던 피신처의 그 어떤 침을 한 분 위기와 함께 그들의 모습이 떠오를 것이다. 마음씨 착한 힘데이 (Hem Day) 가 몽마르트에 마련했던 작고 허름한 서점이 그들의 피신처였다. 그곳은 모든 ‘혁명 분자들’의 접선지였다.

2층에 세든 사람이 들 있었다. 나와 상인 바라스코 (Barasco)였다. 그 방은 작은 공장으로도 사용되었다. 이 이상야릇한 공장은 직접 행상에 넘기는 온갖 종류의 장난감을 만들어 냈다. ‘공장’은 방이 한 개뿐이었는데, 그것이 식당, 거실, 부엌, 침실 혹은 공동 침실로도 사용되었다. 왜냐하면 밤에 찾아오는 손님들의 수가 제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량해 보이던 여섯 명의 사람들�이 바라스코의 이름을 대면서 찾아왔다. 그들 중에 아스카소와 두루티도 끼여 있었다.

레오 캄피온 (Léo Campion)

나는 그 후속 기록 타이피스트로서 해왔던 일을 그만두고 그를 찾아 브뤼셀로 갔다. 스페인 망명자들은 벨기에에서 소위 말하는 반half 법적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모두가 가짜 신분증과 가명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벨기에 경찰은 그 사실을 모두 자세히 알고 있었다. 경찰이 두루티의 증명서들을 그에게 돌려주지 않았다면, 그는 아무데도 여행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브뤼셀의 경찰은 우리를 자유롭게 내버려 두었다.

에밀리엔느 모린

아스카소와 두루티는 서로 완벽한 보완역할을 하였다. 두루티는 행동적인 사람 이었다. 그는 정열적이고 적극적이어서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얻고 있었다. 반면에 아스카소는 침착하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다. 그는 끈덕졌고 친절하면서 계획적

냐 사람들이 사라고사를 장악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러한 상황에서 두루티는 극단적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무의미한 희생과 다른 원정대가 보인 우유부단한 태도 사이에서 중립적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어쨌든 아라곤 전선의 모든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리고 만일 두루티 원정대의 투쟁이 전투적으로 적절하게 이용되었다라면, 두루티 원정대의 무모한 진격은 유용한 투쟁 전술로 인정받았을 것이다.

전선을 목격한 이후 나는 당시 모든 정치집단들이 현실을 읽는 감각이 몹시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랐다. 그들은 사라고사를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기를 바랐다. 사실 그런 희망을 말도 되지 않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통합 마르크수주의 노동당 (POUM)의 추종자들이, 고의적으로 배신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작전 중에 사라고사에서 사보타주를 선동했다는 혐의를 정부에 돌린다면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아나키스트들은 사라고사의 정복을 수 없이 계획했고, 따라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던 정부가 그것이 실현될 것을 미리 간파한 것은 너무나 뻔한 이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정복이 불가능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한 책임은 위로부터의 배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계각층의 태만과 무능에 있었다. 민병대의 그런 나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장교와 정치가들을 중심으로 한 영웅적인 노력들이 필요했다.

프란츠 보르케나우

복수의 천사

우리가 행군하며 지나쳤던 여러 마을과 소도시의 주민들은 그들 자신의 지역은 열성을 다해 지켰지만 전선으로는 단한 사람도 보내지 않았다. 민병대원은 주로 바르셀로나에서 보충되었다.

낡고 쇠퇴한 지방 도시 세르베라 Cervera 는 이전에 목사들의 세미나가 열렸던 곳이다. 나는 열여섯 살이 채 안 되어 보이는 말쑥하게 생긴 청년에게 과거의 신분이 무엇이었는지를 물어보았다. 그는 당시 그곳 민병대의 보초 병이었다. 그는 매력적인 웃음을 띠며 이렇게 대답했다. “아, 목사들과는 바이바이했지요. 잘 했던 거지요!” 그곳의 모든 교회도 예외 없이 불타내려 놨았다. 남은 것이라고는 허물어진 담장뿐이었다. 방화 사건은 CNT 의지시에 의해 원정 중이던 민병대에 의해 일어났다. 현지에는 프랑코의 세력들과 평의회 추종자들 사이에서 벌어진 투쟁의흔적이 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우리가 전선에 가까이 왔다는 것이 전혀 실감나지 않았다. 거리는 예전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도로의 교통은 평화로웠다. 급식을 보급하는 몇 대의 트럭이 지나갔지만 실탄을 적재한 트럭이 우리를 지나 전선으로 가는 것은 보지 못했다. 빙트럭들이 되돌아 가고 있었다. 우리는 구급차라고는 한대도 보지 못했다.

사실을여러분도잘알고있을것이다. 그의전투력은다만그가야전사령관이아니라는점에한계가있을뿐이었다. 물론그는군사전략에대해서는아는것이별로없었다. 하지만그는대원의지도자로서용기뿐만아니라판단력도잘발휘하였다. 그외에도그는뛰어난자제력을갖고있었다. 그는그저파시스트이겠거니하는추측만으로무분별하게사람들을처형하게한그런지도자가결코아니었다. 그는사물을정확히꿰뚫어볼줄알았다. 그는한치앞도내다볼수없는상황에서는온갖의심이난무할수있다는사실을깨닫고있었다. 내가그한예로써기억하고있는것은두루티가항의를하던한외국인을처형직전에보호했다는사실이다. 그리고두루티는자발적으로원정대에지원한다고해서모든사람을다받아들인것도아니었다. 나는믿을만한아나키스트들에게두루티가말하는것을들은적이있다. “모든소작인들은서로다툴수가있네. 자네들은마을과공장으로돌아가게. 유능한조직가들이현장에부족하다네. 자네들을필요로하는곳으로가게. 여기전선은자네들이없어도우리만으로도충분히싸울수있네.”

가스톤레발

분명그는야전사령관은아니었다. 우리들중에그런사람은아무도없었다. 확실히우리는도시개릴라전을구상하였다. 바르셀로나와다른도시, 우리가알고있던주민들의마음속, 우리가알고있는곳은어디든그곳은우리의매복장소였다. 경찰서감시초소와무기고, 항만의맞은편모퉁이에서움직이는신문배달부는우리의동지였다. 우리는그지역구석구석을훤히알고있었다. 그러나어떤고지위에는참호와참모본부의지도가있다고했지만그것에관해서는거의모르고있었다. 그것은우리의일이아니며또알고있다고한들무슨소용이있겠는가? 장군들의쿠데타가있기전까지는우리에겐그런것이전혀필요가없었다. 우리가위대한전술가가아니었듯이두루티도마찬가지였다.

리카르도산스

정확히말하자면아나키스트들의동료가아닌나의한동행인이두루티의원정대를방문한후넌더리를내고돌아갔다. 물론두루티는바르셀로나아나키스트프롤레타리아트가그에게위임한작전권을갖고대원들을이끌었고자신의생명을돌보지않을만큼용감했다. 그는다른원정대보다훨씬깊숙이사라고사로진입하였다. 결국연대장비알바(Villalba) 의지휘를받고있던고등사령부가두루티에게그런행동은인명을경시하는행위라고지적하면서두루티를설득한끝에간신히두루티의공격을늦출수있었다.

이것은사회주의자에가까웠던나의친구의이야기였다. 그의그러한결론에대해의심이가는바가없진않지만나로서는어쩔도리가없는일이다. 그러나내가직접전선에서목격한바에의하면, 적어도나머지원정대는자신들의목숨을그런위험에내맡길만큼의과잉열정을보인적이없었다. 그런이유때문에아마도카탈루

이었다. 말하자면완벽한전술가였다. 그는혁명의실천계획을수립한사람이었다. 그의계획은언제나약정된시간에모든세부지침이맞아떨어질만큼침밀했다. 두루티의장점은과감하고신속하여머뭇거림없이일을처리한다는점이었다. 그는단호하면서도생각이깊은사람이었다. 두사람은서로가서로를필요로했다. 감히그들두사람을한꺼번에상대하기는벅찬일이었다.

카노바스세르반테스

짧은해설 4

스페인의난국상황 (1931~1936)

스페인노동계급은공화국의선포를정치적승리로받아들였다. 모든억압의시대가지나간후에는으레그렇듯이 CNT 도조직을새롭게정비했다. 이특수한조직형태는동면에서깨어나복권된세력들과함께다시활동하기시작했다. 그러나정권은공화국의출범을혁명운동의덕택으로생각하지않고유혈사태없이보초병을교체한덕택으로만여겼다. 정부의위기와새로운선거라는자유주의와부르주아지당파들의회전목마가돌아가기시작했다. 이제회전판저울의바늘은경제적으로는허약하지만숫자상다수를점하고있던소부르주아지‘중도파’를향했다. 소부르주아지는사회민주당을암묵적으로인정하면서정부를견제하였다. 다시말해서공화국의사회적기반은우스울정도로허약했던것이다. 즉공화국은정치적힘을, 오직우파연합과노동운동사이에서벌어지고있던상호견제의상황에서어부지리로만얻고있을뿐이었다. 따라서새정부의통치력은보잘것없었다. 구조적개혁은생각할수도없었다. 농업문제는해결되지않은상태로남았다. 토지개혁법안은의회에서통과되지못했다. 국가와교회의분리라는몇몇조항을제외하고나면공화국일년동안구조적진보를이룬개혁은단하나뿐이었다. 그것은카탈로니아의자치권조례의승인이었다.

노동과농민문제에는답변이없었다. 이들조직의최대세력인아나키즘운동연합은의회를보이콧했다. 정부의조치에실망한대중들은다시거리로나왔다. 파업과농민봉기, 기아에시달린폭동, 도시게릴라전이벌어졌다. 정부는노동계급의직접적행동에대하여예전과마찬가지로경찰과치안경비대, 군을투입하는긴급조치외에는달리대응방안을찾을수없었다. 비상조치가정해진순서였다.

공화국 3 년에스페인의난국상황은새로운국면으로접어들었다. 아나키스트들이선거참여를거부한결과, 반동세력은힘들이지않고완전히합법적인방식으로정권을장악하게되었다. 새로형성된우파들의선거조직세력인 CEDA 가의회에가입했다. 힐로브レス (Gill Robles) 정부는공화국출범초기에내놓았던반역하기그지없는몇몇성과마저도사문화하는조치를취하기시작했다. 마침내

저나를읍사무소발코니위로밀어올렸다. 발코니앞으로마을사람들모두가모였다. 그가마을사람들에게나를어떻게할것인지물었다. 아주시끄러운소동이벌어졌다. 마을주민들은, 그들중에많은사람들이좌익단체에소속되어있었는데, 내 가치형되어서는안된다고나를변호해주었다. 이것이재판절차의전부였다.

그러나그것으로도나는아직안전하지못했다. 왜냐하면마을에있는무장한낯선사람들이내가자유롭게돌아다니는것을못마땅하게여겼기때문이었다. 그래서티모테오는부하랄로스에있는두루티와연락을취했다. 모든파견대가그의시를받고있었다.

두루티가그에게말했다. “잘듣게, 만일자네가그사람을안전하게하고싶다면그를여기로데려오는수밖에없네.”

그럭저럭때는 8 월중순으로접어들었다. 우리는부하랄로스로갔다.

나는두루티앞으로안내되었다. 그가물었다. “어느것을더원하시오? 집으로돌아가고싶소, 아니면여기우리대원들에게남고싶소?”

“제게뭐선택권이있습니까?”

“물론있지요. 다만한가지사실만은당신에게솔직히말하고싶소. 만일당신이집으로돌아간다면, 멋대로행동하는대원들가운데어떤대원이당신을도중에살해할지모른다는사실이오. 이번처럼또요행을바랄수는없는일이오. 그러나당신이여기남는다면적어도안전할것입니다. 그건내가보장하지요.”

당연히나는그의원정대에남기로결정했다. 두루티는내게서기가필요하다고말했다. 그는즉시나를사무실로데리고갔다. 거기에는벌써빨간머리의아가씨가앉아사무를보고있었다. “아이가씨가선생을도울것이오. 그러나그녀의스커트아래는만지지마시오.”그가농담했다. 그곳에서나는원정대원들의이름을정리하고새로도착한지원병들의명단을작성하였다. 물론고참이나신참들도내가무엇을하던사람인지곧알게되었지만내가두루티의보호를받고있다는소문이금세퍼졌기때문에아무도감하나에대해서뭔가를더알려고하지않았다.

예수스아르날페나 (Jesús Arnal Pena) 1

야전사령관없는전투

내가두루티를다시만났던 1936 년당시그는이미영향력이있는사람이되어있었다. 그러나나는그에게서위대한정치가의기질같은것은찾아볼수없었다. 그에게는정치가에게어울리는지적수준이결여되어있었다. 그가대중들앞에나설때에그는훌륭한선동가였지유명한연설가는아니었다. 그러나그는건강한상식을겸비하여현실적가치에따라일을처리할줄아는재능을갖고있었다. 또한그는대단히겸손한사람이었다. 그는무엇보다도스페인대중들의상상력을사로잡을줄아는재능이있었다. 남쪽십자성의환상은그자체가어떤신비를만들어낸다는

음부터 불가능했다. 그들에게는 출동 예비대가 없었기 때문에 항상 무기와 실탄의 공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두루티는 몇 명의 첨보원을 사라고사에 침투시켰다. 그들은 적의 감시선을 뚫고 몰래 침투했다. 그들은 도시의 방어선이 아주 엉성하므로 간단한 공격만으로도 충분히 도시를 장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런 상황 보고를 중앙 참모부에게 속타전 하였다. 그러나 중앙 참모부는 어떤 공격도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격 준비에 필요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시간만 끌었다. 아라곤 전선의 지휘자들은 중앙 참모부의 그런 태도를 이해할 수 없었다.

리카르도 산스 3

한지방 목사의 일기

내전이 발생했을 당시 나는 우에스카 Huesca 지방의 아귀날리우시에서 담임 목사직을 맡고 있었다. 공화국이 선포된 이후 교회에 적을 두고 있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미 좋지 못한 평을 받고 있었다. 사람들은 우리를 ‘까마귀’라고 불렀다. 나는 콤파니스의 유명한 연설을 라디오에서 들은 후 곧 목사들에 대한 탄압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감했다. 마을 사람들은 나를 좋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내가 피신해야 할 날은 기어이 오고 말았다. 7월 27일이었다. 나는 완전 무장한 젊은 이들을 가득 태운 차가 시장의 광장에 멈추어서는 것을 보았다. 그때 나는 내 오도 바이를 타고 산으로 허겁지겁 도망쳤다.

그것은 잘 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민병대원들이 마을마다 수색하여 목사들을 체포하기 때문이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아무런 법적 절차도 없이 사살되거나 강물 속에 던져졌다. 이 사건에 대한 거의 모든 책임은 민병대에게 블랙리스트를 넘겨 준 마을 위원회에 있었다. 민병대는 그 블랙리스트에 근거하여 사람들을 처형했던 것이다.

나는 바르바스트로 마을 입구에 설치된 검문소를 통과하다가 검문을 당했다.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다. 국민 민병대의 운전병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나는 내게 소리 지르는 사람보다 더 큰 소리로 떠들었다. 운전병으로 검문소를 간신히 통과했다. 그리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그곳에서도 망쳤다. 그때부터 나는 도망 중인 목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탈영한 운전병이기 조차했다…….

나는 온갖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 칸다스 노스로 갔다. 그곳은 내가 태어난 곳이다. 가족이 살고 있는 집으로 몰래 들어갔다. 다행히도 아들녀석이 마을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의 권한도 한계가 있었다. 그도 무장 대원들을 막을 수는 없었다. 누군가가 밀고했던 것이 틀림없었다. 그래서 나는 체포되었다. 민족 위원회에 적을 두고 있던 나의 한 친구가 즉결 총살을 막아, 내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의 이름은 티모테오 (Timoteo) 였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1933년부터 1935년까지의 ‘암흑기’가 시작되었다. 우파의 전술적 목표는 당연히 노동 운동을 근절하는 것이었다. 물론 힐로브레스는 파시스트는 아니었다. 히틀러가 반혁명 세력들과 함께 독일의 경제 구조를 단숨에 근대화 함으로써 집결된 경제력으로 세계를 정복하기 위한 침략군으로 무장한 반면에, 스페인의 우파 세력은 자신들의 입장에서도 이미 시대착오적인 것이되어 버린 왕정 복고에만 관심을 쏟았다. 따라서 이들에게 가능한 것으로 보였던 유일한 길은 후퇴였다. 그러나 그 길도 폭력으로 써만 가능했다.

이런 상황에서 스페인 사회민주당은 생존의 문제에 봉착했음을 깨달았다. 그들이 과거에 써먹었던 협조라는 낡은 정책은 실패로 끝났다. 이 정책을 계속 밀고나간다면 자멸에 이를 것이다. 당시 개혁에 앞장 서라는 기초 당원들의 압력이고 조되었다. 이상황에서 사회민주당의지도자라르고 카바예로는 정권과의 공조를 단절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유부르주아지 공화당과의 연대를 선언하고 그의 추종자들에게 무장 저항을 준비시켰다. 사회민주당의지도자를 받았던 노조 조직, UGT(노동자총연맹) 내부에서 갑자기 레닌의 구호가 불길처럼 타올랐다. 1934년 10월에 UGT의 본거지인 아스투리아에서 지금까지의 아나키스트들의 어떤 무장 행동도 무색하게 만든 봉기가 일어났다. 그러나 부당하게도 아스투리아 ‘10월 혁명’은 잊히고 말았다. 파리코원이래서 유럽은 “만국의 프롤레타리아여, 단결하라!”는 구호와 비교될 만한 구호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스페인 북부의 전지역이 이 구호를 외치며 일어났다. 곧 노동자 위원회가 형성되었다. 마드리드의지도부는 이 운동을 자체 시킬 힘마저 잃어버렸다. 해묵은 라이벌의식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져버렸다. 대對정부 군투쟁의깃발 아래 사회민주당과 아나키즘, 공산주의 운동가들이 아스투리아에서 통일 전선을 펼쳤다.

아스투리아 혁명의 비극은 혁명이 처음부터 고립된 상태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 그 원인이 있었다. 아스투리아는 스페인의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이었다. 마드리드 봉기는 초기부터 진압되고 말았다. 아스투리아 노동자들은 바르셀로나에 허약한 동맹 파트너 하나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 파트너는 카탈루냐 민족당 Esquerra으로서 루이스 콤파니스가 이끌었다. 그는 카탈루냐의 자치를 수호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이었다. 카탈루냐와 안달루시아 아나키스트들은 수동적 인태도를 취했다. 라르고 카바예로는 이들을 빈번히 비방했다. 그는 사회민주당이 경찰로 하여금 CNT를 추적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압력을 종종 받았다. 결국 노동 운동의 이 뿌리 깊은 분열이 1934년 ‘10월 혁명’ 실패의 실질적 원인이다. 정치적으로 고립되었기 때문에 반란군의 필사적인 저항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스투리아 무장 봉기를 진압하는데에는 몇 주 일도 걸리지 않았다. 혁명 본부들이 포사격을 받았다. 프란시스코 프랑코 (Francisco Franco) 사령관의 지휘를 받고 있던 외인부대와 무어족 연대가 아스투리아 노동자들을 대량 학살했다. 탄압은 잔인했다. 1935년 말, 스페인 감옥에는 3만 명이 넘는 정치범들이 갇혀 있었다.

진압이 성공한 후에 반동 세력의 기고만장한 태도는 이미 그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다. 반동 세력은 1936년 2월에 새 선거를 공포할 만큼 그들의 힘을 과시했다. 이

공포가 얼마나 경박한 조치였는지는 선거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아스투리아스 이후 사회민주당은 혁명을 위해서 만당이 창립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이끌어 냈다. 사회민주당은 후회하는 심정으로 의회 전술로 되돌아가 중도 노선의 공화파들과 선거 연대 투쟁을 결의했다. 수적으로 열세한 공산당 그룹도 이연대 투쟁에 합세했다.

이연대는 1936년 2월 선거에서 압승을 획득할 '인민전선'이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이러한 정치적 지각변동도 의회 등단을 완강히 거부했던 세력이 인민 전선에 참여함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다. 즉 1백만에 육박하는 회원수를 가진 CNT 가 선거 보이콧이라는 구호를 묶인 함으로써 통일 전선의 출범을 결행했다.

그러나 새 정부는 1931년의 조치와 마찬가지로 단호한 개혁을 거의 실행하지 못했다. 새 정부는 힐로브레스 정권이 무효라고 선언했던 법들이다시 효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만족했다. 그밖의 모든 것은 옛날 그대로였다. 인민이 인민 전선에 개입하지 않았던 것이다. 공화주의자들은 스페인의 난국을 풀어갈 수 없었다.

낡은 사회를 허물려는 움직임은 오히려 우파 쪽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인민 전선의 출범 첫 날부터 우파는 선거에 의해 세워진 정부를 힘으로 전복시키려는 결의를 다졌다. 여기에는 이데올로기적·조직적 준비 작업이 필요했다. 히틀러의 독일과 무솔리니의 이탈리아는 어떻게 하여 반동 세력이 왕정 복고의 꿈에서 벗어나 침략자로 변모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좋은 실례를 보여주었다. 세계 대전의 주축국들은 그러한 변모를 넘어서 인민들에게 선동적 지원뿐만 아니라 물질적 지원도 약속했다. 스페인 파쇼집단인 팔랑헤 Falange 가 전면에 부상하기 시작했다. 군부는 제국을 준비했다. 정부와의 대결이 불가피했다. 그러나 정부는 주저했다. 장군들이 쿠데타를 일으켰다. 7월 17일 프랑코가 스페인·모로코 군사 반란을 선두지휘하였다. 7월 18일 반란은 전국을 휩쓸었다. 반란군은 사흘 만에 스페인의 1/3을 수중에 넣었다. 철저한 로마가톨릭 지역인 나바라, 아라곤, 갈리시아, 레온, 구老旧 카스티야(카스티야라비에하 Castilla la Vieja, 카스티야 왕국의 북부에 해당하며 현재의 칸타브리아 지방, 라리오하지방, 부르고스주, 소리아주, 세고비아주, 아빌라주, 바야돌리드주, 팔렌시아주와 면적이 일치한다-편집자주), 세비야, 카리초와 코르도바가 정복된 것이다. 그러나 반란군은 필사적인 저항을 계산에 넣지 않았다. 그들은 스페인 민중을 이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이다.

타고왔다. 열차는 승차 정원을 넘겼다. 당시 CNT 와 FAI 의 열기가 사라고사를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에 적들 조차도 이젠 모든 것이 끝났구나 하는 자포자기의 상태에 빠질 정도였다.

그러나 파시스트들의 전술적 계략이 특이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반혁명 분자들이 모든 세력들을 규합하기 시작했다. 막강한 정규군과 광신적인 전쟁 지원 병부대인 나바라 Navarra 의 장교들이 가세하였다. 그들은 이미 지난 세기의 시민 전쟁에서 반동적인 짓을 한 경험이 있었다. 그 외에도 이 도시의 운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 가운데는 제 2 공화국에 빌붙은 전형적 비겁쟁이였던 시장과 수비대 사령관 그리고 교활한 늙은 이 카바네야스 Cabanellas 가 있었다. 카바네야스는 자신을 언제나 공화주의자로, 프리메이슨의 결사 단원으로 간주하였지만 그것은 그가 프랑코에게 빌붙기 전까지의 이야기일 뿐이다. 변절의 대가로 그는 부르고스 Burgos 지역 군사 혁명 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에 임명되었다.

두루티의 원정대는 사라고사 아나키스트들이 섬멸되기 전에 그들을 구하기 위해 사라고사로 강행군하였다. 그는 그 곳에서 아직도 생사를 건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파시스트들에게 이미 완전히 진압당한 상태였다. 두루티가 사라고사의 진입로로에도착했을 때, 도시는 벌써 묘지처럼 변해 있었다. 적들은 원정대를 기다리며 기관총과 대포로 무장하고 있었다.

호세페이라츠 1

두루티와 그의 대원들은 레리다 Lérida 를 통과하여 부하랄로스 Bujaraloz 에도착하였다. 그곳에서 사라고사 까지는 40킬로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두루티는 적의 접근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 넓은 벌판이 한 눈에 들어오는 도로 감시 초소에 작전 지휘소를 설치했다. 왼쪽 측면에서 에브로 하천까지 이르는 작전 구역을 확보하였다. 그 구역에 낙오한 적의 잔류 병들이 없는지 철저한 수색작전이 신속히 이루어졌다. 두루티는 전방 초소를 도시의 시계가 잡하는 사라고사에서 대략 20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잡았다.

두루티가 사라고사 내의 혁명 세력들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은 애석한 일이었다. 진군이 차단된 대원들의 무장 상태도 좋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외곽에서 출동 명령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쿠데타 군들이 시를 완전 장악하여 절대자로 군림하고 있었다. 그래서 쿠데타 군은 쉽게 방어군을 조직할 수 있었다.

두루티가 사라고사를 점령했다면 전쟁을 쉽게 공화주의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끝났을 것이다. 사라고사 주둔 군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들은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었다. 두루티가 그들에게 승리할 경우 두루티는 로그로노 Logrono 와 비토리아 Vitoria 를 거쳐 아틀란티스 해안에 인접한 빌바오 까지 갈 수 있는 길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사라고사가 함락되었다면 테루엘 Teruel 도 열흘을 버티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우리가 투쟁에서 패배한 명백한 원인은 너무 경솔하게 모든 것을 준비했다는 점이었다. 다른 원정대와 마찬가지로 두루티의 경우도 아라곤을 공격한다는 것은 처

호세페이라츠 2

출정이 확정되기 훨씬 전, 그러니까 4 월 14 일에 바르셀로나 그란비아 Gran via 폐광구역에는 약 2 천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 중에는 여러 종류의 박격포를 가져온 포병과 자동무기를 다루는 사람들, 전신전화기 구를 다룰 줄 아는 전화국 노동자들도 있었다. 그러나 소총만으로 무장한 사람들은 모두 노동자들이었다. 7 월 24 일 오후에 출정이 시작되었다.

리카르도산스 4

그들이 아라곤으로 출정했을 때 나도 함께 가려고 트럭에 타고 있었다. 당시 확성기를 매단 자동차가 바르셀로나 전 구역을 순회하면서 주민들에게 생필품의 원조를 호소했다. 왜냐하면 민병대가 빵 한 조각 준비하지 않고 출정했기 때문이었다. 그때 감격적인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다. 사람들이 점심을 먹다 말고 사방에서 수프, 고기, 야채, 정어리 통조림 등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들고 나왔다. 순식간에 트럭이 가득 찼다. 우리는 민병대를 향하여 차를 몰았다. 그들은 평상시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나는 민병대 원이 이름지은 '정어리 통조림 트럭'을 타고 아라곤으로 갔다. 두루티는 내가 타고 가는 것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누가 그에게 귀띔을 해준 것 같았다. 왜냐하면 그가 자동차에서 내려 트럭 안으로 시선을 던졌기 때문이다. 그는 나를 노려보고는 계속 차를 타고 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에밀리엔느모린

사라고사진군

두루티는 사라고사를 점령해야겠다는 생각에 사로 잡혀 있었다. 아라곤의 중심 도시가 파시스트의 수중에 들어 있는 것은 CNT 의 혁명에, 그리고 내전의 종결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사라고사는 아라곤 아나키즘의 핵심 지역이었다. 사라고사 아나키스트들이 1933년 12월에 일으킨 봉기는 이미 혁명의 잠재성을 드러내보인 사건이었다. 뿐만 아니라 사라고사는 아나키스트들이 카탈루냐,巴斯켄지방의 기지를 이용하여 비스카야, 아스투리아의 동지들과 쉽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혁명 두 달 보름 전에 사라고사에서 CNT 민족 대표자 회의가 열렸다. 그 회의는 스페인 노동 운동의 역사에서 선례가 없었던 대규모의 시위 운동을 이끌었다. 스페인 전국에서 모인 여성과 남성을 포함한 1만 명의 노동자들이 연대 시위 투쟁을 벌이기 위해 투우장에 모였다. 그들은 플래카드를 붙이고 흑·적색기를 매단 특별 열차를

공화국

귀국

제 2 공화국이 선포되고 며칠이 지난 1931년 4월에 두루티와 아스카소 그리고 가르시아 올리베르 가나의 집을 찾아왔다.

우리는 오랜 시간 토론했으며, 특히 당시 아나키스트들의 주요 문제를 거론하였다. 한 부류는 제 2 공화국에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반대 쪽은 — 그들은 두루티, 아스카소 그리고 가르시아 올리베르가 소속한 아나키스트 운동의 극 좌파였는데 — 공화국이 구성될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것은 마치 스페인 사회의 진보를 위태롭게 하고, 혁명적 구조 변화의 과정을 단절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의견이 서로 엇갈렸다. 고백한다면, 사실 그 당시 나는 극단적인 대변혁이 우리의 과업을 망치지 않아 두렵고 했다. 그 후 공화국의 진행 과정을 보면서 나는 두루티, 아스카소 그리고 가르시아 올리베르의 주장이 옳았다고 인정해야만 했다. 공화국이 보수주의적 개량주의로 변질되고 말았다. 공화국은 당시 스페인의 절박한 문제였던 토지 개혁을 단한 번도 시행할 수 없었다.

페데리카 몬트세니

1931년 스페인에서 공화국이 선포되었을 때 정말 모두가 열광하고 도취된 상태였다. 브뤼셀에 있던 망명자들은 그들의 서류를 찾아서 가능하다면 하루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두루티와 아스카소가 제일 먼저 떠났다. 우리는 가방과 짐을 꾸리기 위해 남아 있었다.

나는 한 달이 지나고 나서야 간신히 출발할 수 있었다. 바르셀로나의 첫 인상은 내가 기대했던 것 만큼 좋지 않았다. 바르셀로나에는 비가 그리 많이 오지 않는다고 들 말했었다. 그래서 나는 비옷을 브뤼셀에 있는 한 여자 친구에게 선물로 줘버렸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스페인에도착했을 때 비가 얹수 같아 쏟아졌다. 때는 6월이었다. 정치적 분위기도 파리와는 전혀 달랐다. 나는 프랑스 아나르코 생디칼리즘 운동 까지도 알고 있었는데, 그곳은 여기와는 완전딴판이었다. 밤과 낮 만큼이나 차이가 났다. 스페인 동지들의 정신 상태는 이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약간 단순하고 초보적이었다.

나를놀라게한또한가지는여성들의거의아무런역할도하지않고있다는점이었다. 물론시위에서여성들이드물게보이기는했다. 그러나그들은남자를동반하지않았다. 남자들은카페에드나들었다. 그들은커피잔을앞에두고몇시간씩이나앉아있었다. 그들은술꾼은아니었다. 물론술을마시는것이허용되어있었을것이다. 어느날나는부에나벤투라에게이런질문을하기에이르렀다. “도대체당신의동지들은어떻게된겁니까? 모두가독신자들뿐이랍니까?”그러나그당시는어쩔수없었다. 이미알고있겠지만당시스페인여자들은집에눌러앉아있는것을최고의미덕으로여겼다.

에밀리엔느모린

공화정이선포된후스페인에갔을때, 그때나는두루티를트랑킬리다드 Tranquilidad 카페에서처음으로만났다. ‘트랑킬리다드’는스페인어로‘조용한카페’라는뜻이다. 당시그곳은아나키스트들의만남의장소이기도했지만, 동시에많은사람들을자주체포해갔던경찰들의접선자이기도했다. 물론경찰은언제나몰래들어왔던것이다. 그러나아나키스트들은만남을그만두지않았다. 나는이미두루티에관해많은소문을들었다. 그는내가그믿을수없는소문을듣고상상했던것과는전혀다른사람이었다. 나는매우조용하고친절한사람을만났던것이다. 그가가끔보여주었던그무한한정열이라고는거의찾아볼수없었다.

아르투어레닝 (Arthur Lehning)

그‘소총병삼총사’중에아스카소가가장침착한사람이었다. 가르시아가강인한힘을, 두루티가튼튼한팔과의지력을소유했다면아스카소는그야말로냉정하고명석한‘두뇌’를소유한사람이었다. 그가입가에우울하거나농담섞인표정을지을때의모습은부드러우면서도신중했다. 그의시선은날카로우면서도아이러니했다. 몸은야위어왜소했지만행동은신중했다. 그는다소느긋한것같았지만그이면에는초인적인힘이잠재해있었다. 그는민중적이고가끔들떠있는것처럼보이는두루티와비교해보면다소귀족적인분위기를풍겼다. 커다란주먹을책상위에올려놓고굵직한목소리를내는부에나벤투라와냉정하지만언제나입가에웃음을잃지않는프란시스코가함께나란히앉아있는모습을보면, 부에나벤투라는힘을, 프란시스코는정신을소유하고있음을알아차릴수있다. 그들은그야말로서로를보완하는역할을했다.

페데리카몬트세니

출정

선봉대

민병대위원회의첫임무는아라곤전선에무장대원을파병하는일이었다. 바르셀로나의반동군부가타도된지사흘만에 3 천명의지원병들이파세오데그라시아 Paseo de Gracia 와폐광지역에모였다. 그들은두루티와, 한때정부에충성한해병장교, 페レス파르라의지휘아래아라곤으로출정했다. 두루티가이끄는용감한대원들은행군도중에도계속그수가늘어났다. 아나키즘신문은이용사들의행진장면을 1 면기사로실었다.

동원된민병대의수를정확하게가늠하기는어렵다. 아나키스트들은수를가늠하는것조차반대한다. 루돌프로커는노동자민병대원의수가 2 만명이었다고주장한다. 그중 1 만 3 천명은 CNT-FAI 의대원들이고 2 천명은사회주의노조 UGT 의대원들이며 3 천명은인민전선에투입된당파들의당원이라는것이다. 그러나이때 8 천명으로구성된두루티의대원들은계산에포함되지않았다.

아바드데산티안의보고에의하면두루티가아라곤전선으로출발한후며칠지나지않아바르셀로나에서총 1 만 5 천명의지원병이모집되었다고한다. 그들은여러당파와노조조직의단체로구성된원정대에가담했을것이라고한다.

존스테픈브라데마

당시신문에는이렇게기록되어있다. “반파쇼민병대위원회는쿠데타군을공격하기위해무장한노동자여단을사라고사로출정키로결정하였다. 위원회는출정할원의수를 6 천명으로계획했으나그열기가너무고조되어카탈루냐광장에모인지원병의수는 1 만명이넘었다.”

이와는반대로아바드데산티안은이렇게확인한다. “일반적열기에도불구하고두루티 — 페レス파르라대원은거의한번도우리가예측했던힘을발휘하지못했다. 처음부터그들은사태의심각성을보는통찰력이부족했다. 이용가능한모든힘, 즉전투에투입될인원, 무기, 작전과계획을전혀고려치않고사라고사로출정한선봉대는아무런어려움없이목적지에도착할것이고, 무턱대고자신들이우세하다고믿고있었다. 그런데그들이출동했을때민병대원의수는불과 3 천명에지나지않았다.”

5 월 1 일

스페인공화국이 제정된 후 나는 친구인 아스카소, 두루티, 호베르를 만나기 위해 바르셀로나로 갔다. 5월 1일 전날 저녁에도 착했다. 공산주의자들이 5월 1일에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여도 시곳곳에 플래카드를 잔뜩 걸어 놓았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CNT-FAI는 아무것도 내걸지 않았다. 손바닥만한 쪽지 하나도! “그들은 선전선동 가능성을 다 포기했단 말인가?” 내가 물었다. “전단한 장보지 못했네.” “우리는 「노동자연대 Solidaridad Obrera」라는 일간지에 우리의 행진을 공시했네.”

다음 날 실제로 아나키스트들은 10만 명을 모았다. 공산주의자들은 기껏해야 6~7천 명 정도에 불과했다.

그러나 나는 아나키스트들의 자신감이 도를 넘고 있음을 간파하였다. 그들이 공산주의자들의 위험성을 과소 평가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소총 병삼총사’와 그들의 스페인 동지들은 그런 나를 비웃었다. 그들은 내가 지나친 신경과민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몇 년 후 그들은 그 조심성의 결여 때문에 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루이레코인

매주 일요일마다 FAI는 몬주익 Montjuïc 공원의 넓은 광장에서 집회를 가졌다. 연사로서는 거의 매번 카노루이스 (Cano Ruiz), 프란시스코 아스카소, 아르투로 파레라 (Arturo Parera), 가르시아 올리베르와 두루티가 등장했다. 처음이 집회에는 2백 명 정도의 청중들만 참석했다. 그러나 연사들, 특히 두루티와 가르시아 올리베르가했던 연설이 소문으로 알려지자 광장에는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매주 일요일마다 수천, 수만의 노동자들이 모여들었다.

두루티는 뛰어난 응변가는 아니었다. 그의 연설은 거의 언제나 일관성이 없이 왔다 갔다 했다. 그는 수사학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대중들은 무엇보다도 그의 연설을 듣기 위해 왔다. 강하고 카랑카랑한 그의 목소리는 은연중에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말을 꾸미지 않고 이야기를 매우 쉽게 했다. 그것이 대중을 끌어들이는 그의 강하고 풍부한 감정이었다.

언젠가 한번은 헤로나 Gerona 지방의 동지들이 두루티를 한 시위에 연사로 초청한 적이 있었다. 연설을 마친 뒤 그는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체포동기는 그가 파리에서 알폰소 13세의 암살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그해 묵은 죄목이었다. 검찰당국은 군주정이 무너지고 대사면 조치가 취해졌다는 사실을 깨마득히 잊은 모양이었다. 헤로나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형무소를 파괴하고 두루티를 석방시키려는 시도가 여러 번 발생하였다. 노동자들이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다. 당국은 비상 사태를 선포하였다. 파업 사흘 만에 두루티는 석방되었다.

바르셀로나에서도 1931년 5월 1일에 봉기가 일어났다. 예술궁전에서 집회가 열렸다. 이집회에 사면으로 풀려난 정치범들이 많이 참석하였다. 카탈루냐의 프란시스코 마시아 (Francisco Maciá) 대통령에게 보낼 결의서가 작성되었다. 거대한 시위 행렬이 줄을 이었다. 이 행진에 가르시아 올리베르, 두루티, 아스카소, 산티아고 벨바오 그리고 CNT-FAI 의 또 다른 지도자들이 선두에 섰다. 그것은 공화국 선포 이래 가장 큰 프롤레타리아트 행진이었다. 군중들은 도시의 넓은 도로로 행진해 갔다. 행렬이 카탈루냐의 중심인 정부 청사 앞에 당도했을 때 경찰이 발포했다. 노동자들과 경찰 간에 공방전이 일어났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군이 개입하였다. 1개 대대 병력이 공화국의 광장으로 출동했다. 당장 두루티가 군인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치안 경비대와 기동 경찰대가 다시 시위대를 향하여 발포하려고 했을 때 군인들이 경찰에게 거총 자세를 취하였다. 그래서 대량 학살이 방지되었다.

이 돌발적인 사태는 1931년 공화국의 모순된 정책의 상징이었다. 공화국 관직에는 아직도 군주 정치의 하수인이었던 구세력들이 앉아 있었던 것이다. 공화국은 노동 계급의 권익을 대변할 그 어떤 사회 정책도 수행할 수 없었다. 체제 형태만 바뀌었을 뿐 알폰소 13세 때의 구 시대적 잔재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민중들의 불만은 날이 갈수록 고조되었다.

알레한드로 힐라베르트

암울한 공화국

공화국 체제 하에서 심각한 계급 투쟁이 꼬리를 물고 발생하였다. 1932년, 카탈루냐 피골스 Figols 탄광 광부들이 파업을 일으켰다. 이 파업은 본격적인 차원으로 발전했다.

노동자들이 1933년 1월에 다시들고 일어났다. 주로 카탈루냐 지방에서 일어났지만 안달루시아에서도 파업이 발생하였다. 나는 카사스 비에하스 Casas Viejas의 비극만을 기억하고 있다. 같은 해 12월에 아라곤과 카스티야의 한 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났고, 1934년에는 아스투리아에서 혁명이 발생하였다. 그 혁명은 아나키스트, 사회주의자 및 공산주의자들이 연합하여 일으킨 최초의 혁명이었다. 이 혁명에 스페인의 거대한 두 개의 노조 조직인 CNT와 프롤레타리아트 협체들이 여단합하는 슬로건을 내걸었던 UGT가 협력했다.

1936년 1월 선거에서 좌파가 마침내 다수의석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 선거전을 승리로 이끄는데 가장 중요 한 역할을 한 것은 정치범을 사면하겠다는 공약이었다. CNT는 반반의 회주의였지만 이번 만은 투표를 하든, 하지 않는 것은 각자의 자유 의사에 맡긴다고 선언함으로써 실상은 선거 참여 투쟁을 벌였던 것이다. 그래서 아무도 선거를 보이콧하지 않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당시 두루티도 의견을 같이 했다.

레프트로츠키 (Lev Trockij)

가만히앉아있지못하는사람

회의는오래끌지않았다. 두루티는중앙위원회가관리기구라는事實을간파하였다. 논쟁을벌였던사안은협상을통해표결에부쳐졌다. 관료적인서류들까지있었다. 두루티는더이상가만히앉아있지못했다. 멀리교외에서총성이들렸다. 그는오래참고있지않았다. 그는자신의단원들을편성하여아라곤전선으로출동했다. 나는그들이바르셀로나거리를통과하는장면을목격했다. 그광경은기가막힐정도였다. 그들로이입고있는제복의색깔은뒤죽박죽이었다. 그들은사방에서도인자원병들이었다. 옷은천을벗대어기워서너덜너덜했다. 거의히피족이나다를것이없었다. 그런데그들이히피족과다른것은수류탄과기관총으로무장을했다는점이었다. 그들은죽음을각오하고투쟁하기로결심한사람들이었다.

하우메미라비트예

공화국시절두루티는모든봉기와투쟁에적극적으로가담했다. 모든일은일관성있게추진되어야한다고생각했던것이다. 그는스페인으로돌아오자마자운동에뛰어들었다. 그때문에그는 1932년에또다시아스카소와함께아프리카에있는시스네로스 Cisneros로추방되었다. 그후내내연금되어있었다. 정권은사면이나전술전환의조치로두루티를석방했다가얼마후또다시그를체포하는일을반복했다. 왜냐하면그는결코조용히있지않았기때문이었다.

페데리카몬트세니

두루티는언제나노동자들에게공화파들과사회주의파들이혁명을배반했으므로혁명을처음부터다시시작해야한다고강변했다. 페레스콤비나 (Pérez Combina) 와아르투로파레라와함께그는피골스갈탄탄광지로갔다. 그는광부들에게시민적민주주의는파산했으며혁명의시간이다가오고있다고말했다. 부르주아지의재산은공유되어야하며, 국가는해체되어야한다고열변을토했다. 그렇게될때만이노동계급의참다운해방이실현될수있다고주장하였다. 그는탄광노동자들에게최후의결전을준비하자고설득했다. 그리고그는강철과다이너마이트로폭탄을제조하는방법을가르쳤다.

이것은스페인전역으로파급되었다. 농민들은대지주를지켜주었던치안경비대와매일투쟁했다. 전국도처에서파업이발생하였다. 선거를앞두고있던정부로서는부르주아지의입장에설수도없었고그렇다고해서노동자들편에설수도없는난감한입장이었다. 정부는결국부르주아의편에서기로결정했다.

1932년 1월 19일, 피골스광부들이자본주의에대항하여무장봉기를시작했다. 이운동은카르도너 Cardoner 와알토요브레가 Alto Llobregat 골짜기를휩쓸었다. 피골스, 베르가 Berga, 수리아 Suria, 히로네야, 살렌트 Sallent 탄광지가혁명의화염에휩싸였다. 이도시에서최초로자유공산주의가사건에개입하였다.

8일이 지난후군대가개입을시작했다. 봉기를진압할때군대는상당히온건적이었다. 왜냐하면정부군의지휘자는온건파장교인움베르토힐카브레라 (Humberto Gil Cabrera) 였기때문이었다. 그후그는중령으로진급했고 CNT의한친구가되었다. 그의덕분에탄광노동자들에대한유혈진압을피할수있었다.

알레한드로힐라베르트

1932년 1월 18일, 피골스탄광노동자들이알토요브레가탄광지에서공공연한봉기를일으켰다. 그들은사유재산과자본제를폐지할것을선언하였고자유공산주의를외쳤다. 중앙정부는선동자들을‘노조원의이름을빌린폭도들’이라고불렀고, 수상마누엘아사나 (Manuel Azaña) 는그지역지사에게이렇게지시했다. “군을동원하든어떻게하든 15분안에시위를진압하시오.” 그러나실제로군이이시위를진압하는데는 5일이걸렸다.

무정부의 5 일 — 그것은 꽃한송이가 피었다가지는 정도의 시간일 뿐이었다.

페데리카몬트세니

추방

그 사이에 바르셀로나에서 총파업이 선언되었다. 꼬리를 문 충돌과 총격전이 있었다. 탄광에서 체포된 수백 명의 탄광 노동자들이 해상 수송을 위해 형무소처럼 개조된 함선에 태워졌다. 배는 바르셀로나 항구에 정박하고 있었다. 탄압의 물결이 카탈루냐 전 지역과 레반테 Levante 해안, 그리고 안달루시아를 덮치고 있었다. 주동자들은 부에노스아이레스 행 기선으로 수송되었다. 그 기선은 2 월 10 일에 1 백 4 명의 시위가 담자들을 수송하였다. 거기에는 두루티와 아스카소도 끼여 있었다. 배의 항로는 스페인의 식민지 서부 아프리카 (리오데오로, Río de Oro) 와 카나리 군도 (푸에르토 벤투라)로 정해져 있었다.

프란시스코 아스카소 가동자들에게 작별의 편지를 썼다.

“자신들의 알량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런 비열한 수단을 동원해야 했던 불쌍한 부르주아지들! 우리는 그들의 행위를 보고 놀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고문과 추방 그리고 살인이 그들의 본질이니까! 그러나 마지막 결정타를 맞지 않으면 아무도 죽지 않는다. 동물조차도. 부르주아지의 마지막 결정타에 맞서다가 희생자가 발생한 것은 슬픈 일이다. 특히 이 투쟁에서 쓰러진 사람들이 우리 의형제들이라면. 우리가 폐기처분하지 못한 법률이 그들의 살인 행위에 합법성을 보장해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 노동 계급이 당하고 있는 이 단말마의 고통은 더 이상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그 고통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이 강철 배의 몸체는 우리의 분노에 찬 함성을 견뎌 낼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고통은 우리 적들의 종말의 시작이다. 가끔 실패하여 희생되는 동지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지의 죽음은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 의해 방일 것이다! 우리 가지금은 작별인사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영원한 이별의 작별인사가 결코 아니다. 동지들이여! 우리는 곧 다시 그 대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프란시스코 아스카소로부터.”

동지들이 아프리카로 추방되었을 당시, 그들은 바나나 수송 증기선에 태워져기 네아 Guinea 항만의 바타 Bata 항구로 수송되었다. 물론 그들 1 백 69 명은 모두 화물칸에 갇혀 있었다. 바람이 들어오는 구멍 한 단 한 개의 작은 통풍창뿐이었다. 그들은 갑판 위로 올라가려 했다. 아스카소가 말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

장교를 양성하는 일, 전신전화 학교와 암호 해독 학교를 세우는 일, 요양소와 의복 공장을 설립하는 일, 경제·입법·사법부의 새로운 편성, 평화의 산물로부터 투쟁의 산물로의 전환, 선전작업, 마드리드 중앙 정부와의 관계, 모로코와의 연락 유지, 지방 경제 문제, 국민 보건제도, 경계선 및 해안 방위 문제, 금융권의 문제, 민병대에 봉급 지급, 부양 가족과 미망인에게 지급하는 연금 문제 등등이었다.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민병대 위원회는 그날 20 시간 동안 토론했다. 기존의 정부가 권력 유지를 위해 관료들에게 비싼 보수를 지불해야 했던 문제 가 쉽게 해결되었다. 동시에 국방성, 내무성, 외무성이 구성되었다. 모든 일이 단 한번에 이루어졌다. 그것은 민중의 지지의 참된 표현이었다.

디에고 아바드 데 산티안 3

트로츠키파의 판단

アナ키스트들은 혁명의 법칙과 그 문제점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평화로운 시기에 살아가고 있는 듯이 자신들의 문제를 노조에만 국한시키려 했다. 그들은 대중들과 정당, 정부 기구 등 노조 외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들이 현실적 혁명가들이었다면 우선 도시와 농촌의 모든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어느 노조에도 가입하지 않은 기식 민중들을 포함하는 소비에트와 평의회를 조직했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소비에트에 소속된 혁명적 노동자들은 틀림없이 투쟁에서 선도적 역할을 떠맡았을 것이다. 역시 그랬더라면 프롤레타리아트는 자신이 어느 누구도 감히 극복하기 어려운 세력임을 자각했을 것이다. 그 결과로 부르주아지 국가 기구는 허공에 뜬 상태가 되어 단일격에 분쇄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나키스트들은 이러한 ‘정책’의 필요성을 외면하고 노조 안에서 피신처를 찾았던 것이다. 그들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수레 바퀴에 달린 다섯 번째 바퀴에 불과했다. 아무도 다섯 번째 바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황이 오자 그들은 곧 그 자리에 젖어 버리고 말았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변명 밖에 또 무엇이 있겠는가! “우리는 정권을 장악하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방식의 독재도 우리가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에 입각한 아나키즘은 이미 반 혁명적 학설에 불과할 뿐이다. 권력 장악을 포기하는 것은 여전히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착취자들에게 권력을 내주는 것이나 다름 없다. 모든 혁명의 본질은 권력에 있으며, 혁명을 통하여 새로운 계급이 권력을 장악하고 새로운 계급의 강령을 실현하는데에 있다. 대중이 권력을 잡는 일을 준비시키지 못하면 대중에게 봉기를 선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나키스트들이 권력을 장악한 후에 그들이 필요하다고 여긴 조치를 취한다면 그 때는 아무도 그들을 방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아나키스트지도자들은 그들의 강령이 실현될 수 있다고 스스로도 믿지 않았던 것이다.

건협력을지지했다. 에스글레아스와에스코르사의지지를받았던페데리카몬트세니는정부와의협력에끌까지반대했다.

이런논쟁으로 2 개월을보내면서혁명의열기는식어갔다.

마누엘베나비데스

당시 CNT 의책임있는지도자들은자신들의힘을너무과신하여대업을극단으로몰고간결과를초래하였다. 그들은 CNT 가선도하였고, 또자신들만이계속진행시킬수있었던혁명을새로운기관들의조종에맡김으로써혁명의열기를분산시키는결과를가져왔던것이다. 분열된형태에서다음과같은발언도나오게되었다. “이제다시는큰물고기가작은물고기들을모두삼켜버렸다는말이나오게해서는안될것이다.”이소박한문구는현실에서정치가들이 CNT 대원들을중립화시켜스페인혁명에일격을가하는데에좋은수단으로쓰였던것이다.

카노바스세르반테스

정부청사에는혁명적상황을여전히무기력하게수수방관만하던음성적인정부내각이앉아있었다. 그러나예외적인경우도있었다. 카탈루냐대통령루이스콤파니스는개인적으로는대단히용기있는사람이었다. 그는전에법정에서아나키스트들을여러번변호한일이있었기때문에 CNT 내부에도그를추종하는동료들이있었다. 그가처음으로민병대위원회에참석했을때우리는모두자리에서일어났다. 그러나아나키스트들은꼼짝않고앉아있었다. CNT-FAI 위원들과이들을비난한콤파니스사이에는종종격렬한논쟁이일어나곤했다. CNT-FAI 의태도가때로는너무강경하여혁명의승리가위험스럽게보인적도많았다. 하루는두루티가침묵을지키고있다가정부대표자들에게이렇게말한적이있었다. “대통령께멋진안부인사를전하시오. 더이상나타나지않은게그의신상에이로울것이라고말이오! 그가만일계속해서우리를비방하면결국무슨일인가당할것이오.”

하우메미라비트예

민병대위원회의 1 차회의가끝난뒤두루티와가르시아올리베르는사회주의통일당의사무총장인코모레라에게이렇게말했다. “우리는볼셰비키들이러시아나키스트들에게무슨짓을했는지알고있소. 우리는공산주의자들이우리를그와같은방식으로다루게내버려두지는않을것이라는사실을명심하시오.”

마누엘베나비데스

그때민병대위원회는모든일에찬성했으며, 모든문제를토론에부쳤다. 토론의내용은이러했다. 후방에서혁명적인질서를유지하는일, 전방부대를창설하고

어.”그는계단을밟고위로올라갔다. 그때감시병이권총을빼들고소리쳤다. “돌아가!”그러나알다시피아스카소는그렇게쉽게포기할사람이아니었다. 그는아무말도하지않고계속걸어갔다. 감시병이총을겨누었다. 아스카소가말했다. “쓸데면쏴봐라, 이비겁한돼지같은놈아. 네가나를지금죽이지못하여내가나중에네놈을거리에서만나게되면, 네놈을개처럼취급할거야!”중사는불안했다. 떨고있었다. 아스카소를사살하면무슨일이터질것만같아서그냥지나가게내버려둘수밖에없었다. 그러자동지들모두가갑판위로달려나갔다. 그런데선장이호위구축함에지원을요청한모양이었다. 해병들이폭동을진압하기위해총의안전장치를푼채밧줄을타고기선위로올라왔다. 그러나그폭동은이유가있는정당한것이었다.

두루티가앞으로걸어나가자신의셔츠를찢었다. 당시그는체중이 90 킬로그램이상나가는거구였다. 그가해병들에게소리쳤다. “우리가무장하지않았기때문에지금당신들이우리를위협할수있지만, 만일우리를총으로쏘아죽인다면스페인에서어떤일이발생할지곧알게될것이오.”그때장교는차라리협상을하는것이낫겠다고생각했던것같다. 그는더이상폭동에대해서문제삼지않겠으며, 피수감자들이언제라도갑판위로나오는것을허용하겠다고말했다. 이렇게하여그들은바탕구로갔다.

마누엘뷔산 (Manuel Buizan)

거의물속에잠길것같은고철선부에노스아이레스호號가리오데오로에정박했을때시스네로스의지사는두루티를받아들이는것에대해거절의의사를분명히했다. 아무도지사의그런조치이유를이해할수없었다. 두루티는결국추방된자들과분리되어몇명의동지와함께카나리아군도의하나인푸에르트벤투라섬으로이송되었다. 시스네로스지사의이름은레게랄 (Regueral)이며, 그가빌바오의초기주지사의아들이었다는사실은나중에서야알게되었다. 빌바오의초기주지사였던그의아버지는아나키즘운동을잔인한방법으로탄압하였고, 퇴직후어떤행사에참석했다가밤에레온시거리에서권총사격을받고살해되었다. 그의아들인레게랄은두루티와그의몇몇동지들이자기아버지를살해했다고확신했던모양이다. 그래서그는두루티를자신이관리하는식민지땅에받아들이기를거절했던것이다.

리카르도산스 3

소요

CNT 는추방조치에대하여다시총파업으로대응했다. 아나키스트들이시청을습격하여흑·적색기를달아올렸다. 그들은군막사를포위공격하였다. 사바델

Sabadell에서 지원병력이 출동했다. 격렬한 투쟁을 벌였지만 결국 아나키스트들이 패배했다. 그 결과 그들은 최소 4년에서 최고 20년까지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추방조치에 대한 항거의 물결은 계속되어졌다. 5월 29일, 이 항거는 시위운동, 무장충돌, 사보타주로 절정에 다다랐다. 형무소는 구속자들로 초만원을 이루었다. 바르셀로나에서는 구속자들이 폭동을 일으켰고 형무소가 불탔다. 폭동을 진압한 형무소 소장이며 철지나지 않아넓은 도로에서 피살되었다.

호세페이라츠

1932년 12월 말, 유배되었던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돌아왔다. 공화-사회 민주당의 연립 정부는 CNT에 대한 탄압을 계속 자행하였다. 그럼에도 FAI는 바르셀로나의 몬주익 공원의 예술 궁전에서 대중 집회를 열었다. 추방에서 돌아온 두루티는 그곳에서 첫 연설을 했다. 청중의 수는 대략 10만 명 정도 되어 보였다. 그는 매일 혁명을 계획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경찰은 예술 궁전 주변에 수많은 기관총을 거치하였다.

카탈루냐 부르주아지는 겁에 질려 있었다. 그들의 언론은 정부가 아나키즘에 대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떠들어댔다. CNT는 불법화되었고 CNT 의 일간지 「노동자연대」의 간행도 금지되었다. 정치적 대중 집회는 모두 원천봉쇄되었다. 아나키스트들 가운데는 구속자의 수가 더 늘어나 더라도 정부의 탄압 조치에 물리적 힘으로 강력히 대응하자는 사람들도 있었다. 철도 노조가 동맹 파업을 선언하였다. 이동 맹파업은 국가의 경제와 정치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었다. 정부는 철도를 군의 감시하에 두겠다고 위협하였다. 가르시아 올리베르가 이봉기를 계획·구상하였던 것이다. 아스카소, 두루티, 아루렐리오 페르난데스, 리카르도 산스, 디오니시오 에로레스 (Dionisio Eroles), 호베르 그리고 다른 동지들이 이 계획에 찬성하였다. 한 사건이 이런 행동을 더욱 부채질했던 것이다. 일라리오 에스테반 (Hilario Esteban)과 멀러 (Méller)라는 두 아나키스트가 — 이들은 나중에 내란이 발생했을 때 아라곤 전선에서 지도자 역할을 했다 — 바르셀로나의 클로트 Clot 구역에 폭탄 공장을 하나 세웠다. 경찰은 공장이 잘못하면 폭발할 수 있다는 구실을 대며 공장을 수색하였다. 경찰이 아나키스트들의 병기 창고를 점거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었기 때문에 아나키스트들은 지체하지 않고 봉기를 일으켰던 것이다. 그래서 아나키스트 행동대원과 FAI 보호간부들이 1933년 1월 8일에 바르셀로나의 군막사를 습격하였다.

스페인 전 지역에서 무장 봉기가 연이어 일어났다. 그러나 이번에도 정부는 이봉기를 진압하는데 성공하였다.

알레한드로 힐라베르트

7월 21일, 아나키스트 지역 위원회가 새로운 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지역 총회를 소집했다. 회의에서 파시스트들에 대한 최후 승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자유 공산주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총회는 CNT-FAI가 다른 노조 조직과 민병대 중앙 위원회에 가입된 정당들과 서로 협력하기로 한 결의를 승인하였다. 바호요브레 갓지역 구만이 협력 체제에 반대했다.

실제로 아나키스트 노조 연합의 조종을 받고 있던 중앙 위원회는 전에 바르셀로나의 요트 클럽으로 사용되었던 건물에서 결의된 사안을 추진하였다.

스테픈 존 브라데마

CNT-FAI는 이제 처음으로 불가피한 권력 재편의 문제에 봉착하였다.

"우리는 카탈루냐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공화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을 고려하지 않고 권력을 독점해야 합니까? 아니면 평의회와 협조해야 할 것입니까?"

이 문제를 두고 아나키즘 운동의 최고 위원들이 고심을 하였다. 그들은 한 달 이상 그 문제를 거론했지만 해결 방안을 찾지 못했다.

마리아노 바스케스, 가르시아 올리베르, 두루티와 아우렐리오 페르난데스는 현재의 힘의 관계를 고려할 때 아나키즘 독재가 무리라고 생각하였다. 우리가 정권을 장악하면 다른 단체들이 우리를 공박할 것이고, 우리가 마드리드 중앙 정부를 장악하게 되면 외국의 모든 정부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협력 체제를 선택해야 하지만 우리와 무관한 정부가 구성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페데리카 몬트세니, 에스글레아스 (Esgleas), 에스코르사 (Escorza) 그리고 산티안은 우리의 생각에 반대했다. 정권의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는 주장이었다. 왜냐하면 정권이 실제로 CNT-FAI의 수중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CNT-FAI가 아라곤에서 민병대를 통제하고 후방에서는 사회 안정과 경제를 통제하고 있는 마당에 정부와 타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FAI의 일원 중에 가장 극단적인 행동파이며, 특이한 모습을 한 에스코르사는 음흉한 웃음을 띠면서 이렇게 비꼬듯 말했다. "당신들은 광주리에 암탉을 두고 서계란이 누구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논쟁하고 있구먼. 그 문제는 이미 오래 전에 결정된 것이나 다름 없는 것이오. 우리는 오히려 여우들이나 조심해야지요. 여우를 막는데는 총이 제일입니다. 우리는 농토를 집단 농장화하고 산업을 노조의 손에 넣기 위해서 평의회 정부를 이용해야 합니다. 도시 노동자들은 자동적으로 CNT의 일원이 되는 것이며, 농촌 노동자들은 집단 농장의 일원이 될 것이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관례적 정치 조직 기구와 당들을 타도해야 합니다. 생디칼리즘이 새 사회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산티안은 처음에는 정부와의 어떤 협력도 반대한다는 완강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양심 없이 명예 욕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장관이 되자 마자 정부에 대하여 무조

이미콤파니스는 카탈루냐의 세정당의 대표자들을 다른 방에 모두 불러 놓았다. 그들은 아나키스트들과 회담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회담 이후 CNT-FAI 의 대표자들이 공식 용인되었고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연합 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이 위원회는 나중에 반파쇼민병대의 중앙위원회로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되었다. 대통령은 카탈루냐의 질서를 회복하고 사라고사의 군사 쿠데타에 대해 무장 투쟁을 조직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호세페이라츠 2

협상

7월 19일, 바로 이 날은 카탈루냐는 물론 스페인 전 지역의 모든 정치 구조가 무너진 날이었다. 합법적 정부는 그때부터 음성적 존재에 불과했다. 이 나라의 실제적 정치 상황으로 보아 새로운 권력 구조의 생성이 필요했다. 그래서 반파쇼민병대 위원이 바르셀로나에 창설된 것이다.

이런 군사 자문 조직의 발족은 사실 아나키스트들에 의해 비롯되었다. 그들은 정부에 귀속되려고 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들의 이념에도 배치되었다. 그래서 아나키스트들은 정부의 활동을 그대로 방지하였다. 그러나 사실 민병대원과 그 위원회는 정권에 계속 개입했다.

민병대 위원회에는 다른 반파쇼 단체도 가입하고 있었다. 나는 좌파 자유당의 대표로서 회의에 참석했다. 우리는 전형적인 부르주아지지식인들처럼 넥타이를 매고 재킷을 입고, 거기에 만년필을 꽂은 채 회의 석상에 참석하였는데, 마침 그곳에서 아나키스트 대원들을 만났다. 그들은 면도도하지 않은 상태였고, 연발권총과 다이너마이트를 달고 있는 탄띠를 찬 전투복 차림이었다. 그들의 인솔자는 외모와 말투, 행동 거지가 마치 거인과도 같았다. 그가 부에나 벤투라 두루티였다.

하우메 미라비트예 (Jaume Miravittles) 1

나는 전에 한번 신문에 논설을 쓴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파시스트와 FAI 의사람들 사이에는 별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광폭한 사아니, 두루티는 그 기사를 잘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나를 찾아와 그의 큼직한 두 주먹을 내어 깨워 올려놓고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 당신이 미라비트 예선생이오? 조심하시오! 불장난 같은 것은 하지 마시오! 그러다가 큰 코다 치는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반파쇼민병대 중앙위원회는 긴장과 협박을 조성하며 일에 착수하였다.

하우메 미라비트예 2

1 월봉기가 실패한 후 두루티와 아스카소가 다시 구속되었다. 그들은 이번에는 푸에르토데산타마리아 (Puerto de Santa María) 형무소에서 6개월을 보냈다. 그 후 두루티는 석방되자 마자 그의 끈질긴 집념에 따라 다시 일에 착수하였다.

디에고 아바드 데 산티안

공화정이 선포된 후 CNT 와 FAI 는 온갖 비방과 모욕을 당해야 했다. 공산당 신문인 「바타야 La Batalla」 지가 게재한 헤드라인의 표제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그것은 'FAI-주의 = 파시즘 (FAI-ísmus=Fascismus)' 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라르고 카바예로의 초기 고문관으로서 활동했던 사회민주당의지도자 파브라 리바스 (Fabra Riba) 의 선언을 기억하고 있다.

“아스카소와 두루티 같은 아나키스트들은 정신 박약의 미치광이들이다. 우리는 그런 미치광이와의 관계를 청산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들과 논의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과거의 잔재를 즉각 청산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루스데알바 (Luz de Alba)

어느 날 공화국의 지시를 받고 있던 해당 관청이 우리의 인쇄기를 압류해 간 것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그 인쇄기는 우리 신문인 「노동자연대」 를 찍어내던 윤전식 인쇄기였다. 나는 압류 이유를 물었다. 당국은 신문의 광고가 무슨 무슨 일을 선동했다고 했다. 신문은 더 이상 나오지 못했다. 인쇄기가 강제 경매되었다. 수많은 장사꾼이 몰려와 값을 매겼다. 그러나 그곳에 경매인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우리도 경매장에 갔었다. 적어도 스무 명정도는 되었는데 그 중에 두루티와 아스카소도 있었다. 두루티가 일어나서 우리의 윤전기에 20 페세타를 불렀다. 물론 그 값은 지나치게 낮은 것이었다. 다른 장사치들이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다. “1 천 페세타!” 첫 경쟁자가 이렇게 값을 부르자 두루티는 등골이 오싹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내걸었던 값을 당장 취소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스카소가 끼어들었다. 그가 소리쳤다. “4 두로 Duros!” 그것 역시 이십 페세타였다. 아스카소보다 높은 값을 부르고 싶었던 그 구매자는 옆 구리에 권총을 익혔다. 그래서 그는 입을 다물었다. 결국 경매인은 달리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는 망치를 들고 버터 바른 빵 값에 불과한 20 페세타로 윤전기를 우리에게 넘기겠다고 말하고 망치를 쳤다.

그 당시와 지금은 비교할 수가 없다. 우리가 프랑스 망명 당시 CNT 의 인쇄소에서 한 일은 정말 보잘 것 없었다. 그 때는 인쇄기가 부족했다. 우리 인쇄기도 형편 없이 낡은 상태였다. 우리는 새 기계가 필요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는 물론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다. 합법적으로 매우 열심히, 그것도 이 낡은 인쇄기로 말이다. 우리에게 두루티와 아스카소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새 인쇄기를 구입하는 일이 어렵지 않을 텐데. 그러면 우리 문제를 쉽게 해결될 것이다!

후안페레르

공장활동

자칭노동자공화국이라고 말했던 그들이 두루티를 어떻게 했던가? 그들은 두루티가 여기저기서 선동을 하며마다닌다고 하여 그를 바타섬으로 유배하였다 것이다. 아스카소와 두루티 그리고 다른 수백 명의 동지들은 한 평생 공장에서 노동을 하며 먹고 살았다. 그들은 사무실에 앉아 노조로부터 보수를 받으며 일한 전문 기능인들이 아니었다. 두루티는 보스 체계를 반대하였기 때문에 CNT 나 FAI로부터 단한푼도 받은 적이 없었다.

마누엘에르난데스

바르셀로나의 댐 Damm 맥주 양조장의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에 항의하여 파업을 일으켰다. 기업 경영자들은 양보는 커녕 몇 명의 노동자들을 해고까지 하였다. 그래서 CNT는 댐 맥주 불매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몇몇 소매업주들이 운동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들은 계속 댐 맥주를 팔아주었다. 그러자 두루티와 서너 명의 동지들이 그들을 찾아가 유리창과 술잔, 바의 스탠드를 부수었다. 그러자 바르셀로나의 모든 술집에서는 허겁지겁 게시판을 내걸었다. 그 위에는 (저희 업소에서는 댐 맥주를 팔지 않습니다)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2 주 후 회사는 파업 기간의 봉급을 지급하였다. 회사는 해직 노동자를 복직시키고 새로 정한 봉급 기준을 CNT와 협상함으로써 파업을 매듭지었다.

라몬 가르시아 로페스 (Ramón García López)

두루티는 노동자의 해방은 노동자들의 연대 투쟁과 직접적 경제 활동에 있다고 보았다. 그는 1933년 이후부터 그려 한 자신의 생각을 노동자들에게 교육시키려 애썼다. 그는 무엇보다도 공장 위원회의 발족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는 노동자들의 노동연대를 사회 혁명의 기초로 여겼다. 1933년 가을, 대규모의 반항 회주의 집회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공장은 노동자의 대학이다.”

하인츠 류디거 (Heinz Rüdiger)

그는 우리의 운동에 중간 계급, 즉 학생과 작가들이 가담하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노동자 대중과 연대할 것을 요구하였다. 내가 형무소에서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던 어느 날, 그는 흔히 기술 공과 전문가를 엄격히 구분하는 것에 대하여 불평했다. 미장공이 집을 설계하여 세울 수 있듯이 금속 노동자도 어떤 공장이든 완벽하게 가동 시킬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그는 다른 모든 부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리베르토 카예하스 (Liberto Callajas)

“우리는 CNT-FAI 의 대표자들이오. 콤파니스가 우리에게 회담을 요청했고. 우리는 우리의 호위병을 함께 데리고 왔소.”

루이로메로

우리는 소총과 권총 그리고 기관총으로 완전 무장을 하고 거기에 갔다. 우리는 외투를 걸치고 있지 않았으며, 얼굴은 포연이 묻어 거무칙칙했다.

“우리가 CNT-FAI 의 대표자들이오.”라고 비서 실장에게 말했다. “그리고 저들은 우리를 수행한 호위병들이오. 콤파니스가 우리와 회담을 하고 싶다고 제의 했소.”

카탈루냐 대통령은 우리를 선채로 맞이했다. 그는 확실히 동요하고 있었다. 그는 우리를 거의 끌어 안다시피 악수를 했다. 소개는 간단히 했다. 모두 자리에 앉았다. 우리는 각자의 소총을 무릎 사이에 끼웠다. 콤파니스는 짤막하게 인사말을 했다.

“다른 것보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사실을 먼저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지금 까지 CNT 와 FAI 는 그 세력의 의미에 맞는 이와 같은 대접을 한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가장 심한 압박을 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전에 여러분 편에 섰던 제가 정책 수행이라는 책임 때문에 고통을 무릅쓰고 여러분과 부대끼며 억압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도시와 카탈루냐 전 지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독자적인 힘으로 파시스트들을 굴복시켰기 때문이지요. 제가 우리 당과 보조, 그리고 당국의 여러 사람들 이 지난 며칠 동안 여러분에게 지지를 약속하지 못한 사실을 상기시키더라도 서운하게 생각하시는 말기를 바랍니다…….” 그는 잠시 신중하게 생각하고 서다시 말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저께 까지만 해도 탄압을 받았던 여러분이 지금은 군부들과 파시스트들을 상대로 하여 승리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누구이며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허심탄회하게 여러분과 회담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겼습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의 수승 중에 들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저를 카탈루냐 대통령으로서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저를 원하지 않는다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백의 종군하여 파시스트들과 싸울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그 반대로 생각해 주면, 저는 파쇼가 승리를 한다면 살아서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각오로 싸우겠습니다. 저는 지금 스페인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우리가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를 이 전쟁에 미친 하나마도 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당과 저의 이름을 걸고 서이명예를 지킬 것이라고 확약합니다. 여러분은 저의 충성된 마음을 한 남자의, 한 정치가의 그것으로 믿어도 좋습니다. 저는 불명예가 있는 그 날로 자신의 모든 과거가 파산되고 만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카탈루냐가 사회적으로 가장 진보한 지역들 가운데 항상 선봉에서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 마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후안 가르시아 올리베르 1

수없다. 치안경비대가 과거에는 정부를 지원했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경비대원들이 당황하고 있다. 병영화된 탄압 기구였던 경찰이 이제는 더 이상 문제로 되지 않는다. 기동경찰대도 점차 민중의 편에서 고 있다. 군대는 이미 힘을 상실했다. 반파쇼 장교들은 충성심이라고는 전혀 없는 부대를 강력한 군대로 개편할 능력도 갖고 있지 못했다. 근위대의 힘이라고는 너무 허약하여 정부 청사를 지키기에도 급급하다. 저항 할 수 있는 카탈루냐 민족주의자들과 소부르주아지집단들은 아나키스트들을 상대할 수가 없다. 바르셀로나 프롤레타리아들은 이제 거의 완전무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감시초소와 바리케이드의 요충지대는 안전하게 보호되어 있다. 지역 노조와 노동자 본부는 안전하게 방위되고 있다. 부르주아지 정치가들은 고립된 것으로 보인다.

건축 노동자 사무실에서 지역 위원회 회원 마리안느, 산티안, 아우구스틴 조우취와 여러 행동 대원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동안 전화벨이 울렸다. 마리안느 바스케스가 전화를 받았다. “예, 지역 위원회 비서입니다.” 그는 아주 뜻밖이라는 표정을 지었다. 모두들 그가 농담 섞인 말투로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 “알겠어요. 그럼요, 좋습니다. 우리가 당장 논의해보죠.” 수화기를 내려놓고 사람들 쪽으로 몸을 돌려 들은 이야기를 전했다. “콤파니스 대통령이 위원회 대표자와 만나자는 제의입니다. 협상을 하고 싶답니다.” 의아함이 채사라지기도 전에 위원회 비서는 계속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동지 여러분, 저는 방어 위원회가 참석한 지역 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됨을 선언합니다.”

열띠고 긴 토론이 전개되었다. 일부 위원들은 이 초청을 거절하려고 했다. 그들은 대통령을 파직시키고 카탈루냐 전 지역에 자유 공산주의를 선포할 순간이 왔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모든 것이 계략일 수 있다고 염려했다. 발언자들은 지난 며칠 간을 떨치기 위해 계속 커피를 마시고 담배를 태웠기 때문에 목에서 천소리가 났다. 가르시아 올리베르가 이딜레마에 대한 한 가지의 견을 개진하였다. 그것은 다른 당들과 협력을 하든지 아니면 아나키즘 독재를 하든지 하자는 양자택일의 안건이었다.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두려워하지 말고 초대에 응하여 콤파니스의 태도를 살펴보자는 것이었다. 이런 결정을 내린 중요 한계기는 우선 투쟁 대원들에게 휴식이 필요하다는 점이었다. 새 힘을 결집하는데에는 짧더라도 휴식 시간이 꼭 필요했다. 이것은 파쇼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어려운 투쟁을 벌이고 있는 사라고사 동지들을 염두에 두고 내려진 결정이기도 했다.

자동차 행렬은 하이메 Jaime 1 번 가를 지나 정부 청사를 향했다. 그들은 공화국 정부 청사의 광장에도착하였다. 평의회 발코니에는 카탈루냐 대형 국기가 휘날리고 있었다. 청사 정문에는 주근위대의 보초 병이 서 있었다. 옆 골목에는 기동경찰대가 대기하고 있었다. 카탈루냐 민족주의자들의 완장을 팔에 끼고 있는 시민들도 보였다. 중무장을 한 CNT-FAI 대표자들이 차에서 내렸다. 위 병장 교가입구에 내린 대원들 가까이다가왔다. 대원들은 두루티, 가르시아 올리베르, 호아킨 아스카소, 리카르도 산스, 아우렐리오 폴란데스, 그레고리오 호바르, 안토니오 오르티스와 발렌시아였다.

일상 생활

스페인에서의 나의 일상 생활은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 내 전공을 살릴 수가 없었다. 나는 스페인어를 거의 하지 못했다. 나는 노조를 돋거나, 영화관의 좌석 안내원이라는 일자리를 얻기까지 청소부로 일했다. 당시 영화관 좌석 안내원은 가장 깨끗한 직업이어서 사치스러운 것이었다. 그 후 나는 여러 번 일자리를 바꾸었다. 우리는 계속 이사를 다녔다. 바르셀로나에서 만대 여섯 번이나 사았다. 거기마다 부에나 벤투라는 걸핏하면 형무소 신세를 졌다. 직업 혁명가 남편을 둔 여자들은 비참한 생활을 했다.

1931년 나의 딸 콜레트 (Colette) 가 바르셀로나에서 태어났다. 딸의 출생은 나의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두루티가 오랜 기간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었을 때는 동지들이 생활비를 대주었다. 우리가 방세를 지불할 수 있을 때까지 동지들 개개인이 몇 페세타씩을 기부하였다.

에밀리엔느 모린

1936년 초에 두루티는 바로 내 옆집에 살았다. 그는 산스 Sans 구역의 작은 집에 기거했다. 기업가들은 그를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있었다. 그는 아무데서도 직업을 구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의 동반자였던 에밀리엔느가 영화관 좌석 안내원으로서 가족의 생활비를 벌어야 했다.

어느 날 오후에 우리는 그의 집을 방문했는데, 그때 그는 부엌에 있었다. 그는 앞 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하면서 어린 딸과 아내를 위해 저녁을 짓고 있었다. 나와 함께 갔던 한 친구가 그에게 농담을 했다. “어이, 두루티, 지금 자네가 하고 있는 일은 여자들이나 하는 일 아닌가?” 두루티가 통명스럽게 대꾸했다. “자네도 본을 좀 받게. 나는 집 사람의 일하러나 가고 없을 때는 집 안 청소도 하고 잠자리를 정돈하며 요리도 한다네. 그 외에도 나는 딸을 씻기고 옷도 갈아입힌다네. 자네 부인이 일하고 있는 동안 자네 같이 이를 바른 아나키스트가 선술집이나 카페에 쭈그리고 앉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자네는 월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이라네.”

마누엘 페레스

물론 아나키스트들은 자유연애라는 말을 즐겨썼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스페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유연애에 대해 서이러쿵 저러쿵 하는 말을 들을 때면 나는 웃음이 절로 났다. 자유연애란 그들의 기질에 어울리지 않았다. 그들은 그 저책에서 만자유연애라는 말을 들었을 뿐이다. 스페인 사람들은 여성 해방을 달갑지 않게 여겼다. 문제로 생각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말하지만, 스페인 남자들은 자신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편견에 대해서는 즉각 해결하려고 했지만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은 그대로 유지하려고 각별히 노력했다. 여자는 부엌

에만매여있어야한다니! 그들은 이런 생각에 얹매여 있었다. 나이가 많은 한동지가 한번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의 이론은 정말 좋고 훌륭하다. 그런데 아나키즘도 중요한 일이지만 가족은 아나키즘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가족의 문제는 지금 까지 그래 왔듯이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어쨌든 나는 부에나 벤투라와 함께 행복하게 지냈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답답하게 막힌 그런 사람 아니었다. 그러나 그도 결국 자신이 누구와 생활하고 있는지 알고 있지 않았던가!

에밀리엔느모린

그는 내 마음에 든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는 오늘 날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한번도 부당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거만하지도 않았다. 언제나 아주 겸소하게 살았다. 그러나 그는 감히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을 만큼 강했다. 이 말을 여러분은 믿어도 좋다.

호세파이바네스 (Josefa Ibañez)

나는 아스카소를 「노동자연대」 의인쇄소에서 만났다. 1934년 당시 우리는 언제나 거기서 우리의 선전 패플릿을 가져갔다. 그 패플릿은 우리 가비합법적으로 독일에 보냈던 독일어 판 패플릿이었다. 그것은 마치 초콜릿 봉봉상자에서 나올 수 있는 광고용 인쇄물처럼 포장되었다. 나는 바르셀로나의 햄살에 익숙지 않아 언제나 모자를 쓰고 다녔다. 아나키스트들에게는 모자를 쓰고 다니는 것이 부르주아지의 속성처럼 보였다. 그래서 아스카소는 내가 모자를 쓰고 다니는 것만으로 나를 약간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나는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는 내 손을 잡고 인사했다. 나의 손에는 뜻이 박혀 있지 않았다.

“아, 예? 선생께서 바로 그 아스카소씨입니까?” 나는 반문투로 말했다. 그는 너무 왜소하여 큰 인물로 보이지 않았다. 이 말투에 그는 화가 난 것 같았다. 그런 목소리로 묻지 말았어야 했다. 스페인 사람들은 비웃음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것은 여자라도 마찬가지다. 나는 스물한 살이었지만, 열일곱 살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내가 보기에 아스카소씨는 자존심이 대단히 강한 사람 같았다. 그 밖에도 그는 우리 같이 농담을 좋아하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아나키스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곧나를 환영해주었다. 그들 역시 내가 쓴 모자를 벗겨 했다. CNT 의 남자들은 프롤레타리아트였지만 품위를 중히 여기고 자존심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었다. 철도 노동자인 나의 한 남자 친구는 그의 평상 시습관대로 귀족처럼 행동했다. 그만이 그렇게 행동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두루티는 완전히 달랐다. 그는 대단히 소박한 사람이었다. 귀족처럼 품위 있게 행동하는 것을 중히 여기는 그 사람들도 그를 존경했다. 어느 오후에 나는 두루티를 그의 부인이 현금 수납 계좌 석 안내원으로 일하고 있는 영화관에서 만났다. 에밀리엔느는 카운터에 앉아 지나가는 모든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대기업은행의 본점이며 카탈루냐 기업연합의 본부가 있는 거대한 석조 건물인 캄보 Cambó 빌딩은 라이예타나 Layetana 32 번가의 맞은 편에 위치하고 있었다. 한편 바르셀로나의 강성 건축 노조의 본부는 암거래 시장 안에 있는 낡고 우중충한 건물 안에 있었다. 이 노조는 CNT 에 소속되어 있었다. 혁명투쟁이 진행되던 가운데 이노조 사무실에 모인 노동자들은 캄보빌딩을 습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게 획은 처음에는 순수한 전략적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왜냐하면 빌딩 최고 층에서의 기관총 사격은 중요한 교통의 대동맥을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건물이 점거되자 거기에 들어오는 대원들의 수가 늘어났다. 그래서 빌딩은 저절로 일종의 작전 통제실로 변했다. 전투가 진행되던 중에 CNT 지역 위원회도 그 건물에 상주하게 되었다. 혁명이 승리로 끝났을 때, 건물의 명칭은 이미 바뀌어 있었다. 바르셀로나의 모든 사람들은 그 건물을 CNT-FAI 빌딩이라고 불렀다.

전에는 금융계와 산업계가 그들의 사무실로 사용했던 그곳이 이제 협의회와 위원회 그리고 바르셀로나 노동 조합의 간부들이 이용하는 작전 본부가 된 것이다. 빌딩의 변화된 모습은 현관 입구에서부터 드러났다. 반원 모양의 높다란 현관 입구에는 모래주머니를 쌓아 올인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었고, 방아쇠 둥치가 잠긴 기관총 두정이 거치되어 있었다. 시내의 전경이 한 눈에 들어오는 넓은 발코니에는 커다란 투시도가 걸려 있었다. 7월 20일, 카탈루냐 CNT 총회가 그곳에서 개최되었다. 거기서 내려진 CNT 의 정치 노선은 카탈루냐 정부의 노선에 대립하는 것이었다.

아벨파스 1

대통령과의 담판

이제 막 CNT 지역 위원회의 회의가 끝난 건축 노동자 노조사무실은 카탈루냐 평의회 의사당으로부터 불과 몇步 떨어져 있지 않았다. 그러나 방어 위원회는 자동차를 타고 가기로 결정했다. 무장한 승용차가 그들을 수행했다. 그들이 소총, 권총, 자동연발 권총, 수류탄으로 무장한 것은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함이었지만 동시에 언제 출현할지 모르는 가상의 적을 대비하기 위한 안전 조치이기도 했다. 두루티는 많은 집회에서 연사로 나선 경험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는 행동파로 알려져 있었다. 그는 연설보다는 오히려 탄띠에 찬 권총과 무릎에 까지 걸친 소총에 더 의지했다. 죽은 아스카소를 대신해서 그의 형 호아킨이 두루티 옆을 지켰다.

위원회의 조직원들은 지난 사흘 동안 단판의 승부를 걸었다. 그들의 승리는 그들 모두에게 기대 이상의 것이었다. 도시가 그들의 수중에 들어온 것이다. CNT-FAI 가 바르셀로나와 카탈루냐 전 지역을 장악하고 있다. 아나키의 출범을 알리는 시계가 울렸던 것이다.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까? 두루티와 그의 대원들은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할 것이다. 그들은 정부를 구성할 마음은 없지만 쟁취한 권력은 협상 테이블에서 손에 무기를 들고 지킬 것이다. 아무도 이들의 승리에도 전할

복수지배체제

권력의문제

밤사이에 카탈루냐의 모든 권력이 CNT 와 FAI 의 손에 넘어갔다. 아나키스트들은 권력을 장악할 필요가 있었다. 조직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조직의 지도자들은 두 가지 가능성만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아나키스트들의 독재, 아니면 무기력하지만 악존재하고 있는 카탈루냐 정부와의 타협이었다. 중대한 순간이었다. 만일 아나르코생디칼리스트들이 평의회라는 국가 기구를 해체했다면 뒤이은 몇 달간의 혁명 투쟁을 좀 더 효과적으로 방어해 낼 수 있었을 것이다. 사실 전투가 끝나면 카탈루냐 국가 기구는 자연 해체될 것이라고 장담 할 수 있는 근거도 없었다. 물론 아나르코생디칼리스트가 정권을 장악하지 않은 것은 혁명의 혜성을 운항 궤도에서 벗어나게 하는데에 일조한 여러 계기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었다.

스테픈 존 브라데마

사회 민주당원이며, 나중엔 공산당과 사회 민주당이 연합하여 만들 듯 어진 카탈루냐 사회주의 통일당 (PSUC) 의사무 총장이 되었던 후안 코모레라 (Juan Comorera) 는 간밤의 상황에 대해 대통령에게 자세히 보고했다.

“CNT 와 POUM 이 거리를 장악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몇 주 안에,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몇 달 내에 이 조직을 와해 시킬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배파 할지루한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 CNT 에 대응 할 수 있는 노동자 총동맹 (UGT) 사회주의 노조를 조직하는 일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 무력으로 일을 처리 하셔서는 안 됩니다. 질서를 잡으시는 방향으로 혁명을 이끌어야 합니다. 각 하께서는 정부를 따르고 있는 무리들을 조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군대를 개편해야 할 시기가 온 것입니다. 아나키스트들이나 트로츠키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온갖 비방을 다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귀머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장 전투력이 생기고 건실한 노동자 노동민 운동을 통하여 경제를 복원한다면, 전선에서는 전투를 수행 할 수 있고 후방에서는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의사일정이 마비되는 사태는 없을 것입니다.”

마누엘 베나비데스

녀는 두루티가 갔을 때 만조용히 있었다. 나는 몇 가지 물건을 사기 위하여 람블라스 Ramblas 거리로 갔는데 그가 나와 동반해주었다. “저는 폭탄과 총격이 무서워요”라고 내가 말했다. 당시 바르셀로나에는 거의 매주 파업이 일어났다. 습격 사건이터지고 경찰이 진압 작전을 펼쳤다. 람블라스가로 수뒤에 기동 경찰대가 칼을 꽂은 총을 들고 잠복 대기하였다. 가끔 정규군 까지 눈에 띄었다. 몸에 수양버들을 꽂은 무어족들을 볼 때는 특히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마치 그분위기는 오페라 무대 같은 느낌이 들었다. 부인들이 상점 앞을 배회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다. 지붕 테라스에서 수류탄이 떨어졌다. 밀어 올리는 유리 창문 문이 깨어 소리를 내며 아래로 단졌다. 여자들은 흰 손수건을 흔들며 상점 안으로 뛰어들거나 보도 바닥에 엎드렸다. 잠시 후 다시 조용해졌다. 공습 경보 해제 신호가 울려 퍼졌다.

두루티는 얼굴을 옆으로 돌리지도 않고 나와 함께 경찰 옆을 지나갔다. “나도 너 만큼이나 겁이 났어.” 그가 말했다. “두려움과 용기는 서로 아주 가까이나란히 서 있는 거란다. 어디쯤에서 두려움이 중지하고 용기가 발동하기 시작하는지 나도 가끔 모를 때가 있어.” 거리의 아이들이 그를 알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나에게 친절히 대해주었다. 나를 진지하게 대해 주기까지 하였다. 아나키스트들은 결코 쉽게 여자와 교제하지 않는다. 그들은 여자 꽁무니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전혀 반대로 그들은 대개 칼뱅주의자들처럼 내앞에서 있었다. 그들은 항상 혁명을 생각하고 있었다.

두루티는 공명심이라고는 몰랐다. 그는 만나는 모든 사람을 진지한 태도로 대했다. 바르셀로나의 모든 사람은 그를 새로이 생각하였다. 그들은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장례를 마치왕의 장례식처럼 치러주었다.

마델라인느레닝 (Madeleine Lehning)

선거보이콧

1933년 11월의 회선거를 앞두고 CNT는 전례 없는 정치 선동을 펼쳤다. 그들은 투표 불참을 강력하게 선언했다. 선거보이콧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는 아나키스트들의 신문과 팸플릿은 모든 마을에 전해졌다. “우리는 투표를 거부한다”는 제 1면의 제목은 스페인 농민들과 노동자들로부터 대대적인 호응을 얻었다. 그들은 ‘수상쩍은’ 여당과 좌파 자유당 및 사회 민주당의 정책에 의해 이미 오래 전부터 끊임없이 고통을 받아 왔던 것이다. 이 정치적 선동은 11월 5일 바르셀로나의 투우 경기장에서 개최된 대중 시위 때 그 절정에도 달했다. 이 대회에 참석한 노동자는 7만 5천 ~ 10만 명이나 되었다. CNT 의 저명한 대중 연설가들이 ‘선거를 앞둔 사회 혁명’이라는 제목 하에 연설을 하였다.

부에나 벤투라 두루티가 청중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다. “노동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번 공화국의 제정을 위하여 투표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선택해 준 공화국

이 9 천명의노동자들을구속하리라고상상했다면공화국을제정하자는데투표했겠습니까?”

“아니오!”대중들이소리쳤다.

다음연사로는아주젊은아나키스트발레리아노오로본페르난데스 (Valeriano Orbón Fernández) 가등장했다. “공화파들의혁명은좌절되었고파쇼들의반혁명이우리의코앞에다가서있습니다. 독일은어떠했습니까? 사회주의자들과공산주의자들은히틀러가무엇을꿈꾸고있었는지를아주정확히알고있었지만, 그들은선거를통해자기자신의사형언도에서명을하고말았던것입니다. 그러면모든사회민주주의자들의자랑이었던오스트리아는어땠습니까? 오스트리아사회민주당은선거에서 45% 의지지를얻을수있다고장담했던것아닙니까! 거기다 6% 의유동표를자기네쪽으로끌어들인다고계산했던것입니다. 그들이계산한표를얻었다면얼마나좋았겠습니까! 그러나그들은그전에아주간단한가지사실을잊고있었던것입니다. 뭐냐하면그들은자신들의계산이적중하여선거를승리로이끌었다하더라도, 다음날자신들의권리를수호하기위해손에무기를들고거리로뛰쳐나갈수밖에없다는상황이온다는사실을말입니다. 왜냐하면반동들은기득권을쉽사리포기하지않는법입니다.”

호세페이라츠 2 / 스테픈존브라데마 (Stephen John Brademas)

1933년 11월 19일의회선거투표기권비율

바르셀로나: 40%, 사라고사: 40% 이상, 유스카: 40% 이상, 타라고나: 40% 이상, 세비야: 45% 이상, 카디스: 45% 이상, 말라가: 45% 이상, 스페인 전체 32.5%

세자르로렌소 (César Lorenzo)

1933년선거에서스페인아나키스트들은그때까지의노동운동가운데최대의 선거보이콧 — 정치적선동을전개한셈이었다. 선거불참은대부분의노동자들이 집에서나오지않는것으로만그쳤다. 그결과우익보수당이승리하게되었다. 엄밀 한의미에서본다면, 힐로브레스정권은파쇼정권은아니었다. 그러나그정권이극 단적반동정권인것만은분명했다.

아르투어레닝

사라고사봉기

선거직후 CNT 는마드리드에서비밀회의를소집하였다. 나는그모임에참석 했는데, 거기서논의된것을아직도기억하고있다. CNT 는연합으로구성되어있

었고각주마다지역위원회를두고있었다. 물론위원회는대개독자적노선을걸었기때문에항상의견이일치하는것은아니었다. 당시아라곤대표자들은이렇게말했다.

“우리는선거에참여하지않았다. 올바른정부를세우는것이야말로우리의근본책임이다. 우리는선거결과를인정할수없기때문에행동해야만한다. 지금이야말로무장봉기를일으킬때가아닌가?”

그러나바르셀로나대표자들은이렇게말했다.

“그렇게할수없다. 우리는무기도없으며, 준비도되지않았다. 지난해이미우리는수많은패배를경험했다.”

그러나아라곤대표자들은봉기를포기하지않았다. 사실아라곤북부지방에서는투표기권율이거의 90%에육박했다. 그래서그곳아나키스트들은자신만만했던것이다. 사라고사는처음며칠동안은 CNT 의지시를따랐다. 그곳북부지방곳곳에서자유공산당이선언되었다. 비록 CNT 가처음에는봉기를찬성하지않았지만일단봉기가발생하자외부에서가능한모든지원을아끼지않았다. 정부는즉시비상상태를선포했다. 모든일이몇주만에끝났다. 두루티와메라 (Mera), 그리고다른동지들이체포되었다. 그들은국가내란음모죄로기소되었다.

아르투어레닝

바르셀로나의기념광장에서열린집회에서두루티는반동들의선거승리에대한대응책은무장혁명뿐이라고선언하였다. CNT 는이선언을채택했다. 그러나1933년 1월의봉기가실패한후아직상처를극복하지못한가르시아올리베르만이이선언에반대했다. 그는이정책을모험이라고지적했다. 그것은수년간우정을다져왔던그와두루티사이에서처음으로일어난의견충돌이었다. 두루티는봉기를준비하기위해서사라고사로갔다. 혁명은다수의석을차지한반혁명세력들이마드리드에서의회를소집하던바로그날시작되었다. 그날은 1933년 12월 8일이었다.

알레한드로힐라베르트

이른아침에바르셀로나의정치범들이집단탈옥하는놀라운사건이터졌다. 그들은시내로통하는하수구에구멍을뚫었던것이다.

CNT 혁명위원회는본부를사라고사에두었다. 거기에는아나키스트민족위원회도있었다. 오후에터진수십발의폭탄은도시전체를흔들어놓았다. 정부는즉각공권력을발동하여 1백명정도의혁명군을체포하였다. 그들가운데는두루티와이사크푸엔테 (Isaac Puente), 시프리아노메라 (Cipriano Mera) 를위시하여위원회의회원들이포함되어있었다. 가두투쟁은밤을지나그다음날까지계속되었다. 노동자들이바리케이드를쳤다. 수도원이불태워졌다. 바르셀로나와

마드리드를 연결하는 급행 열차가 화염에 휩싸였다. 열차가 폭탄에 의해 방화되었던 것이다. 군대가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했다. 장갑차까지 동원되었다.

알카야데구르레아, 알캄플, 알바레트데싱카 그리고 유스카지방의 여러 마을에서 자유 공산주의가 선언되었다. 테루엘지방의 여러 마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예를 들면, 발데로블레스 Valderrobles 지역의 농민들은 화폐를 폐기처분하였고, 시공관과 지방 법원, 토지 등 기소의 모든 공문서를 불태워 없앴다.

그러나 봉기는 곧 실패하고 말았다. 지방 도시만이 CNT 의 파업 선언에 동조했던 것이다. 투쟁은 아라곤과 리오하 Rioja 지방에 국한되었다. 혁명의 결정적 열쇠를 가지고 있던 카탈루냐와 안달루시아는 1 월 봉기 실패의 상처로부터 아직 회복되지 못한 상태였다. 운동 세력 내부의 심한 분열 때문에 혁명은 모험적인 것으로 여겨졌고,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호세페이라츠 1 / 스템존브라데마

새형무소

나는 사라고사 형무소에서 그와 함께 보냈던 고통스러웠던 시간과 즐거웠던 순간들을 기억하고 있다. 그는 그곳에서 조차 낭담을 즐겼다. 그에게는 순수성, 말하자면 어린 아이와 같은 순박성이 있었다. 그는 우리에게 투쟁 방법을 가르쳐주었다.

바로 12 월 8 일의 봉기가 결정되었던, 사라고사 금속 노동자 노조 사무실에서 열린 그 중요한 모임에서 그가 이야기 하던 당시의 모습이 아직 눈에 선하다. 그는 안경을 쓰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우리를 사로잡았다. 거리에서 가 두 투쟁이 벌어졌다. 투쟁의 결과는 우리의 기대를 전혀 만족시키지 못했다. 우리가 거리로 진출했을 때 두루티는 내 옆에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쓰러져 있었다. 사람들은 파시즘과 계속 투쟁하고 있었다. 나는 콘베르티도 Convertido 거리에서 두루티를 마지막으로 보았다. 그리고 우리는 헤어졌다. 투쟁이 끝난 뒤에 나는 형무소에서 그를 다시 만났다.

마누엘 살라스

두루티는 폭동 주동자가운데 한 사람으로 정역 6 개월을 선고 받을 것이라는 소문이나돌았다. 그런데 그가 사라고사에 구류되어 있는 동안 예비 심문 조서가 밤사이에 법원에서 몽땅 증발해버렸다.

디에고 아바드 데 산티안 1

나는 국제 아나키스트 노동자동맹 (AIT) 의 비서로서 1935년까지 스페인에 있었다. 나는 스페인을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두루티를 만났다. 그는 당시 바르셀로

니다.” 나는 그런 말을 이미 여러 번 들었다. 그러나 나는 정확한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명 모든 보복 조치가 전적으로 개인적 성격만을 띤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일어난 일들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목사들이 살해된 것은 그들이 인간개인으로서 증오를 샀기 때문이 아니라 (만일 이런식의 보복이었다면 그것은 ‘적들에 대한 개인적 보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목사라는 공직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제때도 망치지 못한 기업가들, 특히 바르셀로나 지역에서 섬유 회사를 경영한 기업가들은 그 회사의 노동자들에 의해 살해되었다. 노동 운동의 적으로 소문난 바르셀로나의 전철 회사와 같은 대기업의 이사들은 해당 회사의 노조 특수 대수에 의해 희생되었다. 그리고 우파의 정치지도자들은 아나키스트 특수 대원들에게 살해되었다. 그 대량 학살에서 친구들, 아마도 절친한 친구들마저 잊어버린 나의 대화 상대자가 그 사건들을 목격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이다. 그는 “끔찍했어요”라고 말했다. “법적 절차나 소송도 없이 사람들이 총살당했습니다. 그 저신분이나 사회적 위치, 혹은 정치 관과 종교 관이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적 보복에 의해 살해되다니! 아나키스트 놈들! 뭐, 통합 마르크스주의 노동당이라고! 갭단들일 뿐이야! 사회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 이들의 행동을 종지시켜야 하고 좀더 선하게 행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민족 연합당의 평의회 정권 조차 그러한 사건 때문에 당황하고 있습니다.”

프란츠 보르케나우

기동 경찰대 사이에서도 아나키즘이 점차 확산되었다. 경찰서가 텅 비었다. 경찰들이 거리로 나갔던 것이다. 카탈루냐 정부의 기병대였던 주근위대의 사기도 저하되었다. 카탈루냐 대통령의 집무실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던 한 호화 저택의 발코니에서 서너 명의 남자들이 가구를 도로로 내던지고 있었다. 그런 일은 당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다. 모든 폭동에는 저택 습격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습격이 아니면 재산을 약탈해 간다. 콤파니스 대통령을 실제로 불안하게 만든 것은 기동 경찰이 보는 앞에서, 그것도 정부 청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개인 재산에 대한 약탈 행위가 아주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데도 기동 경찰은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공공질서의 파수꾼들이 그들의 규율을 파기한다면 승리의 결과가 사라질 위험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그래서 콤파니스는 사회 안전 대책부의 총경 에스코페에게 전화를 걸어서 기동 경찰 대와 치안 경비대, 주근위대를 어느 정도 장악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에스코페가 대답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대원들이 탈영하여 FAI에게 투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누엘 베나비데스 (Manuel Benavides)

알레한드로힐라베르트

바르셀로나대주교는 7 월 20 일 이후 아나키스트들에 의해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다. 아마도 그렇게 함으로써 아나키스트들은 그에게 서이전에 받은 신세에 보답 하려 했던 것 같았다. 주교는 두루티와 페레스파르바스 (Pérez Farvas) 가 1934년 10 월 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았을 때, 이들을 위해 감형원에서 명한 적이 있었다.

마르게리트호우베

평의회가 엄청나게 값비싼 예술품을 건져 낼 수 있었던 성당을 제외하고 바르셀로나의 모든 교회들은 불태워졌다. 교회 담장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그내부는 완전히 파괴되었다. 많은 교회가 계속 연기에 싸여 있었다. 람블라스 — 파세오코론거리의 모퉁이에 위치한 이탈리아 정기운항선 박코주츠리즈 Cosuchlich 호회사의 관리 사무실 건물이 폐허로 변하였다. 그곳은 이탈리아 저격병들이 진을 치고 있었는데, 노동자들이 그 건물을 습격하여 방화했던 것이다. 교회와 이런 건물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건물에 대한 방화는 없었다.

프란츠보르케나우 (Franza Borkenau)

투쟁에서 승리했을 때 바르셀로나와 교구 내에서는 인간사냥이 시작되었다. 사냥의 대상자들은 목사, 신부, 수녀, 귀족, 부르주아지 등 청산되어야 할 사람들은 모두 포함되었다. 수도원과 교회가 불탔고 부르주아지의 호화 저택들이 약탈당했다.

이러한 테러 행위가 확산된 것에 대한 책임을 아나키스트들에게만 물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러한 행동은 부르주아 계급과 교회에 대한 민중들의 오랜 증오심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표출된 것일 뿐이었다. 형무소도 개방되었다. 강도, 도둑, 살인자들이 떼를 지어 마음대로 행동했다.

혁명 초기에 자행된 끔찍스러운 일들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추정할 수 없을 것이다. 카탈루냐에서만 7 백 명이나 되는 목사와 신부 그리고 수녀들이 살해당했다. 고통을 당하면서 잔인하게 학살되었다. 끔찍한 장면들이 연출되었다. 카탈루냐에서 살해된 인원은 2 만 5 천명, 구속된 자가 1 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장라이노 (Jean Raynaud)

스페인에 기업가 친구들이 많았던 어떤 외국 실업가가 한번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외국인에게는 이곳이 어느 정도 안전하지만 스페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못하군요!” 물론 그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스페인 사람들�이란 카탈루냐 기업연합에 관한 기업가들을 두고 한 말이다. “그들 중 수천 명이 혁명 초기에 살해되었습니다. 군대가 전투에서 패하자 마자 노동자들은 적들에게 개인적 보복을 가하기 시작한 겁

나에 수감되어 있었다. 나는 그를 찾아갔다. 그가 나를 만나고 싶어한다는 말을 듣고 서나는 그의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예, 그가 나를 만나고 싶어한다고요. 하지만 내가 형무소를 찾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는 비합법적으로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노동자동맹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때라도 체포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면회를 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저는 우선 제 직분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경솔한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런 일은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저 나를 따라온 걸로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당신은 말을 하지 마세요. 우리가 당신을 제사촌이라고 말하고 당신은 그 때 적당한 이름으로 서명을 하는 겁니다. 그건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나보다 스페인 말을 훨씬 더 잘 할 텐데 하고 나는 혼자 중얼거렸다. 결국 나는 그를 방문하기로 하고 그들과 함께 형무소를 찾아갔다. 두루티가 창살 뒤에서 있었고, 우리 앞에도 창살이 있었다. 두 창살 사이를 간수가 왔다갔다 했다. 두루티가 불어로나에게 소리쳤다. 그는 정치 문제에 관하여 목이터져 라이야기 했다. 조직은 사업을 어떻게 해나가야 한다, 등등 계속 말했다.

나는 생각했다. 여기 감옥소에서, 그것도 외국인에게 불어로 고래고래 고함치고 있는 것을 간수는 도대체 어떻게 생각할까? …… 그들이 당장 나를 체포하겠지. 이런 일은 스페인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거야. 그러나 나는 아무런 어려움도 겪지 않고 형무소 문을 나올 수 있었다.

아르투어레닝

아스카소와 두루티는 또 다시 체포되어 바르셀로나 경찰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들에 관해서 떠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보고 싶어하는 여자들이 경찰서에 면회를 신청했다. 독방에 앉아 있던 두루티는 머리가 봉두난발이 되게 형을 어놓았다. 부인들이 이도착했을 때 그는 오랑우 탄처럼 소리를 질렀다. “우! 우! 우!” 여자들이 기겁을 하였다. 간수가 소리쳤다. “도대체 뭐하는 짓이야?” 그러자 두루티가 이렇게 말했다. “이 여편네들은 우리가 원숭이거나 되는 듯이 생각하는 모양인데, 우리는 이 여자들이 땅콩을 던져줄 만큼 아직 원숭이가 될되었으니까, 재미를 보고 싶어 하거든 이 여편네들을 서커스장으로 나보내시지!”

유제니오발데느브로 (Eugenio Valdenebro)

인민전선

1934년 아스투리아 10월 혁명 후 두루티는 다시 감금되었다. 이번에는 발렌시아 형무소에서 여러 달을 보냈다. 그는 자유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실패로부터 벗

어나서스페인노동운동의새로운방법을모색하기위해아스투리아연합을도모하려고했다.

부르주아지민주당을거부하는데는만장일치를보았다. 모든노동자들의연합이절실히필요했다. 가르시아올리베르는다음과같이선언했다.

“모든마르크스주의자들은UGT에, 모든아나키스트들은CNT에가입한다. 두조직은자본주의를공동의적으로놓고연합투쟁을벌인다.”

사라고사 CNT의최종협의에따라 1936년 5월에사회민주당의노조조직인 UGT와의연합투쟁이결의되었다. CNT가 UGT에요구한한가지조건은사회민주당노동자들이부르주아지당파들과맺고있던협력관계를공식적으로철회하라는것이었다. 그렇게할때프롤레타리아트혁명으로가는길이자유롭게된다는것이 CNT의주장이었다.

그런데이협정에앞서다른문제가제기되었다. 1936년 1월에다시선거가있었다. 그중아나키스트들의수가절반이넘었다. 좌파들은선거에서승리하면구속자들을전원석방하겠다는공약을내걸었다. 우파는더욱심한탄압으로위협하였다. 그러나스페인아나키스트들은딜레마에빠졌다. 만일 CNT가조직의지지자들에게전과마찬가지로선거보이콧을선동한다면 3만명의구속자석방이어렵게될것이고, 선거에참여하라고권한다면아나키스트들이처음부터싸워왔던보통선거권과의회주의를인정하는꼴이되고말기때문이었다. 두루티가돌파구를찾아냈다. 선거투쟁결과가나오면좌·우파모두그것을인정하지않으려할것이라고그는예리하게포착했다. 좌파는만일우파가승리한다면혁명이일어날것이라고주장했고, 우파는좌파의승리가곧시민전쟁으로치달을것이라고주장했던것이다. 이들의선거투쟁양상을지켜본두루티는다음과같은결론을내렸다. “우리는이처럼혁명아니면시민전쟁을목전에두고있습니다. 투표를하고조용히부엌식탁에앉아있는노동자는반혁명주의자인것입니다. 그러나투표를하지않고식탁에가만히앉아있는노동자도더나을게없습니다.”

CNT는이런식으로선거거부문제를회피하였다. 대부분의노동자들이투표에참여했다. 그결과좌파가승리를거두었다. 우파는그들이주장했던것을기정사실로보아게하기위한시민전쟁을준비하였다. 이처럼선거투쟁방식의문제를해결하는데에는두루티의공이컸던것이다.

알레한드로힐라베르트

CNT는스페인사회에실제로강한힘을미치고있었다. 그런힘을가질수있었던것은그들이좌파에서든우파에서든독재자는있을수없다고주장해왔기때문이다.

부에나벤투라두루티 1

“공화국만세!”

“내생각에는공화국도살아남아야합니다.”

바르셀로나투쟁은끝이났다. 방위군이굴복했다. 이어서포위된아타라사나부대도항복했다. 가두투쟁가들은환희에찬얼굴로목이터져라소리지르며서로얼싸안았다. 그들은무기를높이쳐들었다. 주먹을뻗어울려그들의인솔자를찬양했다.

포로들은웃이해지고피로에지친검게탄얼굴을하고있었다. 그들은셔츠바람으로팔을위로들고두려움에가득찬눈빛을하고있었다. 그들은위협적인무기에둘러싸인채, 흥분하여욕을해대는군중들사이로끌려다녔다. 아무도그들을어디로끌고갈지몰랐다. 감시자조차몰랐다.

전철노동자인가르시아루이스가가르시아올리베르에게물었다.

“저들을어떻게처리할것입니까?”

이제바르셀로나에는경찰이나기동경찰대장교가없었다. 정치가도, 명령자도더이상존재하지않았다. 거만한제복을입고다니던사람들, 카지노복장에훈장과견장을달고다니던사람들, 버클에군도를차고까만중절모를쓰고다니던사람들은제거되었다. 아나키스트노동자들이승리했던것이다. 얼마전까지만해도억압받고구속당하면서아무런말도못하고지하실구멍으로기어다녔던그들이이제는당당히자기의권리를행사하고일의승패를좌우하는사람들이되었다.

“그들을운송노동자노조에데려가서잘붙잡아두시오. 그들을어떻게처리하시는우리가곧결정할것이오.”

두루티는눈썹을찌푸린채아직도식지않은총을손에들고있었다. 그의두눈엔눈물이가득고여있었다. 호베르도입을다물고있었다. 사람들은무슨말을해야할지몰랐다. 승리의기쁨도수년동안함께투쟁해왔던동지아스카소를잃은슬픔때문에사라지고말았다.

“불쌍한파코!”

그러나그들은슬픔의고통과우수적감상에잠겨있을시간이없었다. 행동의시간이왔다.

“자, 이제갑시다!”가르시아올리베르가말했다.

루이로메로

두루티는7월 20일에두번부상을입었다. 한번은이마였고또한번은가슴이었다. 아스카소의시신앞에서그는고통과분노에찬통곡을터뜨렸다고한다.

전투가끝났을때부르주아지언론이테러분자와살인자로매도했던두루티가주교의저택을찾아갔다. 광분한민중들이바르셀로나주교의머리를요구했지만, 두루티는그를여름외투로감싸저택을몰래빠져나갈수있도록도와그의생명을건져주었다. 그는저택에쌓여있던수백만페세타에달하는보물들을무사히평의회에넘겼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일 먼저 알아차린 가르시아 올리베르 가엄페몰로 삼고 있던 흉벽을 뛰어넘어 파코를 도우러 가려 했지만 바론이 무의식 중에 그를 와락 붙잡았다. 적의 사격이 조용해지기 까지는 몇 분이 지났다. 그 후 비로소 리카르도 산스와 오르티스가 아스카소의 시신을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었다.

아벨파스 1

7월의 그날, 바르셀로나에서 벌어졌던 그 가슴 아픈 사건을 나는 아주 가까이서 경험했다. 나는 거리로는 나가지 못했다. 사람들은 내가 거리로 나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사격은 하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금속 노동자 노조 연합의 일원이었던 아스카소 가람블라스 거리에서 쓰러지는 것을 목격하였다. 동지들이 그를 안고 들어왔을 때 그의 시신을 보았다. 그의 몸은 실로 끔찍하게 총알 구멍이나 있었다. 바로 체의 구멍 만큼이나 많아!

아무도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완전히 혼자 몸으로 나갔던 것이다. 반대편의 막사는 여전히 프랑코군의 수중에 있었는데 말이지. 완전히 혼자서 그는 불을 보듯 뻔한 죽음의 길로 들어섰던 것이다. 그를 사로 잡았던 것이 무엇인지 나는 모른다. 그는 마치 자살한 것처럼 보였다.

에밀리엔느 모린

우리 대원들의 최후 접전이 7월 20일 아타라사나 부대 앞에서 벌어졌다. 기관총 연발 소리와 FAI 가던진 폭탄 소리는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것이 되어버렸다. 두루티가 최전방에서 공격을 이끌었다. 아스카소와 가르시아 올리베르는 불을 뿐 어가 열린 기관총 뒤에서 있었다. 산스는 포위된 막사에 던질 수류탄 상자를 옮겼다. 아우렐리오 오페르난데스, 안토니오 오르티스와 그레고리오 호호베르도 그곳에 있었다. 이 접전에서 프란시스코 아스카소가 쓰러졌다.

그의 죽음은 대원의 종말이었다. 우리 모두가 하나로뭉치는 일은 그 후 다시는 보지 못했다. 아스카소의 장례식 때도 하나가 되지 못했다. 아마도 그것이 대원들이 잊었던 최대의 손실이었을 것이다. 대원은 흩어져 해체되었다.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리카르도 산스 2

아나키

“FAI 만세!” “아나키 만세!” “CNT 만세!”

“동지들이여! 우리는 파쇼를 타도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투쟁적인 노동자들은 군대와 싸워 승리했습니다.”

두루티는 인민 전선이 거둔 1936년 1월 16일 선거 승리의 소식을 푸에르토 데 산타 마리아 Puerto de Santa María 형무소에서 들었다. 거기에는 나중에 카탈루냐의 대통령이 된 콤파니스와 여러 협의회 위원들도 수감되어 있었다. 선거가 끝나자 마자 그들은 모두 사면되었다.

「크로니카 Crónica」

선전포고

선거 후 CNT는 바르셀로나에서 수개월 간 끌어온 두 파업에 처음으로 개입하였다. 그것은 전철 파업과 염색 방직 노동자 파업이었다. 1월 28일 새정부는 1934년 1월 이후에 정치적이 유 또는 파업 가담죄로 해직된 모든 노동자들이 복직되어야 한다는 방침을 기업 주들에게 내렸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 주들은 정부의 방침을 거부했다. 아나키스트들은 정부가 강력한 정부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두루티는 콤파니스의 대통령 취임식이 행해진 3월 4일에 바르셀로나의 대극장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

“우리는 몇몇의 새로운 운동지들이 권력을 잡게 된 날을 경축하기 위해 여기에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 ‘좌파’가 선거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동지들의 투쟁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그지도자들에게 각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CNT와 아나키스트 동지들이 선거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좌파는 우파들이 각료와 정부 요직에 앉아서 우리 인민들의 의사와 전통을 반영하지 않고 일으킬 뻔했던 비상 사태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생하고 있는 전철 파업과 염색 방직 공장의 파업에 대한 책임은 이 정권의지도부에 있습니다. 우리는 선거가 있기 오래 전부터 그들의 책략이 무엇인지 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CNT 가혁명을 배반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공략으로 내세웠던 정치 범석방은 사실 선거 전략에 불과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선거에서 패배하여 정치 범이 석방되지 않을 때, 그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시키기 위한 솔책이었습니다. 우리 인민은 정치가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속자들을 위해서 투표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파업의 문제에 대해서 여기 바르셀로나와 마드리드의 정치가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그냥 조용히 하지 않아보라. 우리는 끝까지 방직 공장과 전철 회사를 상대로 하여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정부는 절대 개입하지 말라!

평의회 의원들은 자신들의 석방을 인민의 거대한 용기 덕분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그들이 CNT에 간섭하려 한다면, 그들은 그들이 왔던 바로그 곳으로 즉각 되돌려 보내져 결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에 다음의 사항을 재차 요구합니다.

우리가 자본가들의 공격에 대응하는데 정부는 개입하지 말라!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의 요구이다! 직장을 폐쇄하고 자본을 외국으로 유출하고 있는 부르주아지에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너희 부르주아지들의 모든 공장을 폐쇄하여 우리가 소유할 것이다! 우리가 공장을 장악할 것이다! 왜냐하면 공장은 우리 노동자들의 것이니까!”

이어서 프란시스코 아스카소가 연설했다.

“분명히 우리 가승리한 것입니다.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가승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결국 좌익 당파들이 선거에서 이긴 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경제는 선거 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반동 부르주아지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부르주아지들의 책동을 내버려둔다면 지금의 선거 승리는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권을 잡은 지금의 좌파들은 우파적 정책을 펼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상황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스페인 자본가들은 외국 자본가들과 동맹을 결속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경제 전쟁을 도발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정부는 — 그 각료들이 좌파든 아니든 — 결코 중립을 지키지 않을 것입니다. 현정권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들은 우리에게 술값 정도를 지불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가들의 재산은 몰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정책은 그들의 정강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좀 순진한가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명청이 가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까지 그저 공장에서 조용히 평화롭게 행동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젠 변해야 합니다. 우리는 공장 구내에서 집회를 가져,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 생산 위원회를 조직할 것입니다. 만일 공장이 폐쇄된다면 우리는 기업주의 재산을 몰수하여 공장을 인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본가들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안전하게 공장을 운영할 것입니다. 자본가들은 공장의 가동에 짐이 될 뿐입니다. 공장에서의 승리가 동반되지 않는 정치적 승리는 자기 기만일 뿐입니다.”

「노동자연대」 / 스테판 존 브라데마

카소, 가르시아 올리베르, 후스토부에노 (Justo Bueno), 오르티스, 비반코스, 루시오 고메스 (Lucio Gómez) 와 바론으로 구성된 소단위 돌격대가 바리케이드에서 지그재그로 달려 람블라스 산책로 중앙에 있는 도서가 판대로 돌진하였다. 그것은 생사를 건 투쟁이었다. 가판대는 산타마드로나 거리를 가로질러 기습 공격을 하기에 안성맞춤인 곳이었다. 그들은 콩볶는 듯한 총알 세례를 받았다. 그들은 막사 내의 감시탑과 방위군에게 더 없이 좋은 표적물이 되었다.

아벨파스 1

코레아와 다른 몇 명의 대원을 수행한 아스카소가 도서가 판대에도착했다. 두루 티와 다른 대원들이 그를 염려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아스카소는 동료들의 질문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하면 적들의 시선을 피할 수 없다는 식의 신호를 그들에게 보냈다. 감시탑의 기관총 사격이 중지되었다. 그는 전술적 상황을 탐색했다. 감시탑 바로 아래에 트럭이 한 대 주차해 있는 것이 보였다. 마지막 가판대와 그 트럭 사이에는 엄폐물이 없었다. 그는 권총만으로 순간 순간 엄호 사격을 하면서 트럭에도 달하기만 한다면 기관총 사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허리를 반쯤 구부리고 돌진하였다. 군의사격수들이 그를 발견하고 사격을 가했다. 그의 등 뒤쪽 집벽에 수많은 총알이 박혔다.

루이로메로

바리케이드에서 이작전을 지켜보고 있던 두루 티가 파블로 푸이스 (Pablo Puiz)에게 말했다. “내가 찰과상을 입었기 때문에 기다려야 한다고 여러분이 내게 말한 것은 나를 속인 거나 마찬가지요.” 그러고 나서 그는 아스카소가 공격 목표로 삼고 있는 막사의 작은 감시탑에 화력을 집중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적의 사수들은 무엇이 더 중요한 문제인지 벌써 간파하고 있었다.

아벨파스 1

아스카소는 트럭에 이르기 전에 무릎을 꿇고 서조준 사격을 하였다. 그가 다시 일어나 트럭 쪽으로 달려 가려는 순간 총알이 그의 이마 정중앙을 관통했다. 그는 푹쓰러졌다.

동지들은 그가 두 팔을 높이 쳐들었다가 땅바닥에 쓰러지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는 얼굴을 바닥에 묻고 서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루이로메로

아스카소의 죽음

이제 아나키스트들은 아타라사나 군대와 람블라스 거리의 아래 지역에 진을 친 방위군과의 마지막 전투에서 완전히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아나키스트들은 이미 산타모니카 람블라스 거리까지 진출했다. 군막 사막은 편에 있는 평화의 문에는 경찰 대원들과 시민으로 구성된 또 다른 아나키스트가 두루 투쟁자들이 연합 전선을 구성하고 있었다. 아스카소가 이끌던 아나키스트 방어 위원회의 조직원들은 람블라스 산책로의 굽은 가로수를 엠페풀로 삼아 조심스럽게 남쪽으로 이동했다. 두루티, 오르티스, 발렌시아, 가르시아 올리베르와 아나키스트 노조 행동 대원들이 그쪽에 있었다. 아나키스트 행동 대원들은 건축 노동자 출신인 코레아 (Correa), 금속 노동자 올디 (Yoldi)와 바론 (Barón), 전철 노동자 가르시아 루이스 (García Ruiz)였다. 아스카소의 형제들도 명고 (Domingo)와 요하킨도 함께 하고 있었다. 운전석 차폐 위에 기관단총을 거치해 왔던 트럭도 출동 대기 중이었다. 트럭에는 리카르도 산스, 아우렐리오 페르디난데스와 도노소가 타고 있었다. 그들 외에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운동에 가담하고 있었다.

공격 대원이 군막 사가까이다가 갈 수록 진군하는 걸음은 더 무거워지고 위험에 더 가까이다가 서는 듯한 분위기였다. 쿠데타군은 완강히 방어하고 있었다. 그들은 운수 노동자 노조의 지붕 밭코니와 주변 노동자들의 집 밭코니로부터 사격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지난 밤 동안 가구와 침대 매트리스, 수많은 두루말이 종이로 견고한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두루말이 종이는 「노동자 연대」 의인 쇄소에서 가져간 것들이다.

먼저 아나키스트들이 나무 엠페풀에서 뛰어나와 람블라스 거리를 가로질러 갔다. 산타마드로나 거리에서 공격선이 저지되었다. 이도로는 군인들과 방위군으로부터 양측면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사격 국역이었다. 방호물이라고는 산책로 중앙에 서 있는 도서가 판대뿐이었다.

두루티와 그의 대원들은 계속 진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 포공격과 수류탄 공격으로 이미 파괴되어 있던 막사의 가장 낡은 곳이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일부 담장은 파손되지 않은 채 서 있었기 때문에 엠페풀이 될 수 있었다. 그 사이에 아스카소는 산타마드로나 거리가 내려다보이는 창문에서 연발 사격을 가해 왔던 기관총 사격을 중지시켰다. 그 사격 구역 안으로 람블라스 거리를 가로질러 온 동지들이 들어왔던 것이다.

루이로메로

목적지에도착하려면 엠페풀에서 나와 방위군의 사격망을 통과해야 했다. 그런데 동지들이 전술 작전에 대해 논의하던 중에 두루티의 가슴을 총알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의 동료들이 그를 임시 응급 처치실로 보냈다. 최초의 여성 투쟁가인 롤라 이투르베 (Lola Iturbe)가 응급 조치로그의 가슴에 붕대를 감아주었다. 그동안 아스

승리

서곡

그는 자신이 바깥에서 하는 일을 집안에서는 좀처럼 말하지 않았다. 나만 빼놓고 다른 사람들은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대부분 잘 알고 있었다. 예를 들면 1936년 7월 이전에 그들은 군사 훈련을 하였다. 그들은 프랑코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리라고 미리 예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에 대비하고 있었다고 나는 장담할 수 있다. 이야기가 당시 내게는 처음 듣는 소식이었지만 이웃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 여자들은 언제나 가장 나중에 사실을 알게 된다. 여자들한테는 바깥의 모든 일과 언제나 침묵과 비밀이었다.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낭만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

에밀리엔느 모린

7월 16일, 평의회의 기대에 따라서, 그리고 카탈루냐에 긴급 소집된 CNT-FAI 총회의 결정에 따라 연합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연합 위원회에서 산티안과 가르시아 올리베르 그리고 아스카소가 FAI를, 두루티와 아센스 (Asens)가 CNT를 대표했다. 아나키스트들이 콤파니스 정권에 제의한 첫 번째 협상안은 무장의 문제였다. 끈질긴 협상 투쟁이 시작되었다. 아나키스트들이 이 요구를 제기할 때마다 — 그런데 그들이 제의한 요구 조건은 총기 2만정이 아니라 자기 방어에 꼭 필요했던 1천정 정도에 불과했다 — 정부로부터 들은 답변은 어떤 무기 소지도 금한다는 것뿐이었다. 정치가들은 파쇼도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무장한 민중들을 더 두려워했다.

CNT-FAI 연합은 이미 7월 12일 이후 바르셀로나의 군사 움직임을 감시하기 위하여 눈에 띄지 않는 소규모의 연락책을 구성했다. 군사 쿠데타가 발생했을 때 정부는 노조에 무장을 허용하기는 커녕 오히려 무장을 해제하려고 했다. 아나키스트 행동 대원을 체포했다는 경찰 순찰대의 보고가 다시금 내무부에 입수되며 시작하였다. 경찰은 아나키스트들이 소지하고 있던 권총을 압수하려고 했다. 경찰의 탄압은 연행자들을 불법 무기 소지죄로 법원에 넘길 만큼 이미 정도를 넘어서고 있었다!

디에고 아바드 데 산티안 2 / 아벨파스 1

7월 19일이 되기 사흘 전, 그러니까 14일인가 15일에 우리는 바르셀로나 항구에서 무기를 실은 배를 습격하였다. 카탈루냐 정부의 평의회가 그 무기들을 인

도 하려했던 것이다. 그러나 두루티와 다른 동지들이 그 무기들을 운송 노동자 노조에 넘겼다. 그 날 기동 경찰대가 두루티의 집 주변에 잠복 대기하고 있었다. 가택을 수색했다. 그러나 두루티는 이미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없었다. “화물차를 몰고 와, 빨리!” 그리고 동지들은 무기를 실은 우유 배달 차를 몰고 사라졌다. 당국은 구식 소총 대여섯정 만 찾았을 뿐나머지는 모두 우리 CNT 의 수중에 들어왔다.

유제니오 발데스 브로

카탈루냐 사회 안전부의 페데리코 에스코페 (Federico Escofet) 총경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이미 오래 전부터 스페인 전국에서 군사 쿠데타 움직임이 있으며, 이 음모에는 바르셀로나 주둔 군까지가 담하고 있다는 확정적인 정보를 입수하였다. 그의 책상 서랍에는 그가 접촉하는 사람들, 특히 공화국에서 신뢰하는 요원들이 전달한 신빙성 있는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다. 그것은 쿠데타 주동자들의 명단과 성명서, 구호문, 작전 계획서, 디데이 출동 명령문 건들이었다. 그는 쿠데타 결행 일을 7월 16일로 추정했었다. 그런데 달력은 이미 18일로 넘어갔으니 에스코페는 쿠데타가 임박했다고 생각했다.

며칠 전부터 그는 호세 마리아 내무장관과 24시간 연락하고 있었다. 그는 장관과 자신의 측근인 비센테 과르네르 (Vicente Guarner) 소령과 함께 비상 사태 발생 시 긴급 대응을 하기 위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 안전 대책부가 당면한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다. 사회 안전부는 이미 오래 전부터 카탈루냐 자치 정부 및 마드리드 중앙 정부, 즉 사회 민주당과 격렬한 무기 소지 협상 투쟁을 벌여 왔던 FAI 아나키스트들과 연합 노조인 CNT 를 고려해야만 했다. 비상 사태에 직면하여 카탈루냐 자치 정부의 대통령 콤파니스가 연방 위원회를 소집한 사실을 알아낸 아나키스트들은 모든 반파쇼 단체와 협조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즉시 무기 지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콤파니스 대통령이나 내무장관과 마찬가지로 에스코페 총경에게도 무모한 가두 투쟁가들인 CNT 조직원들에게 무기를 공급한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로 보였던 것이다.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여 정부의 적이 된 군부와 정부 방어군 경찰이 전투를 벌여 양쪽 전력을 소모하고 나면, 도시는 아나키스트 연합의 수중에 떨어질 것이뻔했던 것이다. 아나키스트 연합은 카탈루냐 정부의 정치적·사회적 안정에 군사 쿠데타 못지 않게 위험한 존재였다.

전화벨이 울렸다.

“예, 에스코페 총경입니다. 아, 호세 마리아 장관님이시군요. 안녕하셨습니까! ……뭐라고요? ……아! 예, CNT 말씀이시군요. 물론 그들이 항의 할 것입니다. 전 처음부터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통령께도 골칫거리입니다. 그러나 저는 달리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권총 소지를 허용했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수류탄도 압수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다른 무기들은 모두 우리 수중에 있습니다. 과르네르 소령이 무기를 압수했습니다.”

가르시아 올리베르의 돌격대원들이 프로르 가를 지나 시카고 바로 가는 동안 아스카소의 대원들은 잠시 쉬면서 담배를 피웠다. 군대가 계속 사격을 가했지만 이미 수세에 몰려 타겟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사방에서 총알이 날아들었지만, 거리에는 대담한 기자들 몇몇이 취재하러나와 있었다. 그들은 언제라도 몸을 숨기기 위해 집 입구가 까이서 있었다. 마침내 지붕에서 총알이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다. 사방에서 기관총이 불을 뿜어내며 서로 응사하였다. 이때 권총에서 나는 작은 폭음 소리가 들렸다. “FAI 만세! 공격하라!”

아나키스트지도자들이 돌진하면서 파랄에로를 가로지르고 있었다. 장밋빛 목욕 외투를 걸친 한 여자가 밤을 지새우고 화장도 하지 않은 창백한 얼굴로 팔을 높이쳐 들며 소리쳤다. “아나키스트 만세!”

루이로메로

교차로에서 카탈루냐 광장에도 착한 무장 노동자들이 군인들을 향하여 사격을 개시했다. 치안 경비대도 반란군에게 발포했다. 대포까지 동원했다. 그러나 콜론 Colón 호텔에서는 쿠데타 군이 저돌적으로 돌진하는 군중들을 향하여 여전히 기관총을 난사하고 있었다. 전투는 삼십 분 이상 계속되었다. 광장은 죽은 시체로 즐비했다. 마침내 호텔 1층이 치안 경비대의 손에 넘어갔다. 콜론 호텔의 창문에 최초로 백색기가 걸렸다. 전화국 건물 안에서는 파쇼들이 여전히 저항하고 있었다. 건물을 향해 돌격 하던 아나키스트들 가운데 두루티가 선두에 섰다. 그들은 람블라스의 언덕 길 위 쪽 끝에서 출현하였다. 거리의 중앙 보도는 시체로 덮여 있었다. 그들 가운데는 바르셀로나 연방 비서 오브레곤 (Obregon) 도 있었다. 드디어 두루티의 대원들이 전화국 건물 현관에 들어섰다. 두루티가 전화국 로비에 제일 먼저 들어갔다. 전화국은 쟁쟁이 완전 점령되었다. 노동자들이 바르셀로나의 중심부인 카탈루냐 광장을 완전히 장악했던 것이다.

아벨파스 1 / 디에고 아바드 데 산티안 2

람블라스 거리에는 구경 75밀리 대포가 배치되었다. 그 대포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아타라사나 요새의 성벽을 뚫어 돌파구를 열었다. 그 사이에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군부대를 향해 진격하고 있었다. 심지어 바르셀로나의 일반 시민 조차도 군부대를 향하여 사격을 가했다. 여자들과 아이들은 실탄을 날라다주고,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던 남자들에게 빵과 음료수를 갖다주었다.

리카르도 산스 1

탈영한하사관한명과두명의사병이투쟁에동참하였다. 그들은장교를배반하고기관단총을가지고왔던것이다. 그들은산파브로의길모퉁이집지붕테라스에서산파브로성문을보루로하고있던군대를향하여사격을가해군을후퇴하게만드는데성공했다. 동시에호베르와오르티스는페이-페이카페의뒷문을통해안으로들어가사격을가했다. 패전한군인들은파랄에로까지후퇴하였다. 몇명의군인들이‘물랑루즈 Moulin Rouge’라는카바레옆과일가게뒤로가서카페의테라스에올라가그곳을엄폐물로삼았다. 그곳은파랄에로거리전체를기관총사정거리안에둘수있는위치였다. 그들은아살토거리에서파랄에로도로를횡단하려했던프란시스코아스카소대원들에게치명상을입혔다.

이른아침에가르시아올리베르와아스카소그리고두루티가람블라스거리에서만났다. 그들은두루티가그의단원들과함께팔콘 Falcón 호텔을점령하여, 호텔창문을통하여적의완강한방어벽을뚫는다는작전에의견의일치를보았다. 그러고나서극장광장에서상황이끝나면두루티는카사후안 Casa Juan 레스토랑으로진격하여아타라사나부대와평화의문을보루로지키고있는파쇼들을향해서기관총을발사한다는작전이었다. 그들은람블라스거리에서구도시의중심부로통하는모든교차로를차단할예정이었다. 전술적으로대단히중요한파랄에로와산파브로의교차로에군대가주둔한상황은가르시아올리베르의계획에극히위협적이었다. 그래서그는파쇼들의기관총사격망을분쇄하기위해모든힘을집중했다. 산파브로거리를따라돌격할때그의돌격대는어려운고비를여러번넘겼다. 그들은국경수비대의초소를지나가야만했다.

가르시아올리베르는기습공격을피하기위해대원들을안전한거리에두고수비대장교와협상을벌였다. 그는그들이어느편에설것인지정하라고요구했다. 수비대는정부에충성할것이라고대답했다. 그러나그들의의무는치안담당이아니라밀수입을막고관세를징수하는일일뿐이라고하였다. 수비대는맹세코가르시아올리베르전투대의배후를공격하는일은없을것이라고확약했다. 다소시간이 지난후그들은아말리아거리에있는여자감옥을통과하게되었다. 거기에도파쇼들이잠복해있을가능성이있었기때문에대원들은철저하게수색하였다. 다행히도기습은없었다. 반동들에게구치소기능을했던형무소를습격하였다. 구속되어있던여자들이불안과기쁨에울먹이면서감옥을떠났다. 많은여자들이흥분하여히스테리를일으켰다.

아바드사폰트 Abad Zafont 거리에서아스카소대원들이가르시아올리베르단원들에게근접하고있었다. 아스카소는낡은갈색옷을입고가벼운샌들을신고있었다. 손에는안전장치를푼권총이들려있었다.

“놈들이‘물랑루즈’안으로후퇴하고있다! 지금이절호의기회다!”

“여러분은시카고바가있는저건물지붕위를점거하시오! 그리고위에서아래로적들에게사격을가하시오! 헛총질은하지말고! 목표물을정확히맞추시오! 우리는여러분이쏘는기관총소리를들으면, 즉시파랄에로돌진하여놈들을쓸어내겠소!”

문제는간밤에발생한무기탈취사건이었다. 아나키스트운송노동자연합의행동대원들이항구에정박해있던몇대의배를습격해엄청난수의소총과권총을탈취했던것이다.

“제가알고있는것은그것이전부입니다. 과르네르소령이제게그렇게보고했습니다. 그가순찰을나서기전에전망대위에서감시를한후직접노조사무실을방문했다고합니다. 물론그들은무장을하고있었답니다. 논쟁중이기는했지만다행히아무도방아쇠를당기지는않았다고했습니다. 예, 두루티와가르시아올리베르가그논쟁을누그러뜨리기위해직접참석해있었다고합니다.”

잠시귓불을만지고있던에스코페총경에게과르네르소령이말했다.

“노조원들이화를내면서두루티를총으로위협했다고총경님께서장관님께직접말씀드리십시오. 그들은서로동지들아닙니까!”

“과르네르소령이지금막제보하고길노조원들이두루티에게총을겨누었다고합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장관님께서는이사실을대통령께보고하시면될것입니다. ……뭐라고요? 예,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제가과르네르소령에게그렇게지시하지요.”

에스코페는수화기를내려놓았다. 그는서른여덟살이었다. 그의머리카락은검고윤이났으며곱슬이었다. 그의태도는흉분된상태였고목소리는몹시화가난투였다. 그가과르네르소령에게말했다. “나는 FAI 와그회원들을무작정믿을수가없어. 그들은마치표범처럼무기를노리고있어.”“뭐다른정보에대해서는장관께서말씀한게없습니까?”“물론있다네. 내일새벽에쿠데타가일어날것같다고하였네. 장관은믿을만한정보를갖고있네.”“제기분을총경님께서는아실는지요? 저는일이터지면우리가누구의편에서서무엇을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루이스로메로 (Luis Romero)

방어위원회

보통사람들의눈에는 7 월 18 일이여느토요일과별로다르지않은날로보였을것이다. 날이몹시무더웠지만거리를빈둥거리며다니는사람은거의없었고해수욕장도텅비어있었다. 물건을사러거리에나와있는가정부들이많이눈에띄었다. 제과점에서는이른오후에벌써빵이바닥났다.

CNT 지역위원회본부에는사람들이바삐들락거렸다. 모든시구역과교외에파견되었던보고자들이속속도착하였다. 총연합위원회는회의를계속진행했다. 두루티는식당한모퉁이에서상황을알고싶어하는피콜스출신탄광부들에게이야기를하고있었다. 두루티는몸을의자에기댈수밖에없었다. 그는탈장수술을받았는데아직완쾌되지않았다. 병의증세가재발한것처럼보였다. 왜냐하면그는여전히고통스러워했기때문이다.

마리아네트 (Marianet) 가몇초간격으로마드리드에전화를걸었다. 사방에서아스카소를찾고있었다. 그는당장페이-페이카페로가기로되어있었다. 그런데금속노동자노조원들이그를붙잡고있었다. “우리는무엇을해야합니까?”그들은그에게당장행동으로투쟁하겠다고제안했다. 프란시스코는이렇게대답했다. “아직때가이릅니다. 우리는냉정하게행동해야합니다.”

아벨파스 1

호치키스 M1914 기관단총 1 정, 체코산속사포 2 문과예비실탄을장전한 원체스터소총이신인민촌구역에스프론세다 Espronceda 길목에인접한푸하다스 Pujadas 거리 276 번지의거실에배치되어있었다. 그곳, 그레고리오호베르의집에서방어위원회가소집되었다.

후안가르시아올리베르와부에나벤투라두루티그리고프란시스코아스카소 가두시간늦게모습을나타냈다. 일종의무장야간경계를위한그최후의회합은한밤중에소집됐다. 공군소위세르반도메아나 (Servando Meana) 는그들세사람이내무성으로타고갈자동차를준비해두었다. 그들은돌발적기습에즉각대응 발사할수있도록무기를장전한채급히차를몰았다. 그들은늦어지면동지들이걱정할것이라는사실을분명히알고있었다. 내무성건물앞에서시위가벌어지고있었다. CNT 의전투대원들이무기를달라고요청하였다. 가르시아올리베르, 두루티와아스카소는궁전광장에모인시위군중들을자제시키기위하여발코니로올라갈수밖에없었다. 가르시아올리베르는산안드레스 San Andrés 막사를포위할 때까지만기다려달라고군중들을설득했다. 모든일이계획대로된다면 2 만 5 천 정의소총과기관단총, 대포몇문정도는내일이면 CNT 와 FAI 의수중에들어올 것이라고했다. 그들이접촉하고있던공군메아나소위와다른장교들이이미디아스산디노 (Díaz Sandino) 중령과협상을마친상태였다. 산디노중령은프라트 데요브레갓 Prat de Llobregat 공군기지의사령관이었다. 쿠데타군이출동하여막사를비우는사이에비행기가이륙하여막사를공격한다는작전이었다. 막사를폭격할때탄양고가폭발되지않도록세심한주의를기울인다, 폭격이끝난후산타콜오마, 산안드레스, 산아드리앙, 클로, 신인민촌의각시지부방어위원회의조직원들이막사를공격하고, 필요시에는성문을다이너마이트로폭파한다는이작전에디아스산디노중령이동의했던것이다. 산안드레스막사의무기고에는수백만발의탄약이적재되어있었다.

그사이에그레고리오호베르는동지들에게빵과소시지를대접하고포도주를따라주었다. 모든조치가잘맞아떨어졌다. 각시지부위원회의행동대는주의사항을지시받았다. 각자는행동의순간이오면무엇을해야할지숙지하고있었다. 공장뿐만아니라항구에정박하고있던배의갑판까지도감시가심했다. 사이렌은기습경보를알리는장치였다. 위원회는군대가막사를떠날때까지기다릴수밖에없었다. 극비정보에의하면, 반란군은새벽에공격을개시한다는것이었다.

로뛰쳐나왔다. 모두가거리로쏟아져나왔던것이다. 그라시아마을의채소재배농민들도가담했다. 그들은이미오래전부터혁명적아나키즘의경향을갖고있었다. 방직노동자들, 전철노동자들그리고상인들까지가세했다. 이투쟁의대열에는아나키스트들뿐만아니라사회주의자들, 카탈루냐민족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그리고 POUM(통합마르크스주의노동당) 도섞여있었다. 모두가오로스 Oros 5 번가로진출하고있었다. 그들은오로스 5 번가와구역경계선을향해진군했다. 바리케이드를설치하고차도와교차로를감시하였다. 카르멜 Karmel 탄광촌의기식프루테리아들이산을내려와도시로진입하는중이었다. 그들은멀리평원으로이어지는, 아직건설중에있는신작로의주변에사는주민들과합류했다. 그리고그들은아나키스트들의위대한스승으로알려진페데리코우랄레와그의딸페데리카몬트세니가누구인지알려주었던포브레와귀나르도지방의옛동지들과도합류하였다. 파브라코트로티어 Fabra y Coats y Rottier 주식회사의노동자들과스페인-스위스합작회사의기술공들, 기계공장의기능노동자들이막노동자들, 실직자들과연합하여시전체를방어하고도남을무기들이적재되어있는산안드레군막사의병기고를향해진출하였다. 하로나 Girona 제철소의노동자들, 전기회사와제지공장의노동자들, 클로, 프로뱅살, 라쿠나와신인민촌등의지역에있던가스및화학공장노동자들을결코잊을수가없다. 그들은어부들, 부두노동자들, 화산지역의금속공들, 북부역의철도노동자들과소모로스트로의집시들과같은바르셀로нет지역의하층민중들과연대했던것이다. 모든사람이사이렌소리를 들었다.

두대의트럭이페드로 4 번가에도착했다. 거리도흉분으로들끓었다. 그러나 그곳은상인들과형편이‘좀나은’수공업자들이살고있었다. 그들은겁에질린눈빛으로자동차행렬을바라보았다. 그들중에는아무도비난의얼굴빛을보이려고하지않았다. 그들에게는침묵조차도위험한일로보였던모양이다. 그래서그들은소리를질러댔다. “CNT 만세! 파쇼에게죽음의심판을! 교회를타도하라!”

이전통도시의심장부에서결정이날것이다. 아나키스트들은그곳이비록부르주아지구역이지만거기에도많은동지들이살고있기때문에자신들을지지하리라고믿고있었다. 수위와구두닦이들, 식당보이, 도로청소부들이그들을추종하였다.

루이로메로

가두투쟁

후안가르시아올리베르, 프란시스코아스카소, 안토니오오르티스, 호베르와‘발렌시아’가산파브로의파랄에로-론다사거리에진을치고있던반란군에대하여작전을개시하였다. 그런대로무장을갖춘노동자들과함께아타라사나부대를

사이렌

회뿌연안개로덮인푸하다스, 에스프론세다, 르를거리에새날의여명이비쳐 오고있었다. 무장한수많은남성대원들이축구경기장일대를점거하고있었다. 그들은거의모두가푸른색상의를걸치고있었다. 선발된스무명의행동대가아나키스트방어위원회를호위하기로되어있었다. 그들은모두가두투쟁경험이많은사람들이었다. 무기는두대의화물차에적재되었다. 리카르도산스와안토니오오르티스가앞트럭의차폐위에기관총을설치하였다. “동지여러분, 산스구역지부위원회에서방금보고가들어왔습니다. 군이출동했다고합니다!”보고자는그야말로숨이가빴다. 아침일찍일어난사람들이이주변발코니에서상황을구경하고있었다. 그들은기대에부풀어있었고, 같은생각을하고있는듯이보였지만얼굴에는불안한빛이가득하였다. 전투대원들이축구장에운집하였다. 권총을소지한사람들은뽐내듯이권총을흔들어보였다. 권총을가지지못한나머지사람들은무기를달라고요구했다. 비축해두었던무기가배분되었다.

“무엇을할까요? 사이렌이울리기를기다릴까요?”두루티가물었다. 운전병이시동을걸었다. 멀리서우웅 — 하고길게끄는소리가들렸다. 제일먼저공장에서사이렌이울렸다. 침묵이흘렀다. 사이렌소리가점점더커져가까이에서울리는듯했다. 사람들이발코니로뛰어올라갔다. 위원회와호송대원들이화물차에올랐다.

“FAI 만세!”

“CNT 만세!”

“출발!”

트럭이출발했다. 트럭에탄대원들이총을머리위로들어올리면서인사했다. 나뭇가지에매단흑·적색깃발이바람에휘날렸다. 신인민촌의람블라스거리가아래로이어져있었다. 여러대의자동차가합류하여줄을이었다. 선동자들은단호한결심을확인시켜주려는듯이구경꾼들에게기관총을높이쳐들어보였다. 사람들이지붕과발코니에서두루티, 아스카소, 가르시아울리베르, 호베르의이름을외쳤다. 사이렌이계속울렸다. 그소리는바르셀로나공단지역의기층민중들이사는곳에서들여왔다. 그소리는바로노동자들의가슴을울리는프롤레타리아트의목소리로서출동하라는명령처럼들렸다.

아나키스트지도자들은위원회의회의실로사용된노조사무실의뒷방에서밤을새웠다. 이제그들은도시중앙으로진출하고있었다. 산스, 오스타프랑크, 콜브랑크지역의대원들과토라사의‘무르시아사람들’, 그리고카사안투네스지방에서온CNT 의추종자들이에스파냐와파랄에로광장으로진군하였다. 그들의공격목표는레반토공병대였다. 에스파냐공업상사의염색방직노동자들, 벽돌공, 피혁공, 도살장노동자들, 청소부, 날풀팔이꾼들뿐만아니라, 클라베합창단의몇몇가수들, 몬주익빈민촌의하층프롤레타리아들, 빈민촌뒷골목의총잡이들까지거리

하루종일일에몰두하여신경이날카로워진가르시아울리베르가의자에앉았다. 큰일을또한번치르기전에남은한두시간정도휴식을취해야만했다. 그러나그는잠을청할수가없었다.

수주, 아니여러달동안이모임은이밤을준비해왔다. 이미 2 월선거이전에그들은곧시민전쟁이터질것이라고확신하고있었던것이다. 당시많은CNT 추종자들은그들의방식대로또한번선거보이콧을생각했지만예외적으로부르주아좌익당과사민당에게찬성표를행사했었다. 지도부는선거에참여또는불참을권고하지않고그결정을노동자각자에게맡겼었다. 그들은선거에서좌파가승리하는우파가승리하는근본적으로는아무런차이가없을걸로이해했던것이다. 만일아나키스트노동자들이선거에불참하여파쇼집단이합법적으로권력을장악하게되면, 그것은곧무장봉기의신호탄이될것이었다. 반대로좌파가승리하면, — 물론CNT 는좌파가승리하리라고예상했는데 — 파시스트가늘하는방식대로쿠데타를일으켜권력을장악하려들것이뻔했던것이다. 따라서손에무기를드는일은어떤경우라도마찬가지였다. 그런데바로현재의상황이그러한예측을입증해주고있는셈이었다. 아나키스트들의분석은당내활동을하고있던어떤직업정치가들의분석보다더현실적으로적확했던것이다.

CNT 는거의독자적으로활동했던지역단체들로구성된지역연합조직이었기때문에전국적차원에서공격을계획할수가없었다. 그래서그들은카탈루냐를중심으로우선바르셀로나를작전계획지역으로택했다. 물론마드리드가스페인정치의중심도시였지만바르셀로나는산업과프롤레타리아트가밀집한도시였다. 바르셀로나인구중다수가노동자였다. 그리고바르셀로나는혁명의전통을가진도시였기때문에 CNT 는바르셀로나를정치투쟁의우선지역으로설정했던것이다. 이도시에서노동자가승리하면운동의물결은스페인의다른도시로신속히퍼져나갈것이틀림없었다.

그래서아나키스트들은바르셀로나에방어위원회를조직했던것이다. 그들은분견위원회가언제라도연합방어위원회와통합될수있도록조직을구성했다. 각시지부위원회는X 시간의암호를알고있었다. 아나키스트청년연맹단뿐만아니라자유주의청년단과여성회도이작전계획에가담했다. CNT 는적들이낌새를차리지못하도록이번작전에서는총파업을선포하지않기로노조연합및지역위원회와함의한상태였다.

테이블위에놓인시가지도에는군막사의위치, 군의배치상황그리고군의인원수가나타나있었다. 군으로부터가져온비밀정보를통해적의상태를마지막으로면밀히파악하였다. 방어위원회는하수구의구조를점검하고지하통로와의교차점을숙지하였다. 전선망은보다중요했다. 필요할경우언제라도작전구역에서전기공급을차단할준비를갖추었다. 무장대원들은군이막사를출발하여거리로밀고나올때저지하지말라는지시를받았다. 저항을받지않은군부는이위장된초기승리에서민중봉기는없을것이라고단정할것이었다. 군인들은 1 인당적어도쉰발의실탄을쏘게될것으로추정했다. 그들이막사로부터멀어졌을때무장대원들

은 사격을 가할 예정이었다. 군인들은 실탄이 떨어져 고립되면 사기를 잃을 것이 뻔 했다. 그때 바로 총봉기하기로 작전을 세웠던 것이다. 중요한 전략은 병사들이 장교들에게 등을 돌리게 하거나 탈영을 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기동 경찰대가 합법적 정부를 지원하여 반란을 일으킨 군인들을 공격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래서 행동대는 그들에게 협상을 제의했다. 치안 경찰대의 태도는 애매 모호하였다. 그것은 지켜 봐달라, 만일 그들이 노동자를 공격하거든 그때는 쿠데타군을 향해서 쏘듯이 자신들에게 가차 없이 사격을 하라는 식이었다.

모든 작전 계획이 치밀하게 검토 논의되어 결정되었다. 이제 아나키스트 방어 위원회는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출음을 쫓기 위해 커피를 많이 마셨다. 그들은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각자 모든 세부 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그들은 오래 전부터 서로를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수년 전부터 함께 투쟁해 온 동지들이다. 그들은 서로 형제처럼 가깝게 지냈다. 아니 아마 더 가까울지도 모른다. 그들은 이 밤에서 마지막 밤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프란시스코 아스카소가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담배를 피웠다. 그의 얼굴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였고, 창백하며 가늘고 차가운 그의 입술에는 이상야릇한 미소가 맴돌았다. 두루티도 웃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그의 검고 짙은 눈썹, 눈썹 사이의 비근 鼻根에 깊이 패인 주름살, 찌푸린 이마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은 어린애와 같은 인상을 풍긴다. 생동감 넘치는 그의 검은 시선이 또 다시 무기 쪽을 향한다. 덩치가 크고 금발이며, 강한 몸을 가진 리카르도 산스는 움직이지 않고 그저 조용히 앉아 있다. 그리고 리오호베르는 광대뼈 때문에 '중국 되놈'이라는 별명을 붙이고 다녔는데, 여전히 중국 사람처럼 행동했다. 그는 허리 아래쪽으로 탄띠를 늘어지게 메고 있었다. 아우렐리오 페르난데스는 마치 온도계를 들여다보듯이 호베르의 얼굴에서 상황의 심각성을 읽어내려고 한다. 그는 눈이 약간 앞으로 튀어나와 있었다. 그는 품을 재고 옷을 잘 차려입는 유일한 사람이다. 그는 그것을 중요시 했다. 그들은 모두 경험이 풍부한 가두 투쟁가들이고, 귀신처럼 총을 다룰 줄 아는 도시 게릴라들이다. 위원회에는 젊은 청년이 두 사람 있었다. 그들은 안토니오 오르티스 (Antonio Ortiz) 와 발렌시아 (Valencia)였다. 안토니오는 농담을 좋아했기 때문에 과묵한 동지들이 이야기를 하도록 애써봤지만 헛된 일이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완전 곱슬이었다. '발렌시아'는 태도가 아주 의연했다. 그는 지독한 골초로서 출담배를 태웠다. 그들이 방어 위원회의 본부를 여기로 정한 것은 그들 대부분이 이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호베르의 집에서는 맞은 편에 있는 주피터 축구장이 보였다. 거리에는 차출된 사람들�이 경계를 서고 있다. 화물 차 두 대가 축구 경기장 옆 푸하다스 거리에 정차 중이다. 가르시아 올리베르는 에스프로네세다 72 번 가에서 50 미터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으며, 아스카소는 산후안데말타 San Juan de Malta 가에 살고 있다. 그의 집은 '파리골라 Farigola'라는 술집 옆에 붙어 있다. 이 술집에서 며칠 전에 시지부 위원회의 총회와 바르셀로나 방어 위원회가 열렸다. 두루티는 그곳에서 1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살고 있다.

고물 시장에서 구입한 낡은 벽시계는 움직이기 가괴로운 듯이 느리게 똑딱 거린다. 호치키스 기관단총, 체코산 속사 포 두정과 수많은 윈체스터 소총들…….

루이로메로

열한 시와 자정 사이에 몇몇 대원들은 수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위원회를 출발했다. 출동 지시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확보가 필수적이었다. 한 시간이 지나자 확보한 자동차가 램블러스 거리를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자동차에는 CNT-FAI라고 크게 백묵글씨가 적혀 있었다. 산책 중이던 노동자들이 그 자동차를 보고 운전병에게 "FAI 만세!"라고 외쳤다.

그날 밤 바르셀로나의 무기 상점이 털렸다. 아나키스트 행동대원들이 쇼윈도와 진열장을 비웠고 수류탄과 엽총을 약탈했던 것이다.

디에고 아바드 데 산티안 2 / 아벨파스 1

새벽 두 시, 두루티와 가르시아 올리베르가 경찰총경을 찾아갔다. 그들은 사회 안전부의 에스코페 총경에게 기동 경찰대의 무기 절반을 회수하여 노동자들이 사용 할 수 있도록 무조건 허용하라고 요구했다. 에스코페가 거절했다. 그는 자기 부하들이 최후의 순간까지 무를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무기라고는 한정도 내 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네시삼십분, 경찰총경의 방에 전화 벨이 울렸다. "몬트사와 페드랄 베지역의 군대가 막사를 떠난 상황입니다"라는 보고였다. 아스카소와 두루티는 무기를 들고 경찰서를 떠났다. 산티안과 가르시아 올리베르가 당직장교의 얼굴을 제복 위도리로 덮어씌웠다. "권총이 어디 있소? 어서 말하시오!"

아벨파스 1

새벽 다섯 시 정부 청사 앞에서 소요가 발생했다. 보초들이 신경을 곤두세웠다. 바르셀로네타에서 온 시위 군중들이 정문을 밀고 들어가고 있었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 막 도착한 두루티는 이 시위에서 무슨 일이 발생할지 알고 있었다. 그는 발코니로 올라갔다. 부두 노동자들은 두루티를 알아보고는, 연합 위원회와 협상을 벌이기 위해서 청사 안으로 들어갈 대표자들을 보초가 통과 시키게 하라고 그에게 요구했다. 바로 그 순간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조금 전 만해도 시위 군중들과 기동 경찰대의 청사 보초 병들 사이에 있었던 그 긴장이 깨어져 버린 것이다. 군기가 흔들렸다. 노동자들과 보초 병들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다. 한 보초 병이 자신의 권총을 뽑아 한 노동자에게 건네주었다. 곧 다른 보초들도 그들의 총을 군중들에게 넘겨주었다. 장교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 경찰들이 인간으로 변하고 있었다.

아벨파스 1 / 디에고 아바드 데 산티안 2

을동원·조직하여같은또래의청년들을병역의무라는이름하에소집하는것을목격할수있었다. 동원령에의해소집된병사들은민병대의자원병들과는현격한대조를보였다. 일반사병들은정치적지원을받고있던자원병들에게부여된권리와같은것을누릴수가없었다.

그러나군사조직화는상당한논쟁을불러일으켰다. 대다수의민병대는군사조직화에동의하지않았다. 특히아나키스트들은이단계에서혁명의종말이시작되고있음을감지하였다. 그들은러시아아나키스트마흐노의사례를익히알고있었다. 자원병군대의지휘자였던마흐노는볼셰비키들에의해강제망명을해야만했고, 그의민병대는해체되었던것이다. 마흐노가러시아에서추방되어 1934년파리망명지에서죽고난후, 러시아아나키즘은그기세가한풀꺾였던것이다. 스페인아나키스트들도군대가새로조직됨으로써그와같은운명을걷는것이아닌가우려했다.

그럼에도그들은같은신념과생각을가지고있는동지들에의해움직이는소규모의단위부대만으로는현대전을치를수없다는사실과, 아무리독립성에대한강한집념을가지고있다하더라도다른부대와의공동전선을형성하지않고는전쟁을수행할수없다는사실을분명히간파했던것이다.

H. E. 카민스키

인민군과병사협의회

두루티원정대내의국제적아나키스트그룹인독일동지들은민병대의군대화를현실적문제로거론하였다. 민병대의군대화에적용할기본법을전선투쟁가들이고심하여완성시켰다. 우리는거기서채택한법안을과도기적인것으로간주하였기때문에임시기간에만적용하기로하였다. 지루하게계속되는목전의혼란상태를매듭짓기위하여가능한한빨리새로운규정을채택할수밖에없었다. 그러나이규정은다음과같은사항이준수되는한에서만인정하기로하였다.

1. 경례에관한규정을철폐한다.
2. 모든대원들에게동일한봉급을지급한다.
3. 전선신문에언론의자유를보장한다.
4. 자유토론을보장한다.
5. 대대급의병사협의회를구성한다 (각중대마다대표자세명을둔다).
6. 어떤대표자도부대장이될수없다.
7. 중대대표자들중 2/3 가제안하면병사협의회는전대대병사회의를소집해야한다.
8. 연대급에서도병사협의회를구성하고협의회대표자들은총회를소집할수있다.
9. 대표자는여단참모부에감시단역할을한다.
10. 병사대표조직을전군에편성한다.

들은대부분성실한사람들이었다. 그러나좋지못한일은그들이비록독단주의를신랄하게비판했지만정작그들자신이독단주의자들이었다는점이다. 그들은현실의삶을그들의이론에억지로끼워맞추려고했다.

그들중에혜안을가진사람들은아름답게들리는팸플릿의선동과거친현실사이의모순을지적할줄알았다. 그은어제까진나해도감하근접할수없는진리로여겼던것을폭탄과총알의세례를받으면서단번에뒤바꾸려고했다.

일나에렌부르크 1

혁명초기의며칠동안레리다의모든교회가불탔다. 두루티의원정대가아라곤전선으로진군하면서그도시를통과했던그날민병대가성당을방화했던것이다. 방화자들은레리다출신의동료들이성당의파괴를꺼리자그들을비겁자들이라고욕했다. 성당은이틀동안불타올랐다.

익명 1

‘적색목사’, ‘두루티의비서’라는소문이지금도내귀에쟁쟁하다. 비록사실이아니지만. 나는아나키즘을싫어했다. 그리고두루티는비서를둔적이없었다. 나는원정대의사무실에서그저원정대원들의이름을기록하는단순한서기에불과했다. 그러나고백한다면두루티는정직한사람이었다. 많은사람들이그를두고살인자니강도니떠들지만그들은중상모략하는이들일뿐이다. 나는그러한거짓말에대해서는내친구를변호할것이다.

그와그의대원들이레리다성당을방화했다는소문이다시일고있다. 그런데언제성당이불탔던가? 그것은 8 월 25 일이었다. 그러나원정대는 7 월 24 일에이미레리다를통과했고, 한달뒤성당을방화하기위해그곳으로되돌아간적이없었다는사실을나는여러분에게장담할수있다. 사실은 1 백명으로구성된극단적인급진주의자들이바르셀로나에서전선으로이동하던도중에레리다를통과했다. 그들은신전을불태우는일보다더좋은일이없다고생각했던것같다. 그들이두루티의선봉대에도착했을때, 그들의영웅적행위에대한소식이이미우리들에게까지전해진상태였다. 매우노련했던두루티는그들을불러이렇게호통쳤다. “레리다에서행동한이용감한자들은정말잘났구만!”물론그책임자들은가장엄한처벌을받았다.

예수스아르날페나 1

세명의기자

8 월말과 9 월초사이, 나는카르멘 (Karmen) 과마카세예프 (Makasseev) 를데리고두루티의전투사령부를찾아갔다. 당시두루티의꿈은사라고사를정복

하는 일이었다. 전투사령부는 브로하천가에 위치하고 있었다. 나는 동행인들에게 두루티는 내가 잘 아는 사람이어서 우리들을 환대할 것이라고 미리 귀띔해주었다. 그러나 두루티는 호주머니에서 권총을 꺼집어내고 서서 이렇게 말했다. 아스투리아 봉기를 다룬 논설에서 내가 아나키스트들을 비난했다는 것이다. 그는 나를 당장 쏘아죽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빙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놀라서 이렇게 말했다. “좋아, 자네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하지만 나는 자네가 손님 대접을 이런식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네.” 두루티는 아나키스트이며 성미도 별 같았다. 그러나 그 도 어쩔 수 없는 스페인 사람이었다. 그는 나의 말에 당황하였다. “좋아, 아무튼 자네는 나를 찾아온 손님이지. 그러나 자네의 논설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하겠네. 여기서 가 아니라 바르셀로나에서!”

그는 손님 대접이라는 스페인의 전통적 예절 때문에 당장 나를 죽이지 못해 화가 잔뜩 나서 욕을 내뱉기 시작했다. 그가 소리쳤다. 소비에트 연방은 자유 공산당의 구가 아니라 책에 나오는 그저 그런 국가일 뿐이며, 수많은 관료를 거느린 관료주의 국가일 뿐이라고 했다.

카르멘과 마카세예프는 무엇인가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던 것 같다. 그도 그럴 것이 갑자기 권총이 눈 앞에 나타나자 달리 생각 할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한 시간 후에 나는 그들에게 설명했다. “모든 일은 잘 되었어요. 그가 우리를 저녁 식사에 초대한다고 했습니다.”

식탁에는 민병대원들이 앉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흑적색 셔츠를 입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푸른 훈련복을 입고 있었다. 모두가 권총을 차고 있었다. 그들은 앉아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웃었다. 아무도 우리와 두루티에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 중 한 명이 음식과 포도주 잔을 옆으로 돌렸다. 그는 두루티의 접시 옆에 광천수 한 병을 갖다 놓았다. 내가 농담을 했다. “자네는 언제나 절대 적 평등을 주장했지. 그런데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는데 자네만이 광천수를 마시는구만.” 그 말에 두루티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나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 그가 벌떡 일어서더니 소리를 질렀다. “이 병치우고 우물에서 떠온 생물을 가져오게!” 그는 한 참 동안 변명을 늘어놓았다. “내가 그들에게 광천수를 부탁한 것은 아니네. 그들은 내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을 알고 어디를 가든 광천수 한 상자를 가지고 다닌다네. 물론 이것도 사실은 안 되는 말이지. 자네 말이 전적으로 타당하네.” 우리는 말 없이 계속 식사를 했다. 그때 그가 말했다. “모든 일을 한꺼번에 바꾸기란 어려운 법일세. 원칙과 생활이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네.”

밤에 우리는 진지를 시찰했다. 시끄러운 자동차 소리가 허공을 채웠다. 트럭을 탄 원정대가 우리 옆을 지나갔다. 두루티가 말했다. “이 트럭이 무슨 일을 하는지 왜 자네는 내게 묻지 않는가?” 나는 군사 비밀을 간파할 의도는 없다고 대답했다. 그때 그가 웃었다. “비밀이라고? 우리가 아침에 브로하천을 건널 것이라는 사실은 세상이다 알고 있는데, 비밀이라니!” 그는 잠시 뜻을 들인 후 계속 이야기 했다. “왜 내가 도강하기로 했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내가 말했다. “자네는 이미 자네의 위치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결국 자네는 원정대의 사령관이 된 셈이니까.” 두루티가 다

종말의 시작

기자: 민병대에 과거 군대의 계급 질서와 같은 복무 규칙이다 시 적용될 것이라고 들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두루티: 아닙니다. 과거에는 같은 나이 또래의 청년들을 소집하여 단위 부대의 최고 사령부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군기와는 다른 것이죠. 군 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가두 투쟁에는 군기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장한 대원들이 행하는 지루하고 힘든 원정에는 군기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자: 그렇다면 이제 와서 군기를 강화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두루티: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엄청난 수의 다양한 단위 부대를 갖고 있었지요. 각 부대는 자체 내에서 부대장을 두었으며, 부대 조직도 매일 엄청나게 변했지요. 각 부대는 자체 장비과와 병참부 그리고 보급계를 두고 있었습니다. 각 부대는 일반 주민을 상대로 자체 내에서 정책을 펴나갔고 전쟁에 대해서도 독자적으로 파악했지요. 그런데 더 이상 이런식으로는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개선했지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더 나은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기자: 그렇다면 사병 계급과 인사 규정, 형벌과 월급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루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는 모두가 아나키스트들이니까요.

기자: 그러나 최근에 마드리드 정부는 과거의 군법을 다시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두루티: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정부의 결정은 민병대에 비참한 인상을 심어주었지요. 그런 군법 부활의 발상은 현실을 잘못 보아도 한참 잘못 본데서 생겨난 거지요. 그런 법조문은 민병대의 정신에 완전히 위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찰을 일으키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양쪽의 정신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배타적 일수 밖에 없다는 점만은 사실이지요. 그러니 한쪽이 반드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기자: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군사 조직화가 혁명을 위험에 빠뜨릴 소지가 있다 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두루티: 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속결 전으로 이끌어 승리를 거두어야만 합니다.

두루티는 웃으면서 이 말을 하였고 작별인사로 우리와 악수를 하였다.

A. u. D. 프루도메옥스 (Prudhommeaux)

내전은 현대의 모든 기술이 동원된 대규모의 전쟁으로 점차 그 양상이 변해갔다. 그러나 민병대의 병력 증강은 항상 인원 보충으로 만 그쳤다. 그들은 그저 이름난 혁명가들에게만 의존할 따름이었다. 당시 민병대를 제외하고 정규군은 강제로 병력

민병대의 성격은 혁명이 몇 달 지나면서 완전히 변하였다. 민병대는 더 이상 밤사이에 무장한 순수 프레타리아트라고 할 수 없었다. 민병대는 저절로 군사 조직으로 변하였다. 민병대가 정규군이 되어 버린 셈이었다. 1 백인 단위 부대는 중대로, 원정대는 연대로 변했던 것이다. 이전에 불렀던 명칭은 문서상에서 일뿐이었다.

장교들은 그때까지도 여전히 '대표자'로 불리고 있었다. 모든 분대 (소대), 1 백인 단위 부대 (중대), 대대와 원정대 (연대)는 각 기대표자를 선출하였다. 각 대표자들은 아래에서 위로 선출되었다. 하급 대표자들이 상급 대표자를 뽑았다. 그러나 장교들의 권한은 점차 확대되었다. 그들의 권한이 언제나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선출 방식이 차츰 과거의 잔재와 비슷해지면서 선거 체제가 점차 부패하기 시작했다.

누구나 군기가 없이는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고 믿었다. 민병대는 이론상 예전과 마찬가지로 자유의지를 내세웠지만 실제로 자원 병이란 허구에 불과했다. 모든 군대에서 행해지는 계급 질서가 서서히 형성되어 갔다. 나는 참호 속에서 복무 규칙을 읽어보았다. 그 규정은 규칙 위반자에 대한 처벌에 관한 것이었다. 엄밀히 말하자면 자원 병에게는 어떤 형벌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달랐다. 물론 민병대는 정부가 일시적으로 다시 효력을 발동시켰던 과거의 군법 조문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이미 군사 재판 소가 다시 설치된 것이나 다름 없었다. 경범죄적인 행위는 소대 자체의 대표자들에 의해 처리되었지만 중범에 해당하는 경우 원정대 장앞에서 재판이 행해졌다. 사형선고까지 내려졌던 것이다. 적의 습격 때 잠을 잔 통신병은 사형에 처해졌다.

탈영 병에 대한 처벌 규정은 공문화되어 있지 않았다. 그것은 자원 병들에게 귀향 할 권한을 부여하고자 했던 취지에서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외국인들에게만 그 선택권이 주어졌을 뿐이었다. 스페인 자원 병이 전선을 떠나고 싶어 할 때 민병대는 일 차적으로는 그에게 권고하고, 그 후에는 조직 위원회에 신고하라고 했다. 그래도 만일 귀향하겠다면 고향에서의 생활을 어렵게 하겠다고 협박까지 하였다. 그래도 막을 수 없을 때는 그들에게 교통 수단을 제공하지 않았다.

H. E. 카민스키

시간이 흐르면서 일종의 카탈루냐 군대는 마드리드 중앙 정부보다 카탈루냐 평의회에 더 종속되었다. 온갖 규율의 구호는 결국 인민을 기만하는 데 이용되었다. 카탈루냐 정치가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였다. 아나키스트 민병대를 군사 조직화하면 무기를 보내주겠다던 중앙 정부의 약속은 거짓이었다. 중앙 정부는 마침 내이루어진 군사 조직화를 이용하여 민병대 군사 조직을 억압하는 기구로 변질시켰다. 정부는 목적을 달성한 반면에 아나키스트 단위 부대는 무장 면에서 열악하기가 이전과 마찬가지였다.

호세페이라츠 1

시웃었다. “그것은 이번 작전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 이네. 어제 한 열 살쯤 되어 보이는 꼬마녀석이 파시스트들의 점령지에서 우리에게로 달려왔었네. 그 꼬마가 이렇게 물었네. ‘도대체 뭐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저씨들이 공격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두루티도 용기를 잃었다구요!’ 이해하겠는가? 꼬마까지 그렇게 말한다면 다른 인민들이야 더 말할 게 뭐 있겠는가. 그것은 결국 우리가 이제 공격해야 한다는 뜻이지. 작전은 저절로 시작된 것이나 다름 없네.” 나는 흡족해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자네 자신이야 말로 아직 순진한 어린 애야!’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후 나는 여러 번 두루티를 찾아갔다. 그의 원정대 대원의 수는 1 만 명이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신념을 확고히 믿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교조주의자는 아니었고, 실제 상황에 대한 불만을 거의 매일 고백했다. 그는 군기가 없이는 어떤 전투도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한 최초의 아나키스트였다. 그는 그것을 비통하게 생각했다. “전쟁이란 못 할 짓이다. 전쟁은 집뿐만 아니라 장소 중 한 원칙들까지도 파괴한다.” 물론 그는 이 말을 대원들에게는 하지 않았다.

하루는 여러 명의 민병대원들이 감시초소를 이탈하였다.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기 위해 인접한 마을로 내려갔던 것이다. 두루티가 노발대발했다. “자네들이 원정대의 얼굴에 똥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도대체 모른단 말인가? CNT의 신분증을 내놓게!” 규율 위반자들은 아무 말 없이 호주머니에서 노조 신분증을 꺼냈다. 그런 그들의 행동이 두루티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네놈들은 아나키스트도 아니야. 개똥 같은 놈들이라고! 원정대에서 쫓아내 네놈들 집으로 돌려보내주겠어!” 그 청년들은 내심 그라주길 바랐던 것 같았다. 항의를 하는 대신 그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꾸했다. “자네들이 입고 있는 옷이 누구의 것인지 알고 나 있겠지? 당장 바지를 벗어! 그건 인민들이 만든 옷이야!” 그 민병대원들은 조용히 바지를 벗었다. 두루티는 그들을 팬티 바람으로 바르셀로나로 돌려보내라고 지시했다. “그러면 누구든지 이 놈들을 아나키스트가 아니라 아주 비열한 놈들로 여길테니까!”

일냐에렌부르크 1

아나르코 생디칼리스트들은 공화국에 충성을 바쳤던 군장 교나 경찰 간부들에 대해서 아주 우습게 생각했다. ‘조직된 무규율’의 원칙을 내세웠던 원정대 내부에는 장교라는 신분이 없었다. 그래서 고문이라는 신분은 쉽게 무시되었다. 그들은 무기를 다루는 일에만 신경을 쓰는 단순한 기술자의 자격밖에 가지지 않았다. 정규전이 발생하면 그들은 거기에 적합한 지시사항만을 개진했을 뿐이다. 그들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전투력을 올바르게 배치하고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게 한다거나 동지들의 경험 이상의 것을 조언해주는 정도였다. 프랑코 군대가 공격하면 아나키스트들은 때때로 자신들의 용기와 열정을 다쏟아 대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힘에 밀려 전략 상별로 중요하지 않은 마을을 철수 할 때는 파시스트들에게 전략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그래서 산타마리아의 주민들은 꺼리지 않고 자유 공산주의를 논의했고 민병대에게 보급품을 제공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실제로 작전상 중요한 진지가 위협을 받았을 때, 가령 사라고사에서 우에스카에 걸친 전선지대에서는 치열한 투쟁이 벌어져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불개입 협정을 근거로 하여 무장을 하지 않은 공화파들이, 아나키스트들을 공격하기 위해 국제파시즘이 요구했던 대포, 기관총, 폭탄과 비행기를 맨손으로 지켜냈다는 주장을 영국 통신원인 나로서는 믿을 수가 없었다.

존 랭든 데이비스 (John Langdon-Davies)

1936년 8월 14일 부하랄로스

“당신들의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내가 물었다.

두루티는 손에지도를 펴들고 서부 대편성 상황을 설명했다. “우리는 지금 피나 Pina 전철역에서 적의 저지를 받고 있습니다. 피나 마을은 우리 손에 들어 있지만 전철역 앞에는 적들이 진을 치고 있소. 내일이나 모레쯤 우리는 에브로 하천을 건너 전철역을 쳐서 이곳을 우리 수중에 넣을 계획이오. 그리고 나서 우측 방향을 열어나가 에브로 하천 5 구역을 장악하고 사라고사 장벽 앞에 다다를 것입니다. 벨시테가 항복하면 그 곳은 곧 우리의 후방이 될 것이오. 그런데 당신은…….” 그가 머리로 트루에바 (Trueba) 를 가리켰다. “당신은 아직도 우에스카에 있소?”

“우리는 우측에서 당신들의 공격을 지원하기 위해 우에스카에 대기 중입니다.” 트루에바가 겸손하게 말했다. “분명한 것은 당신의 작전이 신중하게 이루어질 때만 원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루티가 침묵을 지켰다. 잠시 뒤 화가 난 투로 말했다. “돕든 말든 마음대로 하시오! 사라고사에 대한 공격, 그것은 군사적 전략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 투쟁적인 면에서도 내가 계획한 작전이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질 것이오. 당신이 우리에게 1 천 명정도 중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사라고사의 승리를 당신과 반반으로 나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라고사는 자유 공산주의 가지 배하든지 아니면 파쇼 가지 배할 것이오. 그러니 사라고사는 내게 맡기고 당신은 전스페인이나 생각하시오!”

그는 곧 조용해지더니 마다시 우리와 악의 없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우리가 악의를 갖고 그를 찾아온 것은 아니나 그의 빈정 거림에 대해서는 우리도 빈정 거림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여기서는 모두가 평등했지만 아무도 감히 그와 논쟁을 벌이려고 하지는 않았다.) 그는 국제 정세뿐만 아니라 스페인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과 전략, 전술적인 일들에 대해서 매우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는 우리 가려시아 혁명에서 어떤 정치적 활동을 했는지 내게 물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원정대의 무장은 잘 갖추어져 있고 실탄도 많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했다. 다만 일을 이끌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고백했다. ‘테크니코 Técnico’는 그 저조언자 역할만 하면 되고 모든 일은 자신이 결정하고 싶다고 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그는 거의 매일 무번 씩 연설을 하여 지침대로 지쳐 있다고 했다. 교육은 매우 더디게 진척되고, 민병대는 경험도 없으면서도 군사 교육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고백했다. 탈영이 늘고 있어 제대원은 1천 2백 명정도 뿐이라고 했다.

책변경의 동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 혁명을 승리로 이끌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전쟁에 희생되었다. 결국 우리는 전쟁의 목적마저 희생시켰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전쟁에 혁명을 희생시켜버렸던 것이다. …… 그 때문에 민병대 위원회는 카탈루냐의 자율권, 전쟁의 합법성과 참된 스페인의 부활을 담보물로 바쳤던셈이다. 언론은 우리에게 칠 줄 모르고 정부의 이데올로기를 반복주입하였다. ‘여러분이 인민통치자체를 지지하기 위해 계속 활동하는 한 우리는 카탈루냐로 어떤 무기도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외국 무기를 구입할 수 있는 어떤 외국 환도 발행해 주지 않을 것이다. 산업 원자재도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민병대 위원회를 해체하고 평의회 정부의 내각에 들어갔던 것이다. 우리는 방위 내무 위와 또 다른 중요 한장 관직을 맡았다. 그것은 전쟁에 패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였다.”

호세페이라츠 1

산티안은 스페인 아나키스트들 가운데 소수의 지식인의 한 사람이었다. 그는 마드리드에서 철학을, 베를린에서 의학을 공부하였다. 공화국 시절 그는 다섯 번이나 체포되었고 긴 세월을 감옥에서 보냈다.

“내가 투쟁에 가담하여 그 결과를 두고 싸워야 했던 것이 내 인생의 비극이지요. 나는 언제나 평화주의자였으니까요.” 그가 말했다.

7월 19일 가두 투쟁 당시 그는 가장 극렬한 선동자 중의 한 사람이었고 민병대의 창단은 상당 부분이 그의 업적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민병대는 자기 임무를 다하였습니다. 따라서 새로 운 혁명적 군대로 변모해야 합니다. 이젠 아나키즘 투쟁이 아니라 단지 전쟁이라는 유일한 방법 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전쟁에서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만, 우리의 원칙에 대해서는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할 겁니다. 아나키즘은 전쟁과 전쟁의 운명을 배제하려고 하지만 그 반대가 되고 말죠. 아나키즘과 전쟁은 모순 관계입니다.”

H. E. 카민스키

8월에 부하랄로스의 두루티 지휘소에서 방송된 라디오 방송에서 ‘우리는 승리 이외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두루티의 선언을 CNT 와 FAI 선전부는 한동안 선전하였다. 아나키스트 민병대는 군대회에 강력히 반대하였지만, 그들의 반대자들은 군사화에 대한 합리성을 선전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하였다. 심지어 그들은 이 위대한 게릴라 투쟁가가 혁명을 전쟁의 제물로 바치려 한다고 선전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엉터리 그 자체였다. 두루티의 성격과 신념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선전이 억지 주장임을 금방 알아차렸다. 그가 전선 부대에도 입한 혁명적 변혁은 그러한 주장과는 오히려 정반대였다.

호세페이라츠 1

“죽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소.” 내가 대꾸했다. “승리로써 증명해야 하오. 소비에트인민들은 진심으로 스페인인민들이 승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산주의자들이나 반파시즘 투쟁가들과 마찬가지로 정말로 아나키스트 노동자들과 그 지도자들이 승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들려싸고 있던 대중들을 들려보며 더 이상 프랑스 말이 아닌 스페인 말로 외쳤다. “여기 이동지는 CNT 와 FAI 의 투쟁가인 우리에게 러시아 프롤레타리아트의 뜨거운 인사와 자본가들에 대한 우리의 승리를 위한 희망을 전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CNT, FAI 만세! 자유 공산주의 만세!” “만세!” 하고 군중들이 따라 외쳤다. 그들의 얼굴 표정이 밝아졌고 훨씬 더 친근해 보였다.

미하일 콜코프

군사 조직화

8 월 1 일, 마드리드 중앙 정부는 1933 년에서 1935 년에 제대한 예비군에게 동원령을 내렸다. 평의회가 이동원령에 동의했다. 그러자 카탈루냐의 중요 정치 세력들은 정부의 발표에 즉각 반발하였다. CNT 는 전통적 방식으로 획일화된 정규군의 조직을 거부하였다. 1 만여 명의 청년과 군인들이 8 월 4 일에 올림피아극장에 모여 결코 군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우리는 민병대에 가입 할 것이다. 우리는 전선으로 달려갈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군부의 영내에 상주하는 군인은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무장인민들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어떤 규율과 명령에도 복종하지 않을 것이다.”

존스 테픈 브라데마

9 월 4 일, 새 정부의 대통령이 된 사회주의자 라르고 카바예로는 외신 기자 회견에서 이렇게 선언하였다. “우선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야 합니다. 혁명에 관해서는 그 후에 언제라도 논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9 월 27 일에 카탈루냐 정부의 개각이 단행되었다. 정부는 여전히 평의회 협의회로 불리었다. 세 명의 아나르코 생디칼리스트가 협의회에 들어갔다. 정부의 선언은 이러했다. “우리는 전쟁에 우리 의 모든 노력을 집중할 것이며, 전쟁을 조속히 승리로 매듭 짓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입니다. 단일 최고 사령부를 조직하고 모든 전투 부대와 협력하여 일반적인 병력의 무를 기초로 한 민병대를 조직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군대의 군기를 강화할 것입니다.”

평의회 협의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반파쇼 민병대 중앙 위원회가 해체되었다. “오늘부터 우리는 더 이상 위원회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평의회를 대표할 것입니다.” 가르시아 올리베르의 선언이었다. 전쟁이 끝난 뒤 산티안은 이러한 정

그는 엉뚱하게 갑자기 우리가 점심을 먹었는지 묻고는 밥 속이 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다. 우리는 민병대의 식량을 축내고 싶지 않다면 점심을 사양했다. 그때 두루티는 마리나 (Marina)에게 식량 배급 표를 하나 주었다.

헤어지면서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잘 있어요, 두루티 선생. 내가 선생을 만나러 다시 사라고 사로 오겠소. 당신이 여기서 패하지 않고, 또 바르셀로나 공산주의자들과의 투쟁에서 패하지 않는다면, 선생은 한 6 년 후면 볼 세비키가 돼 있을 것인가요.”

그가 웃었다. 그리고 이내 그는 넓은 등을 돌리고는 때마침 거기에서 있던 누군가 와 이야기를 하였다.

미하일 콜코프 (Michail Kol'cov)

한전투지원병의 일기

8 월 17 일 월요일

사령부 가능 가로 뚫고 겨감. 농가 앞에는 넓은 옥수수밭이 있다. (군대 이동치고는 우습다!) 오전에 자동차를 타고 피나로 갔다. 젊은 운전병은 약혼녀를 옆에 태우고 있었는데 가던 도중에 내내 서로 키스를 해댔다. 나는 우리 대원들이 학교 운동장을 가로질러 행진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꾸민 이야기 같을 것이다 (애국적인 교과서에 나오는…… 학교에는 병원도 있었다). 18 번지에 있는 한 농가에서 다시 식사를 했다. 나도 총을 지급 받았다. 길이가 짤막한 예쁜 기관총이었다. 오후에 적의 무자비한 폭격이 있었다. 나는 보리스에게 소리쳤다. “소총 소리는 한 방도 듣지 못했어.” (연습 사격하는 소리 외에는 진짜 소총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 또 한 발의 포탄이 떨어졌다. 무시무시한 폭음이었다. “폭격기야!” 우리는 소총을 들었다. 명령이 떨어졌다. 모두 바깥으로 나와 옥수수밭으로 숨으라고 했다. 우리는 엄폐물을 찾았다. 나는 퇴비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사격을 했다. 몇 분이 지난 후 모두 다시 일어섰다. 비행기가 너무 높이 떠 있어서 사격이 미치지 않았다. 절반 이 계속 사격을 가했다. 한 사람은 강수평으로 발사하였다. (그것도 권총 사격이 아니었던가?) 우리는 포탄 한 발을 발견했다. 아주 작았다. 파괴된 지면의 구멍은 지름이 약 50 센티미터 정도였다. 별로 놀랄지 않았다.

태연한 농부들은 들판에 그대로 있었다. 그러나 수는 아까보다 줄어들어 있었다.

루이 베르토믹스 (파견 대원) 가 말했다. “자, 강을 건넙시다.” 문제는 적군의 시체 세구를 화장하는 일이었다. (15 분간 논의 한 끝에) 우리는 거룻배를 타고 갔다. 시체를 찾기 시작했다. 마침내 시체 하나를 찾았다. 파랗게 부풀어 썩어 있었다. 끔찍했다. 불태웠다. 다른 사람들은 계속 나머지 시체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휴식을 취했다. 침투조를 조직하자고 제안했다. 본대는 다른 강가로 돌아가기로 했다.

침투조는 새벽에 파병하기로 결정했다. 엄폐물이라고는 거의 없는 강가로 돌아갔다. 외딴 농가가 보였다. 파스쿠알 (Pascual) 이 (그는 병참 담당원이었는데) 말했다. “침외를 따먹는 게 어떨까?”(아주 진지했다.) 잠복 사이로 계속 걸었다. 덥고 약간 짜증스러웠다. 나는 모두가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갑자기 그 농가를 습격 하는 것이 하나의 수확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흥분되었다. (모든 일 이쓸데 없는 일이라고는 생각지 않았지만 불잡히면 사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두 패로 나누었다. 그 파견 대원과 리델 (Ridel) 그리고 세 명의 독일인이 농가 쪽으로 기어갔다. 우리는 도량에 숨어 있었다. (파견 대원이 뒤에서 휘파람을 불면 그 때 동시에 우리 가 그 집 안으로 뛰어들 기로 했다.) 기다렸다. 가만히 소리를 들었다. …… 매우 긴장된 지루한 시간이 흘렀다. 우리는 동료들이 몸을 숨기지 않은 채 돌아오는 것을 보았다. 조용히 강을 건넜다. 실수하면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이작전의 책임은 파스쿠알이지고 있었다. (카르펜티어 저랄도 우리와 함께 했다.)

우리는 짚더미 속에서 잠을 잤다. (구석에 두 개의 기둥이 있어서 좋은 엄폐물이 되었다.) 위생 병이 불을 끄려고 했다가 동료들에게 욕을 얻어 먹었다. 피나에 머물고 있는 동안 나는 이작전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불안을 느꼈다.

8월 18 일화요일

도강 계획은 늘 번복되었다. 오전이지 날 무렵에서야 한밤중에 강을 건너기로 결정하였다. 우리 대원은 사스타노 (Sastano) 원정대가 도착할 때까지 멀리 간강가의 진지를 지키기로 되어 있었다. 오늘은 준비 작업으로 시간을 보냈다. 가장 마음에 걸리는 일은 기관총 문제였다. 피나 병참 담당관은 우리에게 무기의 제공을 거절했다. 애쓴 끝에 간신히 ‘흑인단’을 이끌었던 이탈리아 대령의 도움으로 겨우 한정을 얻을 수 있었다. 결국에 가서는 한정을 더 얻어 냈다. 시험 사격을 해보지는 않았다.

침투조를 처음 구상한 사람은 대령이었지만 우리 침투조를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은 병참부였다. 물론 침투조는 자원 병으로 구성되었다. 저녁 전여섯 시에 베르토 믹스가 우리를 불러 모아 놓고 의견을 물었다.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생각을 말해보라고 했다. 우리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마침내 리델이 말했다. “도대체 왜 그 래요? 우리 모두는 이 일에 동의 했는데 뭘 또 묻는 겁니까?” 이 말이 전부였다. 우리는 잠자리에 들었다. 위생 병이 불을 끄려고 했다. …… 나는 옷을 입은 채로 잠자리에 들었다. 눈을 붙일 수가 없었다. 새벽 두 시 반에 일어났다. 배낭이 이미 꾸려져 있었다. 안경을 못 찾았어 당황했다. 가져갈 짐이 분배되었다. (나는지도와 식사 도구를 분배 받았다.) 명령이 하달되었다.

기도비 닉을 유지한 행군이었다. 약간 흥분되었다. 두 번째도 강이었다. 루이 가힘을 복돋았다. 강을 건넜다. 그리고 기다렸다. 아침이 뿌옇게 밝아왔다. 독일인 이우리를 위해 수프를 끓이기로 했다. 루이가 움막을 찾았다. 짐을 거기에 내려놓게 했다. 나는 식사 준비를 위해 경계 병에서 제외되었다. 사주 경계 병이 경계를 섰다. 나는 남아서 수프가 끓는 것을 지켜보았다. 움막을 정돈하고 야전 식사를 준비하였다. 노출되지 않도록 창문을 가렸다.

하랄로스마을 위원회를 해체하였습니다. 그 위원회는 투쟁을 지지하지 않고 해방의 길을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거기에도 독재 냄새가 나는 것 같군요.” 내가 말했다.

“시민 전쟁에서 우연히 적이 침투된 인민 조직체를 볼 세비키가 해체했을 때, 사람들은 볼 세비키를 독재라고 비난했지요. 그러나 우리는 해방이라는 일반적인 단어를 내세우며 변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부정한 것 이 아니라 오히려 언제나 공공연하게 선전했던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원정대에는 사령관도 없고 군기도 복종도 없다면, 당신의 원정대는 도대체 어떤 군대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심각한 투쟁을 생각지 않거나, 아니면 당신의 원정대에도 복종이라는 군기가 있으면서 이를 만달리 붙이고 있는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조직화된 무규율만 있을 뿐이오. 누구나 자기 자신과 전체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겁자와 탈영병 그리고 약탈자는 총살 감입니다. 위원회가 그들을 재판합니다.”

“그것도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군요. 저 자동차는 누가 탑니까?” 모든 사람들이 내가 가리키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국도의 넓은 도로 위에 대략 15 대 정도의 넓은 고물 자동차가 서 있었다. 포드와 아들러 회사의 짜그러진 자동차였다. 그 자동차들 가운데 고급 가죽 시트가 내장된 빛승용차가 한대 있었다. 그것은 스페인-스위스 합작 회사의 고급 승용차였다.

“저 건내세요.” 두루티가 말했다. “모든 전선으로 신속히 달려가기 위해서 잘나가는 승용차가 한대 필요해서 구ห했던 거지요.”

“물론 그렇겠지요.” 내가 대꾸했다. “가능하다면 사령관은 좀 더 멋진 승용차를 타야 할 겁니다. 단순히 어떤 사병이 저런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면 우스운 꼴이겠지만, 당신 같은 사람이 걸어다닌다거나 고물 포드 차로 고역을 치러야 한다면 그것도 우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밖에도 나는 당신의 명령 문들을 보았습니다. 부하랄로스의 모든 거리가 당신의 명령으로 판을 치더군요. 모두 이런 말로 시작했습니다. ‘두루티가 명령했다…….’”

“예, 누구라도 그렇게 명령했을 겁니다.” 두루티가 웃으면서 말했다. “그것은 그 저자발적인 전술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내가 대중들에게 얻고 있는 일종의 권위의 표현이지요. 물론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이런 말이 마음에 들지 않겠지만요…….” 그는 내내 뒤에서 있는 트루에 바에게 시선을 보냈다.

“공산주의자들도 결코 개인의 인격이나 개인적인 권위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권위가 결코 대중 운동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며, 때때로그 것이 대중을 단합시키기 조차 하여 대중의 힘을 강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사령관입니다. 단순한 일개 사병 역할을 그만하십시오.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원정대의 투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죽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두루티가 말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아나키즘이 어떤 것이며, 이베리아 아나키스트들이 어떤 사람인지 러시아와 세계 만방에 보여줄 것이오.”

부하랄로스거리는온통흑·적색깃발의물결이었다. 걸음을걸을때마다두루티의사인이찍혀있는현수막이나플래카드가눈에들어왔다. ‘두루티가명령하였다…….’시장의광장은‘두루티광장’으로불렸다. 두루티와그의참모부는적으로부터2킬로미터떨어진국도거리감시초소에다지휘소를설치하였다. 아주위험한처지였지만그곳의모든사람들은용기를실천하고싶어물불을가리지않는열병에사로잡혀있는것처럼보였다. ‘죽음아니면승리를!', ‘죽기를각오하고사라고사를점령하리라!', ‘세계의명예를얻고죽으리라!'이러한구호는깃발과플래카드, 팸플릿어디에서나볼수있었다.

이유명한아나키스트는처음부터널리알려져있었지만, 올리베르의편지에서모스크바「프라우다」지의기사를읽은후부터더욱관심을끌기시작했다. 그는「프라우다」지의기사를읽은후즉시국도위의민병대를순시하면서그들의관심을사로잡을의도로열변을토하기시작하였다. 그의어투는극히침통하였지만환상적일만큼열정적이었다.

“우리는우리들가운데단1백명만살아남더라도사라고사로진군하여파쇼들을섬멸하고, 아나르코생디칼리슴의깃발을내걸고자유공산주의를선포할것입니다. 내가제일먼저사라고사로진입하여자유공산당을선포할것이오. 우리는마드리드정부에도바르셀로나정부에도결코굴복하지않을것입니다. 그들이평화를원한다면, 그들과의관계를유지할것이지만원하지않는다면마드리드로진군할것입니다……. 우리는당신들러시아와스페인볼셰비키들에게우리가결국혁명을완성시키는것을확인시켜줄것입니다. 당신들에게는독재자가있고, 당신들의적색군에는연대장과장군들이있습니다. 그러나나의원정대에는사령관도부하도없습니다. 우리모두는똑같은권리를가지고있으며, 우리는모두병사들입니다. 나도한사람의병사일뿐입니다.”

그는아마포로만든청색외투를걸치고흑·적색천으로만든모자를쓰고있었다. 키가크고건장했다. 새치가드문드문보였다. 두루티는그의주변을압도할만큼건강했지만눈빛은지나칠정도로감성적이어서거의여성적인분위기마저감돌았다. 가끔그는치명상을입은동물의눈빛을발하고는했다. 그것때문에나는그의의지력이약한것이아닌가의심하기도했다.

“아무도의무감때문에혹은군기때문에우리원정대에봉사하지는않습니다. 우리가여기모인것은해방투쟁을원하고, 해방을위해서죽음까지각오했기때문입니다. 어제두민병대원이가족을방문하고싶다며바르셀로나로휴가를보내줄것을요청하였습니다. 나는그들의무기를인수하고그들을쫓아냈습니다. 그런사람은내게필요가없습니다. 그때한명이생각을고쳐먹고다시남고싶다고했지요. 그러나나는그를다시받아들이지않았습니다. 앞으로도나는모든사람을이렇게대할것입니다. 비록12명만남더라도말이죠! 혁명군은그런식으로는조직될수없는겁니다. 주민들은우리를도울의무가있어요. 우리는모든독재자와끝까지투쟁할것입니다. 모두의해방을위해서! 우리를돕지않는사람을우리는타도할것입니다. 우리는우리해방의길을가로막는자는누구라도타도할것이오! 어제나는부

그사이에다른대원들은이전에봐두었던그농가로갔다. 거기에는한가족이살고있었다. 그중에열일곱살정도되어보이는청년도있었다. (잘된일이아닌가!) 정보를얻었다. 우리는이미정찰대에게발각되었고, 강가는감시를받고있다고했다. 우리가강을건넜을때, 정찰후발대가우리를발견하고사령부로철수했다는것이다. 여기는1백12명정도의군인들이있으며, 그중대장이우리를당장덮칠것이라고청년은확신했다. 그들은다시돌아올것이라고했다. 나는독일출신의대원들에게이정보에대하여독일어로설명해주었다. 그들이물었다.“뭐라구요, 그러면다시강을건너복귀하는것입니까?”“아니오, 우리는남아있을것입니다.”(차라리피나에서미리두루티에게전화로통보했더라면좋았을것이아닌가?)

명령이내려졌다. 농부가족들을모두데리고철수한다는것이었다. (그때우리의식사를맡았던독일인이소금도없고기름도채소도없다고혼잣말로투덜거렸다.) 베트로믹스가화난목소리로(다시농가로뛰어드는것이위험해서인지) 침투조모두를불러모았다. 그가말했다.“자네는부엌에가있게!”나는감히항의하지못했다. 그의모든계획이나한테는별로마음에들지않았다. 그들이농가를향해다시떠났을때나는불안한심정으로그들뒤를멍하니바라보고있었다. (따지고보면내가있는이곳도그들의상황만큼이나위험했다.)

우리는총을들고대기하였다. 그때독일인이리델과카르펜티어가보초를서고있는(그들은다시경계를서고있었다) 나무아래작은참호라도있는지찾아보자고제안했다. 우리는무기를들고(장전은하지않은채) 그늘속에누웠다. 다시기다렸다. 가끔독일인이한숨을내쉬었다. 그는분명겁을먹고있었다. 나는그렇지않았다. 내주위의이모든것들은질기게존재하고있다. 포로가없는전쟁이었다. 적에게적발되면사살되었다.

동료들이돌아왔다. 농부와그의아들그리고그청년이. 폰타나가주먹을하늘로뻗으며인사하면서청년들을응시했다. 그들도인사를했다. 농부의아들은마지못해서인사를하는것같았다. 무서운강요라니……. 농부는다시돌아갔다. 그는나머지식구들을데려오고싶어했다. 우리는다시앉았다. 정찰기가날아왔다. 우리는은폐물속으로몸을숨겼다. 루이가섣부른행동은하지말라고주의를주었다. 나는등을땅에대고누워나뭇잎과푸른하늘을쳐다보았다. 화창한날이었다. 적이나를급습하여붙잡는다면나를죽이겠지…… 그들에게도이유는있어. 우리쪽에서너무많은피를흘리게했어. 나는그들의공범자이고, 도덕적으로도마찬가지야. 완전히조용해졌다. 우리가일어섰다. 그때또다시정찰기가나타났다. 나는움막속으로뛰어들었다. 폭탄이떨어졌다. 나는움막에서나와기관총이있는곳으로달려가려했다. 루이가말했다.“겁먹지마라!”그는어깨에총을메고독일인과나를부엌쪽으로밀어넣었다. 기다렸다.

마침내농부가식구들을데리고돌아왔다. (딸셋과여덟살배기아들하나) 모두가겁에질려있었다. (심한폭격때문에) 그들은우리에게도겁을집어먹고있었다. 한참이지나고서야우리를약간믿는것같았다. 그들은뜰에남기고온가축을걱정

했다. (우리가 나중에 피나로 가축을 보내주겠다고 위로 했다.) 분명 그들은 정치적으로 우리 편이 아니었다.

시몬느베일 (Simone Weil)

여러 가지 잡일

한번은 민병대원들이 당시 사라고사에서 상당히 높은 관직을 맡은 적이 있었던 사람을 우리에게 끌고 왔다. 그의 이름을 밝히고 싶진 않다. 그는 총살될 뻔 했다. 두루티가 감시병들을 불러 물었다. “그 사람이 자신의 농장에서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 가능민들을 어떻게 다루었는가?” 감시병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셈인가? 그 저전에 부자였다는 걸로 해서 우리가 그를 죽여야만 하는가? 그건 바보 같은 짓이야.” 그 사람을 내게 넘겨주면서 말했다. “이사람, 이마을 초등학교 선생으로 삼아 적당한 일을 할 수 있게 자네가 신경 좀 쓰게.”

예수스아르날페나 1

8월 어느 날 오후에 레리다에서 사라고사로 가는 길목에 자리를 잡았던 두루티의 지휘소를 바르셀로나의 여배우들이 방문했다. 그들은 민병대를 위해 위문 공연의 밤을 마련하고 싶다고 했다. 두루티의 부인도 그들을 따라왔다. 두루티는 그야가 씨들을 바르셀로나로 돌려보냈다. 그가 부인에게 말했다. “여긴 할 일이 많소. 우선 전쟁에서 이겨야 할 것 아니오. 다른 대원들도 그들의 부인과 함께 할 여유가 있을 때 당신도 오시오. 지금은 그럴 수가 없소.”

라몬 가르시아로페스

우에스카시를 포위하는 동안 두루티는 소형 브레게 정찰기를 타고 도시를 비행하였다. 휴일이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막 나오고 있었다. 적색 악마로 불리었던 조종사에르기도 (Erguido) 소위가 두루티에게 수류탄 몇 발을 투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두루티는 일반 시민에게 폭탄을 투하해서는 안 된다면서 거절했다.

예수스아르날페나 3

8월에 보급 계의 차가 두루티의 참모부에 들려 포도주 한 통을 내려놓았다. 두루티가 들에서 있었는데 포도주 통을 보고 말했다. “자네들이 전선의 대원들을 위해서 포도주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면 참모부도 그것을 마실 수가 없네.” 그는 권총을 뽑아 그 통을 박살 냈다. 포도주가 길바닥 위로 전부 쏟아졌다.

오늘 서구에서는 새로운 혁명이 탄생하여 우리 모두의 상징인 깃발이다시 펼려 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한쪽은 차르 왕정에 의해서, 또 다른 한쪽은 독재 군주에 의해서 억압받았던 우리 양쪽의 인민은 형제애로 뭉쳤습니다. 우리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노동자들인 여러분이 우리 혁명을 지지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자칭 반파시스트들이 요민 주주의 자들이라고 일컫는 정치가들을 우리는 결코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우리 노동자 형제들만 믿을 뿐입니다. 우리는 20년 전에 러시아 혁명을 지지했던 것처럼 오직 노동자들만이 스페인 혁명을 옹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믿어도 좋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과 같은 노동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아래에서도 우리의 원칙을 기만하지 않을 것이며, 프롤레타리아트의 상징인 우리의 작업 도구, 망치와 낫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손에 무기를 들고 아라곤 전선에서 파시즘과 투쟁하는 모든 동지들을 대신하여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동지부에나 벤투라 두루티로부터. 1936년 10월 22일, 오세라에서.

부에나벤투라 두루티 3

러시아 노동자들에게 고함

우리의 생각과 우리 사상을 지지하는 수많은 국제 혁명가들이 러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들은 독방과 정치 범수 용소 그리고 형무소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많은 동지들이 여기 최전선에서 공동의 적과 싸우기 위해 스페인으로의 출정을 허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제 프롤레타리아트는 그런 동지들이 구속되어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러시아 가스페인으로 보내려 했던 중원군과 무기가 어째서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 거래는 스페인 혁명가들로 하여금 행동의 자유를 포기하게 만들 뿐입니다.

스페인 혁명은 러시아 혁명과는 다른 길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페인 혁명은 ‘한당에 권력을, 다른 모든 당은 감옥으로’라는 구호에 따라서 진행되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통일 전선을 기만하지 않고 거기에 실제로 유용할 가지 구호로 승리를 쟁취할 것입니다. 즉 ‘모든 분파들은 노동을, 공동의 적과는 투쟁을! 어느 체제가 더 바람직한지는 인민이 택할 것이다!’

부에나벤투라 두루티 5

1936년 8월 14일

남자대원들이 있었다. 그는 아나키즘의 한 장군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그는 장군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가 우리에게 말했다. “내가 평생 동안 아나키스트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대원들에게 봉동이를 들어 군기를 강요해야 할 것 같소? 나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쟁에서는 군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은 나도 알지만, 그 군기라는 것도 우리가 투쟁하고 있는 목적에서 나오는 정신적 군기여야 합니다.” 이점에서 그는 세상의 어떤 장군과도 달랐다. 그는 대원들과 함께 생활했다. 같은 짚더미 위에서 잤고, 대원들과 마찬가지로 삼으로 만든 신발을 신고 다녔다. 그리고 먹는 음식도 똑같았다. 그의 대원들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우리들 가운데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사관학교 출신의 사단장들은 군기가 없다면 사단을 지휘 통솔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루티는 직업 장교가 아니라 바로 기술공이었지요.”

아우구스틴조우취 1

두루티의 원정대에 소속된 젊은 민병대 가운데 몇 명이 바르셀로나로 돌아가고 싶어 원정대를 탈영했다. 도중에 그들은 두루티를 만났다. 두루티는 차를 세우고 내려서 권총을 뽑아들고 그들에게 걸어갔다. 그는 그들에게 벽을 향해서 계했다. 그때 마침 옆에서 있던 다른 한 민병대원이 두루티에게 그들의 구두를 한켤레 달라고 부탁했다. “자네 눈으로 보게, 저들이 어떤 구두를 신고 있는지.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골라보게. 그들과 함께 썩도록 신발 까지 땅에 묻을 필요야 있겠는가?”

물론 두루티는 탈영 병들을 실제로 사살하지는 않았다. 그 가늘 하던 대로 말했다. “아무도 여기 강제로 남아 있게 하지는 않겠네. 겁이나면 가고 싶은 대로 가게.” 그러나 그의 말은 너무도 단호하고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에 집으로 가고 싶어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남아 있게 해달라고 간청할 정도였다.

「자유스페인誌」

소비에트적 선례: 두 개의 양식으로 된 한 통의 편지

발신: CNT-FAI, 반파쇼민병대, 두루티원정대의 지휘소.

수신: 소비에트연방프롤레타리아트

동지 여러분, 나는 수세기 동안 악법 받고 멸시 받았던 우리 계급의 해방을 위해서 20년 전에 투쟁하였던 동지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수천 명의 귀하의 형제들에게 아라곤 전선 형제들의 안부를 전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20년 전 러시아 노동자들은 노동자 국제동맹의 상징인 적색 깃발을 동구에 휘날렸습니다. 당시 여러분은 국제 노동자 계급에 희망을 걸고 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시작한 위대한 계획에도 움이 되리라고 기대했지요. 세계 노동자들은 여러분들을 배신하지 않고 힘이 닿는 대로 여러분을 도왔습니다.

라몬 가르시아 로페스

원정대에게 또 하나의 골칫거리는 아나르코 생디칼리스트들을 뒤쫓아 아라곤 전선까지 따라온 바르셀로나 창녀들의 문제였다. 성병은 적의 실탄에 의한 손실보다 더 큰 손실을 입혔다. 결국 두루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하랄로스에다 애전 병원을 설치하게 했다. 그는 온갖 자질구레한 일까지 신경을 써야 했다. 나는 그가 휴가 차 바르셀로나로 가는 민병대원들에게 콘돔도 함께 가져가도록 지시한 사실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결국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원정대 주변을 힐끔거리며 돌아다니는 여자들을 당장 해산 시켜야 겠네.”

“기막힌 생각입니다, 지도관님. 그런데 어떻게?”

“수송부에 연락해서 자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만큼 트럭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게. 각 대마다 트럭을 타고 돌면서 주변에 있는 아가씨들을 몽땅 차에 태우게. 한 명도 남기지 말고! 그리고 나서 그들을 사리예나로 수송하게. 거기서 아가씨들을 기차에 옮겨 바르셀로나에 가서 내려놓도록 하게.”

“아, 지도관님은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계셨군요. 그런데이런 일을 맡길 사람은 저 헤수스 말고는 다른 사람이 없는 모양이지요. 아마지도관님은 내가 수송 도중에 그 아가씨들에게 십계명 가운데 제 6 계명에 관해서 짤막한 설교라도 해주었으면 하고 생각하시지요?”

“그런 것은 바라지 않네. 그저 골치를 썩이는 여자들을 데려가기만 바랄 뿐이야.”

그것은 명령이었다. 나는 달리 할 수가 없었다. 물론 고집 부린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었다. 그런데 그 문제의 여자들은 얼마나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대주변을 서성거릴 것이 뻔했다. 틀림없이 그 여자들은 전에 내가 바르셀로나로 태워 갔던 바로그 여자들일 것이다.

헤수스 아르날페나 1

또 다른 면

여러 나라 출신으로 구성된 스물 두 명의 소국 제군단이 아라곤에서 가벼운 전투 끝에 파시스트였던 열다섯 살 배기 소년을 체포해왔다. 그는 계속 떨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의 옆에서 동료들이 죽어간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1 차 심문에서 그는 프랑코를 절대적으로 추종한다고 고백했다. 그는 철저히 조사를 받았다. 그에게서 기적의 패¹와 파시스트 단원증을 찾아냈다. 그는 두루티에게로 끌려왔다. 두루티는

¹ 로마가톨릭에서 사용하는 성모 마리아가 그려진 메달. 1830년 파리에서 성녀 카타리나 브레수녀에게 성모 마리아가 발현한 뒤 제작하라고 명했다고 한다. 로마가톨릭에서는 준성 사성 물로 취급하여 사용한다 — 편집자 주

한시간동안아나키즘이념의좋은점을설명한후, 죽음을선택하든지아니면민병대에투항하여그의이전동료들과싸울것인지선택하라고말했다. 그소년에게 24시간동안생각할시간을주었다. 소년은투항을거부하여결국총살당했다. 두루티는여러면에서존경을살만한인물이었다. 그는그소년의죽음을내내마음에두고괴로워했던걸로알고있다.

또다른일도있었다. 적군과백군이서로정복하였다가빼앗기고정복하였다가는다시빼앗기는차열한공방전이벌어졌던마을이하나있었다. 결국그마을이적군의손에넘어왔을때, 적군민병대는두려움과겁에질려창백한모습을한사람들로가득한지하실을발견했다. 그중에는소년들도서너명보였다. 민병대원들이그들을두고곰곰이생각하였다. 그소년단은우리가마지막으로후퇴했을당시우리를뒤따라오지않고파시스트들이도착하기를기다렸던것으로보아파시스트단원이었던것이분명했다. 그점은그들을당장사살하기에충분한근거가되었다. 다른사람들에게는민병대가먹을것을주었다. 그때민병대는그들을매우인간적으로다루었다.

마지막이야기는후방에서일어난사건이다. 두명의아나키스트가내게들려준이야기다. 그들이목사두명을체포했다고했다. 목사한명은다른목사가지켜보는 가운데권총으로사살했고, 남은한명에게는도망가고싶은대로도망가라고말한후에그가한스무발자국쯤도망쳤을때총살했다고자랑삼아이야기를늘어놓았다. 내가그이야기를듣고재미있게웃지않는다고그들은나를오히려이상하게여겼다.

매일그런일이터지곤했던당시의분위기에서진정한투쟁의목적은상실되고말았다. 왜냐하면그투쟁의목적이전체의행복, 인간의행복을보장하지않는일이라면논의할가치가없기때문이다. 그런데스페인에서인간의삶이란아무런가치가없는것이었다. 농민들대부분이찌들고가난한생활을하고있는지방에서형성된모든극좌파조직의본질적목적은농민들삶의질개선에있었다. 그것은분명했다. 그리고처음부터내전은토지분배에대한농민들의지지에서비롯된전쟁이었다. 그런데무슨일이일어났던가? 진저리나게가난하여온갖굴욕을당하면서도자신들의자부심을지켜왔던아라곤의농민들은결단코도시출신의민병대에게호기심의대상일수는없는일이었다. 만일민병대가무례한행동과지나친간섭, 모욕적인언사만하지않았더라면,— 아무튼나는그런일이일어나는것을직접보지못했고, 그리고아나키스트원정대가강도행각과폭력을저지르는경우사형을받는다는걸로알고있었다— 비무장농촌주민들은그들이겪고있는빈부의격차만큼이나군부로부터멀어졌을것이다. 가난한사람들에게서는언제나겸손하고종속적이며두려움에찬태도를, 부자들에게서는뻔뻔스럽고우월적이며거만한태도를명확히볼수있었다.

시몬느베일

1936년 9월의아라곤전선은진지사수전으로굳어졌다. 그덕분에아나키스트원정대는한숨을돌릴여유가생겼다. 마드리드중앙정부의개입이없었기때문

로도충분했다. 그것은사회주의UGT의경우에도마찬가지였다. 두단체모두에게부족했던것은무기였다.

공산당의경우에는사정이달랐다. 스페인공산당의경우, 그기반이약했기때문에원정대라고는두서너개밖에없었다. 그래서그들은외국공산당의힘을빌려자신들의투쟁부대의힘을강화시켜영향력을확보하려는데관심을두었다.

7월 19일이후 3개월동안아나르코생디칼리스트들이카탈루냐전지역을장악하였고, 카탈루냐—프랑스국경선은FAI가지키고있었다. FAI대원들은외국의동지들을받아들였고, 수많은공산주의자들도국경선을통과시킬생각이었다. 반파쇼민병대의조직가는아나키스트가르시아올리베르였다. 그는나중에라르고카바예로정권에들어가법무장관이되었다. 올리베르는외국에서들어오는자원병을차단하기위해국경선을완전히폐쇄하라고명령했다.

아우구스틴조우취 2

군기

민병대에게는강요와엄격한군기같은것이거의불필요했다. 누구나무엇을위해투쟁하고있는지알고있었다. 노동자들과농민들은자신들의투쟁이알지도못하는막연한적에대한제국주의전쟁이아니라자신들이잘알고증오하는부르주아지적에대한싸움이라는사실을알고있었다. 뿐만아니라그들은파시스트들이부상당한동지들이나포로들을관대히다루지않는다는사실을알고있기때문에항복이나타협의가능성이전혀없다고생각하였다. 내전에서이런정치적민병대에게중요한것은추상적인명예를얻는다거나지방을점령하는것도아니며, 식민지나제국주의의무역로를확보하는것도아니었다. 그들에게중요한것은각개인의신체와생명의자유였다.

적은군부와파시즘의조직원들과자본가들이었다. 그들은자비를고려할가치조차없었다. 반면에포로로잡힌그들의용병대는용서를받았다. 그것은그들이잘못이용되었고, 강요를받은것이고려되었기때문이다. 실제로강제는있었다. 적들의장교들과팔랑헤당원들이병사들뒤에서권총으로돌격을강요했던것은흔한일이었다. 그러나그럼에도적의병사들가운데는민병대에들어와서투쟁하고싶은열망에서투항하고탈영하는자들도있었다. 따라서최전선에서적을교란하는데에는선전이엄청나게큰역할을하였다. 내전에는자체의법칙이있었다.

H. E. 카민스키

가을에나는미국의여성아나키스트로유명한골드만부인과함께바르셀로나를출발하여두루티가있는전선으로갔다. 당시그의휘하에는대략 9천명정도의

무장프롤레타리아트가이전의파업과집회에서신뢰했던정치집단들 가운데 여전히신뢰성을발휘하고있던정치집단의간부들이장교(인솔자를군사용어로 말한다면)로서활동하였다. 물론그들도제대로된전투훈련을받지않았다. 그들에게서는전술의초보단계도기대할수없었다. 민병대가호를파고철조망을설치하는기술과폭탄을장착하는방법, 엄폐물을적절하게찾는일따위는전쟁을치르는과정에서습득하였다. 그들을교육시킨사람들은세계대전의경험이있던외국 혁명가들이었다. 세계혁명을지원하고파시즘과투쟁을벌이기위해서스페인을 찾는외국혁명가들의수가점차늘어났다.

처음에는전투작전이나전략같은것이거의없었다. 노동자들은오직가두투쟁과바리케이드투쟁에만의존했다. 시간이지나면서그들은돌을쌓은바리케이드로는현대식무기를방어할수없다는사실을깨닫게되었다. 이사실은그들이한지 역을방어할때, 특히그곳이자신들의마을일때절실히깨달았다. 그들은그때까지 만해도전투경험이부족해서투쟁의위치를이동시키는전술을알지못했던것이다.

작전지휘소, 참모부, 통신망도갖추어져있지않았다. 모든원정대는자체병참부를관리하였다. 그들은실탄이나보급품이필요할경우대표자몇명을바르셀로나로파견하여보급을받게하였다.

전투대원들은전투에서지켜야할너무나간단한원칙조차어기기일쑤였다. 그들은야간기습때혁명구호를외치는가하면, 대포를최전방의보병공격선에배치하기도하였다. 그리고종종예상치못한사태가벌어지기도하였다. 한민병대원이나에게설명하기를, 한번은단위부대원전체가점심을먹은후에포도를따먹기위해포도원에갔다오니진지가이미적의손에들어가있더라는것이었다. 그러나어쨌든자원병으로구성된민병대는스페인전체의정규군으로구성되어있다고해도 과언이아닐파쇼의정예군을막아내면서아라곤의절반을점령하였다.

H. E. 카민스키

8월초에프랑스에서첫지원병들이도착했다. 그들은프랑스와이탈리아아나 키스트들이었다. 그들은국제반파시즘투쟁에가담하기위하여피레네산맥을넘어바르셀로나에들어왔던것이다. 그들은스페인통일전선에가입하여아라곤전선에서투쟁하였다. 이어서이탈리아의여러반파시스트운동가들이스페인아나키즘, 사회주의, 노조연합, 자유주의의공동노선을지원하였다. 이탈리아자원병들은가리발디여단을조직하고있었다. 이여단의투쟁임무는우에스카지방을점령하는것이었다. 수많은이탈리아아나키스트들과자유사회주의자들이투쟁에서목숨을잃었다. 1936년9월에국제적투쟁가들로구성된‘사코-반세티’가조직되었다. 이원정대는두루티의부대와연대투쟁하였다. 이국제민병대의조직원수는3천명을넘어선것으로알려지고있다. 외국에서는그들에관해서거의알지 못했다. 그들은공산주의자들에의해조직된국제여단의지시를받지않았다.

그러나아나르코생디칼리스트들은외국투쟁가들을국내로끌어들이는일에 관심을두지않았다. 그들에게부족했던것은인원이아니었다. 인원은노조원만으

에원정대는그런대로무장을갖출수있었다. 그들은보급품을스스로조달하였다. 어려움이없었던것은아니지만원정대는카탈루냐노조들과항상연락을취하고있었다. 지금도독자적으로해결했다. 그들은이런방법으로생필품을마련했다. 곡식이수확되면마을위원회에소속되어있던우리보급계가현지의유통가격으로밀을구입했다. 우리는트럭에밀가마니를실어발렌시아의해안지방으로가져갔다. 그곳은밀의가격이좋아이득이남았다. 그곳에서과일과채소를사서돌아왔으며, 남은돈으로또밀을구입하기에충분했다.

이렇게하여원정대는참호전에꼭필요한것들을준비하였다. 생필품과목재, 의복과담배였다. 전선은매우조용했다. 폭탄공격이증가하고있는후방보다더조용했다. 많은민병대원들은전투를마치오락으로여기는것같았다. 그들은가끔진지를떠나이삼일정도후방에가기도했다. 물론두루티의원정대에서는그런일이거의없었다. 우리지도자는원정대를완전히장악하는데에항상신경을쓰고있었다.

후방으로가는도중에민병대원들은언제나레리다시를통과했다. 그들은그곳의가게와잡화점에들러가지고싶었던모든것을‘징수하기’시작했다. 말이‘징수한다’는것이었지그것은약탈이나다를것이없는비합법적형식이었을뿐이다. 시당국은그저무기력하게지켜보기만했다. 이런징수행위때문에레리다에서는누구도더이상안전할수없다는분위기가점차고조되었다. 민병대의그런행동은전염병처럼확산되었다. 물건을빼앗긴사람들이마침내손에무기를들기시작했다. 자신의방식대로그런행동을일삼는완전‘통제불가능한’그룹들이형성되었다. 레리다에는온갖조직들이난무하였다. CNT, UGT, POUM과가두검문소반원들과같은단체들은도시약탈의허가증과다를것이없는어음서에다사인을해준셈이었다. 두루티의원정대는그런행위와는전혀무관하였는데도, 발행된어음서마다 두루티원정대의이름이적혀있었던것이다. 두루티는그런‘징수증’에사인을한적이없으며, 그런명령은내리지도않았다.

결국그는더이상이런작태를보고있을수가없었다. 그가나를불렀다.“이런강도짓때문에원정대가욕을먹는것이라네. 당장이런짓거리를중단시켜야하네. 자네가원정대의대표자자격으로레리다로가서질서를잡게. 내가이사건의전말을잘알고있는보급부장두명을자네에게딸려보내겠네. 매일저녁전화로내게보고하게.”“잘알겠습니다.”내가대답했다.“그런데왜하필이면제가가야합니까? 제가가는것은정말불가능합니다. 레리다에는나를아는사람이너무많습니다. 만일옛날의목사가강제징수행위를중지시키려고한다는소문이나면그들은주저하지 않고내머리에이삼인치총알을박을것이뻔합니다.”“그렇다면호위병들을동반시켜주겠네.”두루티가말했다.“나의전대대의이름을건내위임장을가지고가게.”

그래서나는보급부장두명과호위병두명을데리고레리다시로갔다. 그들은각자자동소총과권총을휴대하였다. 우리는‘스위스호텔’에본부를정했다. 우선나는카탈루냐평의회파견대표자들과회담을했다. 그들은가능한모든지원을아끼지않겠다고약속했다. 그들의사무실은암류당한물건의‘영수증’으로가득했다.

상인들과 상점주인들은 막연한 희망에서 이기는 하지만 언젠가 그들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영수증 가운데는 이상한 것들이 많았다. 한 예로 어떤 영수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여러 가지 사유상 많은 립스틱이 필요함. 파르레트 기병과 용.” 사인은 알아볼 수가 없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영수증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명부를 작성하여 영수증을 발급한 여려 소재지를 방문했다. 이미 징수 목록에 올라가 있는 물건들 중에는 아직 쓸 만한 것이 좀 남아 있었다. 우리는 전선에서 필요할 성분은 것은 비축 물로 쓰기 위해 원정대가 있는 전선으로 보냈다. 그리고 어음 발행인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전했다.

“두루티의 원정대는 그의 이름으로 자행된 이 범행을 앞으로는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경고라는 것을 명심하시오. 만일 징수 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대대를 이끌고 레리다로 올 것이오. 그 때는 훔친 물건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도둑을 색출할 것이오. 원정대가 재판할 것입니다.”

나는 범행자들 가운데 특히 한 명을 철저히 찾았던 것이다. 그는 보급 문제를 위해 우리 원정대가 파견했던 사람이었다. 그는 제멋대로 행동했던 것이다. 담뱃가게에서 비싼 ‘골든’ 담배 몇 박스를 혼자 삼켰던 것이다. 원정대에는 단한 갑도 보낸 적이 없었다. 어디를 가면 그를 찾을 수 있을지 짐작이 가는데 있었다. 나는 자동 소총을 든 후 위병을 데리고 당시 귀했던 ‘골든’ 담배를 아가씨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그 파견 병을 찾아내서 사창가를 살살이 뒤졌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는 카바예로 거리에 있는 시간제 호텔에서 그를 찾아냈다.

그는 우리에게 까지도 골든 몇 개비를 내놓을 만큼 뻔뻔스럽게 행동했다. 나는 그에게 두루티의 위임장을 내보였다. 그는 몹시 당황했다. “내일 아침 아홉 시까지 골든 인지원지하는 그 담배 박스를 상점 주인에게 돌려주게. 만일 앞으로 단한 개라도 빼내면 자네를 체포하여 두루티의 지휘소로 데려갈 것이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자네가 더 잘 알 걸세.”

우리 조사단이다녀 간후로 레리다에서의 ‘압수 행위’는 완전히 중단되었다. 부당 행위자들이 두루티에게 단단히 겁을 집어 먹은 모양이었다. 그가 개입함으로써 약탈 행위에 제동이 걸렸던 것이다.

헤수스 아르날페나 2

기관총

우리의 자동차가 부하랄로스 입구에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침이 희뿌옇게 밝아 오고 있었다. 키가 크고 건장한 한 사나이가 아침 안개 속에서 우리를 맞이했다. 그의 얼굴빛은 올리브색이었고, 눈빛은 무어인의 빛이었다. 다른 한 명 병대가 우리의 통행증을 검사하고 있는 동안 그는 도로 중앙에서 보초를 섰다. 그는 우리의 이통행증

민병대

환상적인 그림책

지금 카탈루냐를 찾는 외국인들의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은 민병대이다. 가지각색의 제복을 입고 알록달록한 휘장을 두른 그들의 모습을 어디서나 볼 수 있다. 그런 남녀 민병대는 마치 환상적인 그림책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보인다. 민병대는 바로 옆 대원 조차 복장이다를 만큼 제멋대로였다. 정규군의 획일성 같은 것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형형색색의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다.

민병대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의 모습을 정확히 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통 스페인 군대 가운데 카탈루냐 공군과, 해체 중에 있는 소규모 단위의 부대만이 공화국에 충성하고 있었다. 인민들을 억압했던 연대는 해체되었고 병사들은 귀향 조치되었다. 극소수의 장교들만 아직 복무 중이며 반파쇼 투쟁 전선에 파견되었다.

경찰 군경에 들어간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전선에 투입되었다. 그러나 대체로 혁명은 자원 병들에 의해 지원을 받았다. 자원 병들은 노조 조직원, 여러 당파의 당원들, 정부 측 사람들을 등으로 다양했다. 그들은 각기 자체 원정대를 구성하였다. 노조와 정당 사무실은 민병대의 연락 사무실로 이용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자원 병으로 몰려왔다. 자원 병을 신청하기 위해 남녀 지원자들이 장사진을 이루었다. 부적격 판정을 받고 돌아간 사람들 일부가 수였다. 선봉 원정대가 트럭과 승합 차를 타고 적을 향해 출동하였다. 아직 명확한 전선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서 멈추어야 할지 아무도 몰랐다. 사람들은 하루 가지나고 나서 애실탄과 보급 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보급 품 수송대가 트럭을 타고 되돌아갔다.

소수의 민병대만이 전투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그들의 무장도 허술하기 짜이 없었다. 대원들 대부분이 권총만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그들은 실탄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야전 행군 장비는 말할 것도 없이 부족하였다. 수많은 민병대원들이 샌들을 끌고 돌아다녔다. 두 개의 레이스가 달린 전통 스페인 전투 모는 나중에 가서야 볼 수 있었다. 아나키스트들은 적색과 흑색의 레이스를 달았고, 사회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은 적색, 카탈루냐 민족주의자들은 청색을 달았다. 노동자들의 청색 작업복이 일종의 제복이었다.

다. 그들은 바쿠닌의 시대 이후부터 세계 혁명을 이야기해 왔고 스스로를 인터내셔널로 생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민주주의자들이 무솔리니와 히틀러에게 암묵적으로 동의함으로써 세계 전쟁에 개입이 아닌 개입과 같은 코미디를 연출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해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들은 자신들의 팜플릿에서 자본의 국제적 조직에 관하여 읽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 자신은 어느 정도 까지는 민족의 신비화를 숭배하고 싶어 했다. 결국 그들의 수십 년간의 투쟁 체험의 현장은 자신의 마을, 공장, 알고 있던 도시의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들이 내세웠던 극단적인 탈중앙화의 조직 형태는 종종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하였지만 안목의 감상적 협소화라는 대가를 지불하기도 하였다. 국제적 수준에서 투쟁을 평가하도록 오랫동안 가르쳐 왔던 소비에트 정책의 작동을 아나키스트들은 무용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공화주의 적스페인에 대한 소비에트 연방의 무기원 조는 총량의 범위에서 볼 때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어쨌든 특정한 계기에 서 그것은 결정적인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이 원조에 요구된 정치적 대가는 천문학적 일만큼 엄청났다. 공산당이 스페인 프롤레타리아트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은 나날이 증가하였다. 소비에트 위원회와 첨보원들이 마드리드와 발렌시아, 바르셀로나에 나타나 군사와 경찰 정책의 ‘고문관’ 역할을 하였다. 스탈린은 장기 놀이판의 말을 다루듯이 스페인 혁명을 조종하였다. 그는 스페인 혁명을 러시아 외교 정책의 대상으로 삼았다. 아나키스트들은 당황하여 국제 공산당을 책에 등기로 되지 않은 집단처럼 대했다. 그들이 그것을 이해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던 것이다. CNT-FAI 동맹 단은 군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궁지에 몰렸다. 그들의 이데올로기가 무장 해제되고 수세에 몰리게 되었을 때, 혁명의 시작은 끝이 되고 말았다.

으로는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말해주었다. 전선으로 가려면 그 통행증을 폐기처분하고 두루티가 직접 발행하는 특별허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감사합니다. 통과하십시오!” 우리는 시동을 걸어 아직 잠자고 있는 마을을 지나 감시지휘소로 향해 나아갔다. 지휘소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알고 있었다.

우리는 기관총을 정렬해 놓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갔다. 무기들이 땅 바닥에 놓여 있었다. 햇빛에 탄얼굴, 검은 머리카락, 작지만 빛나는 눈을 가진 덩치 가크고 건장한 한 사나이가 그들에게 기관총을 거치하고 즉시 전방에 투입할 수 있는 지시 험사격을 해보라고 명령하고 있었다. 잠시 뒤에 사격 준비가 갖추어졌다. 우리에게다가온 덩치 큰 그 사나이는 바로 두루티였다. 그가 타겟을 가리켰다. 몇 초동안 기관총이 발사되었다. 5 백미터 정도 떨어진 언덕 아래에 세워진 타겟이 산산조각이 났다.

“이처럼 자네들은 떨지 말고 정확히 적을 명중시켜야 하네.” 두루티가 말했다. “기관총을 버리고 도망 가느니 차라리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나을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네. 만일 누가 기관총을 버리고 도망하면, 설령 파시스트가 그를 놓친다 하더라도 내 손으로 그를 총살 시킬 것이네. 전인민의 해방은 자네들의 정확한 조준 사격에 달려 있는 거야. 잃어버린 기관총은 우리의 가슴을 향할 기관총으로 변한다네. 우리는 이 무기로 사라고 사를 점령하고 팜플로나로 진군 할 것이야. 그곳에서 나는 배신자 카바네야스의 머리를 내차 냉각기 위에 얹어 계속 진군 할 것이네. 우리는 행군을 멈추지 않을 걸세. 이베리아 반도의 모든 마을에 우리의 흑·적색 깃발이 휘날릴 때까지! 이런 맹세는 우리가 이미 바르셀로나를 출발할 때 한 것인지. 남자라면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할 거야. 자, 이제 이총을 들고 경계를 잘서게. 단한 발의 총알이 남아 있을 때까지 우리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투쟁할 것이다.”

두루티의 곁에서 있으면 단 10 분도 지나지 않아 누구든지 그의 낙관론에 매혹되고 만다. 대중을 사로잡는 것은 바로 그 낙관론 때문이었다. 그는 보기 드문 용기, 완벽한 정직성, 깊은 공동체의식 그리고 전술에 있어 예리한 판단력을 겸비하고 있었다. 두루티가 여러 전투에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한재능이 있었기 때문이다.

카라스코드 라루비아 (Carrasco de la Rubia)

당시 나는 카탈루냐 민병대 보급 계를 담당하고 있었다. 본부로는 페드랄베스 Pedralbes 막사를 이용하였다. 본부의 명칭은 ‘미하일 바쿠닌’이었다. 나는 매일 각원 정대의 지도자들과 전화연락을 하면서 그들의 요구 사항을 전달 받았다. 그들은 인원의 증원과 전쟁 물자, 의약품과 피복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나는 매일 가능한 한 많은 물량을 열차나 트럭에 실어 전선으로 보냈다.

원정대의 지도자들 가운데 두루티가 요구하는 사항이 가장 많았다. 그는 매일 저녁 여덟 시에 내게 전화를 걸었다.

“아, 거기 리카르도 동지지요?”

“예, 거긴 아직 뭐 좀 남아있지요?”

“남았더구요? 아무것도 없소! 내가 어제 요청한 보충기관총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나 보군요.”

“우리 무기고에는 한정도 없기 때문에 보내줄 수가 없소. 내가 스페인-스위스 합작 회사에 다주문을 해놓았습니다. 주문 후에 생산이 가능하답니다.”

“긴급히 필요합니다. 좀 더 그치시오. 칼빈 소총은 얼마나 있소?”

“한 2 백정 정도 있소.”

“마침 잘됐군요. 2 백정 다 보내주시오.”

“다른 원정대는 어쩌구요.”

“그들도 그 칼빈 소총이 누구 손에 있는지 알게 되면 이해할 겁니다.”

“일부는 보내겠소. 하지만 2 백정 모두는 곤란합니다.”

“구급 차는 어때요?”

“아직 다섯 대 남아 있습니다.”

“그 중 네 대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오.”

“곤란합니다. 잘해야 한 대 보낼 수 있소. 그 이상은 어렵소. 대신 2 백명의 증원 군을 보내주겠소.”

“증원군은 필요 없소. 지원 병은 이곳 마을에서 만도 매일 1 백명씩이나 찾아옵니다. 그들도 다 처리하기 힘듭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기관총과 박격포, 거기에 충분한 실탄뿐이오.”

“잘 알았소. 한번 노력해보지요.”

“하여튼 구급 차는 잊어 먹지 마시오. 그리고 소총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보내주세요.”

“알았습니다. 그럼 내일 또 연락합시다!”

“잠깐만! 보충 기관총 잊어버리지 마시오.”

“물론입니다. 하여간 당신은 탁발 수도승보다 더 심하군요. 내일 또 봅시다!”

고집을 부려서 두루 티는 자신의 원정대가 전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출 수 있었다. 그는 자체 내에 의무실, 참모실, 취사실을 구비하였다. 그리고 전쟁 소식과 논평을 송신할 수 있는 고주파 무선 교신국과 이동 암호전인 쇄소를 갖추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원정대의 민병대원들에게 무료로 배포된 자체 주간지, 「전선 El Frente」을 펴냈다.

리카르도 산스 3

내전이 발생했을 때 우리의 조직 CNT는 이렇게 발표했다.

“여러분은 여기 남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입니다! 모두가 다 전선으로 달려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공장과 상업, 그밖에 모든 일이 노동자들의 수중에 들어온 지금, 바로 지금이 조직을 새롭게 구성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여기 후방에 남아야 합니다.”

그이데올로기가 실행됨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약속이 이행될 수 없을 때, 대중들의 사기는 저하되고 미래에 대한 기대는 위축되고 만다.

바로 이때 아나키스트들의 원칙 고수는 자기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CNT-FAI 동맹단의지도부는 부패하지 않았다. 이점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들 대부분은 노동자들이었다. 조직은 그들에게 어떤 보수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들은 보스나 타협자, 관료가 되고자 한다는 의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자신들과 자신들의 운동에 무조건 요구했던 도덕성이 그들의 운명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엄격한 도덕성은 따가운 심을 축발하기도 하였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과정에서 전술적 첫 걸음이 요구되었을 때 조차도 그 소심성 때문에 주저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동맹정책의 문제들로 인해 성장할 수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인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양자택일적 비타협 성 속에 함몰되어 있었다.

반면에 파시즘의 약속들은 애초부터 실행이 불가능한 것들이었다. 그것은 사회적 현실의 문제를 충족 시킬 수 없었다. 그런데 스페인 민족의 명예가 요구하는 것이나 성모 마리아의 소망이 목표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하늘은 이데올로기의 수혜자들을 멸시하지 않는 법이다. 이데올로기 가내 세우는 가치들이 초월적인 것이라면 것일 수록 이데올로기를 선전하는 자의 뻔뻔함은 대개 더 심해지게 마련이다. 프랑코의 그리스도교는 화포와 비자금을 은폐하기 위한 간판일 뿐이었다. 그의 민족 정신의 본질은 그가 내전을 국제화하여 자신의 사병 私兵과 같은 무어족 용병들에게 스페인 민중을 내맡긴 점에서 확인하드러났다. 그는 파시즘의 수단을 동원하여 조국의 테러적 근대화를 추진하였고, 모든 전통적 규범과 정의의 의사상을 철폐 시킬 것을 법과 질서의 이름으로 자행하였다.

바로그 가내 세운 구호의 총체적 비합리성은 파시즘을 이데올로기로 미화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 이전에 이탈리아와 독일이 그랬듯이 프랑코는 스페인에서 무의식적인 세력들을 동원하였다. 좌파는 이무의식적인 세력들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다. 노동계급 내에서도 불안과 적개심이 살아 움직였던 것이다. 아나키스트들이 선전했던 미래에 대한 약속은 국가와 교회, 가족과 사유재산과 같은 제도를 소멸하는 이상적인 현세의 세계를 건설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먼 미래에나 가능할지 모르는 약속일 뿐 당장 실천으로 옮겨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 또한 그러한 제도는 증오의 대상이었기도 하지만 신뢰의 대상이기도 했다. 아나키스트들의 미래는 동경심을 각성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기초적 세력 안에 잠재되어 있는 불안을 일깨우기도 하였다. 반면에 파시즘은 과거를 피난처로 제공하였다. 물론 이런 과거는 존재하지 않았던 과거였다. 계몽주의 이후에 스페인을 그토록 열악한 환경에 처하게 만들었던 근대 세계에 대한 증오는 스페인인 민을 허구적 종세의 분위기 속으로 빠져들게 만들었다. 정체성이 위협받자 스페인인 민은 권위주의적 국가라는 제도의 틀에 집착했던 것이다.

아나키즘이론가들은 이런 메커니즘의 개념을 파악하지 못했다.

그들의 지평은 언제나 다음의 바리케이드 까지만 미쳤던 것이다. 그들은 파시즘 이작동한 국제적 세력 분쟁 만큼이나 파시즘의 내부 조직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했

은 자신들의 원칙을 충실히 고수하면서, 국가라는 제도 전체를 무너뜨리고 스페인에 자유제국을 건설하려고 하였다. 물론 이 때 그들은 소수 파인스페인 공산당을 전 헤고려하지 않았다. 스페인 공산당은 처음부터 시민적 공화주의자들의 편에서 있었다. 진영 내의 이러한 모순들 때문에 서로 간의 중재는 생각할 수 조차 없었다. 내전 속의 내전이 언제나 위험하고 있었다. 반면에 프랑코는 자기 진영 내의 대립 (군사혁명 정부와 팔랑헤, 보르본 왕조의 추종자들과 카를로스 당파 사이의 대립) 을 적당히 얼버무려 평정하였다. 외부를 향해서는 강력한 통일을 외쳤다. “하나의 국가. 하나의 나라. 한 사람의 지도자.”

장군들은 스페인인민이 자신들에게 대항 투쟁을 벌일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한 자신감은 군대라는 물리적 힘의 우세에 근거하였다. 그들은 그 우세한 힘으로 써 막강한 군대와 경제적 수단, 총기와 탄약, 비행기와 탱크를 열거하면서 프랑코에 대한 저항은 예견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도 달했다. 그러나 모든 혁명은 적이 군사력에서 우세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시작된다. 국가 권력을 힘으로 전복시킬 각오가 선인민은 언제나 고도의 훈련을 받은 중무장한 군대와 대결한다. 그러나 부대가 아직 ‘신뢰할 만’하고 상사에게 복종하고 있는 한, 혁명의 기회는 없다. 따라서 투쟁의 출정에는 혁명군의 정치력이 결정적이다. “특정한 단계에서 모든 혁명의 운명은 군인들의 분위기가 어떻게 변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의심 할 여지가 없다.” 트로츠키는 자신이 쓴 러시아 혁명사에서 이렇게 말하였던 것이다. “병사들이 군중 속에서 총검을 내리고 민중과 합류하면 할 수록 봉기자들이 실제로 들고 일어났다는 확신은 더욱 커질 것이다. 혁명은 그런 병사들이 막사로 되돌아가서 동료들이 묻는 질문에 들려주게 될 단순한 시위 운동만은 아니다. 혁명은 생사를 건 싸움이며 우리가 민중과 연결될 때 민중은 승리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볼 때 프랑코가 승리한 계기를 물리적 힘의 우세, 외국 강대국들의 지원, 국내의 공포 분위기 조성과 강제력에만의 거해서 설명할 수 없는 일이다. 파시즘 이스페인에서 강한 이데올로기적 계기로 작동한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이요소가 스페인 혁명의 실패에 끼친 영향이 종종 과소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주목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アナ키스트들의 이데올로기는 원시적 일만큼 단순하다. 그것은 자신의 운동을 먹고 사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단번에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 실천을 통해 검증되는 점에서 합리적이다. 그들의 이데올로기는 즉각적인 판단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장 단순한 방식에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도 하다. Ана키스트들은 불투명하여 예측이 불가능한 전환의 시대를 고려하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전통적 관점과는 언제나 멀리 서 있었다. Ана키스트들이 직접성을 갖고 자유제국으로의 비약적 발전을 확인하는 그 무조건적 확신은 자신들을 강하게 만들고, 그 확신이 명확히 검증되기까지는 추종자들에게 환상의 날개를 달아준다. 그러나 혁명의 첫 단계의 승리를 쟁취한 뒤에도 자유제국의 건설에는 끝없는 난제들이 따르게 된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마자 그들의 이데올로기는 정치적 약점으로 나타난다. 실천에 의해서만

그래서 나는 처음 한 달 동안 바달로나 Badalona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더 이상은 기다리지 못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젠 아무 말이나 거리낌 없이 해댔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모두 남아서 조직에 만가 담하려고 했다. 전선에도 동료가 있지만 여기도 동료가 있다는 식이었다. 그것이나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나는 점점 더 투쟁 현장에 가 담하고 싶어 전선으로 달려가려고 했다. 그때 우리에게는 이미 기관총 스물네挺이 있었다. 그리고 산 앙드레 부대를 습격했을 때 가져온 소총도 상당수 있었다. 우리는 무기를 포장했다. 트럭 두 대와 승용 차 세 대를 끌고 무 턱대 고두루 터가 있는 전선으로 출발했다. 우리가 도착하자 두루 터는 아주 흡족한 얼굴로 맞아주었다.

“자네들은 우리가 후방에서 아직도 가져올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 시켜 준셈이네. 자네들은 도대체 어디서 기관총들을 구했는가?” “군막사에서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말했다. “담장이 있었지 만다이너 마이트 탄통을 부착하여 쉽게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때 일직장 교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나 자네는 아직 참호 속에 들어갈 수 없네.” 두루 터가 말했다. “자네는 여기서 할 일이 있네. 부하 랄로스는 어디서든 전화 통화가 가능하니까, 자네는 여기 남아 정리를 좀 하게. 내부 관으로서 원정대에 남도록 하게나.”

그렇게 하여 나는 원정대에 들어가게 되었다. 나는 그의 지휘소에서 5~6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배치되었다. 그는 물론이고 내게도 전화가 있어서 무슨 일이 발생하면 우리는 전화로 연락했다.

한 번은 두루 터와 내가 밭 코니 위에 있었을 때, 난데없이 연병장에 사람들이 새까맣게 모여들었다. “무슨 일인가!” 그가 말했다. “무슨 일로 저 사람들�이 모였는가?” 사람들이 소리쳤다. “우리는 두루 터 선생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소.” 그러자 그가 밭 코니 아래로 소리쳤다. “집 이후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 물론 그들 대부분은 바르셀로나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 “그러나 우리는 전선에 있을 것입니다. 각자 맡은 자리에 맡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승리할 때 까지 아무것도 뒤바꾸지 않는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곧다가 올인민의 재판대 위에 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모든 일은 접어두어야 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단한 가지뿐입니다. 전쟁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내게 거슬렸다. “아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내가 물었다. “여기까지 왔는데 다른 모든 일은 접어두다니요? 만일 당신들이 혁명을 날려보낸다면 나는 당장 집으로 돌아가 어 떤 투쟁에도 관심을 두지 않겠습니다.” “자네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군.” 그가 말했다. “자네는 도대체 무얼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올해 내내 혁명만을 생각해 왔네. 처음 우리에겐 무기라고는 없었지. 그런데 무기를 확보한 지금, 내가 그 혁명을 날려보낼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자네는 나를 잘못 알고 있네.”

사람들이 미친 듯이 소리쳤다. 그리고 박수갈채를 보냈다. 언론들은 그가 말한 내용을 왜곡 보도하였다.

원칙의문제

나는밤에부하랄로스에서출발하여피나로갔다. 독일폭격기에의해완전히파괴된기관총잔해가어둠속에서반짝였다. 흑적색두건을쓴투쟁가들이암호를물었다. 거기에는아나키스트두루티가지휘하는원정대가있었다.

5년전에나는정의와자유의문제를두고두루티와논쟁을한적이있었다. 당시아나키스트들은바르셀로나의한작은카페에모였다. 그카페의이름은조용하다, 라는뜻의‘트랑킬리다드카페’였다. 두루티는결코살롱안의아나키스트가아니었다. 그는노동자였고하루종일작업선반대에붙어서있었다. 그는네나라에서사형언도를받았다. 그는용감했지만인간의약점도잘알고있었다. 나는그의이념에대해서는말하고싶지않다. 나는과거에논의했던내용들을까마득히잊어버렸다. 나는그를만나노동자의본능을알게되었다. 피나에서나는그를다시만났다. 그는야전용전화로증원군에관해서이야기를나누고있는중이었다. 나에게참호를보여주었다. 그리고나서그는내가과거라고말했던그이야기를끄집어내기시작했다. 투쟁가들은항아리에서물을떠마셨는데, 벽에는플래카드가하나걸려있었다.“네구산포도주를마셔라, 식욕을돋울것이다.”

두루티는군대를조직하였다. 살인청부업자와탈영병은인정사정없이사살되었다. 전투위원회에서누군가가원칙론을펴기시작했을때, 두루티는화가잔뜩나서주먹으로책상을쳤다.“지금은강령운운할때가아닙니다. 지금은전쟁중이란말이오!”그는공산당과공화파들의통합을주장했다. 그는민병대에게말했다.“지금은논쟁을벌일시간이없소. 우선우리가할일은파시즘을근절하는것이오.”

소도시피나에서두루티원정대의기관지인「전선」이라는주간지가발행되었다. 신문은포화속에서인쇄되어나왔다. 그신문에서나는조국의수호라는기사를읽었다.“파시스트들이외국산폭탄을구입하였다. 그들은그폭탄으로스페인인민을섬멸하려고획책하고있다. 동지들이여우리가스페인을방어합시다!”

바르셀로나포드자동차회사의노동자들이두루티의원정대에트럭을지원해주었다. 나는아나키스트노동자들이소년공산당원들을포용하는것을목격하였다. 그영원한돈키호테의후예들이많은것을배운것이다. 그들은더이상‘반규율에근거한조직화’를입밖에내지않았다. 그들은‘규율을지키자!’라는말로망치를두드렸다.

그는타는듯한검은눈동자를가지고있었고, 표정은부드러웠다.

그는흥분하여말했다.“우리는현실적인군대를조직해야합니다.”

그의참모진중에는외국아나키스트들도많았다. 그들은모래주머니로둘러싸인움막안으로들어왔다. 움막안에는타자기가한대있었다. 그들은1890년대의

짧은해설 5

적에대하여

적은어디에있는가? 역사에서적은언제나시야에잡히지않게몰래나타난다. 기관총뒤의유리창너머에서움직이는까만점, 바리케이드저편에서움직이는검은그림자, 사무실의늙은이, 참호속에비치는실루엣이적의모습이다. 적은대개익명으로존재한다. 따라서적은도처에도사리고있다. 이것은결코망상이아니다. 혁명과전쟁은싸움의성격이다르다. 군사적뿐만아니라자신이살고있는사회도전복하려는사람에게는동지와적이명확히구분되는주전선이없다.

스페인혁명은프랑코와그의파쇼적충복장군들만을상대로한싸움은아니었다. 혁명의첫시작때부터적들은혁명의내부진영에서활동하고있었다. 아나키스트들은1936년7월에그들의정치적숙적들과연대할수밖에없었다. 그러나이연대가오래가지못할것은뻔한이치였다. CNT-FAI동맹단은파시스트와대항하여싸웠다. 동맹단은상황을역전시켜, 바로얼마전까지만해도그들을토끼들이식으로사냥했던군대와경찰의잔병들과투쟁했다. 이젠루이스콤파니스가정부청사에앉아그가오랫동안체포하려고했던사람들과마주하고있었다. 스페인공화국은내전내내공화국의정통성과헌법의준수를내세웠다. 사람들은쿠데타장군들이생각하는‘폭도들’과공화국수호자들이생각하는‘애국자들’을구분하였다. 그러나저항의주요세력인아나키스트들은국가에대한충성과는거리가멀었다. 오히려그들은국가를철저히경멸하여국가를상대하여전력을다해투쟁하였다. 다만본래의‘공화주의자들’, 즉시민중도파들과그동맹자인사회민주당만이무장대결을공화국의사수전으로이해하였다. 따라서이들은자신들의수중에있는기존의국가권력과—파시스트들의주장에맞서—계급의지배도그대로유지하려고했다. 이를위해서는그들은적과의타협도전혀꺼리지않았다. 반면에스페인도시·농촌프롤레타리아트의조직전위대인CNT-FAI동맹단에게는현안을일소하는것이문제였다. 그들의투쟁은공격적이었다. 투쟁의목표는새로운사회의실현이었다. 이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현실을이끌어가기에무기력하기짝이없는허약한소부르주아지와그당파들의국가는청산될수밖에없었다. 아나키스트들

호세페이라츠 2

낡은 선언서를 갖고 왔다. 그들 중에 한 명이 두루티의 말을 끊었다. “그러나 우리는 게릴라 전의 원칙을 고수해야 합니다.” 두루티가 소리쳤다. “무슨 소리요! 만일 게릴라 전이 필요하다면, 이젠 일반 동원령을 내릴 것이오. 우리는 군기를 엄격히 준수할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포기할 수 있으나 승리만은 포기할 수 없소.” 가로등이 라고는 하나도 없는 비포장도로 위를 무기를 실은 트럭이 덜컹거리며 천천히 왔다.

일냐에렌부르크 2

그는 파시스트를 목전에 두고 원칙 문제로 논쟁을 벌여서는 승산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공산당과 공화당의 협상을 주장하면서 소비에트 노동자들에게 협조 편지를 한 통 썼다. 파시스트들이 마드리드가 깨어접근했을 때, 그는 자신의 신변이 가장 위험한 경계에 이르렀다고 결론을 내렸다. “우리는 아나키스트들이 전쟁을 수행 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곧 입증해 보일 것입니다!”

그가 마드리드로 떠나기 직전에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여전히 밝은 표정과 순박한 모습을 보였다. 승리가 눈 앞에 있다고 믿고 있었다. “자네도 알지.” 그가 말했다. “우리들은 친구라는 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합할 수 있네. 아니 우리는 단합해야만 하네. 우리가 승리하면 곧 사람들은 우리의 단합이 잘된 것이라고 들 말 할 걸세. …… 모든 인민은 그나름의 특성을 갖고 있는 법이라네. 스페인 사람은 프랑스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고 러시아 사람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네. 우리가 무엇인가를 곧 구상해 낼 거야…… 그러나 우선은 파시스트들을 섬멸하는 것이 중요하네.” 이야기가 끝날 무렵 그는 더 이상 자기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자네, 내면의 갈등이 무엇인지 아는가? 자네는 생각은 이렇게 하고 행동은 저렇게 하는 식이지. 그것은 비겁해서가 아니라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지.” 나는 그를 잘 이해한다고 대답했다. 그는 스페인 사람들 이늘 하는식으로 헤어질 때나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의 시선은 내 기억 속에 남아 있다. 그의 시선 속에는 강인한 의지와 순진무구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것은 이상한 조화였다.

일냐에렌부르크 1

두루티: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도 파시스트들을 추방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전처럼 병기고와 실탄제조 공장이 있는 사라고사와 팜플로나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사라고사를 정복해야 합니다. 대중들이 무장했습니다. 군대를 옛날의 강인한 군대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노동자라면 누구라도 파시즘이 승리할 경우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훤히 알고 있습니다. 굽주림과 굴종뿐이죠. 물론 파쇼들도 노동자들이 승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될지 잘 알고 있지요. 이런 이유에서 이 번투쟁은 용서 없는 전쟁인 것입니다. 비록 정부는 이런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말이죠.

예, 확실합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세상에는 파시즘과 죽기로 각오하고 투쟁할 정부라고는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부르주아지들은 자신들의 권력

을빼앗긴다고생각하면파쇼와도서슴없이손을잡지요. 스페인자유정부는이미 오래전에이땅에서파쇼적요소들을청산했어야합니다. 정부는그렇게하기는커녕머뭇거리면서, 잔꾀를부리며시간을벌려고만합니다. 심지어우리정부내에는 쿠데타반동들을정중히모시고싶어하는인간들조차있습니다. 어떻게그사실을 모르겠어요, 안그렇습니까? (그가웃었다.) 아마우리정부는언젠가는다시한번 반동군부를필요로할것입니다. 노동운동을분쇄하기위해서말이죠…….

반파아센 (Van Paasen) : 그렇다면만일총봉기가실패하는날낙칠역경까지 당신은이미염두에두고있는겁니까?

두루티: 물론입니다. 저항이없을수있겠습니까?

반파아센: 어느쪽의저항을말하는겁니까?

두루티: 물론부르주아들이죠. 혁명에서승리하더라도당장부르주아들이일 제히사라지는것은아니거든요. 우리는아나르코생디칼리스트들입니다. 우리는 혁명을위해서투쟁하고있는것이죠. 우리는인민들이무엇을원하고있는지잘알고있습니다. 세상어디에든독일과중국의노동자들을파쇼의잔인한손에맡기는 소비에트연방의스탈린과같은인물들이있다는사실을알고있습니다만, 그건우리에게문제가되지않아요. 우리는혁명을완성할것이니까요. 여기스페인에서말입니다. 그것은최근에터진유럽의전쟁이끝난후가아니라지금이순간에이행될 것입니다. 우리는지금혁명을통해적군못지않게히틀러와무솔리니를궁지로몰 아갈것입니다. 그리하여우리는독일과이탈리아노동계급에게파쇼는어떻게다 루어야하는지교훈으로보여줄것입니다. 우리는현정권이자유공산주의혁명을 지지하리라고는추호도생각지 않습니다. 아마제국주의적상황의내부모순이우 리투쟁에중요한역할을할것입니다. 그건충분히가능한일이지요. 프랑코는전유 럽이갈등속에휘말리게하기위해온갖추잡한짓을다하고있습니다. 그는우리를 공격할독일군을스페인에주둔시키는데도주저하지않을것입니다. 그러나우리는누구의도움도기대하지않습니다. 극단적으로말한다면, 우리자신의정부로부터도도움을기대하지않아요.

반파아센: 그러나당신이승리한다하더라도당신은산더미같은폐허의잔해위에앉게될것입니다.

두루티: 우리는옛날부터움막과동굴같은데서살았소. 그리고얼마동안더계 속그런곳에서살각오도서있습니다. 그러나우리도건축할수있다는사실을잊지 마십시오. 다시말하면스페인, 미국그리고세계방방곡곡의궁전과도시들을세운 사람은바로우리인민이라는것이오. 우리노동자는새롭게세울수있소. 보다새롭 고보다훌륭하게말입니다. 때문에폐허를두려워하지않아요. 대지는우리가물려 받는유산이니까요. 이점에대해서는추호도의심할필요가없습니다. 부르주아지 들이역사의무대에서사라지기전에그들의세계를산산조각낼테면내라지요. 우리는새로운세계를만들어가고있습니다. 그세계는매순간마다성장하고있습니다. 내가당신과이야기하고있는지금이순간도우리의세계는성장하고있는겁니다.

아라곤지역방위고문단의선언

우리는여러원정드애나개별단위부대에대한마을주민들의불평의목소리가 점점더고조되고있다는소문을들었다. 아라곤고문단은어떤무뢰한집단들의무 책임한짓때문에그런일이발생했다고판단했다. 고문단은힘이닿는대로그들을 도왔던반파쇼적형제들이아라곤의농민들로부터그런증오를사는일을막고싶었다. 그리고우리는우리인민들의권리가계속짓밟히는상황을그냥두고볼수가없었다.

어떤정치적분파로부터지원을받았건원정대의지도자들가운데는우리지역에서마치점령군처럼행동하는이들도많았다. 그들은우리인민들에게낯선정치적사회적강령들을강제로주입시키려했다.

인민들이뽑았던마을위원회가쉽게해체되는경우도있었다. 혁명을위해목숨을걸었던대원들이무장해제당하는때도있었다. 신체구금과옥살이혹은총살로 위협받기도했다. 위원회를무력으로통제하던사람들의정치신조에복종하는새 위원회가구성되기도하였다. 주민들의요구가무엇인지고민도하지않고, 그리고 통제받는일도없이생필품과가축, 온갖종류의물건들을압수하는일이발생하였다. 우리는씨를뿌려야했지만씨앗도비료도장비도없었다. 이런식으로우리의마을들이철저히파괴되어갔다.

그래서우리는모든원정대의사령관들에게다음과같이요구하였다.

1. 긴급을요하는물품과가축그리고장비는제공가능한방위고문단에요청할 것. 비록전투상황이아무리긴박할지라도물리적인힘에의한독단적몰수행위는 일체금지할것.

2. 반파쇼원정대는천부적으로자유롭고독자적인개성을가진인민의고유한 정치적사회적생활방식에일체의간섭을삼갈것.

우리는마을주민들과그위원들에게다음과같은지시사항을전달했다.

1. 고문단의명확한승인없이는지금소지하고있는무기를누구에게도제공하지말것. 고문단이새위원을구성할때까지는기존의위원회를절대해체하지말것.

2. 고문단이동의하지않은어떤몰수행위도받아들이지말것. 단원정대사령관의입회하에서이루어지는긴급특별조치는예외로함.

3. 위사항을위반하는사태가발생할경우즉시고문단에신고할것. 이때그관련자들의이름을알릴것.

우리는이런지시와요구를예외없이모든원정대가준수해줄것을희망한다. 이렇게함으로써만우리는자유로운인민이자신의해방과해방군을증오하는비극적 인자기모순에빠지는것을막을수있다. 언제나우리스스로희망했던혁명때문에 인민의삶이파괴된다면그것은작지않은비극일것이다.

아라곤지역방위고문단의장: 호아킨아스카소

1936년 10월프라가에서

마지막시도

부에나벤투라두루티 2

9월 말경, CNT 지역위원회가 부하랄로스에서 회의를 소집하였다. 회의에는 아라곤의 전투대원들과 아나키스트 백인조부대, 원정대의 각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 모든 당과 조직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고문단’을 조직하기로 결정하였다. ‘고문단’은 전쟁 때문에 몰락한 지역 경제를 회복시키고, 통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경제를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고문단’은 카탈루냐 민병대가 아라곤에서 행하고 있는 권력 남용 행위를 통제하고, 가끔 어떤 통제도 받지 않고 절령군처럼 나타나는 민병대의 기습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두루티가 고문단의 발족에 찬성하였다. 고문단의 발족은 암도적인 찬성으로 결정되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CNT는 마르크스주의자들 (POUM, PSUC) 의 선전에 대응하려고 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농장 집단화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회의에서 장래 이루어질 지방의 혁명 정부를 위하여 호아킨 아스카소를 고문단의 의장으로 선출하였다.

아라곤의 아나키스트들은 즉시 그 지역 사회주의자들 및 소수의 공화주의자들과 협상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공화주의자들은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우선 좀지켜보자는 태도를 보인 반면에, 사회주의자들은 적개심 까지도 드러내면서 고문단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CNT는 고문단을 구성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1936년 10월 15일에 고문단의 첫 회의가 프라가 Fraga에서 열렸다.

아라곤의 아나키스트들은 카탈루냐 동지들이 항상 기피해 왔던 일을 시도했던 것이다. 즉 그들은 권력이 분산되어서는 안 되며 독점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를 위해서 그들은 전쟁에 의한 환황에도 불사한다고 했다. 이때 그들은 POUM, PSUC, 그리고 투쟁의 한 몫을 담당하고 있던 카탈루냐 민족주의자들의 존재를 무시했다. 또한 그들은 그것이 마드리드 중앙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외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상관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러한 의도는 심지어 카탈루냐 CNT 본부의 의지에도 반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계획을 CNT 민족 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았고, 자문을 구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지를 이미 결정된 기정 사실로 내세웠던 것이다.

그 때문에 아라곤 ‘고문단’은 공동 비방의 목표물이 될 수밖에 없었다. 공화파와 사회주의자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은 아라곤 고문단이 은폐된 아나키즘 독재자, 분파주의의 경향이 있다고 맹공하였다.

그 후 아라곤 고문단은 바르셀로나와 마드리드 정부와 오랜 협상 끝에 다른 당파들의 대표자들도 고문단에 등용한다는 것과, 고문단의 권한은 제한되며 중앙 국가의 권위가 우선한다는 조건 하에 마침내 인정을 받았다. 그 때가 1936년 12월이었다.

세자르로렌소

후방지역

새롭게 변모한 도시

8월 5일, 우리는 안전하게 바르셀로나에도착했다. 정거장에는 택시 대신 전통 마차가 서 있었다. 우리는 마차를 타고 시내로 갔다. 콜론 산책로는 한산했다. 그러나 바르셀로나의 중심 가문데 하나인 람블라스 거리로 접어들었을 때 우리는 깜짝 놀랐다.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에 혁명으로 변한 도시의 생활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마치 신대륙에도착한 기분이 들었다. 전에는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다.

다음은 내가 받은 첫 인상이다. 평상복 차림으로 어깨에 총을 걸친 노동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제복을 입은 경찰이나 정규군은 보이지 않았다. 람블라스 거리에는 세 사람에 한 명꼴로 소총을 들고 다녔다. 무기, 무기 그리고 또 무기였다. 청색 제복으로 깨끗하게 차려입은 민병대 무장 프롤레타리아들도 가끔 눈에 띄었다. 그들은 벤치에 앉아 있거나 람블라스 거리 중앙을 배회하였다. 오른쪽 어깨에 소총을 메고 왼쪽 팔로 아가씨의 어깨를 감싸고 거리를 거니는 사람들도 가끔 보였다. 그들은 도시 주변을 감시하기 위해 순찰대를 구성하였다. 호텔과 행정 관청, 상가입구에는 보초가 서 있었다. 아직도 돌과 모래주머니로 빙 틈 없이 쌓은 바리케이드 뒤에는 보초들이 응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들은 부르주아지로부터 탈취한 고급 승용차를 전속력으로 몰고 다녔다. 차에다가 그들 조직의 첫 대문자를 흰색 페인트로 그려 넣었다. CNT-FAI, PSUC, POUM. 이중 하나를, 혹은 전부를 써 넣은 이들도 있었다. 간단히 그저 UHP(Uniaos, hermanos proletarios : 프롤레타리아 형제들이여 단합하라!) 만 쓴 자동차가 제일 많아 보였다. 이 구호는 1934년 아스투리아 봉기 때 나온 것이었다. 무장한 사람들�이 평상복 차림으로 산책을 하거나 행진하는 모습,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광경, 공장 노동자들의 대규모 시위가 특히 인상적이었다. 그 중 수적으로 압도적인 수를 차지한 부류가 아나키스트들이었다. 그들은 흑·적색 깃발과 휘장만 보아도 금방 알아볼 수가 있었다. ‘부르주아지’의 훈적은 티끌 만큼도 찾을 수 없지 않은가! 람블라스 거리 어디에 정장을 한 부인들과 유행을 의식하는 귀부인들의 모습이 보였던가! 모자 같은 것 따위는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었다. 존재하는 것이라고는 오직 남녀 노동자들 뿐이었다. 과거에는 정부가 모자를 쓰라고 가르쳤다. 그러나 지금은 모자를 쓰는 행동이 ‘부르주아적’ 잔재로 보일 수 있고, 굽지 않은 시선을 피할 수 없다.

고사를 연결하는 주요 동맥 선인 에브로 하천을 끄다피나에서 외딴 마을인 모네그리요 까지 이어졌다.

주민들은 지금도 그 도로를 ‘집시 도로’라고 부르고 있다. 그 이유는 두루티가 자신이 작전 구역에 집시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떠돌이 인민들을 도로 건설에 동원시키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집시들의 떠돌이 생활이 보통 사람들에게는 기이한 것으로 보였지만 집시들 자신은 그것을 ‘신의 저주’라고 생각하였다.

두루티는 힘이 달는데 까지 농민들을 도왔다. 원정대의 트럭과 트랙터를 전선으로 보내지 않아도 될 경우에는 그것을 농민들의 개간 사업에 투입하였다. 원정대의 트럭은 밀과 퇴비를 실어 날랐다. 저수지에 물이 말랐을 때에는 물을 수송하는데도 이용되었다.

리카르도 산스 3

두루티의 원정대가 아라곤으로 밀고 들어왔을 때 그들은 집시들의 거처를 목격하였다. 집시들은 온 가족을 거느리고 들판에서 거지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전선의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고 극저마음내키는 곳으로 떠돌아다녔다. 그 점이 원정대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들이 프랑코의 첨자로 이용당하지 말라는 법도 없었던 것이다. 두루티는 그 문제로 고민을 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집시들에게 가서 말했다. “여러분, 우선 다른 옷으로 갈아입으시오. 우리와 같은 복장으로 말입니다.” 당시 민병대는 모두 공장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찌는듯한 7월의 더위 아래에서도! 그런데 집시들은 전혀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넝마를 벗어던지시오! 노동자들이 입고 있는 옷은 여러분도 입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두루티가 농담 삼아 하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눈치챈 집시들은 주섬주섬 옷을 갈아입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이제 노동복을 입은 여러분은 지금부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두루티가 계속 말을 이었다. 목소리가 짜령 짜령했다. “이곳 농민들은 집단 농장을 만들었고, 마을에 넓은 길을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 있는 삽과 곡괭이를 가지고 함께 일하러 가십시오!” 남아 있는 다른 도구들도 집시들에게 주었다. 가끔 두루티는 도로 건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나서서 살펴보기도 했다. 그는 집시들의 손을 빌릴 수 있었던 것이 대단히 만족스러웠던 모양이다. “두루티나리가 저기 온다!”라고 집시들은 안달루시아 사투리로서로 숙덕거렸다. 그리고 그들은 손을 들어 올려 반파 쇼식 인사법으로 인사하였다. 두루티를 향해 둉글게 친주먹을 뻗어 올렸다. 두루티는 그들이 그것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려는지 잘 이해하고 있었다.

가스톤 레발

헤수르아르날페나 3

나의안내자가두루티원정대의정책에대해내게설명했을때나는상당히불만스러웠다. 그들은농민사이에유행하고있던공화정에대한일반의기대에어긋나는, 그래서미움을살비밀계획을꾸미고있었다. 그들은어떻게할수없는농민들의침묵항의때문에피나마을을떠나야할정도였다. 민병대가숙영지를구하고보급품을압수할때, 그리고‘파시스트’를처형할때엄정하고도신중하게행동하지않았기때문에농민들의저항을불러일으킨것이틀림없었다. 총살행위는아직도끝나지않았다. 두루티대원이가는곳이면항상총살이자행되었다. 그것은마치하루일과처럼되어버렸다. 그들은특별한자랑거리라도되듯이내친구에게처형장소에참석해달라는초대까지하였다.

프란츠보르케나우

8월 18일은부하랄로스의수호성인, 성아우구스티누스를기리는날이다. 그날이마을에서는전통적인교회헌당식이열린다. 축제전날저녁에그곳주민들은어떻게해야할지난처해했다. 교회헌당식이라는것이새로운상황속에서어울리지는않았지만, 그들은행사를포기하고싶지않았다. 그래서그들은그문제를상의하기위해서두루티를찾아왔다.

“순전히내생각입니다만!”그가말했다. “전에여러분은성아우구스티누스기념제를열었습니다. 그런데내일우리는동지아우구스티누스의기념제를열도록합시다. 그러면문제가해결된것입니까?”

그는종교문제에관한한내게맡겼다. 한번은그가내가어디에서도구하지못했던라틴어성서까지내게선물로준적이있었다.

헤수스아르날페나 1

한번은모네그로스 Monegros 마을의농민들몇명이두루티의지휘소를찾아왔다. 그들은교회종을몇번치게해주는대가로설탕과초콜릿을내놓겠다고제안했다. 이말을들은두루티는배꼽을잡고웃었다.

라가시니 (N. Ragacini)

전선이조용했기때문에두루티는후방의문제에신경을쓸여유가생겼다. 그의지휘권내에서는농민들의문제가특히중요했다. 모네그로스시역에서그는농민들과의협상을통해대규모농장집단화의구성문제를해결하였다. 그런데꼭필요한모든지역간의연결도로망이없었기때문에두루티는도로건설작업반을조직하였다. 그는전선지원병가운데투쟁능력이다소떨어지는대원들을이작업반에투입하였다. 작업반은농지를정리하기시작했다. 새로건설한도로는레리다와사라

람블라스거리의사람들은전에못지않게밝은표정을짓고있었다. 의복은푸른색, 브은색, 검정색스카프와목도리그리고민병대의얼룩제복으로다양해졌다. 그러나그것은예전에여기를거닐었던부유한카탈루냐여성들의현란한장식과는너무나대조적이었다.

사람들은시민전쟁을주도한지방도시가바로바르셀로나라는사실을거의믿으려하지않는다. 평화시의바르셀로나만알고서그곳정류장에내린다면그도시가많이변했으리라고는꿈에도생각지못할것이다. 지역경계선의통과는보우Bou 역에서이루어진다. 잠시머무는여행객이그렇듯이, 사람들은역전에서벗어나, 활기있고평화로운이도시의거리를배회한다. 카페가열려있다. 보통때보다사람들이좀덜붐빈다. 상점들도마찬가지다. 돈은아직도옛기능을발휘하고있다. 만일경찰들이많이보이고, 소총을들고여기저기다니는젊은이들만보이지않았더라면여행객에게는아무느낌도들지않았을것이다. 그러나거기서실제로혁명이발생했고, 책에서나읽었고어린시절꿈에서나봄직한 1792년, 1871년, 1917년의혁명과같은역사적사건의하나를사람들이실제로직접체험했다는사실을곧인정할것이다. 이번의결과가더성공적인것이라면좋으련만!

그러나실제로변한것이라고는아무것도없었다. 한가지예외가있다면그것은권력이민중의손에넘어갔다는점뿐이었다. 푸른색외투를입은사람들이지휘권을넘겨받았다. 비상시기가온것이었다. 지금까지한번도오래가지못했던(언제나복종만해왔던사람들이이제모든일에스스로책임을져야하는) 그런시기중에한시기가온것이었다. 이런때에는어려움이따르게마련이다. 만일무장하지않은주민들이있는곳에열일곱살짜리소년의손에장전된소총을쥐어준다면…….

시몬느베일

1936년 8월 8일

자동차의속도는비행장이있는프라트 Prat 에서부터늦춰졌다. 이곳은바르셀로나에서 10킬로미터떨어진거리다. 비행장입구에는도로를가로지른현수막이걸려있었다. ‘산디노만세!’도로에는솜주머니와돌, 모래로쌓은바리케이드가이전보다더높아졌다. 바리케이드위에는적색깃발과흑·적색깃발이펄럭였다. 그옆에는테가넓고둥근, 꼭대기가뾰족한밀짚모자와베레모혹은두건을쓴무장대원들이서있었다. 복장도가지각색이었다. 아예상의를벗은사람들도있었다. 그중몇명이우리운전사에게달려와신분증을보자고했고, 다른대원들은소총을흔들며인사했다. 몇몇바리케이드의보초병들은부인들이가져다준점심용빵을먹고있었다. 도시락은돌위에놓여있었다. 아이들은수프를몇스푼떠먹고나서는다시포문으로기어들어가탄통과총검을가지고놀았다.

도시가까이갔을때우리는그도시의변두리첫번째거리에서이미작렬하는듯한인간용암의소용돌이속으로빨려들어갔다. 그날은그곳사람들이운명과용기의세월을경험한날가운데가장흥분된날처럼보였다. 상상할수도없는대소동의날이었다.

바르셀로나가 승리에도 취하여 이렇게 흥분한 적이 전에 언제 한번이라도 있었던가? 종려나무가 멋지게 늘어선 거리, 넓은 도로와 해안의 산책로, 보스포루스 Bosphorus 해안에 위치한 현란한 비잔틴과 터키 양식의 궁전을 옮겨다 놓은 듯한 환상적인 별장들이 있는 바르셀로나는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운데 하나이다. 여기가 바로 스페인의 뉴욕이다. 또 여기에는 끝없이 이어지는 공장 지역, 조선소, 제철 공장, 전기 회사, 자동차 공장, 섬유회사, 대형 양화점과 의류 회사, 인쇄소, 전자 정류장과 대형 차고들이 있다. 구름을 찌를 듯이 삐죽하게 솟은은 행건물, 극장, 카바레와 유원지, 보기만 해도 소름끼치는 어둡고 비좁은 빈민가, 범죄자들이 특별히 거리는 ‘중국인거리’, 이처럼 냉혹하게 양쪽으로 분열되어 있는 이 풍경은 시내 한복판 높은 건물에서 내려다 보면 한 눈에 들어온다. 빈민가와 어두운 거리는 마르세유와 스타블 Stambul 의 어느 항만 배수구보다 더 저저분하고 위험한 곳이다. 이곳을 흥분한 사람들이 짹메우고 있었다. 발디딜 틈이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 이 운집하였다. 모든 것이 뒤집혀져 속속들이 밝혀지면서 사람들의 흥분은 극에 달해 있었다. 나도 이런 분위기가 뿐이었는데 열정에 사로잡혔다. 내 심장이나 도 모르게 뛰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소총을 손에 든 젊은 이들, 머리에는 꽃을 꽂고 손에는 번쩍이는 칼을 든 부인들, 혁명의 띠를 어깨에 두른 노장들, 바쿠닌과 레닌 그리고 자우레스 (Jaurès) 의 초상화를 머리 위로 치켜들고 모인 군중들의 틈새를 비집고 겨우 앞으로 나아갔다. 이런 와중에도 노래 소리, 악사들의 연주 소리, 신문 팔이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영화관 앞을 지나갔다. 영화관 주변은 불에 타고 사격을 받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가두집 회와 노동자 민병대의 축제 행렬, 잣더미로 변한 교회와 여러 색의 플래카드를 지나갔다. 온갖 색이 엉켜 흐르고 있는 네온 사인과 만월의 달빛과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을 받으면서 우리는 간혹 카페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보기도 했다. 카페의 테이블이 보도에도 나와 있었다. 우리는 겨우대로로 빠져나와 번화가인 람블라스 거리에 있는 ‘동양’ 호텔에도 착했다.

미하일 콜코프

이전의 아나키스트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다. 즉 그들은 앞 세기의 신화와 모험의 세계를 꿈꾸며 살고 있었다. 나는 거의 문맹과 다를 바 없는 페르난 누네스 Fernán Núñez 출신의 한 농촌 노동자를 기억하고 있다. 그는 늘 이런 질문을 했다. “왜 당신네들은 제 2, 제 3의 국제 노동자 동맹을 두고 논쟁을 벌입니까? 제 1 국제 노동자 동맹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에게는 미하일 바쿠닌이 동시대의 동지였던 것이다.

바르셀로나 노동자들 가운데는 아나키스트들이 많았다. 7월 19일에 그들은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과 어깨에 어깨를 걸고 콜론 호텔로 출정하였다. 그들은 꽃으로 둘러싸인 그 호텔의 담장 앞 보도 블록 위에서 쓰러졌다. 그러나 비무장 민족들이 군대와 싸워야겠다.

“사라고 사로 가자!” 이 구호는 택시의 차체에도 붙어 있었다. 암전 하던 아가씨들도 바느질을 내팽개치고 힘에 겨운 무거운 소총을 끌고 다녔다. 바르셀로나 노동

질문: 공동 노동이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대답: 아니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 불평등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질문: 모두가 똑같이 열심히 일 하겠는가?

대답: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강제로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 일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다.

질문: 도시 생활이 농촌 생활보다 나은가?

대답: 배로 낫다고 생각한다. 노동은 훨씬 적게 하는 반면에 입는 옷은 우리보다 좋다. 유흥장도 많고, 여러 가지면에서 낫다.

도시 노동자들은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있다. …… 농촌에서도 시로 떠난 사람 은 일자리를 얻어 3개월이 지나면 멋진 새 옷을 사입하고 고향을 방문한다.

질문: 도시 사람을 부러워하는가?

대답: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

병사: 도시에서 일년을 근무하고 나면 어떻게든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 뿐이다.

질문: 왜 그런가?

병사: 음식이나쁘다. 지칠 정도로 훈련을 받고 구타를 당한다. (반항하면 총살이다.) 뺨을 때리기도 하고, 총개 머리판으로 구타하기도 한다. 구타 방법은 여러 가지다. 부자자식들에겐 고급 소시지가 배급된다.

질문: 병역의무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병사: 물론이다. 그게 폐지된다고 해서 애석해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신부를 두둔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침묵을 지켰다.)

농민들의 반응: 농민들은 지주들에게 소작료를 바쳐야 하는 소작농이다. 소작료를 지불할 수 없었던 많은 농민들이 농지에서 쫓겨났다. 하루 2 페세타의 날 품팔이로 일해야 한다. 실제로 그들은 자신들이 농민 계급이 하로 전락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시몬느 베일

마을 이야기

모네그리요 Monegrillo 마을을 점령한 후 몇 명의 민병대가 한 폐가에 들어가 주인 없는 옷가지를 들고 나왔다. 그들은 자신들의 해진 옷을 그곳에 벗어 놓고 왔던 것이다. 그들이 막사로 돌아와 그 사실을 보고하면서 가져온 물건들을 내놓았다. 그러나 극 순간 그들은 도둑으로 취급당했다. 두루티가 그들을 끌어내어 총살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두루티는 그들의 생명을 구해주었다. 그가 말했다. “자네들은 나의 대원이야. 이번 한번만은 용서하겠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을 다시 보게 되면 그때는 총살하겠어. 강도나 도둑은 내게 필요 없네.”

에의하면, 투표 — 그것은 바로 이기주의의 산물이 아닌가! 우리는 투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농민들은 혼란에 빠졌다. 미사여구를 동반한 그 위협적인 연설이 농민들을 선동 한셈이다. 다수가 그 아나키스트 연사의 주장에 반대한다 하더라도 지금의 분위기를 가라앉혀 다시 투표 같은 것을 실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회의는 궤도를 이탈하여 달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제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었다. 바로 그때 트루에바가 묘안을 제시했다. 그는 지금 당장의 견이 합일점에도 달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살림을 개별적으로 꾸려나가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하고, 집단화를 실행하고 싶은 사람은 내일 아침 아홉 시에 다시 회의를 열것이니 그때 참석하라고 말했다. 모두가 그의 묘안에 만족했다. 다만 아나키스트들만 화를 내며 돌아갔다.

미하일 콜코프

8월 14 일 금요일과 15 일 토요일 (두루티의원정대)

피나농민들과의 대화.

질문: 농민들이 집단 경제에 동의했는가?

첫째 대답 (아주 단순하게): 우리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것이다.

한노인: 동의한다. 요컨대 소목장이나 의사에게 갚을 돈을 벌기 위해 지금처럼 돌아다니지 않고, 필요한 만큼 충분히 벌 수만 있다면…….

질문: 농장을 공동화하는 것이나은가, 개별화하는 것이나은가?

대답: 공동화가 더 좋다. (자신감은 없어보였다.)

질문: 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대답: 밤낮 일을 했지만 겨우 입에 풀칠을 했다. 농민들은 대부분 문맹이었다. 자식들은 머슴살이를 하였다. 열네 살짜리 계집애들은 이미 2년 전부터 세탁부로 일해왔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이가 없는 듯 모두 웃었다.) 월 20 페세타 (스무 살 처녀가 받는 한 달 월급), 혹은 17 페세타 혹은 16 페세타의 월급을 받으면서 맨발로 돌아다녔다.

질문: 사라고사의 부자 지주들은 어땠는가?

대답: 신부에게 자선금을 내놓는 부자는 한 명도 없었다. 신부에게 가축은 갖다 바쳤다.

질문: 사람들이 신부를 좋아하는가?

대답: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

질문: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이 질문에는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했다. 지금 우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 (연령이 매우 다양하다)은 지금 까지 한번도 미사에 참석한 경험이 없었다.

질문: 부자들을 많이 증오하는가?

대답: 그렇다. 특히 하층민 중들의 증오심은 더 심하다.

자들은 스페인-스위스 무기 제조 합작 회사를 습격하여 권총으로 무장하고 투쟁 대열에 나섰다. 그들은 기타를 치면서, 혁명가를 불렀다. 그들은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그러나 사라고사의 파시스트들에게는 탱크와 비행기가 있었다.

바르셀로나의 창고와 지하실에는 아직도 19세기의 기운이 감돌았다. 벽에는 ‘반 규율의 조직’이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두 발의 축포가 울렸을 때 아나키스트들은 인류의 새 창조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한 아나키스트가 내게 말했다. “우리의 깃발이 왜 흑·적색인지 아십니까? 붉은 색 — 그것은 투쟁을 상징하며, 검정 색 — 그것은 인간 정신의 어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일냐에렌부르크 2

탈취

7월 19일 이후 며칠 사이에 발생한 상황은 거의 믿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 가장 큰 호텔 한 두 개를 제외하고 모든 건물은 노동계급의 조직에게 탈취당했다. (여러 신문들은 건물들이 불타내려 앉았다고 보도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꽤 큰 점포들도 마찬가지였다. 많은 은행들이 폐쇄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은행의 입구에는 평의회가 관리한다는 공고문이나붙었다. 도망간 기업주들은 다행히도 살아남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살해되었다고 한다. 그들의 공장을 노동자들이 인수했다. 곳곳의 회사 정문에는 탈취 사실을 공고하여 CNT 가경영을 넘겨받았거나 여타의 조직들이 탈취한 건물을 조직 위원회의 본부로 사용한다는 대형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 것이 보였다.

프란츠 보르케나우

노동계급은 부르주아지의 사무실과 빌라를 노동자 조직의 사무실로 이용하였다. 수도원은 학교로 사용되었다. 수녀원에는 노동자 대학까지 신설되었다. 농민 위원회가 만든 민중 레스토랑을 민병대와 조직의 노동자들이 마음껏 이용했다. 상인들이 인플레이션을 노리고 비축해 두었던 생필품을 압수하여 민중들에게 배분했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생산부문에서였다. 수많은 기업가와 고급 기술자들, 이사들, 부동산 소유자들, 행정 관리들이 추방되었다. 도망가지 못한 사람들은 노동자들에게 불잡혀 재판을 받았다. 섬유 노동자 조직의 보고에 의하면 기업가들 중에 절반이 그들의 자리에서 쫓겨났고, 40 퍼센트는 ‘사회 활동의 영역에서 멀어졌다’고 했다. 그리고 나머지 10 퍼센트는 노동자들의 피고용자라는 새로운 관계 하에서 계속 일하겠다고 이미 선언했다고 한다. 노동자 자문 기관 및 위원회가 기업을 통

제하고개인소유의상사와회사를압수했다. 중요한생산수단기구는노조와농장협의회그리고도시행정청에위임되었다. 다만소비성상품을생산하는회사만개인소유로남겨두었다.

운수회사, 석유회사, 포드자동차, 스페인-스위스합작자동차부품공장, 조선소, 발전소, 백화점, 극장과영화관, 철도, 무기생산관련금속공장, 농업생산물수출회사그리고대형포도주회사는물론사회화되었다. 압류조치에대한법적형식절차는그때그때마다달랐다. 기업은지방자치의재산으로공유화된경우도있었고, 어떤경우에는본래의소유자와새계약이체결될때도있었다. 그런가하면또어떤경우에는그저단순히압류되기도하였다. 외국상사는국유화되었고기업카르텔은추방되었다. 모든경우, 두개의거대한노조조직인아나키스트노조와사회주의노조가입명한통제위원회의관리아래서노동자스스로사업경영을떠맡았다. 생산성의향상을위한계획도수립되어공장안에보건소와학교가세워졌다. 상품의유통은노조들과협의하여조절되었다.

앙리라바세이 (Henri Rabasseire)

오늘내가방문하여목격한공장의활기는분명 CNT 가이룬집단경영화의성과였다. 시민전쟁이발생한이후 3 주, 그리고총파업이끝난후 2 주만에마치아무런일도없었던듯이공장은다시가동되었다. 나는매우질서있게가동되고있는한공장을방문했다. 기계를다루는노동자들은체계적으로일하고있었다. 사회화가이루어진이후여기서버스두대가수리되었다. 이전에시작하다가중단되었던신축건물이완공되었고, 새모형의차들이생산되고있었다. 자동차에는이런표어가붙어있었다. ‘노동자의경영으로생산된자동차’. 생산관리담당원은신축건물을완공하는데에 5 일이걸렸으며, 그것은평상시보다공기를이틀이나단축한셈이라고말했다.

그공장에서받은긍정적인상을이처럼일반화하는것이물론조급한결론일지는모르지만, 당시노동자들의분위기가아무리좋았다고하더라도노동자집단이공장을인수하여며칠만에, 아무런문제없이생산을재가동했다면그것은분명뛰어난업적이라고인정해야할것이다. 그것은바로카탈루냐일반노동자들의재능과바르셀로나노동자조직의능력을대변해준것이었다. 이때잊지말아야할사실은공장에는재벌의총수가사라졌다는점이다. 나는공장의급여명세서를살펴볼기회가있었다. 그것을보고총수, 경영진, 공장장과기사라는관리들이‘사라졌다’는사실을알았다. (‘사라졌다’는것은그들이실해되었다는것의완곡한표현이다.) 공장위원회의회원들이무심코나에게이렇게설명했다. 과거회사간부의개인적인친구들에게‘연금지불’폐지건에대해함구하고, 한달봉급의상한선을 1 천페세타로정하는제도를도입하자는안건에이의를제기하지않는것이공장으로볼때는상당한절약을의미한다고했다. 사회화이후에도봉급은인상되지않았던것이다.

프란츠보르케나우

에의한것으로알고있다고말하면서, 따라서그결정에대해서재검토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

참석자들이동의했다.

강당뒤쪽에서있던누군가가어제희뿌연담배연기뒤에서그일을결정할때신디케이트를비난한사람들이있었다고소리쳤다. 이발언자는어제의그비난자가출석해줄것을요구했다. 회의실이소란해졌다. 동조하는불만의목소리와박수, 휘파람소리, ‘옳소!’라고외치는소리가뒤섞였다. 아무도그발언에이의를제기하지못했다.

중년의한농부가분위기를진정시키려는듯이, 우선개별적으로일을하고그문제에대해서는전쟁이끝난뒤에다시거론하자고제안했다. 박수가쏟아졌다. 이어서등장한두연설자의생각도같았다.

몰수한토지에서나온그해수확률의배분문제를둘러싸고다시토론이벌어졌다. 어떤이들은집집마다동일하게배분하자고했고, 어떤사람은신디케이트가식구수에따라배분하라고주장하기도했다.

들판에는전투때문에아직추수하지못한곡식이있었다. 적의사격으로부터생명의위협을무릅쓰고밀을수확하려는사람에게는능력껏거두어들이는만큼가져갈수있도록허용하자고한청년이제안했다. 다시박수갈채가쏟아졌다. 이때트루에바가말을끊었다. 그제안이마음에들지않았던것이다. “우리는모두형제입니다. 그래서우리는곡식몇자루때문에불필요한위험에우리를내맡겨서는안될일입니다.”그는민병대가농민의안전을지켜줄때사격구역의곡식을공동으로수확하자고설득했다. 그리고수확률은업적과필요에맞게배분되어야한다고했다. 참석자들은트루에바의제안에동의했다.

벌써여덟시가넘었다. 모든회의가끝났다. 바로그때한사람이일어나무엇인가다시주장하기시작했기때문에모든사람이당황하였다. 그는흥분하여격앙된말투로타르디엔타주민들에게연설했다. 그는어쨌든이기주의를극복하고모든것을똑같이분배해야한다고주장하면서, 자신들이분배문제를두고어제부터유혈투쟁을벌이고있는꼴이아니냐고반문했다. 그는어제의결정을받아들여당장자유공산주의를도입해야한다고했다. 대지주들의토지뿐만아니라대농과중농의것도몰수해야한다고강변했다. 휘파람과욕지거리와박수가뒤엉켰다. ‘옳소!’하고외치는이들도있었다.

이연설자의뒤를이어다섯명의아나키스트가계속공세를퍼부었다. 회의는완전히난장판으로변했다. 어떤이들은박수를보내며찬동했지만또어떤사람들은침묵만지켰다. 모두가지쳤다. 신디케이트의의장이투표로결정하자고제안했다. 첫번째연사로나섰던아나키스트가표결에부치자는의장의제의에반대했다. 그는이런일을투표로결정할사안이냐고따졌다. 지금필요한것은공동의유대와의견의통일을위한노력과그것의추진, 열정이아니냐고반문했다. 투표를하게되면누구나자신의이익만을생각하는이기주의가발동한다고주장했다. 그의주장

민들이트루에바 (Trueba) 를찾아가투쟁위원회의특권으로그문제를중재해달라고요청했다.

그때부터매우중요한문제가제기되었다. 농지관리및토지와곡물의분배문제였다. 파시스트적지주들로부터압수한거의모든토지를찢어지게가난한농민들과농장노동자들이공동관리하고, 향후업적에따라배분하자는제의가있었다. 여러가지다른원칙들도제기되었다. 식구수에따라분배율을정하자는의견도나왔던것이다. 뒤에서침묵만지키고바라보고있던아나키즘파와트로츠키파가나섰다. 그들은농민경제의집단화가우선적으로마련되어야하고, 둘째로토지위원회를통하여지주들의농장에서곡물을압류하고, 셋째로 5~6 �ект아르의농지를소유한중간농민들의부동산과농지를공유화해야한다고주장했다. 그러나이미명령이나협박에의해몇몇부락에서는집단경제가이루어직로있었다.

돌로된바닥과목재기둥으로세워진나지막한강당은마지막자리까지꽉찼다. 석유램프가그을음을내며타고있었고, 영화상영을위해전등은꺼져있었다. 땀에찌든퀴퀴한살냄새와독한담배냄새가사방에서풍겼다. 창이없는베레모를쓴 3백여명의사람들이나종이부채를손에든사람들만아니었다면, 우리는아마도쿠바의카자흐마을에와있다고착각했을것이다.

트루에바의짤막한연설로회의가시작되었다. 그는이투쟁이파쇼적지주와의투쟁이며, 공화정과농민의해방, 그리고그들이올바르다고생각하고있는삶과노동을실현하기위한권리쟁취의싸움이라고설명했다. 그는어느누구도아라곤의농민들에게자신의의지를강요할수없다, 코뮌이되면그누구도농민을배제하거나농민을대신하여의사를결정할수없으며오직농민들스스로결정할것이다, 지역민병대의대표적인투쟁위원인그는발생할수있는어떤독재적조처에대해서도민병대와함께농민들을보호하겠다, 등을선언했다.

모두가만족하여소리쳤다. “바로그거요!”분위기가고조되었다. 회의가끝나고강당을나설때트루에바는공산주의자가아니냐는질문을받았다. 그는이렇게대꾸했다. “물론, 공산주의자이지요. 더정확히말하자면통합사회주의당의당원입니다. 그러나지금은그게중요한게아니지요. 왜냐하면현재나는투쟁연합과인민전선의지역대표자이니까요.”

그는키가크지않고땅딸막했지만다부졌다. 탄광노동자생활도했고, 그후요리사가되기도했다. 투옥되기도하였다. 그는아직젊었다. 군복차림에가죽탄띠와권총을차고있었다.

다음과같은안건이나왔다. 그것은회의에참석할수있는사람을타르에딘타출신의농민들과농장노동자들로한정하자는것과, 회의에는누구나참석할수있는권리를부여하되대표는농민들로만구성되어야한다는안이었다. 후자의안이받아들여졌다.

타르에딘타신디케이트 (농장노동자와농민들의연합) 의장이의견을개진하였다. 그는집단농장화에관한어제의결정은다수에의한것이아니라소수농민들

모순

나는몇번이고내귀를의심했다. PSUC(카탈루냐사회주의통일당) 이대표자들이오늘나에게설명하길스페인에서는혁명같은것이없다고했다. 그런데오늘나와함께장시간토론을벌였던그사람들은카탈루냐의옛사회민주당원들이아니라외국공산당원들이다. 그들의주장에의하면스페인은선례가없는특이한상황에있다는것이다. 즉정부가자신의군부와싸우는것, 그것이스페인상황의전부라고설명했다. 그러나나는몇가지사실을지적했다. 노동자들이무장했고국가행정기관은혁명위원회의수중에들어갔으며, 수천명의사람들이법적절차없이사형당했고, 예전엔임금을받고일했던노동자들이공장과농장을탈취하여운영하고있다고반박했다. 이것이혁명이아니면무엇을두고혁명이라고부를수있단말인가? 그들은내가잘못이해하고있다고말했다. 그런모든일에는아무런정치적의미가없으며, 정치적내용이없는투쟁은비상사태일뿐이라고설명했다. 나는현재의운동을‘시민적혁명’이라고규정하는마드리드중앙공산당의태도를비아냥거리면서문제는혁명적과정이라고논박했다. 그러나 PSUC 의공산주의자들도중앙당의그러한논리에대하여의를제기하지않았다. 사실지난 15 년동안혁명이라는말을입밖에낼수없었던때에도세계도처에서발생한혁명적상황을폭로했던 (그래서막대한피해를입기도했던) 바로그공산주의자들이 1917 년의러시아혁명이래처음으로유럽에서발생한이혁명이무엇을의미하는지모르고있다는사실에대해서나는어떻게이해해야할지난감했다.

프란츠보르케나우

1936년 8월 10일

오후에나는가르시아올리베르를방문했다. 당시그는카탈루냐의모든민병대를관장하고있었다. 참모부는해양박물관건물안에있었다. 홀륭한건축물이었다. 회랑은웅장하고강당은넓었다. 정교하게만들어진거대한구식함대의모형과무기모형, 탄약통모형등이유리벽안에전시되어있었다. 그곳은사람들로붐볐다.

올리베르는깨끗하게정리된안락한회의실에앉아있었다. 회의실안에는양탄자가깔려있었고조각상도놓여있었다. 그는하바나담배와코냑을권했다. 얼굴색은갈색이었다. 혈색이좋아보였다. 빛에그을린까만얼굴에는흉터가있었다. 탄띠에는묵직한권총이꽂혀있었다.

처음에그는침묵을지키고있어서말수가적은사람이겠거니생각했는데, 갑자기훈잣말을하듯이열정적으로이야기를하기시작했다. 그는경험이풍부하고열정적이며노련한연설가처럼보였다. 이야기는주로아나키스트노동자의용기를칭송하는것이었다. 노동자들이바르셀로나가두투쟁때의위기를극복했고, 바로그들이지금은반파쇼민병대의전위대들이라고호언장담했다. 아나키스트들은

언제나 혁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시켜왔고, 앞으로도 혁명을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자신들의 목숨을 바칠 각오가 서 있다고 단언했다. 목숨 그 이상이라도. 그래서 그들은 반파쇼부르주아지정부와도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물론 올리베르는 아나키스트 대중들을 그렇게 끌어들이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와 자신의 동지들은 아나키스트 노동자들을 훈련시켜 총인민 전선을 수행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또 그것이 성공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올리베르 자신은 시위 때 탐자요 아나키즘 원칙의 배반자라는 누명을 쓰기도 했다고 말했다. 공산주의자들은 이 모든 점을 감안했기 때문에 별로 긴장하지 않았다고 한다. 공산주의자들이 권력을 독점했다는 것이다. 이런식으로 계속된다면 CNT 와 FAI 는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약간은 신경과 민처럼 보일 정도로 여러 가지 일들을 부정했다. 아나키스트들이 많은 무기를 감추고 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며, 그들이 민병대 만지지 않고 정규군에 반대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아나키스트들이 POUM 과 연합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것, 아나키스트 대원들이 상점과 가정을 약탈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흑·적색 깃발을 이용하여 범죄 집단들이 그런 짓을 했을 가능성은 크다고 했다. 아나키스트들이 인민 전선에 반대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며 그들의 성실성은 그들의 말과 행동에서 나타났다고 했다.

아나키스트들이 소비에트 연방을 적대시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며 그들은 러시아 노동자들을 사랑하며 존경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러시아 노동자들이 스페인을 도울 것이라는 점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아나키스트들도 소비에트 연방을 도울 것이라고 했다. 소비에트 연방은 그들의 계획에서 스페인 아나키스트 노동자들의 이러한 힘을 평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다른 나라에는 아나키즘 운동이라고는 없으며, 그 운동의 중심이 분명 스페인일 것이라는 주장도 틀린다고 하였다.

소비에트 연방에 있는 사람들이 왜 바쿠닌을 존경하지 않는 단말인가? 지금 사람들은 바쿠닌에 대해 상당한 존경을 보이고 있으며, 그것은 스페인과 러시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아나키스트들이 마르크스를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사실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그의 친구 두루티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주선하고 싶지만, 유감스럽게도 두루티는 현재 전선에 나가고 없다고 했다. 그는 사라고사 입구에 있다고 했다. 내게 전선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없느냐고 물었다. 물론 나는 전선으로 갈 작정이었다. 만일 통행증 만얻을 수 있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출발 할 예정이었다.

나는 올리베르에게 통행증을 발급해 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올리베르는 기꺼이 발급해주겠다고 말했다. 그가 부관에게 이야기하자 마자 부관은 바로 그 자리에서 타자기로 증명서를 발급해주었다. 올리베르가 증명서에 사인을 했다. 그가 내 손을 잡고 러시아 노동자들이 스페인 노동자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부탁했다. 아나키스트들이 어제 포도주를 저장하고 있는 ‘페드로도 메크’ 사의 지하실을 털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며 아마 그 범행을 저지른 자는 FAI 회원의 이름을 빌

나는 친구 후작에게 내 경험담을 이야기해주었다. 그는 교회가 불타내려 앉는 그런 급박한 시기에도 아나르코 생디칼리즘이여 전히 스페인 사람들의 기질, 그러니까 자기 분야의 전문가로서 남돕기를 좋아하는 그런 기질을 갖고 있더라는 말을 듣고는 만족한 듯 빙그레 웃었다. 바리케이드를 지키고 서 있던 그 보초가 청색 작업복을 입고 있는 한 청년에게 소리쳤다. “후안, 여기 이동지를 기계운수 산업부로 안내해주세요.” 후안이라는 청년과 나는 오토바이를 마을 거리 아래로 밀고 내려갔다. 기계운수 산업부는 거리 모퉁이에 있었다. 한 달 전이곳에는 마을 교회가 있었다. 예배당으로 사용했던 벽의 칸막이마다 이제 트럭이 주차해 있었다. 작업복을 입은 두 사람이 아직 벽에 달라붙어 있는 도금된 조각상과 인조 대리석을 피켈과 삽으로 떼어내고 있었다. 석회가루가 날렸다. 내가 그들이 하는 일을 주시하자 그 민병대원들도 그들의 작업에 대하여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고 싶은 듯이 내 얼굴을 쳐다봤다.

“신도들을 위해 어지간히도 튼튼한 건물을 세웠군요.” 마침내 한 명이 말했다. 그는 기둥을 뜯어내려고 악간 힘을 썼다. “그런데이젠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산 사람을 위해서는 아무 수고도 하지 않았거든요. 이것이 노동자의 집이라면 곡괭이 한 방에 그냥 내려앉았을 겁니다.” “어쨌든 교회 덕분에 이제 차고 가생긴 게 아닙니까.” 내가 말했다. “예, 멋진 차고입니다, 동지.” “영원히 차고로 남아 있을 것 같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원은 아니죠. 우리 가적을 끝장낼 때까지 만차고로 사용될 겁니다. 저쪽 건너편을 보시오, 동지.” 나는 그가 가리키는 곳을 보았다. 맞은 편 공터에서 서너 명의 사람들이 열심히 도량을 파고 있었다. “저기에서 상설시장을 세우려고 합니다. 곧 수도 도설치 할 겁니다. 전에는 여자들이 거리에서 물건을 구입해야 했지요. 파리들이 우글거렸답니다. 이제 깨끗한 시장이 들어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위생에도 좋은 거지요, 안 그렇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이에 두 기술자가 내 오 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놓았다. 그들은 아주 친절하게 나사마다 기름을 쳐주었다.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내가 말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동지.” 그 기술자가 말했다. “간단한 일이었거든요. 그냥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두 시간씩이나 시간을 보냈는데, 간단한 일이라뇨. 제가 반파쇼 기부금으로 민병대에 기부하겠으니 받아주십시오.”

이 말에 그들은 동의했다. 나는 5 마르크를 마을 금고에 맡기고 떠났다.

존 랭든 데이비스

집단화

8월 13일, 마을 주점에서 일상적인 농민 집회가 열렸다. 그것은 어제 집회에서 거론한 문제를 계속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어제 몇 명의 아나키스트들이 농민들을 소집하여 타르디엔 타마을을 코뮌으로 만들자고 제의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는 의견이 분분하여 다시 논쟁이 벌어진 것이다. 몇 명의 농

어낸적이있었던스탈린주의의위험에대해비꼬는말이한두마디나왔다. 마을은 축제분위기로들끓으면서희망이부풀어올랐다.

존랭든데이비스

두루티의선봉원정대가마을에들어왔을때, 원정대의정책고문관들은우선파견판사를해임시켰다. 마을문제를세가지질문으로해결했다.“파견판사는어디에있는가? 토지대장을보관하고있는토지등기소가어디에있는가? 감옥은어디에있는가?”그러고나서그들은법원서류와토지대장을불태우고구속자들을석방하였다.

마누엘베나비데스

마을이하나로뭉쳐보급품을트럭에가득실어전선으로보냈다. 많은사람들이 흥분에사로잡혀자신의가난은아랑곳하지않고가축중에제일살찐놈을잡기도했다. 특히놀라운것은아라곤지방주민들의태도였다. 본래이지역에는향토애같은 것이라고는찾아볼수가없었다. 그렇기때문에설령이지역주민들이카탈루냐와 나바라사람들이아라곤에서전투를벌이는일에반대했더라도아무도이상하게생각하지않았을것이다. 그러나그지역농민들은바르셀로나에서출정한원정대에게그들나름대로성대한잔치를열어환영해주었고, 낙오병들에게는힘을북돋아주기도했다. 그러면서도그들은원정대에게빵과포도주밖에대접하지못해서미안하다는말까지했다. 만일민병대가대접을사양한다면아마그들은모욕을당하는기분이었을것이다.

프랑크옐리넥(Frank Jellinek)

나는내오토바이를타고남쪽으로갔다. 바리케이드가쳐진마을을통과하여계속다른마을로갔다. 농민들이들판여기저기에서일하고있었다. 나는올리브나무그늘아래앉았다. 나무에는‘달빛만먹고자란나무’라는글이적혀있었다. 이렇게 청명한날곧끔찍한전투가벌어지리라고는상상할수가없었다.

오토바이에서이상한소리가계속났기때문에약간불안했다. 전날저녁에오토바이를차고에세우면서오토바이를탈줄아는공산당민병대에게손질을좀해달라고부탁했었다. 그는엔진을한번봐주겠다고약속했다. 그러나아주기초적인것만 손봤기때문에가속페달을있는힘껏밟아야겨우갈수가있었다. 그래서나는1단기어를넣고시속35킬로미터로가까스로달려왔던것이다. 바리케이드를치고 검문하는위병소앞에도착했다.

“안녕하세요.”내가말했다.“여기이마을에오토바이를수리할수있는기술자가있습니까?”

그것은물을필요도없는무지한질문이었다. 왜냐하면스페인마을어느곳에든그런것정도는쉽게수리할수있는기술자가있기마련이었기때문이다. 며칠뒤

려독자적으로행동한폭도일것이라고했다. 아나키스트들이정부와의협력을거절했다는것도사실이아니라고말했다.

미하일콜로프

걷잡을수없는상황

7월혁명이후의상황에서우리는혁명이란대중들의의식속에욕구와목표로서이미잠재되어있던것을실현하는것일뿐이라는해묵은테제를재확인하였다. 대중의명확한의식화만이대변혁의과정에서있을수있는개인적한풀이나소외된 자들의욕망분출과같은사소한사건들이난무하는것을막을수있다.

혁명이터지기몇주전에우리는이미이문제에대하여FAI의내부회의에서도론을하였다. 당시가르시아울리베르는만일조직력으로적절히대처하지못한다면혁명은모든도덕의제방을무너뜨려인민을무서운야수로변하게만들것이라는 견해를파력했다. 그렇게될경우혁명은악탈과방화, 살인이난무하는, 걷잡을수없는상황에빠져들고말것이라고주장했다.

그러나나는그와는반대로오히려대중들의행동이위대한도덕적인힘을발휘할것이라고주장했다. 나의주장을뒷받침하기위해서우리가책에서보았던무장한인민을제시하였다. 그러나7월혁명의과정을지켜보면서나의관점을수정하고가르시아울리베르의주장이타당했다고인정할수밖에없었다.

투쟁사흘간의과정에관한한우리는비난받을것이아무것도없었다. 처음사흘간은썩훌륭했다. 그러나그이후대중들이아무런통제도받지않은채무의식적으로난폭한행동을일삼는것을목격했을때, 우리는할말을잃어버렸다. 그결과가어떤상황을발생시킬지에대한고려나그것이회복불가능한결과를초래할수있다는 사실을전혀개의치않고대중은될대로되라는식으로행동하였다. 우리는대파국이다가오고있음을예감했지만그것을막기에는역부족이었다. 물론민병대위원회가제동을걸려고시도도해보았다. 그러나그러한제동이아래에서부터직접적이고자발적으로작용하지않는한별효과가없게마련이었다. 제동은오직의식이한단계높아진인민자체에의해서만가능한것이다.

무의식적행동의결과에대한한좋은본보기가바로인민급식소였다. 인민급식소는즉시각도시마다설치되어누구에게나필요한만큼의음식을무료로배급하였다. 급식소는수주간기능을발휘하면서도시와농촌의민중들에게공급할식량을비축했다. 그러나민중들은언제나우리에게더많은식량을요구했고우리가더이상내놓을것이없었을때, 급식담당원들은창고나상점에서필요한것을임의적으로가져갔다. 그러나그들은전선의민병대에보낼식량은전혀배려하지않았다. 그들의‘압류행위’가지방경제를황폐하게만들었다. 언제나그것이위원회를악몽처럼가워눌렀다. 이것때문에우리는좋은인상을받지못하고항상분노를샀다. 의식

의결핍은 개개당파나 조직들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일반적 현상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혁명을 그저 전리품을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만 이해했던 것이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탈취한 공장을 다시 복원하여 산업과 지방 경제의 현장에 노동을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디에고 아바드 데 산티안

FAI,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개입하다

7월 30일 바르셀로나. 우리는 일체의 폭력과 독단을 적으로 간주한다. 어떤 유혈 사태도 정의를 세우려는 인민의 의사와는 무관한 것이며 이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조처할 것이다. 우리는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하지 않고 전 바르셀로나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간다면 누구든 예외 없이 총살할 것임을 엄숙히 선포한다. 이 조처에 대한 우리 의 각오는 우리가 냉혈동물 일만큼 단호하다는 사실을 미리 밝혀둔다. 만일 또 다시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인간성에 대한 범죄 행위로 간주할 것이다.

바르셀로나 인민의 명예와 CNT, FAI의 이름을 걸고서 그런 월권적인 폭력 행위를 종식시킬 것이다. 분명히 우리는 폭력 행위를 근절할 것이다!

「노동자연대」

스페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 스페인에 다녀온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견해를 말하고, 이야기를 확산시키면서 판단을 내리려고 한다. 그곳에 직접 가서 혁명과 내전의 상황을 구경하고 기사를 한 줄 쥐고 돌아오고 싶어 하는 것이 요즘 유행하고 있다. 스페인 의사건에 관한 브로포를 찾기 위해서 더 이상 신문조각이나 잡지를 뒤적일 필요가 없다. 피상적인 것 말고 실제로 스페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선 사회적 변혁은 그것이 개인의 일상적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관점에 의거해서 만제대로 평가 할 수 있다. 그런데 ‘민중’의 일상적 삶을 바르게 간파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민중의 일상적 삶은 나날이 변하게 마련이다. 거기에는 강요와 자발성, 이상과 필연이 뒤섞여 있다. 객관적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행동이나 관찰자로서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도 예측할 수 없는 혼란이 발생한다. 이 점은 내전의 본래적 속성이기도 하지만 가장 불행한 일인지도 하다. 이것은 스페인에서 발생한 사태를 정밀 검토한 결과에 근거하여 내릴 수 있는 최초의 결론인 셈이다. 이러한 결론은 우리가 러시아 혁명에서 경험한 그 모든 것을 들먹일 필요도 없이 충분히 입증된다. 혁명이 사회적 과정을 통하여 명확하고도 강렬한, 한 단계 높은 의식을 자동적으로 촉발할 것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진실이 아니다. 오히려 혁명이 내전의 성격을 떨 경우 그 반대의 상황이 일어난다. 내전의 소용돌이 속에서는 원칙과 현실의 관계가 일체 사라지고 만다. 행동과

농민들

해방

우리는 아라곤의 황량한 고원에 위치한, 어느 한 전형적인 마을에 진을 치고 있던 CNT 의원 정대를 따라갔다. 우리는 그 마을을 산타마리아라고 불렀다. 마을은 교회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1백 가구가 모여사는 그 마을에는 동사무소와 감옥이 있었다. 쓸만한 땅은 거의 없었고 농부들이 일구는 보잘 것 없는 땅 뿐 기도 오리 모양을 한 하천에 만의 존하여 겨우 경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하천 조차도 7월이 되면 말라버린다. 나무라고는 올리브 몇 그루와 무화가비 숫한 나무 몇 그루가 전부였다. 토착민들의 말에 의하면, 날씨는 석달 러 이겨울이고 아홉 달은 지옥이라고 했다.

마을 주민들은 부유한 지주들만 빼놓고 모두가 반파시스트들이다. 그곳에서 지주들은 부자로 통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농장에서 일년에 약 2천 마르크의 소득을 올리기 때문이다. 지주들은 대개 사라고사에서 시간을 보냈지만, 특히 7월이 되면 신속히 도시로 사라졌다. 공무원 한두 명, 시장과 치안 경비대의 경찰 간부가 그 부류였다. 일부에는 작은 공장과 발전소, 그리고 유착기를 가진 ‘자본가’도 끼어 있었다. 물론 마을 성당의 신부도 포함된다. 신부를 제외하고 그들에게는 아들이 한둘이었다. 그들의 자식들은 사라고사에서 옷을 사입하고 반나절 카페에 앉아 그들에게 접근하는 온갖 애벌레들과 농담을 주고 받았다. 바르셀로나나 사라고사에서라면 이도령들은 분명 볼품 없는 존재들이지만 마을에서는 멋쟁이 행세를 했다. 그들 대부분은 파소 단체인 팔랑헤에 가입해 있었다. 법과 제도는 분명히 그들의 편에 있었다. 그들은 어떤 재해도 받지 않았으며, 그래서 반동적인 생각을 쉽게 말로 내뱉었다.

바로그 마을에 두 루티 의원 정대가 행군해 들어갔던 것이다. 열정에 비해 장비는 턱 없이 부족했다. 그들이 행한 첫 번째 일은 정화 작업이었다. 그들은 산타마리아에 존재해 왔던 파시즘의 잔재를 말끔히 청소할 계획이었다. 정화 대상 명단에 오른 자들 중에 제때 사라고사로 도망 가지 못한 사람들은 마을 주민들이 좋게 이야기 하더라도 사살되었다. 당사자들은 말없이 조용히 있었다. 그 다음 원정대는 동사무소에서 모든 토지 대장과 재산 등본을 마을 공터로 끌어내어 불태웠다. 그 조치는 실제로 중요했다. 그것은 의식적인 조치였다. 모든 주민들이 모였고 원정대의지도자는 그들에게 자유 공산주의의 원칙을 설명했다. 그때 보수 집단들에게서 조차 공감을 얻

바랍니다. 우리의 투쟁을 독려하는 편지를 우리에게 보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피복과 음식, 무기와 실탄을 보내는 것으로도 부족합니다. 이번 전쟁은 초현대식 기술적 수단이 동원된 것이기 때문에 상대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이 전쟁은 카탈루냐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우리 간부들은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카탈루냐 경제를 이상황에 맞게 조직화 해야 합니다. 우리 경제에 질서가 자리 잡아야 합니다.

부에나벤투라 두루티 4 호

두루티는 바르셀로나에서 “여러분은 안심하고 잠을 자도록 됩니다”라고 연설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우리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제 2 내전의 맹아가 발아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어쨌든 마드리드의 라르고 카바예로 정부도 안심하고 잠을 자는 것처럼 보였다. 비록 긴박한 위기와 대결을 벌여야 했지만 말이다. 참모부가 무능했든지 아니면 배신했을지도 모른다. 예수스에르난데스 교육부장관은 한참 모부장교가 카바예로와 대화를 나누면서 민병대는 아무튼 실직 문제를 해결하는데에도 움이 될 것이며, 그들은 하루에 단 10 페세타로 일하는 셈이 된다고 말했다고 공개적으로 나중에 밝혔다. 이런 천박한 냉소주의는 이후에 발생한 사건들에 의해 지지 없이 논박되었다.

프랑크 엘리넥

제도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기준마저도 깡그리 사라져버린다. 그리하여 사회 변혁은 마치 공놀이와 같은 단순한 우연의 일로 변하게 된다. 스페인에서 잠시 머물면서 목격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인데 어떻게 일관성 있는 보고가 가능하겠는가? 그런 경우 아무리 잘돼봤자 몇 가지의 인상에 불과하며, 이런 인상에 근거해서는 어떤 학설도 내세울 수 없는 일이다.

시몬느 베일

아마내가 선량한 많은 동지들에게 충격을 줄지도 모르겠다. 내가 스캔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진정 자유를 말하려면 설령 기쁨을 줄 수 없는 것이라도 생각한 바를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법이다.

우리 모두는 단한 순간도 긴장을 풀지 않은 채 피리네 산맥 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투쟁을 지켜보고 있다. 우리 편을 도우려고 애쓰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토록 많은 노동자와 농민이 그곳에서 자신들의 피로 써 그대를 지불하고 있는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런 비슷한 경험은 이미 유럽에서 한번 했었던 바이다. 그것은 러시아 혁명의 경험 이었다. 그 경험도 많은 피를 대가로 지불하였다. 당시 레닌은 주민과 차이가 나는 군대와 경찰, 관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국가를 모든 세계에 요구했다. 그러나 레닌과 그의 세력들이 권력을 장악해 가는 길고도 고통스러운 내전의 과정에서 그들은 가장 억압적이고 관료적인 군사 기구와 경찰 기구를 세웠던 것이다. 불행한 민중은 이 기구에 의해 고통을 받았다.

레닌은 권력을 장악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기구 인정당의지도자였다. 이미 당시의 많은 사람들은 레닌과 그의 동지들의 정직성에 대해서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그들은 레닌이 선전했던 이상적인 목표와 그가 만든 당의 구조 사이에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반면에 카탈루냐의 우리 아나키스트 동지들의 정직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의 목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스페인의 상황은 어떠한가? 우리는 억압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며, 비인간적인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다. 이런 형태야 말로 바로 아나키스트들의 인간적 자유이며 배치되는 것이다. 내전의 필연성과 그 분위기가 내전의 실현을 촉발했던 본래의 희망을 오히려 억압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군대식 강제와 노동 현장에서의 억압, 언론과 방송이 확산시키고 있는 거짓을 증오한다. 그리고 우리는 계급 차별과 독단과 잔인성을 혐오한다.

그런데 스페인에서도 군대식 강제가 난무하고 있다. 자원 병의 물결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군사 동원령이 법제화되어 방위의 무가 일 반화되어 버렸다. 우리의 동지들로 구성된 FAI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평의회 방위 위원회 조차도 옛 군법을 민병대에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산업부문에서도 강제규칙이 지배하고 있다. 우리의 동지들이 중요한 경제장관직을 떠맡고 있는 카탈루냐 정부도 노동자는 정부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만큼의 많은 임금을 해야 한다고 확정했던 것이다. 그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노동자는 반동으로 여기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을 것이라는 법령까지 제정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산업 생산 활동에서 사형 언도와 같은 것이다.

7월 19일 이전의 구시대 경찰은 힘을 완전히 상실했다. 내전 첫 3개월 동안 조사 위원회가 활동하였다. 조사 위원회에는 정치적으로 책이 이미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다. 그들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총살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말하자면 그들은 노조측이나 그밖의 다른 어떤 측으로부터 도통 제를 받지 않았던 것이다. 얼마 전에 야비로 소인 민재판소가 설치되었다. 인민재판소는 실제 적쿠데타군뿐만 아니라 그저 그렇게 분류된 사람들도 재판해야 한다. 이러한 개혁 조치가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장담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이다.

7월 19일부터 조직적인 거짓 비방이다시 고개를 쳐들기 시작했다…….

시몬느 베일

어린 시절부터 나는 사회적 위계질 서로로부터 억압 받아온 민중의 편에 선 정치집단에 호감을 가져왔다. 그러나 그것은 그려 한 정치집단이 더 이상 호감을 받을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깨달았을 때 끝이 났다. 내가 어느 정도 기대를 걸었던 마지막 정치집단은 스페인의 CNT 조직이었다. 나는 내전이 발생하기 전에 스페인에 갔었다. 그 나라를 충분히 이해한 것은 아니더라도 이의를 달기에 만만치 않은 스페인의 민중을 사랑할 만큼은 이해하였다.

아나키즘 운동이 전개되는 가운데서 나는 민중이 자신의 장점과 단점, 합법적 요구와 비합법적 희망을 자연스럽게 표출한다는 사실을 목격했다. CNT 와 FAI 는 놀라운 복합 조직이었다. 각각 스페인에서 환영을 받고 있었고 대표권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긴밀한 사항에서는 서로 대립성을 드러내보이기도 했다. 한쪽은 냉소주의, 도덕파괴주의, 열광과 물인정주의를 표방했고 다른 한쪽은 형제애와 인간애를 표방하면서 소박한 인간이 지녀야 할 기본적 품위를 강조하였다.

전자의 경우 무질서와 폭력에 호소하는 취향이 있었고 후자의 경우 이상을 현실로 실현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내가 보기에 후자의 경향에 의해 CNT 가나아갈 방향이 결정되었던 것 같다.

1936년 7월 나는 파리에 있었다. 나는 전쟁을 싫어한다. 그런데 전쟁에서 항상 가장 끔찍스럽게 느껴졌던 것은 후방에 있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였다. 내의지와는 반대로 전쟁에서 어느 한 쪽 편을 들 수 밖에 없다는 사실과 그래서 매일 매시간 한 쪽의 승리와 다른 반대 쪽의 패배를 기대한다는 사실을 통감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있는 곳은 파리의 후방이 아닌가라고 나 스스로에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는 자원병으로 지원하기 위해 바르셀로나 행 기차를 탔다. 그때가 1936년 8월 초였다.

이전선으로 달려갈 때 만 후방의 사람들에게도 희생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법입니다. 모든 도시 노동자들의 적극적 동원이 필요합니다. 전선의 우리는 우리 뒤에 누가 서 있고,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 차원 높은 목적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누구의 편인지 보여주려는 민병대도 있습니다. 신문이 민병대를 위한 기금을 모금하게 한다든지, 도움을 요청하는 플래카드를 벽에 내거는 것은 민병대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일은 민병대에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파시스트들이 유포하는 전단에서도 그와 유사한 국호를 내거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위험한 덫에 걸리지 않으려면 돌처럼 단단한 블록을 형성해야 할 것입니다.

전선의 우리는 여러분에게 단한 가지만을 원합니다. 후방의 여러분이 우리에게 책임의식을 가져달라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후방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조직들이 여성들과 아이들을 돌봐주길 요구합니다.

그런데 일 반동원령을 두고 사람들을 위협하여 엄격한 규율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오해하는 사람은 우리를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질서를 피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를 전선에 초대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우리의 도덕과 규율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후 우리는 창끝을 돌려 후방의 도덕과 규율이 어떤 것인지 눈여겨볼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심해도 좋습니다! 전선에는 혼란이나 규율의식의 결핍 같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책임을 충분히 그리고 정확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에게 어떤 과제를 부여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안심하고 잠을 자도록 됩니다. 그 대신 우리는 카탈루냐의 경제를 여러분의 손에 맡겼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방심하지 말고 여러분의 규율을 엄격히 잘 지켜줄 것을 부탁합니다. 우리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제 1 내전에서 우리 가승리를 거두기도 전에 제 2 내전의 맹아가 발아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자신의 당이 제일 막강한 당이며, 그래서 다른 당에 자기 당의 강령을 강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야말로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말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파쇼의 독재에 대하여 우리의 단합된 힘과 통일적인 조직, 그리고 통일적인 규율로 맞서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하에서도 파시스트들의 진군을 저지해야 합니다, 파쇼를 저지하자! 지나갈 수 없다 (¡NO PASARÁN!)! 이것이 전선의 구호입니다.

부에나벤투라 두루티 3호

두루티연설문제 2호

지금이 순간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더 짧은 노동 시간이나 더 높은 임금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희생을 감수하면서 필요한 만큼 충분히 일해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모든 노동자들이 감당해야 할 의무입니다. 특히 CNT 회원들인 경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나는 모든 조직에게 모든 분파 투쟁과 책동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전선의 우리는 정직을, 특히 CNT 와 FAI 의 정직을 요구합니다. 우리 간부들이 솔직하고

할것은너무도뻔합니다. 우리는지금즉시이런사태를중단시킬어떤조치를취해야합니다. 전선에서한가지명령을내리려면온갖사설을다늘어놓아야하는형편입니다. 아무도지시에따르려고하지않습니다. 후방에서는신흥부르주아들이호화저택을짓고, 고급승용차를타고돌아다니고있습니다. 카페와카바레, 무도장등은초만원입니다. 마치우리가최상의세계에서살고있는듯이말입니다. FAI의우리동지들조차점차이런구역질나는놀이에가담하려는성향을보이고있습니다.”

장라이노

두루티가낡을대로낡은자동차를타고좀처럼가지않던후방지역을방문했다. 11월 5일, 바르셀로나에서그는라디오연설을했다. 도시의모든시민들이람블라스거리에서중계방송되는그의연설을듣기위해귀를기울였다. 전에그는 10월 혁명열아홉돌기념행사차소비에트연방을방문했던스페인특사와함께스탈린에게축하의메시지를전한적이있었다. 두루티만큼통일전선의필요성을명확히인식하고있는 사람은아무도없었다. 채택된강령을따르는몇몇아나키스트들은가장저명한지도자인두루티가 POUM 이주장하듯이이미‘스탈린식관료주의자들’을용인하기까지에이르렀다고생각할정도였다.

프랑크엘리넥

두루티연설문제 1 호

나는인민의심장을족쇄로채우려했던군부의조직을넉달전에아주용감하게분쇄한카탈루냐인민에게고합니다. 대성당의첨탑이눈에들어오는, 사라고사에서불과몇킬로미터밖에떨어지지않은아라곤전선에서투쟁하고있는여러분의친구와동지들을대표하여내가여러분에게인사를전합니다.

마드리드가위기에처해있습니다. 이세상에는혁명적인민을굴복시킬수있는어떤세력도있을수없다는사실을상기하십시오! 우리는아라곤전선을사수할것입니다. 그리고나서우리는마드리드의동지들도굴복하지않을것이라는기대를갖고마드리드로진격할것입니다. 카탈루냐민병대는지난 7월투쟁에서파시스트를굴복시켰던것처럼마드리드거리에서도자신들의의무를다할것입니다. 노동계급조직들은지금의주요과제가바로파시스트들을근절하는일이라는점을한순간도잊어서는안될것입니다.

우리는카탈루냐인민이모든음모와경쟁의식그리고내부갈등을종식시켜줄것을요청합니다. 우리가전쟁의한가운데에서있다는한가지사실만을자각한다면해묵은원한과정치적음모술수는반드시사라져야합니다. 카탈루냐인민은전력을다해야합니다. 결코전선의투쟁가들에게뒤쳐져서는안될일입니다.

마지막남은우리의힘을총동원하는것외에우리에게는다른선택의여지가없습니다. 언제나자원병만으로충분하다고믿어서는안됩니다. 카탈루냐노동자들

한가지불행한사태때문에나는바르셀로나에오래체류할수없었다. 이삼일정도만바르셀로나에머물렀다. 그후나는에브로해안에위치한아라곤으로갔다. 그곳은사라고사에서 15 킬로미터떨어진거리였다. 야구에스 Yagües 부대가그 강을건넜다. 그후나는야전병원으로사용한시트게스 Sitges 의저택으로갔다. 그리고다시바르셀로나로돌아갔다. 스페인의체류는모두합쳐봐야두달정도밖에되지않았다. 내의지와는무관하게스페인을떠나야만했다. 떠날때는다시돌아오겠다는다짐을했지만쉽게포기하고말았다. 전쟁에가담해야겠다는내적필요성을느끼지못했다. 전쟁은처음내가생각했던것처럼, 오랜세월동안가난하게살아왔던농민대중이자주계급과그들의하수인들, 그리고교회신부들을상대로하여별이는싸움이아니라유럽열강들이서로대결하는속성을띠었던것이다. 열강은러시아와독일, 이탈리아였다.

시몬느베일

물자부족

제 2 원정대가아라곤전선에배치되었을때우리는우리자체아나키스트조직들의몇몇중요한정치가들과최초의난상토론을벌였다. 우리민병대위원회는아라곤전선에배치된민병대의중대와대대, 연대를지휘하기위해서는이름이널리알려진, 가장능력있는동지들을전선으로보내야한다고주장한반면에정치가들은반대의견을개진하였다. 그들의주장은전후시대를대비하여가장훌륭한지도자를아끼우자는것이었다. 그러나그후의결과를본다면작전지휘본부를우연의법칙에맡긴꼴이되었고, 그래서우리단위부대들의투쟁력이떨어지고말았던것이다. 우리는잘훈련된장교를전선에거의배치하지않았다. 그런장교가있었지만기껏해야그들을장군의참모나전술고문관으로만투입했을뿐이었다. 우리민병대는직업군인이되는것을싫어했고, 직업군인을신뢰하지도않았다. 이러한분위기는이전의직업군인의모든행태를고려한다면충분히이해할수있는일이었다.

그러나지도력이있는사람을전선으로파병하기를꺼렸던다른당들과마찬가지로우리조직의거의모든지도부도자신의안녕만을염두에두고있는것처럼보였다. 그들모두는아직쓰러지지도않은곰의가죽분배몫만을기다리고있었다. 이처럼후방에서는정치모리배들의장사판이준동했다. 그들이보인행태는혁명이전의직업정치가들의그것보다종종더역겨웠다.

우리는그런행태를묵과할수가없었다. 왜냐하면그것은우리에게필요한만큼의전선투쟁력을강화할수없도록만들었기때문이다. 예를들어아라곤에서우리는허약한감시전선을구축하고있었다. 전선의길이에비해열악하게무장하고있었던셈이다. 솔직하고백한다면, 아라곤전선의무기는기껏해야 3 만정의소총뿐

이었던것에비해후방의조직들과당파들은대략 6 만정정도의소총과많은실탄을 구비하고있었다. 후방의실탄보유량이전선부대의그것보다훨씬많았다.

우리는자체조직들의수중에있는전쟁물자를전선의민병대에게넘겨줄것과, 많은대원들을전쟁에투입해줄것을우리의조직들에게수십번요청했다. 후방의 안전은여성들과아이들도돌볼수있었다. 그러나조직은다른정파들이우리의배 후를공격할기회만을호시탐탐노리고있는마당에자체조직원들의무장을해제하는것은불가능하다고답변했다. 우리는이러한주장에도반박하였다. 우리는우리 쪽사람들이먼저무기를내놓고스스로전선으로가겠다고동의한다면다른모든조 직에게도무기를내놓도록설득하겠다고제안했다. 그리고우리자체조직이가장 불신하고있는다른그룹들의문제는조직에게위임하겠다고했다. 남아있는기동 경찰과보안경찰그리고지방경찰의무장도해제하여그들을전선으로보내겠다고 설득했다. 그러나우리자신이그렇게할준비가되어있지않아서별설득력을얻지 못했다.

이런식으로후방지역투쟁가들은변명을늘어놓았다. 두루티가바르셀로나에 돌아왔을때마다수많은무기들이무의미하게거리를누비고있는것을보고는격분 해하였다. 어느날그는사바델 Sabadell 에기관총이 10 정정도보관되어있는것을목격했다. 그무기를민병대에제공해줄것을정중히요청했다. 그러나거절당하자기관총을강제로압수하기위해사바델에 1 개중대병력을보냈다. 다행히도그 가시기적절하게우리에게사실을알려주었다. 우리가개입했기때문에유혈충돌을막을수있었다. 무기의일부가제공되었다. 그무기들은공산주의자들의것이었다. 그런데바르셀로나의우리쪽동지들만해도대략 40 정정도의자동소총들은 밀히보관하였고, 그것은아라곤전선전구역에투입된수량보다더많은것이었다고말한다하더라도별반의미가없는이야기다. 왜냐하면다른정파들이얼마나많은무기를보유하고있었는지우리로서는전혀예측할수없었기때문이다.

디에고아바드데산티얀

마침내그들이자동소총을두루티에게보냈지만실탄이없었다. 그리고그후실탄이도착했을때는화기가망가져있었다. 두루티가전화를걸고또걸었다. 결국그 가직접바르셀로나로갔다. 그는정부뿐만아니라 CNT 에게도원조를요청했다. 무기가없다는답변을듣자그는우리의호주머니에들어있던권총들을끄집어내었다. 우리도자기몸을방어해야하지않느냐고항변하자그는딱질라말했다. “여기 후방에있는자네들이무엇때문에권총이필요한가? 내놓게, 아니면함께전선으로가세!”이런식으로그는자기쪽사람들인아나키스트들을다루었다.

마누엘에르난데스

전쟁물자가부족하여두루티의공격은중단되었다. 그는전화에대고목이쉬어 라고소리를질렀다. 좀더많은실탄과소총과화포를요구했다. 후방에독촉을했지

만답변이없었다. 만일우리가칠팔월에 2 만 5 천 ~3 만명이아니라동원가능한 최대인원인 6 만 ~8 만명을소집하여, 보유한모든무기와함께그들을아라곤전 선으로보냈더라면승리는틀림없이우리의것이되었을것이다.

이전에교육부장관을지냈던프란시스코바르네가한번은부하랄로스에있던 두루티를방문하고돌아간것이기억난다. 때마침그는그곳에서벌어진적의침투 작전을함께목격했다. 그리고그는실탄이떨어진민병대가수류탄만으로적의공 격을막아내야하는상황앞에서두루티가울분을터뜨리는것을보았다. 만일적이 실탄이떨어진원정대의상황을알았더라면원정대의저지선을쉽게뚫고민병대를 포로로잡았을것이다. 아라곤전선에서그런상황은매일거듭되었다.

디에고아바드데산티얀

내전동안우리가구입한모든무기의대금은 CNT 가지불했다. 마드리드정부에는아예기대도걸지않았다. 라르고카바예로가인색한인물이아니었지만, 그것은아무소용이없었다. 왜냐하면국가의재정을담당한인물은바로네그린이었기 때문이다. 네그린의역할에대해서는구구한이야기가많다. 그러나내가장담할수 있는것이있는데, 그는애초부터아나키스트들이결정적인역할을떠맡는것을저지하기위해온갖수단을동원한자들의편에서있었다는점만은사실이라는것이다.

그들의수단이여러가지였지만한가지점에서공통성이있었다. 그것은우리에게필요한최소한의무기조차도가능한한적계제공하는것, 그리고방어하기가각 장힘든전선의구역을우리에게떠맡기는것, 우리가해결할수없는문제에직면하였을때생각할수있는모든수단을동원하여우리조직내에분열의씨앗을뿌리는것이었다.

그러나두루티에게는그것이통하지않았다. 그는언제나 CNT 노선에동의했고, 카탈루냐와아라곤지역위원회뿐만아니라아라곤방위고문단의노선에도동의하였다. 노선에대한의견충돌은단한번뿐이었다. 그것은두루티가엘사에서사라고사로진군하려고했을때였다. 이에반대한사람은두루티의옛친구인가르시아올리베르였다. 가르시아올리베르는당시카탈루냐민병대위원회의비서직을 맡고있었다. 두루티는화가나서어쩔줄을몰라했다.

페데리카몬트세니 1

권유

두루티가다음과같이자신의동지들에게말한것은정당한일이었다. “전선에서는규율을위반하고후방에서는부르주아화가이루어진다면파시스트들이승리

11. 참모부에도 대표자들로 구성된 일반병사 협의회가 참여한다.
12. 야전군사재판은 오직 병사들로만 구성한다. 단장교가 재판을 받을 경우에 만장교를 배석하게 한다.
이 결정은 1936년 12월 22일에 가결되어 12월 29일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FAI 총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A. u. D. 프루도메우스

쿠데타를 일으킨 장군들이 그들의 뜻대로 군사 조직화의 형태를 스페인 혁명가들에게 강요하는 일에 성공하느냐 아니면 반대로 우리의 동지들이 군대를 해체시키는데에 성공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서로가 풀어야 할 절박한 숙제였다. 그러나 우리 의과제는 군사적 '전선'이나 주요 투쟁 노선을 해체하고 사회적 혁명을 스페인 전역으로 확대시킬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파시스트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한 위치에서 있다. 그들은 많은 전쟁 물자, 엄격한 군기, 일사불란한 군사 조직을 갖고 있으며 주민들에 대한 경찰 테러까지 자행하고 있다. 게다가 그들은 견고한 전선과 병력이 동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진지를 갖고 있다. 그리고 결전을 강행할 수 있는 중장비도 갖추고 있어서 전술 면에서도 민병대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

반면에 인민들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 요소들은 파쇼의 그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것들이다. 인원의 우위, 정치적으로 이름난 개개인들의 적극적지도와 공격의지, 전국 노동자 대중들의 공감대 형성, 적의 지역에서의 파업과 사보타주 같은 경제 투쟁이 전부다. 적들의 군사력을 능가하는 것이라고는 정신적 육체적 힘을 바탕으로 한 기습 작전과 같은 게릴라 전뿐이다.

그러나 스페인 인민 전선 가운데는 전략 전투 계획이라는 구호 아래 일반 병역의 무와 흡사한 군사 조직을 갖춘 부대도 있다. 그들은 파시즘 군대와 엇비슷하게 닮아가면서 군국주의를 통해 군국주의 와 투쟁하고, 바로 군국주의의 수단을 동원하여 적을 타도한다는 강령을 내세우기도 한다. 말하자면 그들은 정규전에서 볼 수 있는 군사 전과 물량전을 전개하였는데, 그것은 일종의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 자신들의 동지들 중에서도 볼셰비즘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적색 군'을 창설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어떤 입장에서든 그런 태도는 우리에게 위험한 것으로 비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스페인의 직업 군인이 아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게릴라 전을 펼치는 민병대이다.

스페인 반파시스트

한스마그누스엔첸스베르거
어느 아나키스트의 죽음
1999년

짧은해설 6

아나키스트들의 패배에 관하여

스페인공화정은 1931년의 공화국 선포로부터 1939년 3월의 과도기에 이르기까지는 언제나 부르주아지적 국가였다. 마드리드에는 '적색' 정부가 존재하지 않았다. 1936년 7월의 스페인 혁명은 기존의 국가 기구를 철저히 분쇄하지도, 그대로 인수하지도 않았다. 혁명은 우선 국가 기구의 기초를 뒤흔든 다음 그것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나갔다. 유일하게 조직화된 혁명의 추동 세력은 아나키즘 노동자 운동뿐이었다. 내전에서 거둔 초기의 승리는 아나키스트들이 동원한 세력들 덕분이었다.

그러나 승리의 첫 순간부터 스페인의 자유 구역은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뉘어서로 타협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대립하였다. 한 쪽 진영은 혁명적 민주주의 세력이 통치하였다. 이들의 정치적 힘은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고문단과 위원회가 발휘하였고, 군사적 힘은 민병대에 있었으며, 경제적 생산 방식은 농업과 산업에서의 집단 생산이었다. 반대 진영에는 구 공화국의 부르주아지 세력이 있었다. 이 세력은 행정부와 정규군을 가지고 있었고, 자본주의적 사유재산과 생산 구조를 유지하였다. 따라서 이들이 전투를 수행하는 방식도 서로 정반대였기 때문에 노선의 통일은 상상할 수가 없었다. 각자는 자기의 방식이 유일하게 올바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전통 적국 가기구의 집행자들은 작전 전문가인 장군들을 앞세워 위계 질서를 갖춘 군대를 수단으로 하여 재래식 전투를 벌이려고 한 반면에, 7월 19일의 승리자들은 정치적으로 동원한 민병대와 게릴라 전으로 만최후의 승리를 쟁취 할 수 있는 혁명적인 민전쟁을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출정 상황의 결과는 복수지배 체제였다. 이체제는 1936년 6월부터 그 해가을 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근본적인 모순을 안고 있는 이체제는 서로 양립할 수 없었다. 그 모순은 힘에 의해 서만 해결될 수 있었다. 결과는 내전 속에서의 내전이었다. 이내전은 처음에는 서로의 상반된 감정을 은폐한 냉전의 방식으로 진행되다가 마침내 노골적인 싸움의 양태로 변하였다. 이 싸움에는 다음과 같은 세력들이 대립된 진영을 이루었다. 한 쪽 진영은 공산주의에서 이탈한 좌파 그룹들로 구성된 통

합마르크스주의노동당 (POUM : Partido Obrero de Unificación Marxista) 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던 CNT-FAI 동맹단이었고, 다른 한쪽 진영에는 라르고 카바예로 가이끌었던 공화국의 시민당파들과 소비에트연방으로부터 대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던 스페인 공산당이 있었다. 스페인 공산당은 사회민주당을 우파의 입장에서 극복하여 보통 시민이라는 본래의 의미를 획득한 당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선전하는데에 성공하였다. 이들 공산주의자들이 모스크바로부터 하달된 지령만을 따른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때 스페인 노동자들의 이해 관계는 아무런 연역 할도 하지 못했다.

CNT-FAI 의지도부는 이러한 1936년 가을의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도 성장할 수가 없었다. 이들은 한편으로는 파쇼의 공격에 의해, 다른 한편으로는 혁명 진영 내부의 반혁명 세력에 의해 고립되었기 때문에 아나키즘 강령의 소박한 전통적 원칙을 수정하지 않고는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지도부는 이런 현실 앞에서 한 걸음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아나키스트들이 정치적 매개물, 즉 원칙 고수와 전술적 유연성 사이의 중개물을 무조건 무시한 것은 그들이 범해온 해묵은 오류였다. 그것은 위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들에게는 혁명으로 바로 통하는 '올바른 좁은 길'을 벗어나기만 하면 더 이상 불잡을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CNT-FAI 는 내부에 정적을 둔 것이 패망의 원인이 되고 말았다. 그들의 원칙 고수는 무한한 반대 주의를 낳는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이다. 몇 달 지나지 않아 대중 운동의 혁명적 주체들이 아나키즘의 지도부로부터 빠져나갔다. 급속도로 와해되는 이과정의 몇몇 단체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할 수 있다.

1936년 9월 8일: CNT 의대표 후안 로페스 (Juán López) 가 발렌시아에서 아나키스트들의 협력 활동과 정부의 프로그램에 대한 이들의 지원 상황을 마드리드 중앙 정부에 보고하다.

1936년 9월 26일: CNT, 카탈루냐 지방 정부에서 중요하지 않은 세 개의 장관직을 접수하다.

1936년 10월 1일: CNT, 민병대 중앙 위원회의 해체에 동의하다.

1936년 10월 9일: 지령에 의해 모든 지역 고문단과 위원회가 카탈루냐에서 해체되다. CNT, 이 조치에 동의한다고 선언하다.

1936년 12월 초: 마드리드에서 CNT 대원들과 통일 공산당 사이에 무력 충돌 발생하다.

1936년 12월 4일: CNT, 마드리드 중앙 정부에 관여하다. 아나키스트들, 서열 2 위의 고위 장관직을 맡다 (사법부와 보건부, 상공부).

1936년 12월 15일: 최고 안보 위가 정치 경찰을 집중 배치하다.

1936년 12월 17일: 모스크바 「프라우다」 지가 사설을 게재하다 — “이미 카탈루냐에서는 트로츠키파들과 아나르코 생디칼리스트를 숙청하기 시작하였다. 이 숙청은 소비에트연방에서 실행된 것과 같은 수준에서 이행될 것이다.”

1936년 12월 24일: 마드리드에서 무기 소작 가금지 되다.

1936년 12월말: 공산당이 POUM(통합마르크스주의노동당)에 대하여 공격의 포문을 열기 시작하다.

1937년 2, 3월: CNT-FAI 의지도부와 조직원 사이에 심대한 의견 대립이 발생하다. 아나키즘 운동권 내부의 혁명적 야당파가 CNT 내에 '두루티의 동지들'이라는 자체 투쟁 단을 조직하다.

1937년 4월말, 바르셀로나의 노동자들을 무장해제 시켜 경찰의 권력 독점을 회복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드러난다. 이로써 CNT-FAI 가연출한 드라마의 마지막 장, '피의 5월의 바르셀로나'가 시작된다. 최초의 유혈 전투가 벌어진다. 노동자와 경찰은 상대방을 무장해제 시키려고 한다. 5월 3일, 공공연한 가두 투쟁이 전개된다. 무장한 공산당원들이 전화국을 습격하여 CNT 가이를 접수한다. 이어서 어떤 지령도 기다리지 않고 바르셀로나 전 지역의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한다. 노동자들은 도시의 가장 중요한 거점들을 장악하고 바리케이드를 설치한다. CNT 의지도부는 시전체를 수중에 넣는다. 중앙 정부는 5천 명의 기동 경찰대를 급파한다. 5월 7일, 기동 경찰대가 바르셀로나에 진입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스페인 노동계급의 혁명사에서 가장 중요 한 혁명 운동은 결국 실패하게 된다. 이 혁명 운동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5백 명이 넘었다. CNT는 상황을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는 적의 공격을 기다리다가 거기에 적절한 최선의 방법을 동원하여 대처하는 수밖에 없었다."(가르시아 올리베르)

이 투쟁의 실패로 스페인 아나키즘은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다. CNT는 음지에서 겨우 명맥만 유지하면서 스페인 혁명의 마지막 잔류자들이 제거되는 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FAI는 5월이 되어서야 불법 단체로 규정되었다. 공산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던 우리베(Uribe) 장관은 POUM에 금지령을 내려 마드리드 정부의 위기를 해결하였다. 라르고 카바예로가 공산주의자들에게 극좌파로 보였기 때문에 퇴진되었다. 그의 자리를 네그린(Negrín)이 대신했다. 그런데 네그린은 어떤 집단화에도 단호히 반대하는 인물이었으며, 사유재산 보유자로 평평이나 있었다. 1937년 6월에 POUM 의수 뇌부가 체포되었다. '트로츠키주의자들'에 대한 마녀사냥은 트로츠키파의지도자인 앙드레닌(Andrés Nin)이 소비에트 연방 내무인민위원회의 첨보원에 의해 암살되었을 때 절정에 달했다. 정부는 8월에 소비에트 연방에 대한 일체의 비판을 금지시켰다. 공산당이 모든 요직을 차지한 새로운 부처인 국가 안전 기획부(SIM)는 자체 내에 형무소와 집단 수용소를 설치하였다. 곧이 수용소에는 아나키스트들과 '극좌파들'로 가득채워졌다. 같은 달 8월에 중앙 정부는 아라곤 방어 위원회의 해체를 명령하였다. 아라곤 방어 위원회는 스페인에 남아 있던 최후의 혁명적 무력 기구였다. 위원회의 의장인 호아킨 아스카소(Joaquín Ascaso)가 체포되었다. 공산당 제2연대는 아라곤 마을 위원회를 공격하여 농업의 집단 생산제를 해체하였다. 1937년 9월에 CNT-FAI 방어 위원회의 건물이 대포와 장갑차를 동원한 정부군의 공격을 받고 점령당했다.

1938년, 대지주들이 귀향하여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집단 농장은 후퇴하였고 카탈루냐 공장 내에서의 노동자들의 조정자 역할도 중지되었다. 기업 경영

자들과감독직원들이그들의옛자리를다시차지하였다. 외국투자가들에게는새로운배당금이지불되었다. 일반사병의급료는 10 페세타에서 7 페세타로줄었지만장교들의봉급은 25 페세타에서 100 페세타로올랐다. 견장의착용과경례의의무, 기합과같은옛관습이다시부활하였다. 하극상에는사형언도가내려졌다. POUM 과 CNT-FAI 의전투대원들은형무소에수감되었다. 혁명은일소되어부르주아지국가권력이회복되었다. 혁명의내전은패배로끝났다. 1939년 3 월말에스페인공화정정부의인사들은프랑스로망명하였다.

“이제우리가고찰한바의전체적결과는무엇인가?

바쿠닌주의자들은심각한혁명의상황에직면하자마자지금까지의강령을포기할수밖에없었다. 우선그들은정치참여의거부, 특히선거참여의거부라는의무의교시를희생시켰다. 그다음그들은국가의폐기라는아나키즘의원칙을따른것이아니라아주작은여러자치국가들을세우려고하였다. 그리고그다음그들은즉각적이고완전한프롤레타리아트해방을목표로하지않는혁명에는노동자들이가담해서는안된다는기본강령을저버리고명백히순수한시민운동에참여하였다. 마지막으로그들은혁명정부의건설을또다른기만이며, 노동계급에대한새로운배신행위일뿐이라는, 그들이최초로공언한신조를위반하였다. 그들은몇몇도시의정부위원회에느긋하게입각하였지만대부분의지역에서는다수의부르주아지에게밀려나정치적으로배제된, 무기력하기짝이없는소수파에머물고말았다.

바쿠닌주의자들이부르짖던극단적혁명의구호가나오자마자, 그들은진압당하거나애초부터전망이없는봉기의상황에빠져들었다. 혹은뻔뻔스럽게도노동자들을정치적으로착취하였고, 심지어군홧발로짓밟게했던부르주아지당과손을잡기도하였다.“

1873년에내려진이판결은프리드리히엥겔스로부터기원한다. 이것은곧아나키스트들에대한가차없는비판으로이어졌다. 그런데엥겔스가말하는‘부르주아지당’이바로스페인내전에서공산당이었다는사실에서그의반어적표현의본래적의미를찾을수있다.

마드리드방어전선

수도방문

1936년 가을에 나는 「노동자연대」 의 마드리드특파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9월 중순 경에 두루티가 내전 중 처음으로 마드리드를 방문하였다. 나의 형에 두 아르도가 그와 동행하였다. 그들은 도착한 바로 그 날 저녁에 알칼라 Alcalá 거리에 있는 신문사 사무실을 찾아나를 방문했다.

두루티는 전형적인 가죽 모자를 쓰고, 역시 가죽으로 만든 탄띠가 달린 조끼에 권총을 차고 있었다. 나는 그 유명했던 아나키스트 '고릴라'를 그때 처음으로 대면했던 것이다. 그는 키가 크고 건장했다. 머리카락은 검은 색이었다. 그의 시선은 한 곳에 집중되었고 예리했다. 태도는 완고하고 당당하였다. 그렇게 강인한 외모와는 달리 행동에는 다소 천진난만한 끼가 있었다. 그의 몸동작은 더딘 듯 했지만 힘이 있었다. 피부는 햇빛에 그을려 있었다. 손은 크고 억셌다. 입가에는 언제나 정감이 가는 온화한 웃음이 맴돌았다. 나는 그의 외모에서 풍기는 단순한 자연스러움 때문에 첫눈에 그에게 매혹되었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하면서도 힘이 있었다. 머리카락은 곱슬이었고 새까맸다. 입 모양은 컷고 입술은 두터웠다. 어깨가 딱벌어지고, 표정은 조용하고 밝아 매우 인상적이었다. 걸음걸이는 느리다 못해 마치 꽂꽂이처럼 서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카스티야고지지방의 전형적 후손과 같은 인상을 주었다.

아리엘 (Ariel)

마드리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자신이 인터뷰하는 장면이 사진과 함께 신문에 실리는 것을 원했다. 신문에 얼굴이 실리는 일이 쉬운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두루티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다. 그는 대중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그는 연극적인 행동을 몹시 싫어했다. 마드리드에서도 그는 예전과 다름 없이 솔직하게 행동하였다.

“이 모자와 가죽 조끼를……” 그가 말했다. “우리는 이제 나의 모든 대원들을 위해 만들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은 옷을 입을 것입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을 때 우리는 형제 같이 될 것입니다.”

그가 어린애처럼 천진난만하게 웃었을 때 그의 크고 하얀 이마가 마치 길들여진 늑대의 이처럼 드러났다.

“나는아라곤전선의동지들에게무기를마련해주고자하는목적으로여기에왔습니다. 만일우리가필요로하는무기를정부가제공한다면우리는이삼일내로사라고사를장악할것입니다.

여기는무기가없다고말할수없겠지요. 나는우리가원하는정도의무기를제공할사람들을알고있습니다. 그들은약간의대가를원하고있습니다. 그들은대금을금으로지불받기를원하고있죠. 그런부르주아지들은돈이문제이기때문에인간적활동이무엇인지모르고있습니다. 그런데우리정부는금을쌓아놓고있지요. 도대체금이란게왜필요한겁니까? 전쟁에서이기기위해서라구요? 그사람들은늘그렇게주장합니다. 이제우리는그들이정말로진실을말하는지확인할것입니다. 내일국무상에들어가협상을벌일작정입니다. 그들이무기의구입비용에대해서이야기를꺼낸다면우리는어디서그것들을확보할수있는지그들에게말해줄것입니다. 스페인은행에산더미처럼쌓여있는금은도대체어디에쓸것인지물을겁니다.”

우리는식사를하기위해그란 Gran 가에있는한레스토랑에들어갔다. 그레스토랑은식당노조가운영을맡고있었다. 간단한식사를하였다. 두루티가바르셀로나와아라곤전선의투쟁에대하여이야기했다. 그는이야기를하면서앞으로의일에대해서는아무런걱정이없다는듯이여러번웃었다.

식사를마치고우리는국무성으로갔다. 거기서두루티는라르고카바예로와회담하였다. 그후그는해군성의안달레시오프레에토를방문했다. 당시정부는러시아의원조에큰기대를걸고있었다. 라르고카바예로는그무렵만해도‘스페인의레닌’으로통하고있었다. 두루티는협상에서기만을당했던셈이다. 그는융송한대접을받았다. 그들은그에게약속을하면서아나키스트들이무기가부족할수밖에없는온갖이유를들먹였다. 그러나변한것은하나도없었다. 그들의약속이빈말에불과했다는사실이곧드러났다.

아리엘

한번은이일화에책임이있는라르고카바예로가자신의새내각의한장관직에두루티를임명하기위해그에게마드리드로오라는전화를걸었다. 이미그의내각에는아나키스트들도입각해있었다. 두루티는카바예로를한번도만난적이없었다. 그래서카바예로가어떻게생겼는지전혀모르고있었다. 내가두루티에게그와의회담에서어떤인상을받았는지물었을때두루티는이렇게말했다. “나는 40 대중년의인물을만나겠거니생각했지요. 그런데내앞에불쑥나타난사람은늙은이였죠. 나는그가평범한보통의정치가겠지라고늘생각해왔던것입니다. 그런데만나고보니그가얼마나신념이확고한사람이었던지깜짝놀랐습니다.”

두루티는장관직을거절하였다. 그는최전선에남아있는것이더중요하다고생각하였다. 그리고사실그는전선에서없어서는안될인물이었다. 그의원정대는그의명령이라면맹목적으로따를만큼광신적이었다.

어느마을의안토니오

모두가한결같이우리는전쟁을치를능력도공격할힘도없을뿐더러우리자신마저방어할기력도없다고말하던그순간에, 패배는말할것도없고목숨까지위태로웠던바로그순간에부에나벤투라두루티가마드리드로왔다. 막강한그의원정대가그의뒤를따랐다. 그의원정대는싸움에서한번도후퇴한적이없었고, 오히려아라곤지역의 1 백평방킬로미터이상을점령하였던부대였다. 그들은우리마드리드의부대와는너무나대조적이었기때문에그에게인터뷰를청했다.

두루티는당시에공식적으로토론할수없었던문제에대해서그때처음으로언급하였다. 그는사라고사를계획대로공격하려면 2 백만발의실탄이필요하다고했다. 그는우리편집장에게협상안에대해서이야기해주었다. 그러고나서그는지금도그내용이밝혀지지않은협상테이블에앉았던것이다. 회담이끝난후두루티는자신의전략적구상과민병대의혁명적특성그리고군기문제에대한중요한생각을인터뷰에서밝혔다.

두루티: 적들의활동과그의도에대해서는약간의상식만있는사람이라면누구나알수있는겁니다. 적은마드리드점령에한판의승부를걸고있습니다. 그래서적들은수도를정복하겠다는생각에만몰두하고있습니다. 그런데마드리드를공격하려는적의전투력은우리방어선때문에딜레마에빠져있습니다. 이불확실한공격을감행하려면적은다른전선에있는보충병을투입할수밖에없지요. 그때우리가적이철수한지역을공격하면마드리드방어를간접지원하는셈이되는것입니다. 그러면우리는적을제압하고승리자가될수있는겁니다. 아주분명한사실이지요.

그러나우리는한가지사실을분명히알고있어야합니다. 도시는말로써지켜지는것이아니라요새화함으로써지켜진다는점입니다. 곡괭이와삽도없어서는안될중요한무기인것입니다. 마드리드에는빈둥거리며지내는사람이수없이많아요. 그들을모두동원해야합니다. 단한사람의힘이라도헛되이허비해서는안될일이죠. 아라곤의막강한우리대원들은단한평의땅도적에게빼앗기지않으려고호를팠던것입니다. 우리민병대는후퇴를적의공격보다더위험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가장안전한것은진지를사수하는것입니다. 이기적인자기보호충동이패배를자초한다는것은너무도분명한사실입니다. 사람은언제나자신의생명을지키기위해투쟁하죠. 이강한충동을유용하게쓸줄알아야합니다. 나의민병대는이충동을저항력으로발전시켰습니다. 우리가저항력을기르려면진지구축을면밀히검토해야하죠. 그래서나는이곳중부전선에서도경계철조망과옹벽을설치하여안전한방어진지를구축하는것이시급히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마드리드를요새화하여방어전투에만몰두해야합니다. 그러면적은여기에총전투력을쏟을것이고, 이때우리는다른전선에서승리를이끌수있다는결론이나옵니다.

기자: 당신의원정대에관해서이야기좀하시죠?

두루티: 나는우리원정대에만족합니다. 대원들은필요한모든것을갖추고있습니다. 때가오면그들은전투를훌륭하게치를것입니다. 이말은민병대가단순히

전쟁의도구가되었다는뜻이아닙니다. 아니고말구요. 그들은왜, 무엇을위해서 투쟁하고있는지잘알고있어요. 그들은자신들을혁명가로생각하고있습니다. 이것은결코허무맹랑한말이아닙니다. 그리고이말에는그들에게투쟁을선동하는 맹세같은것이후호도없습니다. 그들에게는농지를얻고공장과교통수단, 빵과새로운문화를쟁취하는것이중요하거든요. 그들의미래는우리의승리에달려있다는사실을당신도잘알고있으리라고생각합니다.

우리는전쟁을수행하는동시에혁명을실천하고있는겁니다. 내생각입니다만, 이것은바로우리의상황이만들어낸것입니다. 모든인민들과관계있는이혁명적실천은바르셀로나와같은후방뿐만아니라최전선에도적용됩니다. 우리가점령한마을마다에서일상생활의변혁이즉시일어났죠. 이것이야말로우리의출정이이룩한최고의업적이라고생각합니다. 거기에는엄청난열정이필요했어요. 나는혼자있을때면늘우리가계획하여실천한일이얼마나힘이있었던가를곰곰이생각합니다. 물론내가하고있는일이얼마나책임이막중한것인지도느끼고있습니다. 우리는다른어떤군대처럼쉽게물러설수없기때문에나의원정대가패배하면 혁명에차명적인영향을줄겁니다. 우리는야영지주변의주민들도예외없이투쟁에동참시켰던겁니다. 그래서우리는전초기지에서저멀리후방의바르셀로나까지동지가생긴것입니다. 모두가전쟁과혁명을동시에수행하고있습니다. 이것이우리의강점이지요.

기자: 우리가전에한번논의한적이있었던군기문제로대화의주제를바꿔보겠습니다.

두루티: 좋습니다. 많은사람들이그문제에대해서이러쿵저러쿵말하고있지만극소수만이문제의핵심을꿰뚫어보고있어요. 군기를자킨다는것, 그것은내가생각하기에자기자신의책임과다른사람의책임을동시에완수하는것이라고봅니다. 나는어떤영내군기에도반대합니다. 그것은야만화되어증오를불러일으킬뿐만아니라무의식적기능작용밖에하지않아요. 잘못이해하고있는자유에대해얘길좀해야겠군요. 겁쟁이들이자유운운하지만그건생명을경시하는것과같습니다. 그런데우리 CNT 내에서는군기에대해을바로이해하고있습니다. 그덕분에아나키스트들은신뢰감이가는동지들의결정에대해서존경심을갖고있어요. 투쟁기간에는선출된대표자의말을따라야만합니다. 그렇지않으면어떤작전이라도실패하게마련입니다. 대원들이동의하지않을때는회의를소집하여그대표자의직위를해제하고새로운대표자를뽑을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민병대가운데투쟁때잔꾀를부려피신처를찾는대원도있다는사실을나는원정대의입을통해들어잘알고있어요. 그들은어머니가사망했다, 출산을기다리고 있는아내가있다, 어린자식이열병을앓고있다, ……등등의온갖핑계를대지요. 그러나내개는그런일을처리할수있는약이라고는고작가정용구급약뿐이죠. 잔꾀를부리는놈들때문에불필요한일을며칠씩이나해야한다는걸한번생각해보시죠! 사기를저하시키는그린탄원서들은쓰레기통에쳐박아야죠! 물론자원병으로왔기때문에집으로보내달라는사람을강제로붙잡아둘수는없습니다. 우선설득

을해봅니다. 나는 그런 사람에게 분명히 말하지요. 우리가 그들을 믿어왔는데, 지금 우리를 교묘히 속이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도 떠나겠다면 원정대의 재산인 무기를 압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죠. 그래도 그들이 돌아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면 할 수 없이 돌려 보내야죠. 그러나 걸어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는 투쟁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인니까요. 민병대원들은 자존심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 상태까지 가는 일은 극히 드물었죠. 그들을 설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는 놀림을 당하고 싶지 않으며, 내가 원정대의 지휘자이고 이미 우리 대원들은 주요 투쟁 전선에 투입되어 영웅처럼 투쟁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동지들에게 만족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나에게 만족하길 바랄 뿐입니다. 그들에게 부족한 점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들의 아내나애인은 전선에서 이틀 동안 면회할 수 있습니다. 면회 후 친지들만 고향으로 돌아가죠. 우리는 매일 신문을 구독합니다. 보급품도 매우 좋습니다. 우리에게는 원하는 만큼의 책도 있어요. 전선이 조용할 때는 동지들의 혁명 정신을 부단히 새롭게 각성시키기 위해서 토론도 벌입니다. 한가 할 때가 없죠. 언제나 할 일이 있는 거지요. 특히 진지를 보강하는 것이 늘 해야 하는 일 거리죠. 지금 몇 시나 되었죠? 새벽 한시! 이 시간이면 아라곤 전선의 내동지들은 호를 파는 시간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투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부에나벤투라 두루티 7

전에 우리는 함께 비행기를 타고 마드리드로 간 적이 있었다. 내가 왜 앙드레 말로우 (André Malraux) 의 비행기를 타고 갔는지 모르겠다. 좀 과장해서 말한다면, 그 비행기는 호두껍데기 만큼이나 작았다. 비행기가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흔들렸다. 마드리드에서 우리는 경찰서를 지나게 되었다. 두루티는 거기에 들러 장난삼아 예전의 행적이 담긴 그의 서류들을 좀 보자고 했다. 스페인 경찰은 나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는 친절마저 보였다. 그들은 파리에서 가져온 내 서류 까지 꺼내놓을 정도였다. 우리는 그것이 아주 재미있었다.

에밀리엔느 모린

파병

두루티가 그의 원정대와 함께 마드리드로 파병될 것이라는 나의 막연한 추측이 사실로 나타났다고 이제 말할 수 있다. CNT 민족 위원회는 이미 그 계획을 알고 있었다. 민족 위원회의 총무였던 마리아노 바스케스 (Mariano R. Vázquez) 가 두루티에게 말했다. “마드리드가 자네를 필요로 하는 때가 온 것 같네. 제 5 연대가 그곳

에서첫전투를개시하였네. 곧국제여단도도착할것이라고하네. 우리는어떻게할 것인가? 자네가자네의힘과대원들의전투력을발휘해줘야겠네. 그렇지않으면 우린정치적으로뒤로밀려날걸세.”

페데리카몬트세니 1

나는두루티를마드리드로파병하는것에대해전적으로반대하였다. 자동차를 타고바르셀로나로가던도중에이문제를두고페데리카몬트세니와논의하였다. 그를마드리드로보내는것은죽음으로내모는것과마찬가지였다. 나는혁명보다 그의생명을지켜주는것이더중요하지않느냐고그녀에게물었다. 우리는그의모 험심과용기에대해너무나잘알고있었다. 더군다나소수의원정대만으로그를수 도마드리드에파병하는것이내게는무모한것으로보였다. 우리가그의지휘아래 5 만명의민병대원정군을파병할수있다면사정은좀달라지겠지만, 그것은생각 할수도없는일이었다.

후안가르시아올리베르 2

두루티가마드리드로가는것은어쩔수없는일이었다. 아라곤전선의모든지휘 자들이논의한끝에, 포위된수도를지원하기위해사회주의자들과다른부대원들 도합병된원정대를두루티의지휘아래마드리드로파병하기로결정되었다.

두루티는마지막순간까지사라고사에대하여결정적인공격을감행하자고주 장하였다. 그러나그런공격을하기에는실탄과무기가부족하였다. 결국마드리드 원정대파병이단행되었다. 파병에 6 천명의인원이동원되었고화포도몇대지원 되었다. 그것으로두루티는만족해야했다. 사회민주당원들은그의지휘아래투쟁 하는것을못마땅하게생각했다.

디에고아바드데산티안 1

마드리드의미아하 (Miaja) 장군이두루티원정대를겁쟁이들이라고부른것 이사실인지아닌지나는모른다. 그가실제로그랬고, 그리고투루티의대원들이마 드리드에서약한투쟁을한것이사실이라고하더라도알아두어야할한가지사실이 있다. 그곳에파병된대원들대부분이전선투쟁경험이전혀없었던사람들로구성 되었다는사실이다. 그들은어느날갑자기이글거리는마녀의솥에들어간것이었 다.

두루티의파병대의구성원대부분은아라곤전선의두루티원정대에서차출된 것이아니었다는사실과두루티가마드리드로인솔해간대원들은아나키즘조직들 이바르셀로나에서단기간에모집하여편성한자원병들이었다는사실을나는분명 하게말할수있다.

나는 두루티가 아라곤에서 그의 대원들과 보낸 마지막 저녁을 기억하고 있다. 저녁 식사 후에 그는 자신의 출발하게 된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대원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누가 함께 갈 것인가?”

나 자신은 애초부터 그의 관심 밖에 놓여 있었다. 두루티는 그가 신뢰하고 있던 대원들 중에 불과 서너 명 만호 위병으로서, 그리고 마드리드로 데려갈 보충 병들의 인솔자로서 데려가고 싶다고 말했다.

예수스 아르날페나 2

당시 내게는 결혼 할 딸이 하나 있었다. 그래서 나는 바달로나에 있는 집으로 갔다.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하루 휴가를 얻었던 것이다. 그때는 교회 신부가 필요 없었다. 우리가 직접 모든 서류를 작성하였는데 그것으로 충분했다. 우리는 조촐한 연회를 마련하였다. 내가 축사를 해야만 했다.

“나는 여러분이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인민이 권력을 잡았으니 지금이 순간처럼 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계속 축사를 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자동차 소리가 들렸다. 두 명의 동지가 대문 안으로 들어서면서 말했다. “리온다, 도대체 여기 서뭘 하는 건가? 자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네.” “자네들도 봐서 알겠지만, 지금은 내 딸애의 결혼식 중이라네.” “바르셀로나에서 두루티가 전화를 했는데, 자네가 필요하대. 파병대가 바로 오늘 마드리드로 출정한다네.” “뭐, 마드리드라고? 난 금시초문인데.” 결혼식을 이력 저리 끌낸 나는 테이블에서 일어나 권총을 들고 그들이 타고 온 승용차로 그곳을 떠났다.

리카르도 리온다 카스트로

마드리드로 출발하기 전에 두루티가 파병대원들에게 말했다. “마드리드의 상황이 암담합니다. 거의 절망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기를 각오하고 출정합시다. 우리에게 남은 일이라고는 마드리드에서 죽는 것뿐입니다.”

라몬 가르시아 로페스

우리는 무시무시한 상황에 직면하였다. 완전히 궁지에 몰리고 말았다. 공산주의자들은 소비에트 연방의 무기 원조에 힘입어 대단한 힘을 발휘하였다. 우리는 러시아 아나키스트들이 한 때 당했던 것과 유사한 운명이 우리 스페인 아나키스트들에게도 닥치지 않음을 깨항상 염려했었다. 그런 걱정 때문에 두루티는 모든 것을 인정했던 것이다. 그는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제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파시스트들과의 모든 조약을 저지해야만 했다. (공화파들은 혁명 초기부터 줄곧 평화 협상을 시도 하려고 했다.) 나는 장담할 수 있다. 우리가 없었더라면 전쟁을 3년도 채 끝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들의 주장에 따를 수 없다. 그들 대부분은 스페인으로 돌아가 — 그렇게 만된다면 — 1936년에 자신들이 중단했던 그때 그 일을, 거기서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만상상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가버린 것은 지나간 것이다. 똑같은 혁명을 우리는 두 번이 둘 수는 없는 법이다.

에밀리엔느모린

두루티와 그의 파병대의 도착은 마드리드 방어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곳 사람들은 원정대가 시가지 행진을 했을 때 흥분했다. 두루티가 온다, 두루티가 와!

페데리카 몬트세니 1

위험

두루티가 도착하자 마자 그곳 투쟁 사령부는 미아하장군과 그의 참모 장비센테로하스 (Vicente Rojas) 대령에게 연락하여 파병대의 도착을 알렸다.

바로그 날 두루티는 도시 중앙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 진을 치고 있던 방어 전선을 순찰하였다. 그는 방어 진영의 상태를 보고는 깜짝 놀랐다. 그는 지휘자의 입장에서 국방 책임자인 라르고 카바예로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이 전혀 가망이 없다고 설명하였다. “아직 마드리드가 파시스트들의 손아귀에 넘어 가지 않은 것은 그들이 단지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일 뿐입니다. 이 곳 도시는 적들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라고 말해도 괜찮을 것 같군요. 여러 각개 지역에서는 용감하게 싸우고 있지만, 주요 거점에서는 적을 막을 방도가 없습니다. 이상황에서 적이 특히 대학가와 천사의 언덕, 카라반첼거리 등, 모든 곳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니군요.”

국방장관은 두루티에게 정부의 입장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전권을 위임하였다. 그리고 그는 새 국제 여단이 진군 중이며, 비행기와 장갑차로 방어군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리카르도 산스 4

나는 정부의 책임자인 라르고 카바예로에게 두루티를 장군에 임명하여 수도 방위를 그에게 맡길 것을 제안했다. 나는 사람들이 미아하장군을 비난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지만, 어쨌든 마드리드의 운명은 반파시스트 운동가들과 혁명의 손에 맡겨져 있다고 생각했다. 물론 두루티가 적지 않은 성공을 거두리라고 확신했다.

후안 가르시아 올리베르 2

공화국 정부가 11월 6일, 포위된 수도를 포기하고 발렌시아로 피난했을 때 공화국 정부의 위신은 땅에 떨어진 것이나 다름 없었다. 내각의 수장이었던 라르고 카바예로의 잉크에서 그렇게 쉽게 흘러나왔던 그 영웅주의적 선언이 이런식으로 귀결되고 보니 주민들 사이에서 사퇴라는 말이 심상찮게 나왔던 것이다.

만일アナキスト들이 그것을원했더라면, 결국중앙정부라는굴레를벗어던지고 **마드리드코뮌**이선포되는순간이도래했을것이다. 이것이현명한선택인지아닌지는따질문제가아니었다. 설령그렇게하는것이노동자대중들과전선투쟁가들로부터지지를받았을지는모르지만, 러시아는물론이고러시아의조종을받았던단체들로부터적개심을샀을것이분명했다.

그러나정부가입시청사를발렌시아로옮겨간후, 코뮌을진리로받아들이는순간이마드리드에도래하였다. 통일과군기라는용어대신에돌격, 책임의식, 열정과같은용어들이사용되었다. 사람들은더이상영웅주의적인말들을믿지않고, 모범을보이는설득력에더동조하였다. 사람들은이제방어를위해서는실제적인작업이실행되어야한다고말했다. 장관들이없는것이오히려투쟁에도움이되는것으로비쳤다.

A. u. D. 프루도메옥스

마드리드에도착하자마자두루티는모든기회주의자들과말만떠벌리는사이비혁명가들을노골적으로신랄하게비난하는라디오연설을하였다. 그는마드리드의모든주민들에게무기와삽을나눠주고는호를파고바리케이드를설치하는일에협조해달라고당부했다. 밤사이에그는주민들에게코뮌이니정부니하는말만앞세우는일을하지않게하는데에성공했던것이다. 통쾌한흥분이도시를사로잡았다. 그러나그때까지도사실정부는방어능력이없는주민들을대피시키거나시민방어조직을구성하지도못했다. 오히려정부는그런조치를취함으로써시민들의의사기를떨어뜨릴까봐우려하고있었다. 그러나반대로두루티와 CNT 방어위원회는마드리드의시민들을책임감있는사람들로만들었다. 그결과는만족스러웠다. 마드리드의급진적인노동계급이속해있던 CNT 가시민방어여단을편성하였던것이다.

A. u. D. 프루도메옥스

병사들이정부정책을의심하게되었을때그들의사기가저하되었다. 그때문에アナ키스트들은맥빠진투쟁을할수밖에없었다. 그들은카바예로나네그린그리고마르티네스바리오를위해서투쟁하고싶은마음이없었을뿐더러그들로구성된정부를위해서도싸울기분이아니었다.

내가자원병으로지원하고며칠지나지않아앙드레마르티(André Marty)는アナ키스트국제여단막사앞에중무장을하고보초를서게되었다. 그는두루티가1만여명의アナ키스트파병대를이끌고바르셀로나에서마드리드로이동하던것을알바세트에서목격했었다고했다. 그러나나중에드러난사실에의하면, 파병대는3천명에불과했다. 파병대는우리국제여단에대해전혀적의를가지고있지않았다. 그들은겉으로보기에는용감무쌍한듯했지만사실은어느누구의털끝도하나건드릴용기가없었다. 공산주의자마르티는병적일만큼그들을불신했다.

마누엘에르난데스

물론두루티는마음이착했지만행동은단호했다. 그런데이것은모순이아니다. 우리모두가그런상황에처해있었던것이다. 우리의이념은옳았으며, 아무도그것에이의를달수가없었다. 우리는가장현명하다고하는사람들과논쟁을벌였는데, 그들은항상이렇게말했다. “예, 물론여러분의생각은훌륭합니다. 그러나그것은실현될수없는것들입니다. 그것은유토피아일뿐이지요.”

그러나우리는이렇게대응했다. 그렇지않다, 여기오늘날에조차우리이념의일부분을실천으로옮길수있다고. 그것을실천으로옮기려면우리는자본주의권력과국가의억압기구를계산해야한다. 그런권력은공산주의내부에도계속존재하고있다. 우리는이권력을타도하든이에맞서든할것이다. 이권력에맞서려는사람은어떤결과를초래하게마련이다. 아무리선량할지라도야수처럼투쟁할수밖에없다. 이싸움은강요된투쟁이다. 우리는지난싸움에서강요된투쟁을선별하지못했던것이다.

후안페레르

나는가능하다면빨리스페인으로돌아갈계획이다. 그것은가족때문이아니라계속활동하고싶기때문이다. 지금도우리가젊었을당시와똑같은투쟁이있다. 당시도그랬지만내나이일흔다섯이된지금도마찬가지다. 이것은나의고정관념일수있지만어쨌든나는레온시로돌아갈것이다.

파시즘은우발적사태였으며역사의단절일뿐이다. 나는착각하고있지않다. 프랑코가죽더라도역시그와다를바가없는다음타자가등장할것이다. 아마더악한자가나타날지도모른다. 내가왜이런말을하는지여러분은알는지? 역사는언제나그렇지않던가! 우익정권이든좌익정권이든아니면중립정권이든간에여러분은결국그정권이나쁘다고하여바꾸어놓을것이다. 그러나결국얻는것은무엇인가? 더나쁜정권일뿐이다. 만일달라졌다면세계가이미파라다이스로변했을것이아닌가. 그러나그반대였다.장님도그사실을알고있다. 사람들은투표하고, 투표하고, 또투표할것이다. 그러나결과는언제나동일할것이다. 하지만1백만명의죽음에대한책임이있는프랑코가제거되어내가레온시에돌아갈수만있다면우리는해야할일이있고, 그리고아직도내가할수있는일이있다는사실을보여줄것이다.

플로렌티노몬로이

물론스페인망명자들은두말할나위없이조직을잘갖추었다. 그들은매달회비를내고있다.アナ키즘신문도계속나오고있다. 나는그신문에실린기사의내용모두를기꺼이믿고싶다. 그러나내용중상당부분이너무단순하고순진하다는생각이들었다. 용어는대체로딱딱했다. 내가생각한바를솔직히말한다면, 나는그

그의 잠재적인 의지는 모든 점에서 뛰어났다. 그러한 의지는 수감되어 자포자기 한 사람들을 도운 감옥소에서도 잘 나타났다. 두루티는 육체적 의미에서든 도덕적 의미에서든 우울증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가 가담했던 가두 투쟁과 파업, 압제 태도와 같은 위험한 상황의 투쟁에서 그는 단호히 대처했고, 대체로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실패했을 때에도 굴복하지 않고 바로 다음의 투쟁을 구상하였다.

우리는 마치 그려 한 투쟁에는 다른 사람들은 한 명도 가담하지 않은 듯이 두루티의 일생만을 지금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운동에는 수천의 이름 없는 두루티들이 있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두루티 만을 알고 있고 다른 이름 없는 두루티는 알지 못한다. 투쟁에서 그들은 대단히 용감했고 단호하게 행동했다. 그들도 두루티나 아스카소처럼 적지 않은 위험을 경험하였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동지들을 그 전쟁에서 잃었던가! 1919, 1920년 이래 얼마나 많은 동지들이 쓰러졌으며, 마르티네스 아니도의 탄압 아래 얼마나 많은 동지들이 생명을 잃었던가! 당시 적어도 5백 명 이상이 사망했다. 그들은 우리의 가장 훌륭한 동지들이었다. 우리가 고인들을 애도하고 숭배하려면 많은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귀감으로 삼아 우리의 현실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다. 그것은 좋은 일이다. 귀감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일이다.

나는 다른 해결책은 없다고 본다. 우리는 숫자가 많고 적음에 상관 없이 우리 쪽에 이성과 정당함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말과 글 그리고 행동으로써 매일 새롭게 입증해 보여야 한다. 우리의 출판물이 일반 대중에게 전달되지 않을 뿐더러 그 양도 극히 보잘 것 없다. 우리는 망명 중에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국어로 이야기할 수가 없다. 프랑스로 망명한 동지는 극히 적은 수이다. 이상황을 극복해야만 한다. 우리는 현재의 난관을 뛰어넘어야 한다.

후안페레르

두루티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을 실천하기 위해 살았다. 그것은 경이로운 일이다. 나는 그러한 그를 자주 부러워 했다. 그의 생활은 정말을 바른 삶이었다. 그의 삶이 헛된 것이 아니었다고 확신하고 있다.

물론 그가 죽고 있는 지금에는 모든 사람이 그가 훌륭한 인물이었다고 칭송하려 한다. 그들은 그가 살았을 동안에는 그를 범죄자인 양 몰아붙였던 것이다. 지금은 부르주아지조차도 그를 훌륭한 인물로 여기고 있으며, 신부들은 그의 시신을 미라로 보존하고 싶어 한다. 죽은 혁명가는 언제나 훌륭한 혁명가인 모양이다.

코레테마르로트 (Colette Marlot)

그가 여기 이방에 언제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그는 조용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다. 나는 그가 우리에게 입을 다물도록 주문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는 매우 겸손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 말을 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말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CNT에 관해서 말하고, 의미 있는 것을 이야기하되 나에 관해서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마세요.” 그가 지금 여기 있다면 또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루이스피셔 (Louis Fischer)

파쇼 일당들이 마드리드에 접근했을 때 두루티는 5천 명으로 구성된 막강한 단일 부대로 급히 대응하였다. 그는 마드리드를 방어하기 위해서라면 통일적인 중앙 명령 기국에 조건 없이 따르겠다고 이미 선언한 상태였다. 두루티는 스페인 혁명 투쟁에서 교훈을 얻어 점차 공산당 노선을 밟아가고 있었다. 그는 소비에트 언론의 한 대표자와 의회 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예, 나 스스로는 볼셰비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스탈린의 초상화를 내지 휘소안에 걸어 놓을 각오까지 서 있습니다.” 러시아 사회주의 소비에트 연방에 보낸 두루티의 서한은 막강한 조직으로 구성된 프롤레타리아트에게 열렬한 지지와 깊은 신뢰를 받았다.

국제공산당

파병대는 세대의 임시 열차와 긴 행렬의 파병 트럭을 타고 마드리드에도착하여 그나마다 막사에서 숙영하였다. 그들은 대부분 자원 병들로 구성되었다. 그들은 새로 구입한, 화력이 좋은 윈체스터 소총으로 무장하였다. 그러나 탄창이 없어서 다른 기가 불편했다.

리카르도 산스 3

회의

11월 13일 오후 늦은 시간에 두루티 파병대가 마드리드에 진입하였다. 파병대는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대원들은 몹시 지쳐 있었다. 그들은 숙영지를 그나마다 거리에 정하고 야간 차량 행군으로 지친 피로를 풀어야 했다.

병사들이 숙영지를 정하자 마자 적들이 대학가의 건물 대부분을 장악하였고, 별 저항도 받지 않고 교도소와 몬클로아 Moncloa 광장으로 계속 진입 할 것 같은 짐새가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미아하장군은 두루티에게 사령부로 와달라는 전화를 걸었다. 장군은 피로에 지친 원정대의 상태를 전혀 생각지 않고, 당장 원정대를 전선에 투입할 것을 두루티에게 요청하였다. 두루티는 파병대의 조직 상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는 장군에게 성급한 출동이 야기 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아하장군도 두루티의 거절에 대해서 이해는 했지만 달리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의 참모장은 장군의 의견에 동조했다. 그는 원정대가 파시스트들의 결정적 침입을 저지하기 위해서 비록 미명의 새벽이지만 전선에 투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루티는 논쟁을 중지하고 그나마다 거리에 있는 막사로 차를 몰고 가서 대원들을 집합시켜 상황을 설명했다. 원정대는 도착한 바로그 날밤에 전선으로 즉각 출동했던 것이다.

1936년 11월 14일, 두루티를 선두로하여 카탈루냐에서 파병대가 도착하였다. 그들은 3천명의 남자 대원들로서 완전무장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부하랄로스의 환상적인 두루티 원정대와는 외관상 보더라도 비교가 되지 않았다.

그는 마치 옛 친구를 만난 것처럼 환하게 웃으면서 나를 끌어안았다. 그러고는 곧 농담을 하기 시작했다. “자네가 보다시피 나는 사라고사를 장악하지 못하였고, 적들도 나를 살해하지 못하였네. 그렇지만 나는 아직도 마르크스주의자는 아니네. 모든 가능성은 아직도 열려 있겠지.”

그는 수척하였다. 그는 군인의 태도를 취하였고 외모는 완전한 투쟁가의 모습이었다. 그는 그의 부관에게 회의석상에서의 말투가 아니라 완전히 사령관의 목소리로 이야기하였다.

두루티는 나에게 전투 고문장교를 한 명 추천해 달라고 했다. 그에게 산티(Santi)를 추천했다. 그는 산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그를 받아들였다. 산티는 두루티 부대에 들어간 최초의 공산주의자였던 셈이다. 산티가 왔을 때 두루티가 그에게 말했다. “자네는 공산주의자이지. 좋아, 우리 잘지내보자구. 자네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함께 먹고 잠도 한 방에서 잘 것이다. 잘지내보자구.”

산티가 대답했다. “그렇지만 자유 시간은 가질 수 있겠지요? 전쟁 중에도 자유 시간은 자주 있게 마련이거든요. 내가 그런 자유 시간을 가지는 건 말리지 않길 바랍니다.”

“도대체 그 자유 시간에 뭘 하려고 그러는 건가?”

“자유 시간에 간부님의 병사들에게 기관총 사격법을 가르칠 예정입니다. 총솜씨가 너무 엉망이 더군요. 나는 몇몇 분대를 교육시키기 관총 소대를 편성하고 싶습니다.”

두루티가 웃었다. “나도 그걸 배우고 싶네. 나한테도 기관총 다루는 법을 가르쳐 주게.”

바로그때 가르시아 올리베르가 마드리드에도착하였다. 그는 이제 법무장관이 되어 있었다. 두루티와 올리베르, 이두 유명한 아나키스트들은 미아하와로호(Rojo) 와 회담하였다. 그들의 아나키스트 부대는 마드리드를 구하기 위해 카탈루냐에서 왔으며, 아마 마드리드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마드리드를 구하고나면 그곳에 남는 것이 아니라 카탈루냐로 돌아가서 사라고사 장벽을 향해 진군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들은 아나키스트들이 어떤 일을 해내는지 보고 싶다면 두루티의 파병대에게 특수 임무를 맡기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오해가 생겨 날여지가 있고, 다른 당들이 그 책임을 아나키스트들에게 돌릴 수 있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로호는 야영지에 있는 부대를 그냥 그대로 두자고 제안했다. 그 부대가 새벽에 파시스트들을 공격하여 남서쪽에 위치한 병기고에서 그들을 내몰게 하자는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만일 두루티가 죽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거라 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의 싸움은 한당과 반대당 사이의 투쟁이 아니었다. 우리의 전쟁은 국제적 갈등이었다. 만일 스페인 군부가 이탈리아와 독일과 같은 국제파시즘이 자신들을 도울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쿠데타의 기회를 잡지 못했을 것은 물론이고 감히 그것을 획책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그를 영웅이나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는 지도자나 총통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아나키스트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

두루티의 역할을 두고 서영웅 숭배와 같은 것으로 설명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는 단지 인간에게 없어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가치와 용기를 보여주었을 뿐이다. 우리 시대에 체계 바라(Ché Guevara) 가 그와 비슷한 역할을 하였다. 두루티는 결코 이론가가 아니었다. 즉 그는 다른 사람들과 투쟁하고 있는 동안 탁상공론만 하는 그런 이론가가 아니었다. 그는 실천가였다. 그는 거리로나가 투쟁하였고 가장 큰 위험이 있는 곳에 항상 서 있었다.

나는 두루티가 선천적인 아나키스트였음을 어느 날 갑자기 알아차렸다. 그는 지방 출신이었고, 외모에서 촌티가 풍겼다. 그는 자주 생각에 잠겨 자신의 일에 골몰했다. 하지만 그는 지성인은 아니었다. 이론적인 교양은 나중에 가서 터득했다. 바르셀로나에서.

그는 카스티야 고지의 레온 시 출신으로서 시골 사람들이 지닌 그런 힘과 강인함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파디야(Padillas) 와 피사로(Pizarros) 와 같은 옛날의 정복자들을 닮았다.

그는 바르셀로나에서 많은 양의 독서를 하였다. 특히 우리의 고전 아나키스트들, 안셀모 로렌소(Anselmo Lorenzo), 엘리제르 클뤼(Elisée Reclus), 리카르도 멜라(Ricardo Mella)를 많이 읽었다. 특히 프랑스 아나키즘 철학자였던 세바스蒂앙 포레(Sébastien Faure)를 즐겨 읽었다. 그의 교양은 제한되어 있었지만 그 기초만은 항상 확고했다.

그 밖에도 그는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면 대처 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하고 있었다. 그의 경우 이념은 시간 때우기식의 여흥이 아니었다. 그는 이념을 실천으로 옮겨놓으려 했다. 이것을 후세 사람들은 그의 영웅의식이라고 불렀다. 확실히 그는 본능에 따라 행동하였다. 그래서 그는 마치 유혹자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선량한 기질을 지니고 있었다. 그의 일관된 생각은 언제나 연대의식이었다.

자들을기만한그런사기꾼이결코아니었습니다.”그는계속책장을넘겼다. 또다른신문초록이있었다. 그종이는더낡았다. 낡은사진의주인공은옛아나키스트지도자네스토르마흐노였음을우리는한눈에알아보았다. 그노동자는러시아혁명때마흐노의활동과그의종말에관한이야기를우리에게들려주었다. “마흐노는가장위대한러시아혁명가들 가운데한사람이었습니다.”그가설명했다. “그런데오늘날사람들은그가단지노상강도였다고만가르치고있죠. 두루티가죽고없는지금그들은그에게도그렇게할지모르니조심하세요.”

우리는그렇게하겠다고약속했다.

익명 3

두루티가죽고없는오늘날그를탕아로여기고있는사람들이있다. 그런부류들 가운데는부르주아지들이포함되어있을뿐만아니라심지어로마가톨릭교회의성직자들조차끼어있다. 갑자기그에게서장점을찾아내려하고있지만그것은그들의목적에그를이용하기위해서이다. 또한스페인독사들은그를적색그리스도교신자로만들고싶어한다. 그가살아있을때그들은그를공격한사람들이었다. 그들은바르셀로나교회의은밀한지하실에숨었던것이다. 그곳은과장안전한요새였다. 그들은우리에게총질을했었다. 움직이는모든것에다가. 그리고부르주아지들은끊임없이외쳐댔다. 아나키스트들이교화를방화한다고! 그때는우리몸을보호하기에도바빴다. 그가생존해있던당시에는그를범죄자로몰아세웠던그들이이제는그를성자로만들고싶어하다니!

에밀리엔느모린

나는신문에게재된기사에서가아니라바로그의일상생활속에서그의영웅의식을보았다. 물론카페의한구석에서, 집에서혹은감옥에서그를알았던극소수의사람만이그사실을알고있다.

두루티의재량으로수백만페세타가쓰였지만, 그는늘안쪽에가죽을덧댄구두를신고다니던것을나는보았다. 그는돈이라고는한푼도지니고있지않았기때문에수선공에게구두를맡겼던것이다. 우리가그를바에서만났을때, 그는커피한잔주문할비상금도수중에지니고있지않았다.

우리가그를찾아갔을때그는갑자껍질을벗기기위해흔히앞치마를두르고있었다. 그의부인이바깥에서노동을했던것이다. 그에게는그것이문제가되지않았다. 그는남성의편견에사로잡혀있지않았다. 남자가가정일을한다고해서자존심이상한다고생각하지않은것이다.

어떤날에는사회를억압하는세계와투쟁하기위해그는권총을들고거리로나갔다. 그는그일을마치전날저녁에어린딸콜레트의기저귀를갈아주었던것처럼확실하게처리하였다.

두루티와올리베르가동의하였다. 그런동의가있고난뒤나는그들과이야기를나누었다. 그들은파병대가임무를훌륭히해내리라고확신했다.

미하일콜코프

11월 15일에나는마드리드에있었다. 나는전투사령관직을맡고있던고리예프(Goriev) 장군과이야기를나누기위해국방성을찾아갔다. 어떻게하면장군을만날수있는지당직장교에게물었다. 그사람은자기를따라오는눈짓을했다. 긴복도를지나는동안그는만나는사람들마다에게물어보았다. “러시아장군을보았습니까? 러시아장군이어디에있나요?”고리예프장군이있는곳은철저히비밀로되어있었다. 그런데스페인사람들은비밀을싫어했다.

저녁늦게까지나는고리예프의사령부에앉아있었다. 장군은당일전선상황의마지막보고를기다리고있었다. 두루티와그의파병대는이미출동하였다. 장군은코카서스혈통인기가큰한적색군장교를부관으로동행하였다. 아나키스트들은마드리드중심부로통하는도로가내려다보이는가르비타언덕에있는진지를사수하였다. 고리예프장군은그들이새로들어온부대였지만중요한지점을맡겼던것이다.

자정이막지난후에그코카서스출신의사람이들어와서아나키스트들이겁을먹고소규모의모로코부대를피해퇴각한것같다고보고했다. 그래서대학가는프랑코의공격에무방비상태가되었다고했다.

두루티는파병대에게투쟁하라고요구하였다. 그사건으로그의권위가실추되었다. 나는저녁에그란비아호텔에서그를자주만났다. 그의경호원들이연발권총의방아쇠에서손을떼지않은채대기하면서그의신변을철저히보호하고있었다.

루이스피셔

두루티파병대는마드리드를구하겠다는약간지나친과욕에사로잡혀있었다. 그들은그일을신속히해치우고싶어했다. 그렇게함으로써가능한빨리아라곤으로돌아가려했다. 그래서그들은적이맹공을퍼부을것이예상되는바로그전선을맡겠다고자청했던것이다. 거기서그들은적을격퇴시키고싶어했다. 그들에게카사구역이방어작전지역으로주어졌다.

나는 11월 18일인가 19일에두루티를알게되었다. 우리는마드리드전선의몇몇부대장들이참석한상황회의에참석차미아하장군의참모실에서서로만났다. 이회의에서두루티는자신의부대를교체시켜아라곤으로돌려보내고싶다고주장했다. 나를포함한많은장교들은충동한지채사흘도되지않은부대를교체한다는것은서글픈일이라고생각했다. 바로그전선에서는절대다수의병사들이전쟁초기부터단하루의휴가도얻지못하였고, 또한요구하지도않고투쟁하여왔다. 그럼에도우리는두루티가주장하는대로파병대를철수시키기로동의했다. 우리

는그들이마드리드에도착하기전에도마드리드를지켰듯이, 앞으로도그들없이 마드리드를꼭방어할것이었다.

두루티는끊임없이자신의아라곤전선의단위부대에서이루어지고있는군기와명령권의성격에대해서설명했다. 나는자신이주장한그이념에희생된용감한 투쟁가, 강하고도선량한그사람의비참한심경을이해하였다. 그는마드리드를계 속방어하는것이절대필요하며, 그사실을자신의대원들에게이해시키는데최선 을다하겠다고약속하였다. 우리는공동회의를마치고우의를다지면서헤어졌다. 각자자기부대로돌아갔다.

엔리케리스테르 (Enrique Lister)

악랄한야만인들

물론우리도마드리드로갔다. 그거리에서우리는무엇을보았던가? 한얼간이 같은이가네다섯명에게우향우, 좌향좌하고명령하고있었다. 그들모두손에총을 들고있었다. 우리는참을수가없어서당장한마디했다. “잘들노는구만, 여기서연 습하지말고당장전선으로가!”물론우리는화가난목소리로소리를질렀다. 모두 가겁을내면서머뭇거리기시작했다. 정부조차도. “저치들은물불가리지않는무 서운패거리야!”모든사람들이이렇게떠들어댔다. 한번은우리가지휘소본부를 나왔을때의일이었다. “자, 식전이니까요기부터좀하자구.”“어디가서먹는단말 인가?”“저기위쪽통신소에는갓잡아온바닷가재가있다.”“뭐라구요, 바닷가재를 요?”식당주인이소리쳤다. “대체어디서들오셨소?”“우린두루티의파병대에서 왔소!”그러자주인은당장바닷가재를내놓았다. 식당에서나왔을때거리에서부 상을입은한여자를보았다. 어느창문에서누군가가사격을했던것이다. 다른한여 자가우리에게말했다. “저기위에저격병이숨어있어요, 파시스트예요.”우리는 당장계단위로올라가한녀석을붙잡아창밖으로집어던졌다. 정부는“그들은가장 악랄한야만인들이다!”하고비방했다. 그러나우리는정부의비방에도아랑곳하지 않고계속활동했다.

리카르도리온다카스트로

마드리드에서두루티파병대는소위 FAI 폭탄을즐겨사용했다. 그것은무게가 일킬로그램정도나갔으며엄청난파괴력을지닌무서운수류탄이었다. 그수류탄은가두투쟁에적격이었다. 개활지전투에서는별쓸모가없었다. 너무무거워서원 거리투척이불가능했다. 땅에떨어지기도전에대부분공중에서터졌다. 그러나지 봉테라스나발코니에서투척할때는아주좋았다. 파괴력이좋았기때문에마드리 드에서는적의탱크를공격할때도사용되었다. 두루티는‘미구엘 (미카엘) 천사’

디미트로프와또다른사람들이스페인에서해방시켜준그들은하등인간들이었다. 카를마르크스사단인철갑원정대는그들의편에서서덤덤탄으로그들의포로들을갈기갈기찢었다.

칼게오르크폰슈타켈베르크 (Karl Georg von Stackelberg)¹

1936년 11월, 작은아나키즘노조조직원이었던우리는소비에트연방을방 문하였다. 그나라의노조는혁명이후그들이수행했던일을우리에게보여주고싶어했다. 우리의관심사는, 내전과국제파시즘이우리에게몰고온그어려운상황을 러시아노조원들과인민들에게설명하는데있었다.

우리가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대표자들을처음만났을때, 우리는두 루티가이미그곳에서낯선사람이아니었음을확신했다. 소비에트연방언론에실 린그에관한기사는내전에서의그의행적뿐만아니라 1900년 7월이전까지의행 적도다루고있었다. 당시에이미러시아언론인들은바르셀로나의공장에서일하 고있던그를방문하였고, 그때그와가졌던몇가지인터뷰내용까지출판하였다. 러 시아인민들은두루티가아나키스트였다는사실까지알고있었다. 그런데그의경 우는아주특별했다. 왜냐하면그러시아기자들은다른아나키스트들에대해서는 한마디도기사로싣지않았기때문이다. 반면에파시온아리아, 디아스 (Díaz), 미 헤 (Mije) 와같은스페인공산주의자들은스페인에서보다러시아에서훨씬더많 이알려져있다는사실을우리는알게되었다. 그것은당연한일이었다. 그곳에는공 산주의신문들만있었고다른모든신문들은금지되어있었다. 그들은자기쪽사람 들과만늘접촉했을뿐이었다. 그렇지만그들은두루티만은예외로다루었던것이다.

키예프 Kiev 인민행정및군당국자들, 학계대표자들이그도시의최고급호텔 대강당에서우리를위한환영행사를열었다. 우크라이나의공직자들모두가참석 하였다. 키예프의수비대장을맡고있던한노장볼세비키가환영인사를했다. 환영 인사를마치고두루티에관한정보를참석자들에게알리면서그는‘스페인의위대한 유격대원’을위하여잠시목넘을올리자고제안했다.

그런데우리가만난공직자들만두루티를칭송한것은아니었다. 모스크바에체 류하는동안우리는도시프롤레타리아트구역에거주하는몇명의노동자들을방문 하였다. 우리는 1918년투쟁에참가했던한금속노동자를만났다. 그는조그마한 목조가옥에서살고있었다. 그는대가족을부양하면서정말비참하게생활했다. 그 는스페인전쟁에도참가한경험이있었다. 그가방안으로들어오라고눈짓했다. 옷 장에서낡은책을한권꺼냈다. 누렇게변색된코로렌코 (Korolenko) 의작품이었 다. 그는신문에서오려낸기사를그책속에끼워놓았었다. 「프라브다 Pravda」 지에실린두루티의사진과그의전기에관한기사였다. “무엇하러그것을간직하고 계십니까?”우리가그에게물었다. “그가진실했다고믿기때문이지요. 그는노동

¹ 나치의선동가-역주

「인민의신문」

두루티의이념에동조하든안하든그것과는별도로그가원칙에충실한삶을살았다는사실만은인정해야한다. 그는훈련받은스페인인민군의일원으로서아나키스트였다.

두루티의일대기는바로스페인아나키즘전체의발전을정확히웅변해준다. 반동적인경찰과마찬가지로관제언론도언제나두루티를상습적범죄자로간주하였고, CNT 와 FAI 에대해서는그들이마치단순한살인집단, 강탈자들, 방화자들의조직인양취급하였다. 그러나사실스페인아나키즘운동은관념론적특징을강하게띠었다. 많은아나키스트들은금연주의자요채식주의자였다. 그들중많은사람들이술은입에도대지않았다. 과도한성생활과같은것은말할필요조차없다. 마드리드어디에서든 FAI 와 CNT 의대형플래카드를볼수있었다. 그들은모든바와카페의폐업을선언하였다. 아나키스트의자기희생은당시마드리드에서불길처럼확산되었다.

마르크스주의세계관은아나키스트들의그것과는확연히달랐다. 이말은CNT-FAI 의이념이좋은점이없다거나, 당시엄청난희생을요구한파시즘에대한투쟁에서 CNT 와 FAI 가전체적힘을동원할수없었다는의미는아니다. 두루티의죽음은스페인의모든민중세력들에게는엄청난손실이었던것이다.

두루티는스페인의두산업노조조직의통일을위하여백방으로활약하였다. 그는훈련된스페인인민군을잘대변한가장중요한사람들 가운데한사람이었다. 인민전선의모든당파들뿐만아니라정부와스페인의모든공화주의자들까지도그의죽음에심한충격을받았다.

후크슬레이터 (Hugh Slater)

그들의지도자, 두루티는누구인가? 몬테비데오에서두루티는갱단으로알려져있었다. 그의범죄에대해남겨진기록에는그가사라고사추기경의살해와관계되어있다고적혀있으며, 히혼은행을습격하여 5 만페세타를가져갔다고기록되어있다.

스페인과칠레경찰은전국에그의지명수배령을내렸다. 칠레경찰은두루티가칠레의한은행지점을습격했다는죄목으로수배령을내렸던것이다. 쿠바경찰도이와유사한죄목으로그를수배하고있었다.

1925년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두루티는은행을습격하였다. 그는그후에프랑스에가있었는데, 프랑스경찰은그가스페인의알폰소국왕암살음모에가담했다는혐의로그를수배했다.

스페인에서공화정이공포되었을때두루티는스페인으로돌아갔다. 이후그는자신의부하가등뒤에서쏜총에맞아살해되었다. 문제는노획물의분배였다. 마드리드정부의그잔인한여성공포정치가, 파시온아리아 (Pasionaria) 는거창한그의장례식때그를해방투사의전형으로추켜세웠다.

거리에위치한지휘소와저택차고에다 3 만 5 천발의 FAI 폭탄상을피라미드처럼쌓아놓았다. 이무기고에대해낌새를차린이웃사람들은적의공습때폭탄이터질까봐국방성에항의하였다. 그러나그러고도한달이 지난후에야 FAI 폭탄은주택에서멀리떨어진, 좀더안전한지하창고에보관되었다.

리카르도산스 3

1936년 10월, 나는카탈루냐에서의사진을이끌고마드리드로갔다. 바르셀로나의사연합의회장이우리에게마드리드로가서현지의사들몇명과함께리츠Ritz 호텔 21호실에군인병실을마련할것을요청했던것이다.

물론우리는출신성분으로보든, 교양과정신상태로보든모두가부르주아지인것만은틀림없었다. 그러나아나키스트들은우리가가장선량한지식과양심에따라서그들을돕고싶어하며, 우리는결코배신자일수없다는사실을굳게믿었다. 그때부터그들은우리를신뢰하고존경했다.

비록나는그들의이념에공감하지는않았지만내전생애에걸쳐아나키스트들만큼아랑이넓고이기심이없는사람들을만나보지못했다고장담할수있다. 그들의도덕률은매우특이했다. 예를들면그들은한남자가한여자이상을데리고다니는것을아주이상하게여겼다. 한번에두여자를거느리는것을부도덕한행위로받아들이고있었다. 그들은결혼에서도부르주아지적부부생활을적극반대하였다. 예컨대남편이아내와뜻이맞지않으면당장다른여자에게구혼할수있었다. 그러나그때도두여자와동시에함께지내는것은있을수없는일이었다.

재산에있어서도그들은그들특유의생각을갖고있었다. 자신은아무것도소유하지않으려하면서도부르주아지의재산몰수에는찬성했다. 그러나강도짓이나절도는그들에게절대금지사항이었다. 예를들면어느날나는마드리드에있는두루티원정대의지휘소로호출되었다. 그곳바닥에는죽은민병대원한명이눕혀져있었다. 나는그의이름을알고있었다. 그는발레나였다. 그를묻으려면내가사망진단서를발행해야했던것이다. 그가어떻게하다죽었는지내가물었다. 그들은아주냉담하게말했다. 가택수색때그가시계하나와팔찌두개를훔쳤기때문에그의머리에총알두발을쏘아야만했다는것이었다. 그런일이발생할때마다마드리드에서는계속총살이있을것이고, 이제재판소는더이상없는것으로생각할수밖에없었다. 덧붙인다면가택수색은아나키스트들자체판단에의해서이루어졌다. 그들은그런방식으로 CNT 의자금을마련하려고했다. 그러나누가노획물의일부라도자신의주머니에챙겨넣을때는가차없는고통이따랐다. 그런사람은현장에서총살되었다. 그것이아나키스트들의도덕이었다.

마르티네스프라일레 (Martínez Fraile)

나는마드리드전투중에프란초스다리가폭파되기스물네시간전에두루티를만났다. 우리는병사들에게급식을배급하였다. 약간의빵과쇠고기였다. 두루티

는기분이좋아보였다. 그는샌드위치를씹으면서웃으며당시내직무에대해비꼬는투로말했다. “이런게진짜장관의음식이군!”불만이많은한대원이그에게이렇게대답했다. “아니, 무슨소리를하는겁니까. 장관들은이따위음식을먹지않아요. 그양반들은여기서도대체무슨일이일어나고있는지도모른다니까요.”두루티가더큰소리로웃었다. “여기이장관이있지않는가.”그러나그민병대원은장관이라는사람도여기참호속에서소금에저린쇠고기를넣은빵을먹을수있다는것을믿으려하지않았다.

후안가르시아올리베르 2

전투

1936년 11월 19일, 군중들이분노하여대학가로돌진하였다. 그들은더많아진증원군과함께대포와수류탄투척기를끌고갔다. 그공격에서많은사람들이희생되었다. 희생자들가운데는특히모로코용병들이많았다. 대학가건물사이의광장에는시체들이즐비했다. 두루티는대패하였고적이시내로진입할길이열렸다. 그러나그는아나키스트들이퇴각한바로그장소에서새로운공격을감행하여패배의치욕을씻으려고했다. 쉴틈없는폭격과, 무방비상태의주민들에대한실상이그를더욱분노하게만들었다. 그는커다란주먹을불끈쥐었다. 엄격했던그의모습에는굴욕에대한분노감이역력했다. 그는마치필사적인해방의탈출을시도하기위하여긴장한고대로마의노예검객처럼보였다.

1936년 11월 21일, 다시온종일비가내렸다. 정오에나는공격하는공화주의부대와함께대학부속병원과‘산타크리스티나’양로원안으로진입하는데성공하였다. 두건물은수류탄과사격으로정면공격을받았다. 모로코용병들과‘정예군’은 200미터정도후퇴하였지만더이상물러서지않았다. 그들은우리에게빼앗긴건물을향해사격을가했다. 교통로가파져있지않았기때문에포복하여접근할수밖에없었다. 반쯤세워진벽돌건물바로옆에있는병원건물이영망진창으로파괴되었다. 건물천장과바닥에총알구멍이나있었고기구들이넘어져부서져있었다. 침대가뒤집혀있었고바닥에는벽돌조각과파편들이널려있었다.

지하시체안치소에서늙은수위를만났다. 세번의쌍방공격으로적의손에서아군의손으로번갈아가며정복된이건물에서그는아무탈없이살아남았던것이다. 그는전투병들에게시체를보호할수있도록시체를안치소로옮겨달라고부탁했지만거절당해몹시화가나있었다. 그는절대로머리가둔사람이아니었다.

이보잘것없는시체안치소가이렇게초만원을이룰줄누가알았겠는가? 가장조용하고학술적이던이장소가가장처참하고불행한전쟁터로쓰일줄이야누가상상이라도했겠는가!

에필로그

후세대

많은사람들에게두루티의죽음은희망의종말과도같았다. 그들이혁명을위해투쟁했다고믿는동안그들의도덕은건강했다. 오로지전쟁에서승리를쟁취하는것만이중요했지만모든것이전혀변하지않고옛날그대로였을때그들에게는만사가끝난것처럼보였다. 많은사람들은두루티가새로운사회에대한희망을실현해주리라고믿었다. 두루티의죽음은차라리공포였다. 왜냐하면그의죽음은공장과집단농장에서혁명적분위기의종말을의미했기때문이다.

페데리카몬트세니 1

두루티의장례식에서행한루이스콤파니스의두가지조사弔辭
동지여러분, 이엄숙한순간에나는여러분이단결하고규율을잘지키고그리고용기를가지라고당부하고싶습니다.

이순간에도눈물이쏟아지고있음을우리는느낍니다. 그렇지만왜눈물을보여야합니까? 자신의임무를다하여우리에게귀감이된한사나이의죽음때문에우리가울어야합니까? 차라리우리는겁쟁이들과극악무도한자들을위해슬퍼해야할것입니다. 눈물을거두고팔을높이쳐들고우리의길을계속걸어갑시다. 내부에머물지말고전진합시다. 두루티의이름이귀감이되어야합니다. 우리앞에놓인그길은아직험하고고립됩니다. 전진! 전진합시다!

「노동자연대」

겁쟁이든영웅이든죽기마련이듯이두루티도죽었습니다. 다만두루티는고인이싫어했던한비겁자의손에죽었을뿐입니다. 죽음은그것을두려워하는자에게도불현듯이찾아오지만감히어떤살인자도해를입힐수없는두루티와같은사람에게도찾아오는법입니다. 두루티, 우리는당신의용기를찬양합니다. 그대의이름이인민의가슴속깊이새겨졌습니다. 우리에게남은구호는이것뿐입니다. 전진하라! 의무가부르는그자리에서서각각파시즘과투쟁하고자유를위해투쟁하라! 뒤돌아보지말고전진하라!

그들에게는 문화를 대하는 젊은 세대들의 태도가 낯설기만하다. 반면에 젊은 세대들은 이들 상황의 체험자들이 ‘교양’ 냄새를 풍기는 일체의 것에 대해 비웃는 태도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들 노장의 노동자들에게는 문화란 일종의 유익한 사물을 의미한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글자를 터득하기 위해 피와 땀을 쏟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작고 어두운 방에는 텔레비전 대신에 책들이 있다. 설명 그들 가운데 부르주아지적 출신 성분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예술이니 학문이니 하는 따위는 내팽개쳐야 할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들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코미디와 록 음악에 의해 의식이 결정되는 젊은 세대들은 ‘현장투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본다. 그러나 그들은 원조 아나키스트들이 제기했던 ‘성의 해방’에 대해서도 둑과 한다.

다른 세대에 살았던 이들 혁명가들은 비록 몸은 늙었지만 여전히 칠줄 모르고 활동하고 있다. 그들은 경박한 것을 모른다. 그들이 비록 도덕을 말없이 실천하고 있지만 태도만큼은 모호하지 않다. 그들은 지금의 세계를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폭력에 친숙해 있지만 폭력의 쾌락에 대해서는 깊이 혐오한다. 그들은 고독하게 살면서 세상에 대하여의심을 품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를 갈라놓고 있는 그들의 망명의 문턱을 넘자마자, 남을 돋기를 좋아하고 손님을 후하게 대접하는 그들의 따뜻한 연대감이 느껴지는 그들만의 세계가 열렸다. 그들을 알게 될 사람들은 그들이 전혀 무뚝뚝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에 놀랄 것이다. 그들은 그들을 찾는 젊은 방문객들 보다 훨씬 더 정다감하다. 그들은 결코 우울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의 공손한 태도는 프롤레타리아적이다. 그들의 기품은 결코 굽육당하지 않은 사람들만이 가지는 의연한 자세이다. 그들은 누구에게도 머리를 숙일 필요가 없다. 누구도 그들의 일을 ‘도운’ 적이 없었다. 그들은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으며, 생활보조금을 타서 쓴 일도 없다. 복지정책도 그들에게는 무관심했다. 그들은 청렴하다. 그들의 의식은 흠이 없다. 이것은 오염되지 않은 의식의 한전형이다. 그들의 신체 상태는 출중하다. 그들은 현실을 도피하기 위하여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다. 신경 쇠약증에 걸리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신경 안정제가 필요 없다. 그들은 스스로를 가련한 존재로 여기지도 않는다. 그들은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는다. 패배의 경험조차도 그들을 나쁜 길로 이끌지는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오류를 범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옳았다는 신념에 대해서는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다. 이 옛 투사들은 그들 뒤에 등장한 그 누구보다도 강하다.

불쌍한 마드리드! 예전에 사람들은 이 도시를 아무런 걱정도 위험도 없는 행복한 도시로만 여겨 왔던 것이다. 제 1 차 세계 대전도 이 도시를 건드리지 않고 멀리 서비켜 갔었다. 그런데 지금 보름이 지나면서 4년의 전쟁을 경험한 유럽의 중심 도시들보다 더 쓰라린 고통을 겪고 있었다. 이 도시가 전쟁터로 변할 줄이야!

우리가 지치고 땀에 젖어 더러워진 몸으로 서로 말은 없었지만 그래도 만족하면서 제 2 전선으로 기어서 되돌아가고 있었을 때, 누군가가 달려와 서서 쪽 옆 공원의 부대에서 두루티가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전해왔다.

얼마 전에 나는 그를 국방성 계단에서 만났었다. 그때 나는 그에게 ‘산타크리스티나’ 양로원에 함께 진입하자고 제안했다. 두루티는 머리를 저었다. 그는 자신의 부대에 가서 부대원들이 비를 맞지 않도록 준비해야겠다고 말했다. 내가 농담을 했다. “대체 부대원들이 설탕으로 만들어졌는가?” 그는 투덜거리는 투로 말했다. “그래, 설탕으로 만들어졌네. 물이면 녹아버리지. 어쨌든 둘 중 하나는 남겠지. 그들은 마드리드에서 죽어가고 있네.”

이것이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그는 기분이 좋지 않아 보였다.

미하일 콜코프

1936년 11월 13일에서 19일 사이에, 두루티가 마드리드로 인솔해온 대원들 가운데 60 퍼센트 가적들 앞에서 쓰러졌다. 그중 그의 참모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생존자들도 이미 완전히 기진맥진하여 녹초가 된 상태였다.

리카르도 산스 2

군기는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다. 이런 정신 상태에서 파병대는 마드리드에서 아무 것도 수행할 수가 없었다. 그들에게는 기본적인 군기마저 없었다. 저마다 마음내키는 대로 행동하였다. 그들이 자신들의 결점을 파악하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다른 이데올로기를 내세웠던 부대들은 — 나는 그들이 공산주의자들이라고 생각하는데 — 달리 행동하였다. 그들의 군기는 매우 엄격하였다. 물론 아나키스트들 가운데 겹쟁이는 없었다. 그들 대부분은 대단히 용감했지만 군기라는 점에 있어서는 엉망이었다.

마르티네스 프라일레

짧은해설 7

영웅에관하여

스페인아나키즘의역사는정확성을애호하는사람을쉽게혼란스럽게만든다. 자료들을찾다보면, 서로상충하는여러자료들을보게된다. 가령 1919년에 CNT는얼마나많은회원들을확보하고있었는가라고물을때, 그답이 70만명, 혹은 1백만명, 혹은 55만명과같이서로다르다. 말하자면여타의통계자료에비해 그다지틀리지않는듯한이세개의자료는서로다른정보를제공하는것이다. 내전이발발했던 1936년의경우에는 1백만에서 1백 60만사이를육박한다. 일년뒤, 「노동자연대」라는신문의편집부는근거가빈약한자료를갖고서아카데믹한 지적호기심을채우려는연구가들의흥을깨어버렸다. “이런빈약하기그지없는통 계치는그만두자! 그것은우리의뇌를마비시키고우리의피를응고하게만든다.”

이소설의영웅(주인공)에접근하면사실성에대한훈선은더욱난무해진다. 두루티의전기에는특수한사정이있다. 전해오는이야기의부정확성은풀수없는 소문의꼬리를물게만든다. 두루티는다토(Dato) 수상의암살기도에가담했는가? 그는라틴아메리카의어느나라들을방문하였는가? 거기에서무슨일이발생 했는가? 누가레리다 Lérida 성당을방화했는가? 1936년가을에두루티는공산 주의자와접촉하였는가? 이런식의물음에는대답을전혀할수없거나, 아니면무 수히많은대답들이나올수도있다.

스페인내전에관권위있는참고문헌도두루티에대해서는몇쪽만을언급할 뿐이다. 이문헌이제공하는자료들도빈약하기그지없고, 자료들사이에서도서로일 치하지않는경우가많다. 영국인후크토마스(Hugh Thomas)의보고서에의하면, 두루티는 4개국에서사형언도를받았으며, 1936년말에그의단원은 1천명 으로구성되었다. 그의죽음의원인은적군파의오발탄에의한것이라고한다. 반면 에프랑스인피에르브뤼에(Pierre Broué)는사형판결에관한한아르헨티나에 서내려진단한번의사형언도만을알고있다. 그는두루티단원의전투원의수를 3천명으로잡는다. 그리고그는두루티가부하의손에암살되었을가능성이있다고 본다.

다. 30년훨씬전에그는두루티의추종자로서아나키스트민병대의한연대를통솔하였다. 그는자신을방문하는사람에게두루티의데드마스크, 웃장속에보관하고 있는사진들, 벽장을가득메우고있는원판의서적들과같은혁명의유물들을보여 준다. 이원판서적들은자신의인쇄소에서찍어낸것들이다.

그러나대부분의사람들은이미작고했다. 그리고리오호베르는중부아메리카 어디에선가아직살아있다고들한다. 다른사람들은실종되었다.

툴루즈 Toulouse 의한옛공장마당에는망명중에세워졌던 CNT 의본부막 사가있다. 2층의낡은발코니에서면‘대륙간사무국’이눈에들어온다. 1930년대 와 1940년대에나온진귀한팸플릿책자와호기심을끄는‘이상의도서관’이라는 소설책이있는한작은책방옆에, 페데리카몬트세니가그녀의사무실을열었다. 그 곳에서그녀는수십년전과마찬가지로지칠줄모르고자신의연설문과사설들을쓰 느라고바쁘다.

이들은하나의세계를형성하고있다. 지리적조건에의해서로멀리산발적으로 흩어져있지만아주가까이있는듯하다. 그세계는서로가문자로정한규칙을갖고 있지않음에도불구하고, 그리고서로오랫동안보지못했음에도불구하고, 각자가 좋아하는경향을서로알수있는암호를가진세계처럼보인다. 옛동지들의세계는 좌절이나시기, 압력이나소외, 모든망명한이민자들의불명예의세계와는거리가 멀었다. 그들의평균연령은높다. 그래서나쁜소문이든기쁜소식이든간에그들에게는가벼운여행에불과하다.

그들은좀처럼동요하지않는다. 옛기억들은이미오래전에그들의가슴속깊이 새겨져있었다. 각자는그결정적인해에맡았던자신의역할을외우고있었다. 물론 백발의노인들에게찾아오는감각의마비가그들의기억을흐리게만들기도한다.

그러나그들의강직한태도는쟁취했다가잃어버린혁명의정신을아직도상실 하지않고있다. 이들남녀투사들이한평생몸바쳐투쟁했던스페인아나키즘은사 회의어느변두리에위치하는어떤종파도아니었으며, 지성적유행풍조나부르주 아지적불장난도아니었다. 그것은바로프롤레타리아트의대중운동이었다. 선언 문이나구호로짐작건대, 옛아나키즘은오늘날학생운동에서볼수있는네오아나 키즘 Neo-Anarchismus 과는별관계가없다. 파리의 5월과여타의곳에서학생 운동의이념들을목격한이 80대의노인들은착잡한심정으로아나키즘의르네상 스를바라보고있다. 그들대부분은한평생자신들의손으로노동을해왔다. 그들중 많은사람들은지금도매일공장과건축현장으로일하러간다. 그들은대개작은공 장에서일하고있다. 그들은누구에게도의지하지않으며, 언제나자기손으로일해 서먹고사는것을자랑으로여긴다. 각자는자기분야에서전문가다. ‘레저사회’의 구호나여유있는생활의유토피아란그들에게낯설다. 그들의작은방에는불필요 하게남아도는물건이라고는없다. 그들은소비와상품 — 물신주의를알지못한다. 그들에게는사용가치만이중요하다. 그들은검소한생활을하고있다. 그것이 그들의마음을짓누르지는못한다. 그들은부르주아지의소비욕구를논박하지않 고침묵하지만, 그것을철저히경멸한다.

짧은해설 8

혁명의 노병들에 관하여

스페인 혁명이 좌절되고 3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혁명의 자취를 더듬으려는 사람은 한때 바르셀로나의 가장 권위 있는 일간지였던 「노동자연대」를 매일 읽어야 한다. 먼지가 뿐 양게 쌓인 서류철 가방 안에 들어 있는 색바랜 신문지를 찾기 위하여 암스테르담의 해렌 그라흐트 가게에 있는 한지 하창고를 뒤적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건물 4층에서 스페인 혁명에 대하여 기록해놓은 모든 서류와 발들을 뒤적여야 한다. 국제 사회 연구소는 혁명의 승패에 관한 글들을 소장하고 있다. 편지와 팸플릿, 지령문건과 목격자의 증언, 파손된 서류뭉치들을 보관하고 있다. 이것들은 서글픈 역사의 기억들을 되살려낸다. 여기서는 사라진 활자만 찾아낼 수 있는 것 이 아니라 생존자들의 자취도 찾아낼 수 있다. 말하자면 그들의 약력과 기억들, 주소를 알아낼 수 있다. 또한 그것들은 우리들을 멕시코 수도의 한적 막한 교외로, 프랑스 프로방스 지방의 한 외딴 마을로, 파리의 어떤 골방으로, 바르셀로나 노동자 공단 지역의 빈민촌으로, 아르헨티나의 수도에 있는 한 허름한 사무실로, 프랑스 가스코냐 지방에 있는 어떤 헛간으로 안내한다.

프랑스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 가구 목수 플로렌티노 몬로이 는 일흔 다섯의 나이에도 이지방 저지방으로 옮겨다닌다. 그는 양로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는 지방의 늙은 귀족들의 장식 가구들을 수리해 주고 받는 돈으로 연명하고 있다.

파리의 한 산하고 외인 쇼시르로이 Choisy-le-Roi의 세브륄 Chévreuil 가 6번지 악국의 뒷간방에서 스페인 아나키스트들은 작은 인쇄업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 그들은 지방 장날을 위한 영화 포스터나 무도회 초대장을 찍어낸다. 물론 자신들을 위한 잡지와 팸플릿을 만들기도 한다.

한때 가장 강력했던 카탈루냐 민병대의 일원이었고, 나중에는 한 작은 출판사에서 CNT의 가장 예리한 비판가로서 활약했던 디에고 아바드 데 산티안이라틴 아메리카 어디에선가 일하고 있다. 그는 남을 돋기를 좋아했고, 파이프 담배를 한 시도 입에서 떼지 않았던 침착한 사람이었다.

노동자연합의 일원이었고, 발렌시아의 섬유 공장 노동자였던 리카르도 산스는 2백 마르크의 연금으로 가로느 Garonne 마을의 한 허름한 농가에서 혼자 살고 있

이러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견해 차이 때문에 역사가들을 비난할 수는 없다. 자료비판에 아무리 열을 올려 봤자 전해오는 이야기에 대한 신빙성 있는 단서가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물론 자료비판을 발판으로 하여 상이한 견해 들을 뜯을 수 있는 하나의 계보를 그려낼 수는 있다. 이러한 계보에 근거하면, 출처가 불분명한 선전 팜플릿이 어떻게 어설픈 과학적 논문에 인용되어 그 논문이 일종의 권위를 얻게 되는지 알 수 있다. 그런 논문이 종종 중요한 술자료로, 권위 있는 논문과 사전으로 둔갑한다. 인쇄 활자에 대한 맹신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 인용되는 것은 사실로 통용된다.

CNT나, 특히 FAI와 같은 조직의 역사는 불안정한 기반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 고 쉽게 설명할 수 있다. 대중들이 자신들의 의사안을 '지도자의 위치에선' 정치가들에 게 넘기지 않고 직접 다룰 때는 회의 보고 내용이 대개 기록되지 않는다. 특히 거리에서 발생한 사건은 기록되지 않기 일쑤이다. 스페인 아나키스트들의 제 2 의천성이 되어 버린 온라인 활동도 마찬가지다. 스페인의 계급투쟁은 뉴스 잡지의 돈벌이 감이 결코 아니었다. 두루티와 같은 사람들이 활동한 지하 조직은 망원 카메라로도 잡을 수 없었다. 유용한 목적에 쓰기 위해 스페인 경찰의 문서 실이 폐쇄 보관되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두 가지 중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그것은 당대 CNT의 선전 물과 생존자들의 기록물들이다. 당시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이 지금까지도 여전히 침묵을 지키려고 한다. 입을 떼는 사람조차도 많은 것을 고려 한다. 30년 내지는 60년이라는 시간차 때문에 기억이 희미하다. 그러나 비록 팜플릿이 낡아버렸고, 1920~1930년대의 잡지들이 절반은 소실되었지만, 본래의 목적은 여전히 살아 움직였다. 그것들은 직접적 선동, 자기변호, 탄원 등 의용도로 쓰였다. 그것은 경찰의 고소를 기각시키는데 활용되며, 동지들의 무죄를 확실하게 변호하는데에도 이용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무장 강도단, 성공한 암살과 습격 사건 따위와 같은 소문들이 여전히 떠돌고 있다. 이야기가 모순되는 것은 그 내용과 무관하지 않다. 수동적인 독자라면 이러한 자료를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런데 독서란 사실을 구분하고 판단하며 편들기를 하게 마련이다.

우리가 이 소설의 내용에 접근해 갈 수록, 스페인 아나키즘 역사 위에 어슴푸레하게 비치던 본래의 여명은 차츰 밝게 변할 것이다. 그러나 체험의 현장으로 데려가는 모든 것을 읽은 후에도 두루티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군중 속의 미지의 한 사람으로 만남아 있다. 두루티에 관한 보고에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그는 웅변가가 아니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이론가가 아니었다." "사람들은 그를 장군으로 생각할 수 없었다." "그는 공상가가 아니었다." "그는 당간부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그는 야전 사령관의 모습을 띠지 않았다." "그의 세력은 조직적인 노동이 아니었다." "우리의 운동에는 많은 두루티가 있었다." "그는 작전 전문가도, 지식인도, 전략가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는 알 수 없다. 이점에 관한, 자신 있게 진술할 수 없다. 두루티의 특수한 면을 개인의 특징으로 돌릴 수 없다. 세부적인 일화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사적인 행동일지라도 깊숙이 파고들면 사회적 제스처가 나오게 마련이

라는 사실이다. 여기에 쓰인 글은 오인되어서는 안 될 한 프롤레타리아트의 프로필에 집착한다. 이러한 묘사는 인물을 심리학적으로 그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물의 윤곽만을 그려 낼 뿐이다.

두루티에게는 어떤 감정이 입도 허용되지 않는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대중들은 언제나 두루티를 재인식해 왔던 것이다. 그의 개인적 존재는 완전히 사회적 성격 속에서 영웅의 모습으로 변하였다. 그러나 이 영웅의 역사는 부르주아지적 발전 소설과는 다른 법칙을 따르고 있다. 그 내용의 변화는 단순한 사실보다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하는 욕구에 의해 조종된다. 영웅담 Legende 에는 일화와 모험, 신비적 사건들이 집합되어 있다. 영웅담은 필요한 것은 이용하며, 그렇지 않은 것은 배제한다. 이런 방식을 빌려 영웅담은 완강하게 변호될 일종의 적절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런 영웅담을 분해시켜 영웅의 실체를 ‘폭로하는’ 데에 관심을 두었던 적들은 집단의 이야기가 갖는 끊이지 않는 무수한 소문 앞에서 좌절하고 만다. 이런 저런 구체적 예를 들먹이면서 행하는 과학적인 논박 조차도 한 영웅의 이야기에 누를 입히지는 못 한다. 영웅담의 이러한 속성 덕분에 영웅은 뻔뻔한 현실 정치꾼들도 누리기 어려운 특별한 정치적 특권을 얻게 된다. 따라서 정치꾼들은 영웅을 비방하기보다는 그의 권위를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 이런 악용은 무엇보다도 영웅이 이미 작고 한 상태여서 걸릴 것이 없을 경우 더 심해진다.

영웅담의 연극은 그 본질적 특징을 떠나면서 연출된다. 대체로 영웅의 출신 성분은 보잘 것 없다. 그는 무명에서 일약 모범적인 개인 투쟁가로 등장한다. 그에 대한 소문은 그의 용기와, 웅변술 그리고 의리감을 확산시킨다. 그런 소문은 절망적인 상황, 이를테면 쫓기는 망명의 상황에서는 더 무성해진다. 다른 사람은 쓰러지는 곳에서도 그는 언제나 위기를 모면한다. 그는 총알을 피했다는식의 소문이나 돈다. 그러나 완전한 영웅은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탄생한다. 이런 점에서 그의 죽음에 관한 술 한 수수께끼 같은 소문이나 돈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그의 죽음은 음모에 의한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다. 영웅의 종말은 어떤 징조로 작동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의 무감을 갖게 한다. 바로 이 순간부터 영웅담이 만들어진다. 그의 무덤을 찾는 사람들이 줄을 선다. 그의 이름을 본떠서 거리 이름이 정해진다. 그의 화신이 장벽 위에 나타나기도 한다. 이로써 그는 부적符籍의 신이 되는 것이다. 어떤 문제의 해결을 곧부적의 덕으로 돌린다. 흔히 이것이 남용되기도 한다. 만일 스페인 혁명이 성공 했더라면 두루티도 공식적인 민족의 영웅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혁명의 패배는 그의 행운을 가로막았다. 그는 예전의 모습 그대로, 즉 한 프롤레타리아트의 영웅, 피착취자, 피억압자, 도망자의 한 사람으로 남아 있다. 그는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반역사적인 물로 취급당하고 있다. 그의 무덤은 바르셀로나의 교외에 있는 한 공장의 음지에 자리 잡고 있다. 쓸쓸한 그의 비석 위에는 언제나 몇 송이의 꽃만이 놓여 있을 뿐이다. 석공은 비석에 그의 이름을 조각해 넣지 않았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 보면 어떤 사람이 작은 칼로 이묘비에서 투른 필체로 무엇인가를 새겨놓은 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두루티**라는 이름이다.

한 때 스페인 기업 가연합의 사무실이었던 거대한 건물이 이제는 ‘CNT-FAI 빌딩’이 되어 있었다. 그 건물은 CNT 카탈루냐 지역 위원회의 본부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 건물은 바르셀로나의 항구를 연결시켜주는 넓은 현대식 도시 전철이 있는 라예타나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두루티는 자신의 생애 마지막 몇 달을 이 건물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보냈다. 이 기간에 그는 건물 내에 마련된 라디오 방송국을 통하여 스페인인민에게 마지막 연설도 했던 것이다. 바로 그 인민의 거리를 통하여 그의 시신은 몬주익으로 운구되었다.

CNT 바르셀로나 지역 연합의 요청에 의해 이제 그 거리는 부에나 벤투라 두루티 가 거리로 불리고 있다.

「두루티」 6 호

그가 마드리드로 출발했을 때 나는 다시 한번 공항까지 그를 배웅하러 나갔다. 그 것이 내가 그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었다. 나는 매일 마드리드로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은 그가 외출하고 없다고 했다. 나중에 나는 그 때 바로 그가 사망한 것임을 알았다.

나는 그 때 그 장소에 없었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해서 아무 것도 말할 수 없다. 그렇지만 그 사건이 우연한 사고라고는 설명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아무도 그렇게 믿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전선에서 쓰러졌을 것이라는 소문이나돌았다. 그는 전사자가 된 것이다. 그것이 전부다. 두루티와 같은 사람은 침대에서 죽을 리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나도 의심을 했었다. 그러나 그 사건이 불행한 우발적 사고였다고 나에게 말해준 사람은 사이가 먼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그의 친구들인 가르시아 올리베르와 아우렐리오 폐르난데스였다. 그들은 그의 투쟁 동지들이었다. 그들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문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이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었다.

에밀리엔느 모린

는그에게입혀물을옷을한벌찾고있었다. 우리가찾은것이라고는고작닳아해진
낡은가죽조끼하나와카키색바지한벌, 구멍난낡은구두한켤레뿐이었다. 그는모
든것을내놓은사람이었다. 그에게는양복바지의단추하나도자신의것으로소유
하고있지않았다. 한마디로말해서그는아무것도소유하지않았다.

리카르도리온다카스트로

두루티의짐꾸러미에서는이런소품들이발견되었다. 갈아입을셔츠한벌, 권
총두정, 망원경하나와선글라스하나. 이것이그가가지고있었던전재산의목록이
었다.

호세페이라즈 1

두루티의죽음은마드리드에깊은감동의파문을일으켰다. 그의시신은동료들
에의해 CNT 지역민족위원회로옮겨져입관되었다. 11 월 21 일새벽네시에관
을자동차에실었다. 발렌시아를향해운구할때자동차행렬이꼬리를물었다. 행
렬이지나는도시마다주민들도도로로나왔다. 취바 Chiva 에서는장관들이운구
행렬을맞이하였다. 그들은가르시아올리베르, 알바레스델바요 (Alvarez del
Vayo), 후스트 (Just), 에스플라 (Esplá), 히랄 (Giral) 장관이었다. 모든마을
의주민들은흑·적색기를내걸고관위에는화환을얹었다. CNT 발렌시아근동지
역위원회의대표자들은동지의유품을실은자동차에화환과꽃다발을실었다.

근동지역과카탈루냐의모든마을의주민들은고인에게작별인사를하였다.
11 월 22 일밤한시직전에운구차가 CNT-FAI 사무실이있는바르셀로나에도착
하였다. 꽃과흑·적색깃발에싸인관은아나키스트사무실현관에준비된관대위에
놓여졌다. 관과그관을덮고있던깃발위에는두루티삶의내용이었고, 그것을위해
그가쓰러졌던글이쓰여있었다. CNT-AIT-FAI.

「두루티」 6 호

장례식은바르셀로나에서열렸다. 날씨는구름이끼어침울하였다. 도시전체
가집단적히스테리에빠진듯했다. 전투복차림의아나키스트의장대를앞세운장
례행렬이지날때, 사람들이도로위에무릎을꿇고엎드렸다. 그들은소리내어흐느
꺼울었다. 50 만의인파가도로를메웠다. 모든사람들이눈물을흘렸다. 두루티는
바르셀로나주민들에게아나키즘사상가의상징이었다. 그래서그가죽었다고는
믿을수없는것처럼느껴졌다.

그날은이상한침묵이도시를덮고있었다. 전신주에는흑·적색깃발이나부끼
고있었다. 태양도빛을잃었다. 나는그날만큼조용하고엄숙한, 그리고슬픈날을
경험한적이없었다.

하우메미라비트예 2

죽음

슬픈소식

나는 대원들과 함께 전선에서 돌아왔다. 몬클로아 광장에서 누군가 가나에게 손짓을 했다. “리온다, 이리 좀 오게.” “누구, 나 말인가?” “그래, 자네 말고 누구 말이 겠는가!” 내가 그쪽으로 갔을 때 그가 말했다. “리온다, 빨리 가보게. 두루티가 위독하다네.” 나에게 말한 그 사람은 두루티의 보초병 가운데 한 사람인 라몬 가르시아였다. 그는 키가 작고 얼굴은 훌쭉하였으며, 근시안이었다.

리카르도 리온다 카스트로

나는 타자기 앞에 앉아 있었다. 두루티의 운전병이 금히 문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을 때는 이미 오후가 저물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줄리오 그라베스 (Julio Graves) 였다. 그는 성격이 대쪽 같았지만 몸집은 보통 덩치의 젊은이였다. 그는 혁명 투쟁 때부터 바르셀로나에서 사이좋게 지낸 나의 형에 두아르도의 안부를 물었다. 그에게에 두아르도가 옆 방에 누워 있을 거라고 말했다. 내가 그 운전병에게 특별히 주문한 것도 아닌데도, 그는 황급히 서두르는 모습이었고, 슬퍼보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때가 당시 우리 가족은 날들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날이었다고 생각한다.

나의 형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 두 사람이 몇 마디 이야기를 주고 받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갑자기 그들은 흐느끼며 울기 시작했다. 나는 즉시 일어나서 그들이 있는 방으로 갔다.

“무슨 일인가?” 내가 물었다.

“두루티가 치명상을 입었어. 벌써 죽었는지도 몰라.”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동지 줄리오 그라베스가 이 말을 덧붙였다.

오후 다섯 시였다. 우리 셋은 즉시 리조트 호텔로 달려갔다. 그 호텔에는 카탈루냐 민병대를 위한 병원이 마련되어 있었다. 아직 극소수만이 그 슬픈 소식을 들어 알고 있었다. 나는 그 병원에서 산타마리아 의사의사를 만났다. 그는 두루티 원정대와 함께 아라곤 전선에서 마드리드로 왔던 아나키스트였다. 흰 가운을 입은 그 외과 의사 는 키가 크고 깡마른 사람이었다. 그 가나에게 두루티의 상태를 설명해주었다. 두루티의 생명은 구할 수 없다고 했다.

시장관이었던 페데리카 몬트세니와 CNT 민족 위원회의 비서였던 마리아노 바스 케스가 제의하였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나와 이야기를 나누었던 산타마리아 의사 는 총알이 어느 방향에서 날아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실탄이 기껏해야 50 센티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사된 것만은 확실하다고 나에게 장담하였다.

예수스 아르날페나 3

많은 사람들은 바로 지금도 그 사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 사건의 진실을 아는 것이 그들에게도 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도 나만큼 진실을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동지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나누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들은 두루티의 마드리드 참모장이었던 만사나의 집에 모여 있었다. 거기에는 운전병에스탄 시오가 있었고, 그 당시 같이 동승했던 나머지 한 사람도 있었다.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던가? 그들은 그가 오발로 사망했다고 했다. 두루티가 그 때 이렇게 앉아서 (리온다가 두루티의 자세를 취했다) 소총의 총신을 위로 향하여 잡았다고 했다. 그가 소총을 들고 차에서 내리려 했을 때, 바로 그 때 방아쇠 장치가 발판에 ‘탁’하고 부딪혀 총알이 발사되어 그의 심장을 관통했다고 하였다.

나는 소총에 관해서 흔히 알고 있다. 나는 스물두 살 때부터 권총을 몸에 지니지 않고 집을 나서 본 적이 없었다. 그 당시 우리는 특히 저녁과 밤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권총을 몸에 지니지 않고 집회에 참석한 적이 없었다. 언제나 권총을 손에 들거나 탄띠에 차고 다녔다. 언제든지 나를 방어 할 수 있어야 했다. 그러나 두루티는 항상 별로 조심을 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의 결점이었다. 나는 그 점을 그에게 자주 지적하곤 했다. 그래도 그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이것은 만사나의 생각과 일치한다.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총신이 자기 쪽으로 향하게 잡아서는 안 되는 일이다. 내릴 때는 말 할 필요도 없다. 만사나는 두루티의 문제가 바로 그 점에 있다고 나에게 말 했었다. 나란히로 자동 소총은 위험한 무기이며, 쉽게 발사 된다고 했다. 나중에 내가 두루티의 소총, 바로그 문제의 소총을 보관 했기 때문에 그 총에 대해 선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프랑스로 망명 할 때 까지 그 소총을 보관하였다. 국경을 넘어야 했기 때문에 나는 그 총을 두고 옮수밖에 없었다.

리카르도 리온다 카스트로

두루티의 유품

그는 아무것도, 정말이지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쉽게 믿어 지지 않을 것이다.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모두 인민들의 것이었다. 그가 죽었을 때나

우리는 두루티의 죽음이 우발적인 사고에 의한 것이라고는 차마 믿고 싶지 않았지만, 어쨌든 우리는 목격자들이었다. 감히 그 비보를 알릴 엄두가 나지 않았으며, 아무도 진실을 말하려고 도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그는 적이 쏜 실탄을 맞고 사망했을 거라는 오보가 나돌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더 이상 생각 할여지도 없다. 그러나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이 이 사건과 연관이 있을 거라고 했고, 또 어떤 이들은 — 우리 쪽에서는 — 그의 보초병이 그를 살해했을 거라고도 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사건을 제 5 열에 뒤집어 씌우기도 했다. 이런식으로 계속 소문이 확산되었다. 아무도 그 사고가 두루티의 실수에 의한 우발적 사고였다는 진실을 밝히지 않았다.

라몬 가르시아 로페스

나는 처음부터 두루티가 암살에 의해 희생되었다고 주장했다. 충분한 증거물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 그의 셔츠가 증거물이었다. 셔츠를 보니 사격이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진 것이 분명했다. 분명히 두루티의 미망인도 공식 보도를 의심했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 후 나는 여러 사람들과 그 사건에 대해서는 의하였다. 물론 에밀리엔느의 친구들과 도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처음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두루티가 자동차에서 내렸을 때 자동 소총, 일명 나란히 서로 불리는 소총이 (나는 어째서 그 소총이 '오렌지 나무'라고 불리었는지 이해하지 못하였다) 저절로 발사되어 그에게 치명상을 입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CNT 의태도도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식의 죽음에는 반어적 경향이 따라붙게 마련이었다. 대중들은 사실의 보도를 거의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정하려고 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마치 비서가 타자기를 다루듯이 무기를 다루던 그런 사람이 그런 실수를 했다고 누가 믿겠는가! 분명한 사실은アナ키스트들이 두루티에게 형성된 그런 신화를 너무나 평범한 사실의 해명으로 파괴하고 싶어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일 뿐더러 있어서도 안 될 일이었다.

하우메 미라비트 예 1

그러나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했다. 그것은 누가 그렇게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맹세를 시켰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침묵을 지키면서 우리의 부모들과 아내뿐만 아니라 친구들에게도 어떤 이야기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두루티의 그러한 죽음은 한편으로는アナ키스트지도자들을 웃음거리로 만들 수 있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두루티가 자신의 대원들에 의해 살해되었을 것이라는 의심이 일어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침묵의 맹세는 당

두루티가 누워 있는 방에서 한 간호원이나 왔다. 호흡을 돋기 위해 벌써 두 번이나 폐에 호스를 밀어 넣었다고 했다.

나는 CNT 민족 위원회를 찾아갔다. 벌써 몇 가지 소문이나 돌고 있었다. 동지들은 침묵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들 말했다. 밤이 깊어 갔지만 바르셀로나에 전화를 걸어 이 비보를 전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アナ키스트들의 지도부가 회의를 소집하였다. 우리는 회의의 결론은 기다려야만 했다. 회의에서 그들은 모두에게 중요한 것이 마드리드의 방어라는 결론을 내렸다. 두루티는 죽은 후에도 우리가 그의 이름을 빌려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 스페인의 국민적 영웅의 이름으로.

아리엘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나 세 시 반쯤 된 어느 오후에 그들은 스페인アナ키스트의 지도자를 우리 병원으로 옮겨왔다. 내 생각에 그는 아주 위험한 치명상을 입은 것 같았다. 당시에는 적절한 처방과 기술을 갖춘 현대식 외과 의술이라고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었다. 치명적인 부상인 경우에는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솔직히 말했다. 나는 전문가로서 내 판정에 확신했다. 동료 의사인 바스토 박사도 내 견해에 동의하여 수술을 말렸다.

총상에 의해 흉곽의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늑골이 부풀어 올라 있었다. 그 내부 상처가 심각하였고 특히 심장 부분이 심하게 파손되어 있었다. 환자가 출혈로 사망할 것이 틀림없었다.

마르티네스 프라일레

내가 도착했을 때 그는 아직 살아 있었다. 그는 나를 알아보고 매우 고통스러워했다. 그는 말을 하고 싶어 했지만 의사가 만류했다. 그래도 그가 몇 마디 중얼거렸지만 다 알아들을 수는 없었다. 위원회에 관한 이야기였다. 당시 너무 많은 위원회가 있지 않았던가! 우리가 마드리드에도 착했을 때 그는 늘 그 이야기를 하였다. 길 모퉁이마다 위원회가 하나쯤은 있었다. 모두 내 몰아야 할 위원회였다. 위원회가 너무 많아! 그것이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리카르도 리온다 카스트로

우리의 동지 두루티가 어떻게 죽음을 당했던가.

우리의 불행한 동지는 아침 여덟 시 반 경에 파병대의 전방 초소를 순찰하기 위해 전선으로 갔다. 도중에 그는 전선을 이탈한 몇 명의 민병대원들을 만났다. 그는 자동차를 세우게 하였다. 그가 차에서 내리던 순간에 한 발의 총성이 울렸다. 몬클로 아광장에 있는 한 작은 호텔의 창문에서 그 총알이 발사되어 날아온 것이 분명했다. 두루티는 단한 마디 말도 못하고 곧바로 땅에 쓰러지고 말았다. 그 탄환이 그의 등을 관통했다. 부상이 치명적이어서 생명을 건질 방법이 없었다.

「노동자연대」

의구심

그날밤의분위기는극도로불안하였다. 모두가흥분한상태여서서로감적이격해있었다.

두루티의임종을앞두고사람들은어찌할바를몰라했다. 조직내부에서논쟁이일어날수도있고, 그결과동지들간의충돌이있지않을까하는염려가확산되었다.

마르티네스프라일레

리츠호텔의홀은CNT 회원들로붐볐다. 많은사람들이흐느껴울었다. 우리는그들이묻는질문에무슨이야기를해야할지몰랐다. 잠시뒤에만사나(Manzana)와보니야(Bonilla)가왔다. 그들은우리부대가전선에서철수하길종용했다. 그들은만약두루티의죽음에관한소식이알려지게되면틀림없이충돌이일어날것이라고예고하였다. 우리부대를발레카스구역에있는막사에집결시켜질서를유지하게하는것이좋겠다고말했다.

두루티의죽음은21일에야마침내알려졌다. 그날우리의목격자들은두루티가죽게된상황에대해침묵을지켜달라던마리아네트의요청을받아들였다.

라몬가르시아카스트로

물론두루티의죽음은엄청난충격이었다. 그는전선에서시내로돌아오는도중에차에서내리다가치명상을입고쓰러졌다.

CNT가발표한첫공식보도에의하면적측의저격범인치안경비대의한경찰이발코니에서마우제르권총으로그를저격했다고했다. 그러나거의정확히심장부위에맞은걸로보아그발표는신빙성이없었다.

우리는그발표를믿을수가없었다. 그는혼자다닌것이아니라항상경호원들에게둘러싸여다녔다. 그때총알의방향을왜찾지못했을까? 우리는의심했다.

하우메미라비트예 1

내가마드리드에도착한그날, 나는살아남은파병대의병사들이쉬고있던그라나다의막사를찾아갔다. 그들은모두연병장에집결해있었다. 당시아나키스트여성장관이었던페데리카몬트세니가나와함께갔었는데그녀가먼저연설을하였다. 그녀는대원들에게내가두루티의후계자로결정되었다고설명했다.

대단한소란이벌어졌다. 두루티의죽음은별도로하더라도어제만해도막사를나서산책을하던두명의동지가들판에서살해된것이다. 민병대원들이소리쳤다.“안됩니다, 산스. 이젠그렇게할수가없어요.”“무슨일이오?”내가물었다. 민병대가운데한명이대답했다.“산스동지, 우리가흥분한다고해서놀랄일이아닙니다. 우리모두는우리의두루티를살해한무리가파시스트들이아니라고확신하고

느누구도감히그런범죄를저지를수가없었다. 나중에는공산주의자들의짓이라는소문이무성해지기도했다. 그런소문도나는믿지않는다고과감하게말할수있다. 아나키스트들이두루티를살해하였다는그거짓말은몇몇기자들과역사가들의입에서흘러나온것인데, 그들은모두공산주의자들의꼭두각시들이었다. 당시공산주의자들은아나키즘운동을왜곡하는온갖공작을다벌였다. 또다른집단들도그런유언비어를계속퍼뜨렸다. 많은사람들은자신들이들은이야기를입방아찧는것을재미로여겼다.

페데리카몬트세니 1

목격자들

그사건이발생한지벌써35년이라는세월이흘렀지만나는지금도정확한날짜뿐만아니라그시간과세부적인일까지도기억하고있다.

우리는‘미구엘(미카엘)천사’27번가에주둔하고있었다. 그곳에는두루티의지휘소가있었다. 그지휘소는알폰소13세의조카였던소토마이요르(Sotomayor)대공의도시궁전이었다. 11월19일오후에전선에서한전령이왔다. 그의보고는부속병원이적의손에넘어갔다는것이었다. 우리는즉시자동차에올라탔다. 그때가오후네시쯤되었다. 우리는곧바로전선으로달려갔다. 상황을정확히파악하기위해병원가까이지나갔다. 운전석에는운전병흘리오가앉았고그의옆에는여느때와마찬가지로두루티가앉았다. 그는뒷좌석을좋아하지않았다. 뒷좌석에는만사나와보니요그리고내가앉았다.

우리는시내를지나몬클로아광장에도착한후다시로잘레스산책로를거쳐앙드레베야노거리모퉁이에도착하였다. 우리는총알이바람을가르는소리를들었다. 더이상나아갈수가없어서멈추었다. 자동차는적의사격에아주멋진목표물인것이다. 그래서흘리오가차를세우고상황을정찰하기위해서차에서내렸다. 두루티가그의뒤를따라가겠다면서나란히로라는자동화기를손에들었다. 차문을열고그화기로차의발판을두드렸다. 그때총알이발사되어그의심장을관통했다.

나도이미차에서내린상태였기때문에차에는단한사람만타고있었다. 우리는두루티를들어올렸다. 많은피가흘렀다. 그러나그는의식이또렷했다. 우리는그의가슴에서흘러내리는피를계속닦았지만피가멈추지않았다. 그를자동차에눕히고민병대의무대가있는리츠호텔을향하여전속력으로달렸다.

두루티를의사들에게넘겼다. 그들은그를구하기위해모든방법을강구하였다. 새벽두시까지만해도그는의식이분명했다. 나는계속그곳에남아있지않았기때문에그후에그가무슨말을더했는지모른다. 그러나내가알고있는것은그가불행한사고를당한지열한두시간후인새벽네시경에사망했다는사실이다.

에 치명적인 사격이 쏟아졌다. 저격범이 정확히 두루티를 알아보고 의식적으로 그를 사살했을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두루티는 눈에 띠는 어떤 휘장도 제복에 달고 다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저격수는 두루티가 도중에 만난 탈영민 병대원들에게도 사격을 가했을 것이 틀림 없다. 그리고 두루티는 프랑코의 적 쪽을 향해서 있었다. 따라서 두루티가 등뒤에서 쏜총에 맞아 피살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런데 사격은 위쪽에서, 그러니까 그때까지 적의 수중에 들어 있었던 맞은 편 건물에서 가해졌던 것이다.

나중에 이 문제를 두고 공산주의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많은 아나키스트들은 두루티가 공산주의자들 손에 살해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개연성은 없었다. 다만 그의 죽음으로 공산주의자들이 엄청난 전략적 이득을 본 것만은 사실이다. 두루티는 당시 점차 확산되고 있던 공산주의자들의 영향력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었다. 그런데 그의 죽음으로 인해 아나키즘 운동의 그 유일한 제어력이 사라져버렸던 것이다.

‘두루티의 동료들’이라는 조직은 그가 사망한 후 수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모습을 드러냈다. 그 명칭이야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것이다. 아나키스트들은 운동 중에 사망한 동지나 철학자 혹은 정치적지도자들의 이름을 그들의 조직에 붙이는 것을 관례로 여겨왔다. 그러나 살아 있는 사람의 이름을 빌려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었다. 그런데 ‘두루티의 동료들’이라는 최초의 조직은 두루티가 활동했던 파리에서 이미 형성되었던 것이다. 이제 그 두 번째 조직이 스페인에서 구성된 셈이다. 이 조직은 CNT 의 타협적인 정책과 공산주의자들의 압력에 CNT 가 주저하고 있는 형태에 맞서 투쟁했다. 두루티가 공산주의자들과 모종의 ‘타협을 모색하려고’ 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두루티가 죽기 전까지는 공산주의자들이 아나키스트들에게 강한 압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스페인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었던 것은 두루티가 죽고 난 후의 일이었다. 부에나 벤투라 두루티가 죽음의 총알을 맞기 전에 러시아 여성 아나키스트였던 엠마 골드만과 나눈 대화에서 그는 자신의 입장장을 명확히 밝힌 적이 있었다. 아나키즘 투쟁의 방향에 대하여 확신을 갖고 있느냐는 그녀의 질문에 대하여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만일 스페인 노동자들이 우리들의 해방 투쟁 방식과 여사께서 알고 있는 러시아 공산주의의 방법 가운데서 선택을 해야 한다면, 그들은 매우 올바른 길을 택할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 서나는 아무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골드만은 만일 공산주의 세력이 막강하여 노동자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두루티가 대답했다. “우리가 언젠가 프랑코를 제거한다면 공산주의자들과 도주자 없이 한 판별일 예정입니다. 그런 일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전과 마찬가지로 공산주의자들과 도대립 할 것입니다.” 만일 그가 살아 있었더라면 그렇게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알베르트 멀처 (Albert Meltzer)

나는 두루티의 보초병이 등뒤에서 그를 살해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믿지 않았고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하였다. 그것은 유언비어였다. 그의 대원들 중에

있습니다. 우리 내부에 적이 있어요. 우리의 적들은 공화국 내부에 있는 겁니다. 그들은 두루티가 매수당하지 않고 비굴한 짓도 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살해한 겁니다. 당신도 조심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을 당할 것입니다. 혁명의 이름을 옹호하는 자는 제거될 것이 뻔합니다. 여기서는 그것이 문제지요. 혁명이 계속될까봐 걱정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어제 두 명의 동지가 산책을 하다가 등뒤에서 총을 맞고 죽었습니다. 당신이 마드리드에 계속 남아 있다면 그놈들은 당신마저 살해할 겁니다. 우리는 가급적이면 빨리 이곳을 벗어나 아라곤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곳에는 배후에서 우리를 공격할 적들은 없어요.”

모두가 이런식으로 아니면 이와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실제로 상당수의 파병대가 아라곤으로 돌아갔다. 그나마지만 마드리드에 계속 남아 있었다.

리카르도 산스 3

그가 죽은 뒤 곧바로 유언비어가 떠돌기 시작했다. 이런 저런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이 그를 살해했다고 했다. 그들은 라디오 방송을 들었는지 우리에게 물었다. 두루티의 파병대는 더 이상 불잡아둘 수 없으며, 그들은 무기를 내팽개치고 귀향하고 싶어한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했다. 그들 모두는 살해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 유언비어를 유포한 것은 파시스트 라디오 방송이었다. 처음에는 공산주의자들이 암살의 주범이라는 소문이나돌았다. 그렇게 소문을 퍼뜨린 자는 파시스트의 하수인이었던 케이포 데 라노 (Queipo de Llano) 였다. 그런데 갑자기 그는 태도를 바꾸어 공산주의자들이 그 살해의 장본인이 아니라 바로 두루티의 보초병들이 장본인이라고 헛소리를 하였다. 그런 영터리 같은 말이 어디 있겠는가! 마드리드에서는 모두가 제정신이 아니었다. 참모부도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모두가 수군거리면서 영터리 소문을 입에 올리곤 했다. 우리는 매우 화가 났다.

당시 나는 직접 우리 CNT 신문사를 찾아가서 말했다. 우리는 전쟁 중이므로 더 이상 이런 혼란이야기되어서는 안 되니 기사를 교정해서 써야 한다고 했다. 그런 소문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그 일을 시작하였다.

리카르도 리온다 카스트로

이처럼 교활하게 꾸며진 암살 사건이 문제로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배제할 수 없었다. 각 당들과 집단들 사이에 횡행하고 있는 철저한 경쟁이 바로 그 사실을 확인 시켜준 셈이었다.

두루티는 확실히 마지막 까지 대중들에게 영향을 끼친 소수 혁명 대원들 중 한 사람이었다. 그의 전생애는 전설처럼 되었다. 그러한 감정을 바로인민들이 강하게 품고 있었기 때문에, 온갖 소문이 횡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루티가 살해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은 비록 모호한 것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실로 받아들였다.

쿠데타 군부의 라디오 방송은 우리의 사기를 저하시켰다. 그들은 온갖 세력들을 동원하여 우리를 혼란에 빠뜨렸다. CNT 와 FAI 위원회는 이런 라디오 방송의 권모술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보도로 대응했다.

“노동자여러분! 소위말하는제 5 열 quinta columna 의음모가들은우리의동지두루티가배신적인음흉한살인공격에의해희생되었다고유언비어를유포하고있습니다. 우리는이러한비열한음모공작을경계하라고모든동지들에게알려드립니다. 파시스트들은파렴치한음모공작을동원하여그들에게날카로운무기를들고투쟁하고, 깊이생각하는우리프롤레타리아트의막강한통일전선을흔들어놓으려고합니다. 동지들이여! 두루티동지는결코배신적인행위에의해희생당한것이아닙니다. 그는다른해방군동지들과마찬가지로자신의책임을용감하게다하면서투쟁하다가쓰러졌을뿐입니다. 갤수없는우리들의견고한블록을파괴하기위해파시스트들이퍼뜨린세간의유언비어를믿지말것을당부합니다. 머뭇거리거나주저하지마십시오! 거짓소문을퍼뜨려형제살해에대한의심을풀게하는흑색선동자들의말을귀담아듣지마십시오! 그런유언비어를유포하는자들이야말로혁명의적들입니다.

이상은 CNT 민족위원회와 FAI 반도위원회에서보도드렸습니다.”

호세페이라츠 1

11 월 23 일발렌시아에서 CNT 와 FAI 민족위원회는다음과같이선언하였다.

우리의동지두루티의죽음에대해온갖소문과추측들이나돌고있다. 위원회는상황을완전히파악하여이런것들을거부하여야한다. 우리동지는파시스트의총알을맞고죽은것이지, 소문처럼어떤특정당파의음모에의한것이아니다.

지금우리는모든반파시스트연합세력들과연대한스페인프롤레타리아트가바로파소무리와투쟁하고있다는사실을잊지말아야한다.

따라서스페인아나키즘노동계급의최고조직은우리작전의성공을저해하고, 반동의야수들에게항거하는스페인노동계급의정당한부대를분열시킬수있는발언들을일체삼가줄것을모든이들에게요구한다.

우리는이선언이모든동지들에게확신을주리라고기대한다. 스페인에있는파쇼를타도하기위해전진하자!!

민족위원회.

「노동자연대」

두루티의의문의죽음

나는그의죽음이암살에의한것이틀림없다고확신했다. 두루티가사망하자마자스페인아나키즘의가장중요한지도자들이마드리드에서사라졌다. 밤사이에정치적분위기가달라졌다. 갑자기많은아나키스트들이박해를받기시작했는데,

이카탈루냐정부와연대책임을맡고입각했을때는자신들의이데올로기적태도를거의절반이나포기한상태였다. 그러나투쟁의입장은분명했다. 예전과마찬가지로그들은가두투쟁을승리로이끌어라디오방송국과다른통신사를점령할수있었다. 그러나 — 그들이반권위주의라는원칙을내세웠더라면 — 공산주의자들이공화국을통제하는것을막기위해서적에게문을열어줄수도있었다. (당시의상황은공산주의자들이스페인에서승리하게되면분명세계대전으로확산될수있었기때문에스페인공산주의자들은그시점에서모스크바에기대를걸수없는불리한여건에놓여있었다.)

그래서양측의 — 한쪽은마르크스의상속자들이고다른한쪽은바쿠닌의상속자들이었다 — ‘순수이데올로그’들은우선전쟁에서승리를구현하고싶어했던덜순수한사람들과타협을해야만했던상황에처하게되었다.

그러한상황은두루티에게도그대로적용되었다. 그는공산당과중앙정부지도자들을만나기위해마드리드로가겠다고이미선언한상태였다. 그는바깥거리에서프랑코군대의유탄이떨어지고있는상황속에서호위병들을데리고그란가에있는한지하식당에들어갔다. 마드리드주민들은그때까지그렇게완전무장한투쟁가들을본적이없었기때문에그대원들이마침내그들을도울것이라는기대감에사로잡혔다. 두루티는호위병들을남겨두고혼자공산주의자들을만나러갔다. 15분후에그는공교롭게도‘두루티의동료들’이라고자칭한아나키스트집단의프락치들에게대로大路에서살해되었다.

만일내전의역사가들이두루티가전선에서알수없는무리들에의해피살되었다고만설명한다면그것은사건을완전히오도하는것이나다름없다. 당시공화주의정권과공산당은사건을그런식으로유포할충분한이유가있었던것이다. 두집단은아나키스트들과공산주의자들사이의갈등을애써무시하려고했다. 그래서그들은두루티가프랑코의참호에서발사된유탄에맞아희생되었다고까지주장했던것이다. 그것은얼토당토않은이야기였다. 그는백주에도로에서, 그것도등뒤에서총을맞았던것이다. 수많은목격자들이그의종말을지켜보았다. 그의죽음은아나키즘적사고방식이갖는의미를극단적으로보여준한가지사례라고할수있다. 그러나그의죽음으로도아나키스트들과공산주의자들사이의갈등은해결될수없는것으로나타났다.

‘두루티의동료들’은그가살해되기훨씬전에이미조직되어있었다. 이조직은‘진정한’아나키즘정신을표방하여공산당의어떤권위주의적경향에도반대했다고한다. 보시다시피, 두루티가자신의‘동료들’에의해살해되었을것이라는것은어디까지나논리적추리일뿐이다. 그의죽음은바쿠닌과칼마르크스사이의갈등이빚어낸최후의산물이었다.

의명 2

전쟁중에어떤사람이넓은도로에서피살되었다면그죽음에는적아니면내부의요원이관계되어있다고보는것이무리는아닐것이다. 국민군이막퇴각한지역

나는총알이관통한구멍을자세히살펴보았다. 나는감식전문가를불러놓았다. 우리는두루티가아주가까운거리에서사격을받은것이틀림없다는결론을내렸다. 실탄이관통할때탄흔적이셔츠의직물에명확히남아있는것이그증거였다.

당시우리는마드리드아나키스트들의정신상태를아주정확히알고있었다. 우리는두루티가마드리드에서더이상게릴라의지도자가아니라정규군의지휘자처럼행동한것으로기억한다. 그는책임감을망각한아나키스트원정대의지도자들에게가차없는조치를내렸던사실도우리는알고있다. 그는그들중몇명에게총살명령까지내렸다. 그런점에미루어우리는당시그가내부의보복행위에의해암살된것이라는결론에도달하였다.

하우메미라비트예

두루티가죽고난뒤일년동안카탈루냐광장에서는마드리드의영웅적수호자를기리기위한전시회가열렸다. 전시품 가운데는두루티가사망할당시에입었던셔츠도있었다. 셔츠는유리상자속에전시되어있었다. 실탄이관통하면서천을태워생긴구멍을정확히관찰하기위해서사람들이몰려들었다. 그런구멍은 6 백미터떨어진거리에서는생겨날수없는것이라고누군가가말하는소리를들었다. 그날저녁나는법의학기관의전문가들에게셔츠를정밀조사해달라고부탁하였다. 한결같이그들은멀어봤자 10 센티미터정도떨어진거리에서총알이발사되었다고주장하였다.

“며칠뒤나는저녁식사를하기위해프랑스여인인두루티의부인을만났다.
“남편이어떻게해서사망했다고보십니까?”내가그녀에게물었다.
“부인께서는진실을잘알고계시죠.”
“나는…… 나는모든사실을알고있어요.”
“사건이어떻게해서발생했습니까?”

그녀는내눈을똑바로쳐다보면서말했다. “나는죽기전에공식발표를할것입니다. 치안경비대의한경찰이그곳높은창문에서그에게사격을가했습니다.”그녀는목소리를낮추어이렇게덧붙였다. “그러나누가그를살해했는지나는알고있습니다. 그양반의측근중에한명이지요. 그건보복행위였죠.”

하우메미라비트예 2

두루티는 19 세기에시작되었던아나키즘기류속에서호흡하면서살았던사람이었다. 그는스스로를바쿠닌의후계자로여겼기때문에마르크스주의에철저히물든사람에게는적이었다. 뿐만아니라그는프랑코장군의추종자들로부터승리를거두기위하여공화국을도운위대한지성가들가운데한사람이었다.

아라곤전선은그다지시끄럽지않았다. 바르셀로나의아나키스트들은공산주의자들에게대응하자는헛된희망을품었음에도불구하고마드리드투쟁에서유용하게쓰였을엄청난양의자동소총을파병대에게는지급하지않았던것이다. 그들

그것이누구로부터사주를받은것이었는지는명백했다. 바로공산주의자들이그장본인이었다. 당시밤에는극우파의회원증을가지고마드리드거리를활보하는것보다 CNT-FAI 의회원증을주머니에넣고다니는것이더위험했다.

마르티네스프라일레

그라비타언덕에서아나키스트들이패배한지며칠만에두루티가쓰러졌다. 암살당했던것이다. 그는아나키스트들에게적극적으로전쟁에참여할것을독려하면서, 카바예로정부와의협력을지지했기때문에, 아마그자신의대원들이그를살해했을것이라는추측이지배적이었다.

당시많은아나키스트들은자유이념의공화국을스페인에세우는데관심을두었기때문에대부분최전선에나가있었다. 그들은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혹은부르주아지공화주의자들을전혀개의치않았다. 그러나그들은카바예로정권을위해생명을바쳐야겠다고생각하지않았다. 그들의눈에카바예로정부는‘의미가없었다.’

루이스피셔

두루티가너무마음을놓고행동하였기때문에희생된것이틀림없다. 그는오후에대학가전선에도착하였다. 그곳은너무조용했다. 바로그때문에위험한순간이찾아온것이다. 사람들은방심하여겁없이돌아다녔다. 그의승용차가대원들의투쟁전선가까이에멈추어섰다. 그맞은편에는대학부속병원이있었다. 그건물은 6, 7 층정도되는건물이어서사격하기에좋은장소였다. 우리대원들은아래층을점거하고있었던반면에적은위층을점령하고있었다.

감시망이좋은곳에위치한적이아주가까운거리에서자동차가멈추는것을보고는탑승자들이내릴때까지기다렸다. 엄폐물도없이탑승자들이개활지에내려섰을때적은기관총사격을퍼부었다. 두루티는치명상을입었고그를수행한두명의동승자들도중상을입었다.

리카르도산스 3

두루티가쓰러진다음날떠돈소문은, 서너명의대원들이전선에서겁을집어먹고탈영하던중, 두루티가제지하자그들가운데한명이그에게총을쏘았다는것이었다. 그가사망한이마당에서도죽음의원인에대한소문이그런식으로퍼졌기때문에, 용감한투쟁가이고지휘자였던그를잃은우리의슬픔은한층더했다. 그의부대가적들을진지에서물리친것이아니라반대로적이그들을격퇴한꼴이되고말았다. 두루티의죽음으로그의부대는해체될수밖에없었다. 그의부대가마드리드의모든전선에서위협적인존재로알려져있었던것은사실이다.

엔리케리스테르

두루티의 운전병이 사건의 전말을 내게 들려주었다. 그는 나를 마드리드 「노동자연대」 의사무실로 데려갔다. 그것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 서였다. “모든 사실을 내게 말해주게.” 내가 동지 헐리오그라베스에게 부탁했다.

“할 이야기는 그다지 많지 않네. 점심식사 후에 우리는 대학가 전선으로 차를 몰고 갔지. 그때 만사나 동지가 우리를 안내했네. 우리는 쿠아트로 카미노 광장에도착 했지. 나는 이글레아 거리를 돌아 전속력으로 차를 몰았네. 그리고 작은 여관들이 있는 그거리의 끝을 지나 우회전 하였지. 그 구역은 두루티의 부대가 몬클로아 광장과 교도소 장벽 앞 전투에서 패배한 후 새로 정한 진지였네. 그때는 가을 오후의 햇살이 거리에 쏟아져 있던 맑은 날이었어. 우리가 교차로에도착했을 때 한 민병대 그룹과 마주쳤지. 두루티가 그 청년들이 전선을 이탈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던 거야. 그가 내게 차를 세우라고 명령했네.

우리는 적의 사격권 안에 멈추어 섰던 거지. 부속 병원을 점령하고 있던 무어족 부대가 그 광장을 경계 구역으로 맡고 있었네. 나는 아주 조심스럽게 한 여관의 모퉁이에 차를 세웠지. 두루티가 차에서 내려 탈영 병쪽으로 걸어갔지. 그가 그들에게 어디로 가는지를 물었네. 그들은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 했지. 그는 거친 목소리로 그들을 나무라면서 초소로 돌아가라고 욕을 하는 투로 명령했지. 그 민병대원들은 지시에 따라 돌아갔네.

두루티가 다시 자동차 쪽으로 몸을 돌렸지. 그때 갑자기 사격의 불꽃이 격렬하게 튀었지. 적갈색의 수많은 군중들이 바로 우리 맞은 편의 부속 병원에서 모습을 드러냈던 거지. 총알이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들렸네. 두루티가 차문을 막 잡으려는 순간 쓰러졌네. 총알이 가슴을 관통했던 거야. 만사나와 내가 급히 차에서 내려 그를 뒷좌석에 눕혔네.

나는 최대한 빨리 차를 돌려 전속력으로 시내로 되돌아가, 카탈루냐 파병대 병원으로 그를 옮겼지. 그 뒤의 이야기는 이미 자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야. 이게 전부야.”

아리엘

우리는 전적으로 추측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 나는 그저 들어서 알고 있을 뿐이다. 그것은 나와 친분이 있던 사람이 말해 준 것이다. 물론 그는 소식에 정통한 사람이기는 하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은 프랑스 공산당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아우구스트 레쾨르 (Auguste Lecœur) 씨가 공산주의자들이 두루티를 살해했을 것이라고 그의 친구들에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했다는 점뿐이다. 토레스 (Thorez)에 의하면 아우구스트 레쾨르는 스탈린의 문제로 제명되기까지 프랑스 공산당에서 서열제 2 인자였으며, 지금은 반스탈린주의자가 되었다.

가斯顿 레발

바르셀로나 애나키스트들의 성 바르톨로메오 (St. Bartholomeze) 축일의 밤¹.

11 월 23 일 파리에서.

「파리의 메아리 Echo de Paris」 지誌에 의하면, 마드리드에서 저항군의 대명사로 불리었던 카탈루냐 애나키스트지도자 두루티는 볼세비키들이 퍼뜨린 소문처럼 국민군과의 투쟁에서 쓰러진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살해되었다고 한다.

공산주의자들과 애나키스트들은 마드리드 귀족의 저택에서 약탈한 노획물의 배분 문제를 두고 계속 갈등을 일으켰다. 이싸움에서 두루티는 자신이 이끄는 애나키스트들과 함께 바르셀로나로 돌아가 마드리드는 운명에 맡기겠다고 공산주의자들을 협박하였다. 그 날 저녁에 두루티는 자신의 집 앞에서 한 공산당 그룹의 습격을 받고 쓰러졌다고 한다.

바르셀로나 특파의 「파리의 메아리」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카탈루냐 도시의 애나키스트들은 이에 분개하여 공포정치를 시행하였다고 한다. 그들의지도자 두루티가 마드리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소문이 떠돌자 애나키스트들은 일종의 성 바르톨로메오의 밤과 같은 행사를 열었다.

그러나 결국 소름 끼치는 폭력 행사가 애나키스트 연합의지도력에 큰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지도부는 긴급 포고를 통해 피의 테러 행위를 중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인민의 파수대」

스페인 공산당 총비서의 전보

우리는 우리 공동 전선의 동지요 절망적인 노동 계급의 아들이며, 프롤레타리아트의 통일을 사수하기 위해 정열과 열정을 다 쏟았던 동지 두루티의 죽음에 깊은 고통의 애도를 표하는 바입니다. 범죄집단 파시스트 강도들의 탄압이 짚고 풍부한 삶을 희생시켜 우리로부터 그를 앗아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강토를 피로 물들인 파시스트 도당들을 근절할 때까지 마드리드 사수에 하나가 됩니다! 스페인 모든 전선의 통일 투쟁을 위해 투쟁합시다! 우리 영웅을 위하여 복수합시다! 인민의 승리를 위하여!

호세 디아스 (José Díaz)

「노동자연대」

나중에 두루티의 미망인이 — 혹은 CNT의 중앙 위원회였는지 모르겠다 — 두루티의 기념 전시회를 위해서 그가 살해된 그 날 입었던 셔츠를 내게 보내주었다.

¹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학살. 그리스도교 역사상 1572년 8월 24일 (성 바르톨로메오의 축일)부터 10월 까지 있었던 로마 가톨릭 교회 추종자에 의한 개신교 신도들을 학살한 사건을 뜻한다. 편집자주